이 과제는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23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최세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덕(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길은선(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운(홍익대학교 교수)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 1

1. 경북도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 구상의 배경 ····· 1
2. 평가 배경 및 목적 ····· 3
3. 연구 범위 및 대상 ····· 4

제2절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의 주요 내용 ····· 5

1. 추진 배경 ····· 5
2. 주요 내용 ····· 7
3. 정량적 목표 ····· 9

제3절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의 고용 연계성 ····· 11

제4절 연구 개요 ····· 12

**제2장 지역 권역별 일자리의 산업 구조 진단** ····· 14

제1절 분석 계획 ····· 14

제2절 경북 지역의 고용 특징 개관 ····· 15

제3절 경북 4대 권역별 주요 산업 구조 ····· 18

제4절 경북 4대 권역별 일자리 사업 계획의 특성 ····· 24

**제3장 권역별 고용 변화가 큰 산업의 특성과 이슈** ····· 28

제1절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추이 분석 ····· 28

제2절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 요인 분석 ····· 35

제3절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분석 ····· 47

제4절 일자리 증가 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전략의 정합성 평가 ····· 54

**제4장 경북 청년인구 이동 현황 및 특이점 분석** ····· 65

제1절 분석 개요 ····· 65

제2절 경북 지역 청년일자리의 질 개관 ····· 67

1. 임 금 ····· 67
2. 근로시간 ····· 71
3. 근속기간 ····· 77
4. 일을 그만둔 이유 ····· 80

제3절 대졸 청년인구 유출 현황 및 특이점 ····· 81

1. 분석 표본 및 주요 변수 ····· 81
2. 경북지역 대졸 청년의 지역 이동 경향 ····· 83
3. 이탈 청년의 전반적 특징 ····· 93
4. 취업시 고려한 일자리 요소 ····· 99
5. 시사점 ····· 102

제4절 직업계고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이탈에 관한 실태조사 ····· 103

1. 실태조사 개요 ····· 103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06
3. 주요 결과 요약 ····· 149

제5절 정책 시사점 ····· 152

**제5장 경북의 바이오산업 현황 및 고용정책** ····· 155

제1절 경북의 바이오산업 현황 ····· 155

1. 바이오산업 개념 ····· 155
2.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 158
3. 전국사업체조사 ····· 163
4. 기타 바이오산업 인력 특징 ····· 167

제2절 경북의 바이오산업 정책 ····· 170

1. 경북 바이오산업 정책 현황 ····· 170
2. 경북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사업 ····· 171

제3절 바이오산업 사업체 FGI ····· 178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81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84

제1절 권역별 일자리 특성 및 고용변화 분석결과와 정책제언 ····· 185
1. 고용변동폭의 변화 및 변화요인 분석결과와 시사점 ····· 185
2. 일자리 증가 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전략의 정합성 평가결과 ····· 186
3. 권역별 양적 달성 목표 가능성과 정책방향 ····· 192

제2절 경북 청년층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 분석결과와 정책제언 ····· 193
1. 청년 일자리 특성 ····· 193
2. 대졸 청년인구의 유출 특징 ····· 194
3. 직업계고 청년의 지역정착 및 이탈실태 ····· 196
4. 경북 청년(일자리) 정책 제언 ····· 198

제3절 경북 바이오산업의 고용영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199
1. 경북 바이오산업 현황 ····· 199
2. 경북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운영실태와 정책시사점 ····· 200
3. 경북 바이오산업 고용영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203

**참고문헌** ····· 206

**부 록** ····· 207

# 표 목 차

〈표 1- 1〉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 사업의 5년 로드맵 ····· 10

〈표 2- 1〉 경북 4대 권역의 매출액 및 고용 ····· 16
〈표 2- 2〉 경북 북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19
〈표 2- 3〉 경북 남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21
〈표 2- 4〉 경북 동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22
〈표 2- 5〉 경북 서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23
〈표 2- 6〉 경북 생활경제권 일자리사업 5년 로드맵 ····· 25

〈표 3- 1〉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추이 : 전체 산업 ····· 29
〈표 3- 2〉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전체 ····· 30
〈표 3- 3〉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동부권 ····· 31
〈표 3- 4〉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서부권 ····· 32
〈표 3- 5〉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남부권 ····· 33
〈표 3- 6〉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북부권 ····· 34
〈표 3- 7〉 경북 지역의 권역별 사업장 변화 추이 : 전체 산업 ····· 37
〈표 3- 8〉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전체 산업 ····· 38
〈표 3- 9〉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변화폭 분해 : 연평균, 전체 산업 ····· 39
〈표 3-10〉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전체 ····· 42
〈표 3-11〉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동부권 ····· 43
〈표 3-12〉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서부권 ····· 44
〈표 3-13〉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남부권 ····· 45
〈표 3-14〉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북부권 ····· 46
〈표 3-15〉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전체 ····· 49
〈표 3-16〉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동부권 ····· 50
〈표 3-17〉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서부권 ····· 51
〈표 3-18〉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남부권 ····· 52
〈표 3-19〉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북부권 ····· 53
〈표 3-20〉 경북북부 바이오헬스 관련 신산업 ····· 56
〈표 3-21〉 경북남부 금속 · 기계와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상반된 고용 변화 ·· 58
〈표 3-22〉 경북동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의 고용 변화 ···· 60
〈표 3-23〉 경북서부 고용증가 산업과 전자 제조업의 고용 변화 ····· 63

〈표 4- 1〉 고용형태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20-59세 ····· 75
〈표 4- 2〉 고용형태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25-34세 ····· 75
〈표 4- 3〉 25-34세 상용직 근로자 교육수준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76
〈표 4- 4〉 35-44세 상용직 근로자 교육수준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77
〈표 4- 5〉 상용근로자 근속기간(개월) : 20-59세 ····· 78
〈표 4- 6〉 상용근로자 근속기간(개월) : 25-34세 ····· 78
〈표 4- 7〉 상용근로자 근속기간(개월) : 35-44세 ····· 79
〈표 4- 8〉 지역별 청년근로자(25-34세)의 이전 일자리 그만둔 이유 ····· 80
〈표 4- 9〉 지역별 청년근로자(25-34세)의 이전 일자리 그만둔 이유 : 유사 선택지 취합 결과 ····· 81
〈표 4-10〉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82
〈표 4-11〉 연도-시도별 첫 일자리 이동자 비중 ····· 84
〈표 4-12〉 졸업대학 소재지별 · 학제별 지역이동 청년 비중 비교 : 연도 통합 ····· 87
〈표 4-13〉 졸업대학 소재지별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이동 비율 ····· 87

〈표 4-14〉 졸업대학 소재지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이동 비율 ····· 88
〈표 4-15〉 졸업대학 소재지 및 전공계열별 지역이동 비중 ····· 89
〈표 4-16〉 졸업대학 소재지별 남성 이동자(첫 일자리 기준) 비중 ····· 90
〈표 4-17〉 졸업대학 소재지별 여성 이동자(첫 일자리 기준) 비중 ····· 91
〈표 4-18〉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시 권역 이동 비율 ····· 92
〈표 4-19〉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시 권역 이동 비율 : 남성 ····· 92
〈표 4-20〉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시 권역 이동 비율 : 여성 ····· 92
〈표 4-21〉 첫 일자리 중심으로 대학소재지(경북)로부터 이동한
청년 인적 특성 비교 ····· 94
〈표 4-22〉 첫 일자리 중심으로 대학소재지(경북)로부터 이동한
청년 첫 일자리 특성 비교 ····· 94
〈표 4-23〉 경북 청년의 첫 일자리 산업분포 비교 ····· 95
〈표 4-24〉 경북 청년 첫 일자리 이동 지역 분포 ····· 96
〈표 4-25〉 경북소재 대졸청년 지역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 98
〈표 4-26〉 경북 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1순위) :
전국 및 부울경 지역 비교 ····· 100
〈표 4-27〉 경북 비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 :
전국 및 부울경 지역 비교 ····· 101
〈표 4-28〉 경북 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남성) :
전국 및 부울경 지역 비교 ····· 102
〈표 4-29〉 근로지역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 104
〈표 4-30〉 조사 내용 구성 ····· 105
〈표 4-31〉 응답자 성별, 연령대, 현재 활동, 거주지, 졸업고교 계열 ····· 108
〈표 4-32〉 고교시절 가정 특성 ····· 109
〈표 4-33〉 경제활동참가 현황 ····· 110
〈표 4-34〉 고교 재학 시 교육・훈련 참여 경험률 ····· 111
〈표 4-35〉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 상황 ····· 112
〈표 4-36〉 입학한 대학의 유형 ····· 113
〈표 4-37〉 대학 진학생과 非진학생의 대학 진학 이유 비교 ····· 114
〈표 4-38〉 대학 입학 및 입학 희망 이유 ····· 115
〈표 4-39〉 대학 非진학생의 진학 고민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중복응답) ··· 116

〈표 4-40〉 현재 일자리의 지역 ····· 117
〈표 4-41〉 현 직장의 주당 근로시간 ····· 118
〈표 4-42〉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세후소득 기준) ····· 119
〈표 4-43〉 현재 직장의 총 직원수 ····· 120
〈표 4-44〉 현 직장 평가 종합 ····· 121
〈표 4-45〉 현 경북도 내 거주자의 구직 희망 지역 ····· 124
〈표 4-46〉 현 경북 외 지역 거주자의 구직 희망 지역 ····· 124
〈표 4-47〉 구직 중 어려웠던 점 : 5점 평균(점) 기준 ····· 126
〈표 4-48〉 구직 중 어려웠던 점 : 심각성 동의(④+⑤) 비율 기준 ····· 127
〈표 4-49〉 현 직장 이전/직전 일자리의 고용형태 ····· 128
〈표 4-50〉 직전/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중복응답) ····· 129
〈표 4-51〉 희망하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130
〈표 4-52〉 희망하는 최소 임금 수준 ····· 131
〈표 4-53〉 장기근속을 위한 영향요인별 중요도 ····· 133
〈표 4-54〉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이유(중복응답) ····· 135
〈표 4-55〉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 이동하여 구직활동시 일자리관련 고려사항(중복응답) ····· 136
〈표 4-56〉 고교 졸업 후 타지역 이동하여 구직활동시 거주환경관련 고려사항(중복응답) ····· 138
〈표 4-57〉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동일지역 거주 이유(중복응답) ··· 139
〈표 4-58〉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구직활동시 일자리관련 주요 고려사항(중복응답) ····· 140
〈표 4-59〉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구직활동시 지역 전반적 환경관련 고려사항(중복응답) ····· 140
〈표 4-60〉 청년들의 경북도 내 정착위한 영향요인별 개선 필요성 종합 ·· 142
〈표 4-61〉 현재 경북도 내 거주자 기준 도내 정착위한 영향요인별 개선 필요성 ····· 143
〈표 4-62〉 현재 경북外 거주자 기준 경북도 내 정착위한 영향요인별 개선 필요성 ····· 143
〈표 4-63〉 경북도 내 정착을 위한 정부추진 정책·사업 필요성 종합 ····· 145
〈표 4-64〉 지역 정착위한 경북 정책 · 사업 필요성과 참여의향 종합 ····· 147

〈표 4-65〉 경북도 내 정착위한 정부추진 정책·사업 추진시 참여의향 종합 … 147

〈표 5- 1〉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 156
〈표 5-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 158
〈표 5- 3〉 바이오산업 투자 현황 : 2021년 기준 ····· 161
〈표 5- 4〉 바이오산업 종사자 수 추이 ····· 161
〈표 5- 5〉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 추이 ····· 163
〈표 5- 6〉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조직 형태 : 2021년 기준 ····· 164
〈표 5- 7〉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 2021년 기준 ····· 165
〈표 5- 8〉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 166

# 그림목차

[그림 2- 1] 경북 4대 권역의 산업소분류별 매출 및 고용 분포 ····· 17
[그림 2- 2] 경북 4대 권역별 고용의 장기 추세 ····· 18

[그림 3- 1] 경북북부 비거주복지시설(872) 산업의 고용 및 생산 추이 ····· 54
[그림 3- 2] 경북남부 자동차부품제조업(303)의 고용 및 생산 추이 ····· 57
[그림 3- 3] 경북동부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82)의 고용 및 생산 추이 ····· 59
[그림 3- 4] 경북서부 전자부품제조업(262)의 고용 및 생산 추이 ····· 61
[그림 3- 5] 경북서부 영상 및 음향기기제조업(265)의 고용 및 생산 추이 ··· 62
[그림 3- 6] 경북서부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의 고용 및 생산 추이 ···· 64

[그림 4- 1]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67
[그림 4- 2]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고졸 ····· 68
[그림 4- 3]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전문대졸 ····· 68
[그림 4- 4]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대졸 이상 ····· 69
[그림 4- 5] 지역별 청년(25-34세)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고졸 ···· 69
[그림 4- 6] 지역별 청년(25-34세)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전문대졸 ····· 70
[그림 4- 7] 지역별 청년(25-34세)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대졸 이상 ····· 70
[그림 4- 8] 지역별 평균 주업 근로시간 : 20-59세 ····· 72
[그림 4- 9] 지역별 평균 주업 근로시간 : 청년 25-34세 ····· 72
[그림 4-10] 지역별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 73
[그림 4-11] 지역별 고졸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 73
[그림 4-12] 지역별 전문대졸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 74
[그림 4-13] 지역별 대졸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 74
[그림 4-14] 졸업대학 소재지별 첫 일자리 지역 이동자 비율 ····· 84
[그림 4-15] 졸업 대학 소재지로부터 첫 일자리 이동 비중 경북 vs

전국 시계열 변화 ····· 85
[그림 4-16] 연도별 대학 소재지로부터 현 일자리 이동 비중
경북 vs 전국 ····· 85
[그림 4-17] 경북 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 지역 비교 ····· 101

[그림 5- 1]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 ····· 159
[그림 5- 2] 바이오산업 산업분류별 사업체 비중 : 2021년 기준 ····· 159
[그림 5- 3] 경북 바이오산업 판매액 추이 및 전국 대비 비중 변화 ····· 160
[그림 5- 4] 바이오산업 종사자 학력별 비중 ····· 162
[그림 5- 5] 바이오산업 종사자 직군별 비중 ····· 162
[그림 5- 6]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 구조도 ····· 173
[그림 5- 7]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 173

# 요 약

□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경상북도는 2022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권역과 주요 인구집단별 정책 로드맵인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을 수립하였음.

- 경북형 생활경제권 중심의 일자리 전략은 주요 권역(4개)별 목표에 따른 세부 사업(총 16개)으로 구성된 약 5,000억원 규모가 직접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으로 5년 동안 총 30,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계획임.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산업 및 일자리위기 ⇒ 청년 유출과 저출산 ⇒ 지역소멸 위기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자산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
- 지역의 주요 권역별로 집적된 업종 기반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중요한 고용 이슈가 다르므로, 권역별 전략을 수립함.
- 전략에 포함된 정책 내용은 지역 전체-모든 업종에 대한 전체적 일자리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권역별 주요 일자리 및 산업 이슈에 대응하는 다수의 소규모 일자리 사업들로 구성하고 있음. 아래의 표는 각 권역별 주요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음.

| 권역 | 주요 이슈 | 사업 내용 |
|---|---|---|
| 전지역 공통 | -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 전직<br>- 청년 인구 유출 및 고령화<br>- 경력단절 여성 문제 | |
| 북부권 | - 고령화 및 인구소멸 위험이 매우 높음<br>- 최근 바이오산업 육성 시작 | - 농식품 · 바이오산업 연계 우수 향토기업 지원(10.0)<br>- 산 · 연 협력 R&D 일자리 지원사업(10.0)<br>-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마을협동조합 창업지원(2.0)<br>-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일자리창출 "지역 워킹홀리데이"(2.0) |
| 남부권 | - 자동차 부품산업 규모 및 기반 유지, 성장 도모 | 상생형 지역일자리 프로젝트 (자동차부품산업 대전환)(0.0)<br>미래자동차 R&D인력 및 업종전환 지원(3.0)<br>청년-강소기업 일자리 매칭 및 강소기업 알리기(4.0)<br>경상북도 중견기업-우수인재 인턴십(채용형) 프로젝트(5.0) |
| 동부권 | - 철강산업 고용감소<br>- 제조업 기반 다변화 추진 | 이차전지 및 배터리산업 R&D 전문인력 양성(8.0)<br>퇴직(예정) 근로자 이· 전직 지원(3.0) |
| 서부권 | - 전자산업의 주요 기업 이탈로 인한 일자리 위기 | 고용위기 근로자 전직 지원(25.0)<br>산업위기 업종전환 지원(45.0)<br>업종 고도화기업 성장지원 일자리(45.0) |

○ 본 고용영향평가는 로드맵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즉 목표한 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 만약 어렵다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야 목표 일자리 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전략의 '일자리 창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대신 수립된 일자리 전략의 일자리 창출 역량 및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목표 일자리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였음.

□ 평가 방법

○ 고용의 양

-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은 권역별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창출 목표 일자리의 양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동시에 주목하며 청년인구 유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현황과 추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업종별 일자리 특성, 변화 및 이동 추세를 분석하여 권역별 주요 업종에 대해 수립한 일자리 전략과 목표 일자리 수가 달성될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함.
- 또한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에서 주목하는 청년층 이탈 문제에 관하여 기존 대졸자 관련 통계자료와 고졸층 실태조사를 통해 이탈 현황, 특징에 대하여 분석함.

○ 고용의 질

- 고용의 양 분석 시 사용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권역 및 업종별로 생성, 소멸되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되는 특성을 임금 수준, 고용 인원의 인구학적 특징을 위주로 파악함.
- 또한 청년층 데이터를 통해 경북지역 청년 일자리의 질에 대해 파악함. 대졸자 집단에 대해서는 기존 축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고졸 청년의 경우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부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함.

□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 전략의 일자리 창출 경로

- 경북형 일자리 사업의 세부 사업을 구분해보면, 권역별로 집중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고용취약계층(고용위기, 청년 고용촉진 사업, 근로자, 퇴직예정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재고용 촉진의 유형을 포함함.

- 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신규 기업을 유치, 기존 기업이탈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기존 기업의 신규채용 증가, 소실/유출될 일자리 유지, 신규 일자리 유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전문인력 양성사업, 고용취약계층, 청년고용 촉진 사업은 구직자에게 수요가 높은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낮춰 빈일자리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 고용의 양

- 기업통계등록부와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4개 권역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이 제시한 목표 일자리 수의 정합성을 평가한 결과, 대체로 현재 전략을 수정 없이 추진할 시 대체로 목표로 설정한 일자리 수를 완전히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함.
- (북부) 일자리의 순증가 추이만 고려할 때, 빠르게 성장하는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목표 일자리 수에 가까이는 도달할 수 있음.
- (남부) 현재의 전략 방향(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대로라면 양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동부) 일자리가 다양한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양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차전지산업 내에서 8,400명의 증가를 모두 이끌어낼 수는 없어 보임.
- (서부) 전자산업 내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소분류 산업과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소분류 산업이 혼재된 구조로 일자리 순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청년) 대졸자 이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낮게 나타나야 하는 집단인 직업계고 졸업 청년층, 특히 여성 청년층의 타지역 취업이 두드러짐. 지역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낮고, 고졸 청년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미스매치가 발생함.

○ 고용의 질

- 전반적으로 지역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복지관련 일자리(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등)들이 경북도 전반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리들의 질은 낮은편 (저임금)
- 신산업 육성이나 기존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신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 수정이 요구됨
- 청년 일자리 질은 전국 대비 나쁜 편으로 특히 근로시간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실태조사 결과, 질적으로도 일자리의 희망조건에 맞는 일자리 구직이 어렵고, 임금 외 조건(조직 문화, 근로방식 등 관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질이 체감상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주요 정책제언

○ 경북형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의 목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 전략의 수정이나 고도화 추진이 필요함. 각 권역, 대상별 수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북부) 자연 추세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로, 지역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층 유입의 선순환을 위해서 바이오헬스 밸류체인을 육성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이오헬스 관련 제조업 및 서비

스업 일자리는 그 수가 적지만 증가가 관찰되고 있고,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생태계 맞춤형 R&D 지원, 산학연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 지원책 및 근로환경 개선책 도입, 전문인력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인력양성 체계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남부) 자동차 부품업은 고용변동성이 커 안정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외 대안적인 산업을 추가로 발굴,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의 안정적인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동부) 이차전지산업 육성만으로는 목표 일자리 창출은 장기 추세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어려울 수 있어 연구개발, 철강, 이차전지 소재, 이차전지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체로 일자리사업 대상을 확장하고 신규기업 유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부) 기존에 기반을 갖춘 다른 주요 업종(예- 화학제조업과 운송 서비스)을 동시에 육성하여 복수의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전자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전략을 수정할 필요
- (청년) 일자리의 다양한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요자(기업)에 대한 접근: 비임금적 조건 개선 (조직문화 컨설팅, 일자리 환경 직접 개선, 기업 문화 개선, 직무능력 향상과 연계된 임금 체계 점검 등)
  - 공급자(청년)에 대한 접근 : 직업계고 졸업생의 졸업 이후 지역 일자리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자격증 준비 및 취득 지원 (훈련/교육 제공, 전문대학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 금전적 지

원 등)

- 지역 노동시장과 미스매치 높은 집단(예-여성, 정보/상업계 고교 졸업자)의 전직을 위한 훈련/교육 지원, 직종 및 일자리 발굴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 1. 경북도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 구상의 배경

□ 경북지역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이지만, 지역 주요 기업과 청년 인구의 이탈 및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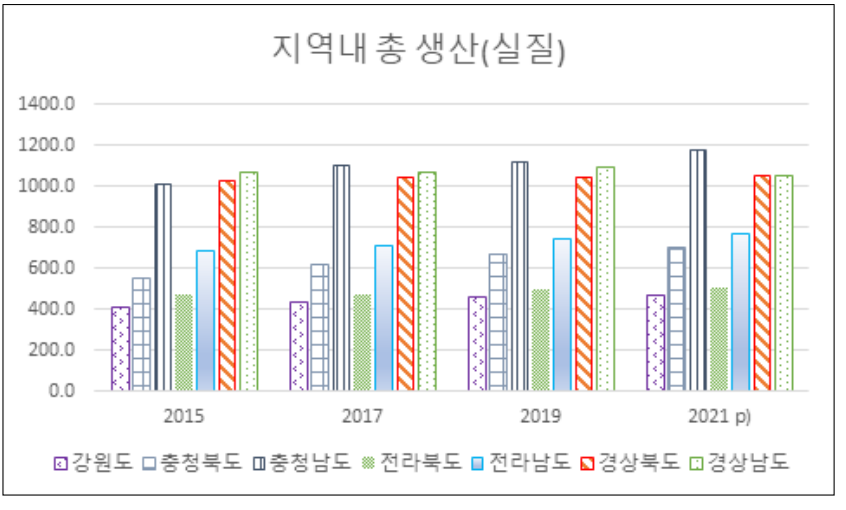
□ 특히, 경북은 도 지역 중 제조업 생산액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 이후 충남과 역전된 후, 충남은 지속 성장, 경북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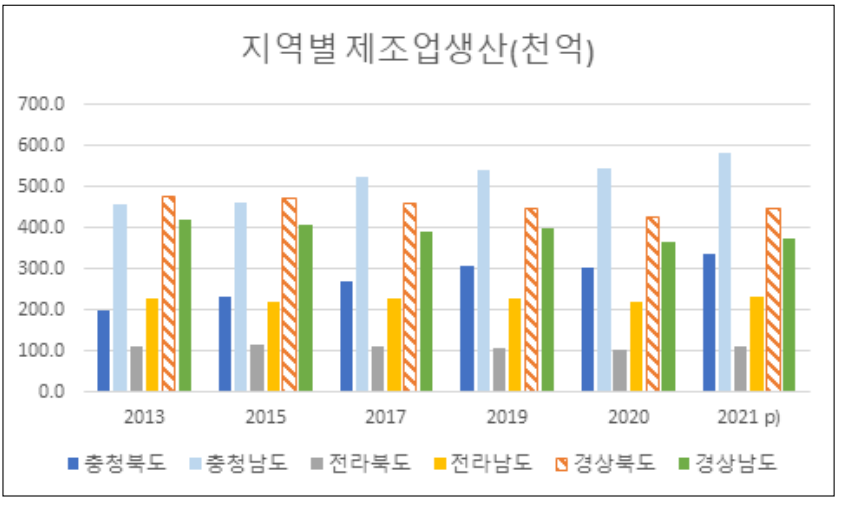
○ 주요 대기업 생산기지의 지역 이탈 등과 맞물려 지역 제조업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제조업의 생산액 감소가 최근 급격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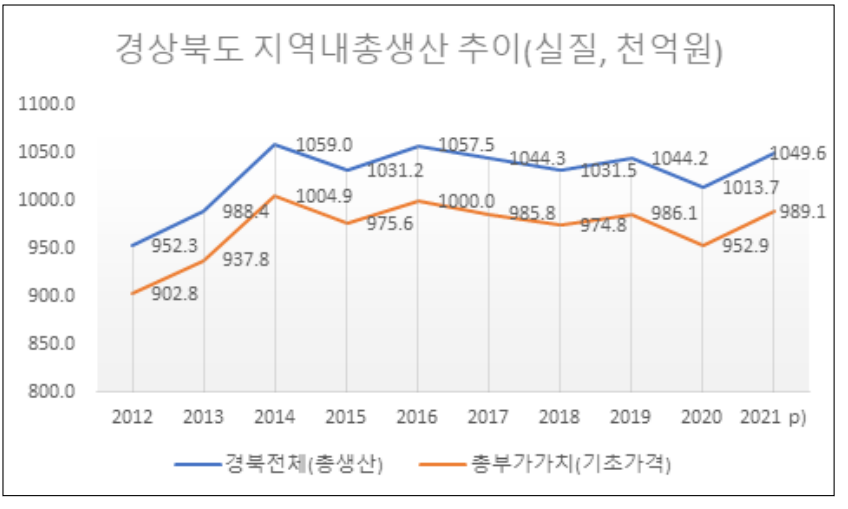
□ 또한 지역의 총생산은 2014년 최고점 이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지역 GDP보다 제조업 생산액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급격화되

어, 지역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전체 인구 중 핵심 생산연령인구, 특히 청년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세부 연령대별로, 저연령층일수록 이탈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즉, 청년인구 이탈 및 전반적인 저출산 - 고령화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 일자리 및 인구 위기 상황에서 경북도는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 경제 인프라(특히, 제조업 기반)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구 이탈세 완화와 반등을 목표로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을 발표하였음.

## 2. 평가 배경 및 목적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경북도의 생활경제권 일자리 전략'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권역-업종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목표의 달성가능성, 정합성, 목표달성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지역 경제-일자리 구조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우선적인 연구목적으로 설정함.

-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경제 전체의 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것에 더해, 관심 업종/권역에 대해서는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언 도출이 목표

○ 또한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지역의 일자리/고용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지역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에 관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에 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함.

## 3. 연구 범위 및 대상

□ 연구 범위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시적 평가와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에 포함된 주요 과제 중 두 가지 과제에 대해 미시단위의 별도의 분석을 수행함.

- 청년인구 이탈 및 인구 고령화 이슈에 대한 현황 및 특이점 분석
- 북부지역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이슈 분석

□ 연구 대상

○ 경북도 전체 사업체 및 일자리

- 본 고용영향평가는 경북지역 전체의 경제전략인 '경북형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전략은 전체적인 비전 및 목표와 해당 비전과 관련되는 다방면의 소규모 일자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사업을 평가하거나 전체적인 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는 과제임.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에 포함된 사업들의 경우 내용, 대상, 전달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한데 반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그 수가 많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평가하기보다는 일자리 전략의 방향과 목표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함.
- 따라서 평가의 대상을 전체 사업체 및 일자리로 한정

○ 추가적인 상세 이슈 분석의 경우 각 이슈에 관련된 구체적인 집단에 대해 분석함.

- 경북지역 대학 및 직업계고 졸업생 (제4장)
- 경북 북부지역 바이오산업 사업체 (제5장)

## 제2절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의 주요 내용

### 1. 추진 배경

□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위기가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현상은 모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산업전략을 구상하고 추진 중

□ 경북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기반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도내의 각 권역별로 특정 업종의 기반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면서 지역이 직면한 구체적인 노동수요(일자리)-공급 이슈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였음.

□ 따라서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산업 및 일자리위기 ⇒ 청년유출과 저출산 ⇒ 지역소멸 위기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자산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시작됨.

○ 지역의 주요 권역별로 집적된 업종 기반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중요한 고용 이슈가 다르므로,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게 됨.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의 주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지임.

□ 경북 지역 권역별 특성 및 주요 이슈

○ 주요 업종별 집적 수준을 기준으로 크게 북부, 남부, 동부, 서부권으로 구분함.

- 북부권 : 문경, 봉화, 안동,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 남부권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 동부권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서부권 : 구미, 군위, 김천, 상주, 칠곡

○ 북부권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통적으로는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대규모 농장보다는 노령인구가 경작하는 소규모, 영세 농민 위주의 농촌 지역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함.
-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사업체들이 있으나, 이들도 대체로 영세함.
-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KTX의 개통으로 향후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아직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음.

- 최근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 백신 분야를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생산기지(SK바이오사이언스)를 유치하였고, 올해는 안동시가 바이오생명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
- 신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남부권
-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가 밀집하여 있고, 자동차 부품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도 밀집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
-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이 재편되고 있어, 경쟁력 유지와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동부권
- 포항 중심의 철강산업과 소재분야, 이차전지(배터리)와 관련된 업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임.
- 철강산업은 고용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이탈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지역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분야 및 이차전지 분야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서부권
- 구미 중심의 전자산업 일자리 생태계가 최근 대기업(삼성, LG) 이전 및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임.
- 청년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었으나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

## 2. 주요 내용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실제로는 5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임.

○ 이 중 국비가 3,500억원, 도 및 시군구비가 1,500억원으로 구성된 매칭

펀드로 추진됨.

○ 지역 전체-모든 업종에 대한 전체적 일자리 사업으로는 거의 추진되지 않고, 권역별 주요 일자리 및 산업 이슈에 대응하는 다수의 소규모 일자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경북도 발표 자료 기준으로, 권역별 주요 이슈 및 비전은 아래의 표와 같이 4개 권역의 주요 산업과 경북도 전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권역 | 주요 이슈 | 사업 비전 |
|---|---|---|
| 경북 전역 | - 고령화로 인한 돌봄/복지영역 일자리 수요증가<br>- 경력단절 여성 문제 심각 등 | 포용적 일자리 창출 |
| 북부권 | - 고령화 및 인구소멸 위험이 매우 높음<br>- 최근 바이오산업 육성 시작 | 인구소멸위기 극복 |
| 남부권 | - 자동차 부품산업 규모 및 기반 유지, 성장 도모 |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 유지 및 청년인구 유지 |
| 동부권 | - 철강산업 고용감소<br>- 제조업 기반 다변화 추진 | 신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 |
| 서부권 | - 전자산업의 주요 기업 이탈로 인한 일자리 위기 | 산업위기 극복 |

□ 각 권역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권역 | 사업명 (예산규모, 억원) | 대상 및 주요 내용 |
|---|---|---|
| 북부 | 농식품 · 바이오 산업 연계 우수 향토기업 지원(10.0) | - 목표 : 식품가공 향토기업 성장, 유지를 통한 지역 생활경제권 유지 및 활성화<br>- 대상 : 북부 농식품 가공 향토기업<br>- 기업당 3,000만원 이내 규모에서 신규채용 인건비 및 제품 개발 재료비 지원 |
| | 산 · 연 협력 R&D 일자리 지원사업(10.0) | - 목표 : 지역 인적자원 이탈 방지 및 6차산업/식품바이오 산업 R&D인력 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br>- 대상 : 경북지역 관련 기업체 취업한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미취업자<br>- 연구인력 인건비 및 개발재료비, 학위 취득비용 지원 |
| |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마을협동조합 창업지원(2.0) | - 목표 : 인구소멸 위험지역 농가 공동체 협업형 생산모델 개발 및 활성화<br>- 대상 : 지역 농민(중장년) 20개 내외 팀 |
| |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일자리창출 "지역 워킹홀리데이"(2.0) | - 목표 : 관광분야 청년 유입 및 취창업 장려<br>- 대상 : 경북북부 관광 또는 취업희망자<br>- 내용 : 고용서비스 및 이/전직 희망자 컨설팅(관광분야), 초기 이직비용 지원 |

| 권역 | 사업명 (예산규모, 억원) | 대상 및 주요 내용 |
|---|---|---|
| 남부 | 상생형 지역일자리 프로젝트 (자동차부품산업 대전환)(0.0) | -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사업 선정을 목표로 함 |
| | 미래자동차 R&D인력 및 업종전환 지원(3.0) | - 지역 2차 이하 부품업체 미래차 역량 강화를 위한 R&D 인력 등 지원<br>- 대상 : 자동차 부품기업 및 취업희망자<br>- 전기차 해체쇼, 설명회, 상설전시장 운영<br>- R&D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 등 |
| | 청년-강소기업 일자리 매칭 및 강소기업 알리기(4.0) | - 지역 청년 이탈 완화 및 지역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강소기업 단기인턴십 및 취업 지원 |
| | 경상북도 중견기업-우수인재 인턴십(채용형) 프로젝트(5.0) | - 청년인재 지역 이탈 방지를 목표로 중견기업-우수인재 인턴십, 기업-대학 MOU체결 등을 추진 |
| 동부 | 이차전지 및 배터리산업 R&D 전문인력 양성(8.0) | - 지역 40개 기업 대상 배터리산업 초대졸 R&D 인력 채용 지원(인재 모집, 고용알선, 교육) |
| | 퇴직(예정) 근로자 이전직 지원 (3.0) | - 철강산업 고용 감소에 따른 퇴직(예정자) 이전직 지원 (고용서비스) |
| 서부 | 고용위기 근로자 전직 지원(25.0) | - 대기업 유출의 영향으로 대량 해고, 기업이전으로 인한 실직자 전직 지원 |
| | 산업위기 업종전환 지원(45.0) | - 전자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숙련 퇴직인력의 재취업 유도 및 지원(30개사, 5명이상 채용시 지원) |
| | 업종 고도화기업 성장지원 일자리 (45.0) | - 전자산업 기술 고도화 기업에 대해 퇴직 고숙련 기술인력 지원(고숙련 퇴직인력의 컨설팅 및 교육재료비 지원) |
| 포용적 일자리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일자리창출 사업(3.0) | - 취업취약계층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300명 규모) |
| |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16.0) | - 중년인구 채용 도내 기업 인건비 지원(144명 규모) |
| | 신중년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16.0) | - 중년인구 채용 도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405명 규모) |
| |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5.0) | - 경력단절여성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3. 정량적 목표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5년 계획으로 각 권역별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1-1〉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 사업의 5년 로드맵

| | 도입 · 정착기 (2022~2023년) | 성장 · 성숙기 (2024~2025년) | 재도약기 (2026년) | 5년뒤 |
|---|---|---|---|---|
| 북부권 | ▸ 향토기업 160개사 DB구축 → 10개사 지원<br>▸ 청년 유입 184명 | ▸ 향토기업 200개사 DB구축 → 16개사 지원<br>▸ R&D 청년 유입 212명 | ▸ 향토기업 130개사 DB구축 → 10개사 지원<br>▸ R&D 청년 유입 110명 | 인구소멸 '위험'단계로 하향 |
| | 일자리 창출 : 1,000명 | 일자리 창출 : 1,000명 | 일자리창출 : 1,000명 | 일자리창출 : 3,000명 |
| 남부권 | ▸ 자동차 부품 유지군+ 감소군 기업 43% → 45%로 확대<br>▸ 청년 순유출 - 4,000명 | ▸ 자동차 부품 유지군+ 감소군 기업 45%→ 48%로 확대<br>▸ 청년 순유출 - 3,900명<br>▸ 상생형 일자리 실행 | ▸ 자동차 부품 유지군+ 감소군 기업 48% → 50%로 확대<br>▸ 청년 순유출 - 3,800명 | 미래차에 대응 가능한 노사상생 관계 정립 |
| | 일자리창출 : 1,000명 | 일자리 창출 : 1,800명 | 일자리 창출 : 3,000명 | 일자리 창출 : 5,800명 |
| 동부권 | ▸ 재해방지 선도기업 60개사<br>▸ 이차전지 R&D 인재양성 80명<br>▸ 청년 유입 240명 | ▸ 재해방지 선도기업 70개사<br>▸ 이차전지 R&D 인재양성 90명<br>▸ 청년 유입 240명 | ▸ 재해방지 선도기업 40개사<br>▸ 이차전지 R&D 인재양성 50명<br>▸ 청년 유입 120명 | 이차전지 산업 선도 청년유입 사각지대 해소 |
|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8,400명 |
| 서부권 | ▸ 전자산업 종사자 비중 13% → 14%로 확대<br>▸ 퇴직기술인력 활용 지원 120개사 | ▸ 전자산업 종사자 비중 14% → 15%로 확대<br>▸ 퇴직기술인력 활용 지원 130개사 | ▸ 전자산업 종사자 비중 15% → 16%로 확대<br>▸ 퇴직기술인력 활용 지원 70개사 | 전자산업 스마트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 (고선패 연계) |
|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2,200명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7,800명 |
| 경상북도 | ▸ 취약계층 일자리 : 800명<br>▸ 시니어 사회활동 : 440명 | ▸ 취약계층 일자리 : 840명<br>▸ 시니어 사회활동 : 440명 | ▸ 취약계층 일자리 : 450명<br>▸ 시니어 사회활동 : 220명 | 경제활동인구 63% → 65%로 증가 |
| | 일자리 창출 : 1,400명 | 일자리 창출 : 1,800명 | 일자리 창출 : 1,800명 | 일자리 창출 : 5,000명 |

## 제3절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의 고용 연계성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의 일자리 전략은 주요 권역(4개)별 목표에 따른 세부 사업(총 16개)으로 구성된 총 약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임.

○ 즉, 일자리 창출(소멸 위험 일자리 유지 포함)을 위해 직접 비용 투입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임.

○ 다만 각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유발 기제가 다르고, 타깃 업종이나 직종, 일자리 유형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개별 사업의 고용연계성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예 :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이차전지와 배터리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퇴직근로자 이/전직 지원 사업 등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

○ 경북형 일자리 사업의 세부 사업을 구분해보면, 크게는 기업지원 사업, 전문인력 양성, 고용취약계층(고용위기, 청년 고용촉진 사업, 근로자, 퇴직예정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유형으로 사업을 분류할 수 있음.

○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기업을 유치, 이탈을 방지하여, 기존 기업의 신규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거나, 유출될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전문인력 양성사업, 고용취약계층, 청년고용촉진 사업은 구직자에게 지역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교육/훈련/현장체험 등)하고,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구직자 간 미스매치(숙련수준, 선호 일자리 특성 등)를 낮춰주어 충족되지 못한 일자리(빈일자리)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혹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잠재적으로 지역 노동력의 구조적 변화(예 : 숙련, 연령대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론적으론.....) 외부 기업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순 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명확한 상황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음.

○ 목표 일자리 규모가 달성가능한 규모인지, 제약 요소나 기회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제4절 연구 개요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경북도 생활경제권 일자리 전략의 고용창출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합성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거시적 진단'을 수행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효과(수요 증가)와 고용이행 원활화(수요에 적합한 공급 증가)와 관련된 이슈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거시적 진단 → 사업계획의 정합성 진단 → 주요 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원활화의 제약 요소 및 이슈 파악 → 상세 분석 → 정책제언 도출

□ 연구 범위

○ 거시적 진단
- 경북도 전 산업 및 주요 산업과 사업체

○ 북부지역 관련 과제 분석
- 북부지역 농식품 및 바이오 산업 일자리 현황 및 과제

□ 연구는 첫째, 경북지역 생활경제권 일자리 전략을 산업적, 거시적 관점에서 정합성과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둘째, 일자리 전략의 주요 목표인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현황과 특

이점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향후 필요한 전략이나 현재 전략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앞으로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 바이오산업의 관련자 면담을 통한 북부권 추진 전략의 타당성과 향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경북도 생활경제권 일자리 전략의 정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요약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거시적(계획 관점에서) 제언과 상세 분석 대상 이슈(청년이탈 문제, 북부권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 · 제안함.

# 제2장 지역 권역별 일자리의 산업 구조 진단

## 제1절 분석 계획

□ 분석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경북 지역의 권역별, 산업별 생산과 고용 변화를 개관

- 기업통계등록부는 통계청에서 기업집단, 기업 및 사업체를 전수집계하여 관리하는 명부(census)를 기준으로, 사업체등록번호가 존재하는 전국의 860만여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생산 변수인 매출액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업소득신고, 부가가치세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고용 변수인 종사자 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의 소득지급명세서로 파악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매년 말일(12월 31일) 기준 임금 종사자를 중심으로 전국사업체조사 등의 조사자료로 보완하여 작성
- 2020년 기준 산업 · 지역 조합 총 958개의 항목 중에서, 관측치 부족으로 인한 마스킹 케이스는 경북북부 29개, 경북남부 24개, 경북동부 29개, 경북서부 21개로 나타남.
- 경북지역의 누락 사업장은 총 200개 이하로, 관측된 사업장의 수 약 40만 개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분석 대상

○ 고용이 하락하는 권역과 산업과 고용이 상승하는 권역의 산업을 분류
- 분석대상은 경북지역 4대 권역이며, 산업 소분류(3자리)를 기준으로 산업 및 고용 구조를 확인
- 경북 북부권 : 문경, 봉화, 안동,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 경북 남부권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 경북 동부권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경북 서부권 : 구미, 군위, 김천, 상주, 칠곡
- 기업통계등록부의 지역은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이며, 노동자들의 거주지 주소는 분석 불가능한 사업체 자료임.

## 제2절 경북 지역의 고용 특징 개관

□ 2020년 기준, 경북 4대 권역의 생산 및 고용

○ 경북 4대 권역 중 동부와 서부의 규모가 비슷하고, 그 뒤를 이어 남부 및 북부의 순서로 존재
- 경북 서부는 고용이 29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체의 수는 약 12만 개, 매출액은 113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경북 동부는 고용이 28.5만명에 사업체 수 13만여 개로 서부와 규모가 비슷하지만 매출액은 94조원으로 약간 적음.
- 경북 남부의 경우 고용 18만 명에 사업체 수 7만 7천개이며 매출액은 49조원으로 서부나 동부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편이고, 경북 북부는 남부와 비슷하게 7만 7천개 사업체가 존재하지만 매출액은 36조원이며 고용은 14만여 명으로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권역임.

〈표 2-1〉 경북 4대 권역의 매출액 및 고용

| | 사업체 수(개) | 매출액(억 원) | 고용(명) |
|---|---|---|---|
| 경북북부 | 77,068 | 358,226 | 138,530 |
| 경북남부 | 77,152 | 492,204 | 184,618 |
| 경북동부 | 126,777 | 944,498 | 285,481 |
| 경북서부 | 120,455 | 1,127,119 | 289,651 |
| 합계 | 401,452 | 2,922,047 | 898,2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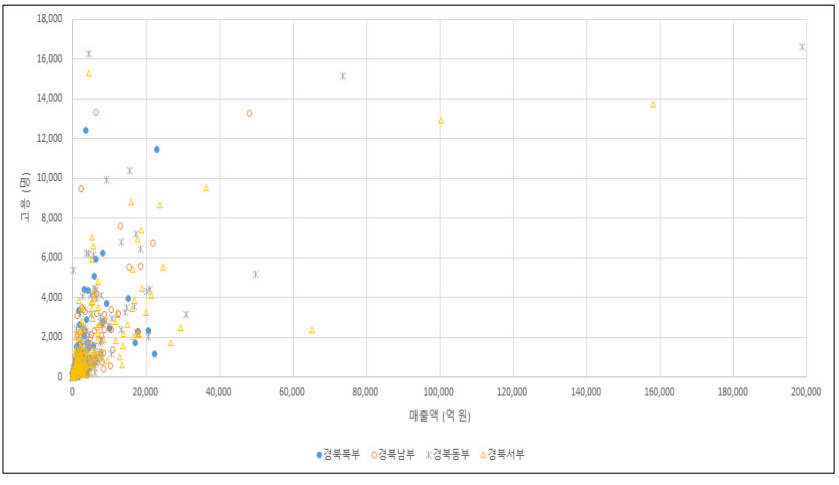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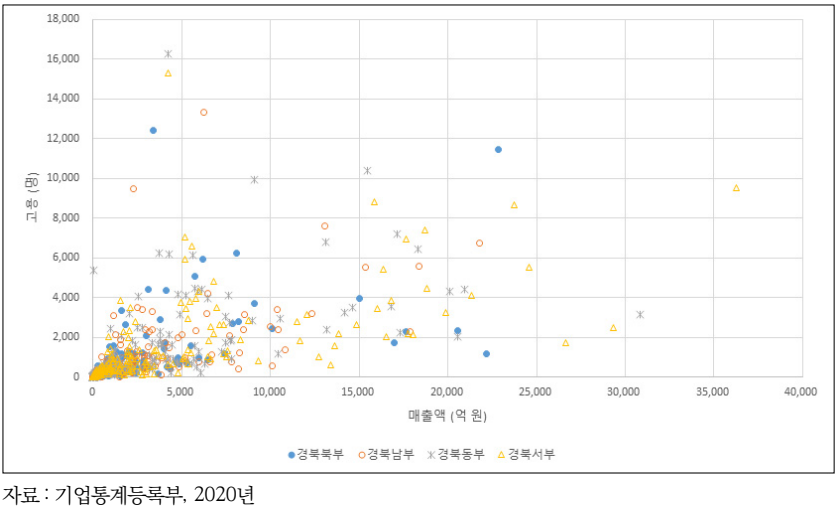
□ 경북 4대 권역의 산업소분류별 매출 및 고용 분포

○ 매출과 고용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가운데 지역권역별로 규모가 큰 주요 산업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임.

- 매출 대비 상대적 고용이 적은 산업과 많은 산업이 존재하지만 지역별 특성이 아닌 산업별 특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각 지역별로 규모가 큰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그 지역의 고용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경북 서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출 대비 고용이 낮은 산업이 다수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고용 대비 매출이 높은 것으로 관점을 달리 할 수도 있음.
- 동일한 산업일 경우 지역권역에 따라 매출 대비 고용 비중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며, 지역권역별로 주요 산업의 종류가 달라서 매출 대비 고용의 비중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됨.
- 즉, 각 지역권역별로 주요 산업의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고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2-1] 경북 4대 권역의 산업소분류별 매출 및 고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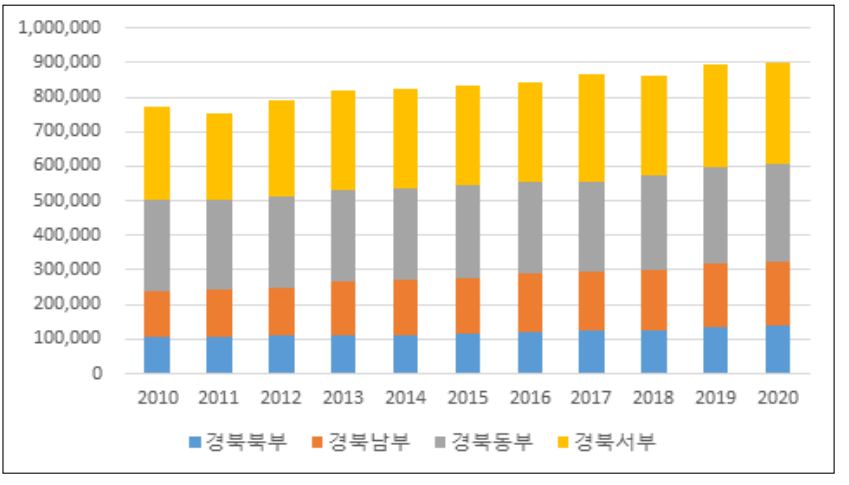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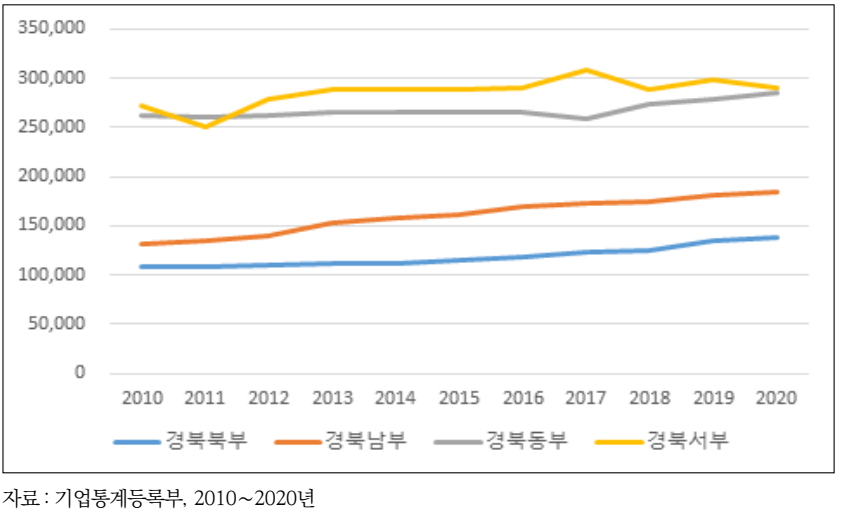
□ 고용 변동폭의 분석 시기

○ 경북 지역은 고용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북 서부의 경우 2017년 이후로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따라서 주요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는 시기를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

[그림 2-2] 경북 4대 권역별 고용의 장기 추세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0~2020년

## 제3절 경북 4대 권역별 주요 산업 구조

□ 경북 북부 주요 산업

○ 문경, 봉화, 안동,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이 포함된 경북 북부지역

은, 고용이 1천 명 이상인 산업소분류가 32개에 불과하여 산업 기반이 부족한 편이고 상위 50개 소분류산업의 고용이 114,092명으로 82.4%에 해당하여 산업의 다양성 또한 부족한 편임.

○ 경북 북부지역에서 고용이 가장 많은 산업은 비거주복지시설이며, 행정, 병원, 초중고등교육기관, 은행, 거주복지시설, 음식점, 종합소매업 등 생활 서비스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함.

○ 그 외 나머지 상위 산업은 전부 시설공사업, 토목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등 건설 관련 산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북 북부에는 고유한 산업 생산 기반이 부족하며 주거형 서비스업과 건설업만이 주를 이룸.

〈표 2-2〉 경북 북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지역 | KSIC | 산업소분류 명 | 사업체 수 (개) 2020년 | 종사자 수 (명) 2019년 | 종사자 수 (명) 2020년 | 1인당 매출 (억 원) 2020년 |
|---|---|---|---|---|---|---|
| 경북 북부 | 872 |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 758 | 10,744 | 12,425 | 0.27 |
| | 841 | 입법및일반정부행정 | 150 | 10,680 | 11,451 | 1.99 |
| | 844 | 사법및공공질서행정 | 178 | 5,955 | 6,228 | 1.30 |
| | 861 | 병원 | 54 | 5,822 | 5,944 | 1.04 |
| | 421 |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 관련전문공사업 | 1,252 | 5,467 | 5,046 | 1.14 |
| | 851 | 초등교육기관 | 269 | 5,374 | 4,399 | 0.71 |
| | 852 | 중등교육기관 | 120 | 4,050 | 4,342 | 0.95 |
| | 641 | 은행및저축기관 | 290 | 4,182 | 3,975 | 3.78 |
| | 412 | 토목건설업 | 578 | 2,481 | 3,688 | 2.46 |
| | 871 | 거주복지시설운영업 | 167 | 3,325 | 3,359 | 0.47 |
| | 423 | 전기및통신공사업 | 419 | 2,740 | 2,906 | 1.30 |
| | 842 | 사회및산업정책행정 | 83 | 2,901 | 2,799 | 2.92 |
| | 561 | 음식점업 | 7,632 | 3,238 | 2,670 | 2.94 |
| | 853 | 고등교육기관 | 15 | 2,519 | 2,641 | 0.69 |
| | 471 | 종합소매업 | 1,659 | 2,639 | 2,423 | 4.17 |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9~2020년

□ 경북 남부 주요 산업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를 포함하는 경북 남부지역은, 고용이 1천명 이상인 산업소분류가 44개로 적은 편이며 상위 50개 소분류산업의 고용이 145,627명으로 총 고용의 78.9%를 차지함.

- 경북 남부의 고용이 서부나 동부에 비해 적은 이유는 대형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데이터에 좀 더 부합함.

○ 경북 남부지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산업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비거주 복지시설, 행정, 초등교육기관, 병원, 은행, 음식점업 등 생활 서비스형 일자리가 다수 분포함.

○ 2위는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이며, 6위에 플라스틱제품제조업, 7위에 기타금속가공, 10위에 직물제품제조업이 위치하는데, 이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및 금속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경공업인 직물제품제조업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직물제품제조업이 의복이 아닌 자동차용 시트와 관련있다면 이 산업 또한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에 포함됨.
- 경북 남부에 위치하는 자동차부품, 기계, 플라스틱, 기타금속가공제조업의 1인당 매출액은 3억원대에 그치고 있어, 경북 동부의 자동차부품 1인당 매출액 4.8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3억원대의 1인당 매출액은 제조업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경북 서부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통신방송장비제조업의 1인당 매출액 11.5억원과 전자부품제조업의 7.8억원 또는 경북 동부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철강의 1인당 매출 12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 그 외 시설공사업, 토목건설업, 은행 등이 고용 상위 15개 산업에 포함됨.

〈표 2-3〉 경북 남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지역 | KSIC | 산업소분류 명 | 사업체 수 (개) 2020년 | 종사자 수 (명) 2019년 | 종사자 수 (명) 2020년 | 1인당 매출 (억 원) 2020년 |
|---|---|---|---|---|---|---|
| 경북 남부 | 853 | 고등교육기관 | 56 | 8,831 | 13,296 | 0.47 |
| | 303 |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 732 | 14,509 | 13,260 | 3.63 |
| | 872 |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 651 | 8,884 | 9,453 | 0.24 |
| | 841 | 입법및일반정부행정 | 79 | 5,875 | 7,602 | 1.72 |
| | 292 |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 998 | 4,848 | 6,742 | 3.23 |
| | 222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738 | 5,334 | 5,551 | 3.31 |
| | 259 |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 989 | 5,367 | 5,509 | 2.79 |
| | 421 |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 관련전문공사업 | 870 | 4,137 | 4,201 | 1.54 |
| | 851 | 초등교육기관 | 196 | 3,448 | 3,493 | 0.72 |
| | 132 | 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 719 | 3,629 | 3,396 | 3.05 |
| | 861 | 병원 | 47 | 3,502 | 3,369 | 0.83 |
| | 852 | 중등교육기관 | 80 | 3,235 | 3,289 | 1.00 |
| | 412 | 토목건설업 | 413 | 2,472 | 3,187 | 2.01 |
| | 641 | 은행및저축기관 | 225 | 3,418 | 3,166 | 3.90 |
| | 561 | 음식점업 | 6,975 | 3,739 | 3,118 | 2.74 |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9~2020년

□ 경북 동부 주요 산업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포함하는 경북 동부지역은 고용이 1천명 이상인 산업소분류가 63개이며 상위 50개 소분류산업의 고용이 225,970명으로 총 고용의 79.2%를 차지함.

○ 경북 동부의 경우 가장 고용이 많은 산업은 철강이며, 3위에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8위에 기타금속가공제조업이 있어, 철강 소재를 생산하여 금속가공업과 자동차부품 제조를 실시하는 밸류체인이 지역내 형성된 것으로 보임.

- 이는 전자제품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며 자동차부품 또한 지역내 보유하여 이원화가 이루어진 경북 서부에 비해, 경북 동부의 경우 철강부터 자동차부품에 이르는 한 종류의 밸류체인에 집중된 모습임.

○ 이 외에도 비거주복지시설, 행정, 병원, 음식점업, 초중등교육기관이 상

위에 포함된 점은 경북 서부와 마찬가지로 생활형 서비스업 중심 고용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뜻함.

○ 경북 동부의 경우 상위 15개 업종에 시설건설업, 전기업, 전기통신공사업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산업과 함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이 존재하여 철강에서 자동차부품에 이르는 금속가공형 제조 밸류체인에 이어 시설건설업이 주요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건설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상위권에 분포하는 업종이라 경북 서부의 경우 건설업에 비해 규모가 더 큰 다른 제조업 등의 산업이 훨씬 다양하게 존재하여 상위 15개에 건설업 관련 산업군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표 2-4〉 경북 동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지역 | KSIC | 산업소분류 명 | 사업체 수 (개) 2020년 | 종사자 수 (명) 2019년 | 종사자 수 (명) 2020년 | 1인당 매출 (억 원) 2020년 |
|---|---|---|---|---|---|---|
| 경북 동부 | 241 | 1차철강제조업 | 368 | 16,734 | 16,618 | 11.95 |
| | 872 |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 1162 | 13,526 | 16,261 | 0.26 |
| | 303 |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 956 | 16,159 | 15,161 | 4.84 |
| | 841 | 입법및일반정부행정 | 98 | 8,889 | 10,386 | 1.49 |
| | 861 | 병원 | 83 | 9,905 | 9,920 | 0.92 |
| | 561 | 음식점업 | 13668 | 8,302 | 7,197 | 2.38 |
| | 421 |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 관련전문공사업 | 1233 | 6,207 | 6,803 | 1.93 |
| | 259 |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 1053 | 6,560 | 6,454 | 2.84 |
| | 751 |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341 | 5,193 | 6,240 | 0.60 |
| | 851 | 초등교육기관 | 321 | 6,383 | 6,156 | 0.69 |
| | 852 | 중등교육기관 | 116 | 5,938 | 6,118 | 0.92 |
| | 843 | 외무및국방행정 | 5 | | 5,352 | 0.00 |
| | 351 | 전기업 | 788 | 4,900 | 5,143 | 9.66 |
| | 844 | 사법및공공질서행정 | 134 | 4,645 | 4,440 | 1.29 |
| | 423 | 전기및통신공사업 | 623 | 4,622 | 4,401 | 1.39 |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9~2020년

□ 경북 서부 주요 산업

○ 구미, 군위, 김천, 상주, 칠곡을 포함하는 경북 서부지역은 고용이 1천명 이상인 산업소분류가 73개로 많은 편이며 상위 50개 소분류산업의 고용이 222,394명으로 총 고용의 79.8%를 차지함.

○ 경북 서부의 경우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1인당 생산(매출액)이 낮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며, 그 밖에도 행정, 초중등교육기관, 병원, 음식점업, 종합소매점의 종사자 수가 많아 주거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판단됨.

○ 두 번째로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은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이며, 그 뒤를 이어 전자부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특수기계제조업, 기타금속가공, 반도체제조업,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등 주력제조업이 상위권에 분포함.

- 이는 플라스틱 및 금속 소재 부품과 장비에 해당하는 특수기계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밸류체인이 지역 내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하며, 자동차부품 제조업 또한 큰 규모로 존재하여 1인당 매출액이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됨.

○ 즉, 경북 서부는 전자·자동차부품 중심 제조업 생산기지와 함께 주거형 서비스산업이 주를 이루는 권역에 해당함.

〈표 2-5〉 경북 서부의 고용 상위 15개 소분류 업종

| 지역 | KSIC | 산업소분류 명 | 사업체 수 (개) 2020년 | 종사자 수 (명) 2019년 | 종사자 수 (명) 2020년 | 1인당 매출 (억 원) 2020년 |
|---|---|---|---|---|---|---|
| 경북 서부 | 872 |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 1,193 | 14,739 | 15,305 | 0.28 |
| | 264 |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 286 | 15,256 | 13,702 | 11.54 |
|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671 | 17,589 | 12,891 | 7.77 |
| | 222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816 | 9,167 | 9,541 | 3.80 |
| | 841 | 입법및일반정부행정 | 120 | 7,381 | 8,835 | 1.79 |
| | 292 |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 1,664 | 8,475 | 8,638 | 2.75 |

〈표 2-5〉의 계속

| 지역 | KSIC | 산업소분류 명 | 사업체 수 (개) 2020년 | 종사자 수 (명) 2019년 | 종사자 수 (명) 2020년 | 1인당 매출 (억 원) 2020년 |
|---|---|---|---|---|---|---|
| 경북 서부 | 259 |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 1,451 | 7,550 | 7,407 | 2.53 |
| | 851 | 초등교육기관 | 339 | 6,887 | 7,061 | 0.73 |
| | 561 | 음식점업 | 11,737 | 7,796 | 6,936 | 2.54 |
| | 852 | 중등교육기관 | 123 | 6,298 | 6,601 | 0.85 |
| | 861 | 병원 | 49 | 5,496 | 5,944 | 0.87 |
| | 261 | 반도체제조업 | 236 | 7,109 | 5,529 | 4.44 |
| | 303 |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 366 | 6,405 | 5,425 | 3.02 |
| | 421 |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 관련전문공사업 | 1,077 | 4,996 | 4,797 | 1.42 |
| | 471 | 종합소매업 | 2,385 | 4,522 | 4,448 | 4.23 |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9~2020년

## 제4절 경북 4대 권역별 일자리 사업 계획의 특성

□ 생활경제권 일자리 사업 5년 로드맵 목표설정 평가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650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총 3만 개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함.

- 예산 비중은 국비 75%, 도비 22%, 시군비 3%로 구성됨.

〈표 2-6〉 경북 생활경제권 일자리사업 5년 로드맵

| | 도입 · 정착기 (2022~2023년) | 성장 · 성숙기 (2024~2025년) | 재도약기 (2026년) | 5년뒤 |
|---|---|---|---|---|
| 북부권 | ▸ 향토기업 160개사 DB구축 → 10개사 지원<br>▸ 청년 유입 184명 | ▸ 향토기업 200개사 DB구축 → 16개사 지원<br>▸ R&D 청년 유입 212명 | ▸ 향토기업 130개사 DB구축 → 10개사 지원<br>▸ R&D 청년 유입 110명 | 인구소멸 '위험'단계로 하향 |
| | 일자리 창출 1,000명 | 일자리 창출 1,000명 | 일자리창출 1,000명 | 일자리창출 3,000명 |
| 남부권 | ▸ 자동차 부품 유지군+ 감소군 기업 43% → 45%로 확대<br>▸ 청년 순유출 – 4,000명 | ▸ 자동차 부품 유지군+ 감소군 기업 45% → 48%로 확대<br>▸ 청년 순유출 – 3,900명<br>▸ 상생형 일자리 실행 | ▸ 자동차 부품 유지군+ 감소군 기업 48% → 50%로 확대<br>▸ 청년 순유출 – 3,800명 | 미래차에 대응 가능한 노사상생 관계 정립 |
| | 일자리창출 : 1,000명 | 일자리 창출 : 1,800명 | 일자리 창출 : 3,000명 | 일자리 창출 : 5,800명 |
| 동부권 | ▸ 재해방지 선도기업 60개사<br>▸ 이차전지 R&D 인재양성 80명<br>▸ 청년 유입 240명 | ▸ 재해방지 선도기업 70개사<br>▸ 이차전지 R&D 인재양성 90명<br>▸ 청년 유입 240명 | ▸ 재해방지 선도기업 40개사<br>▸ 이차전지 R&D 인재양성 50명<br>▸ 청년 유입 120명 | 이차전지 산업 선도 청년유입 사각지대 해소 |
|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8,400명 |
| 서부권 | ▸ 전자산업 종사자 비중 13% → 14%로 확대<br>▸ 퇴직기술인력 활용 지원 120개사 | ▸ 전자산업 종사자 비중 14% → 15%로 확대<br>▸ 퇴직기술인력 활용 지원 130개사 | ▸ 전자산업 종사자 비중 15% → 16%로 확대<br>▸ 퇴직기술인력 활용 지원 70개사 | 전자산업 스마트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 (고선패 연계) |
|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 2,200명 | 일자리 창출 : 2,800명 | 일자리 창출 7,800명 |
| 경상북도 | ▸ 취약계층 일자리 : 800명<br>▸ 시니어 사회활동 : 440명 | ▸ 취약계층 일자리 : 840명<br>▸ 시니어 사회활동 : 440명 | ▸ 취약계층 일자리 : 450명<br>▸ 시니어 사회활동 : 220명 | 경제활동인구 63% → 65%로 증가 |
| | 일자리 창출 : 1,400명 | 일자리 창출 : 1,800명 | 일자리 창출 : 1,800명 | 일자리 창출 : 5,000명 |

○ (양적 달성 쉬운 편) 경북 북부의 경우 향토기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4년간 3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유한 산업 생산기반이 부족하며 거주생활형 산업과 건설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업 · 수공예 · 지역상권 · 바이오첨단산업 등 어떠한 분야의 향토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비거주복지시설, 거주복지시설, 공공일자리사업)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3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양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청년일자리 확대는 쉽지 않은 목표임.

○ (양적 달성 검토 필요) 경북 남부의 경우 자동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미래차 전환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일자리 창출 5,8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임.

- 미래차 전환에서 완성차 및 부품기업의 유불리는 통념과는 다르게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자동차부품업에 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5,800명이라는 양적 목표가 높은 편이고 서부에 비해 남부의 자동차부품업체의 1인당 부가가치가 낮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여력이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철강에서 이차전지까지 더 넓은 밸류체인으로 확장할 필요) 경북 동부의 경우 재해방지 기업과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8,400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지역권역 중 가장 높은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동부에 이차전지산업이 이미 큰 규모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새롭게 기업유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에 이르는 후방밸류체인으로 목표 산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재해방지 기업의 특성상 외부환경(기후재난, 코로나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코로나19 회복기에는 성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지속성장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산업의 고용 회복 가능성 전면 검토 필요) 경북 서부의 경우 전자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4년간 일자리 창출 7,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부에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이 이미 구축된 것은 전자산업 위주 밸류체인인 것은 맞으나, 전국적으로 전자산업 내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등의 고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자산업에서 고용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진단이 필요함.
- 서부는 지역내 산업기반이 우수한 편이므로, 전자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여력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부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복수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전략을 전후방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직접일자리 사업) 경상북도 전체에서는 취약계층 및 시니어 일자리창출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직접일자리사업과 민간일자리 창출 목표를 분리하여 설정한다면 적절한 목표일 것으로 보임.

- 특히 북부 일자리 창출 목표와 경상북도 전체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고령층의 민간일자리 확대는 경상북도 일자리 사업 계획과 차별화할 것을 제언함.

# 제3장 권역별 고용 변화가 큰 산업의 특성과 이슈

## 제1절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추이 분석

□ 본 절에서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4개 권역(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

○ 고용보험DB의 사업장 자료와 피보험자 자료를 연계하여 경북 지역의 4개 권역에 대해 2010-2022년 사이의 산업별 고용 변화폭을 계산함.
- 각 연도의 고용은 연말(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함.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본 장에서의 고용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

○ 4개 권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경북 북부권 : 문경, 봉화, 안동,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 경북 남부권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 경북 동부권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경북 서부권 : 구미, 군위, 김천, 상주, 칠곡

○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기준으로 분석함.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 고용은 191,629명 증가하였으며, 권역별로는 동부권(66,843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표 3-1〉 참조).

○ 2022년 경북 전체 고용(658,765명)은 2010년(467,136명) 대비 40% 증가함.

○ 권역별로는 동부권(66,843명), 서부권(46,890명), 남부권(44,361명), 북부권(33,535명) 순으로 고용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증가율 기준으로는 북부권(60.3%), 남부권(51.3%), 동부권(41.9%), 서부권(28.4%) 순으로 고용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

〈표 3-1〉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추이 : 전체 산업

(단위 : 명)

| 연도 | 경북 전체 | 동부권 | 서부권 | 남부권 | 북부권 |
|---|---|---|---|---|---|
| 2010 | 467,136 | 159,663 | 165,291 | 86,537 | 55,645 |
| 2011 | 486,296 | 167,186 | 170,522 | 92,471 | 56,117 |
| 2012 | 505,700 | 173,547 | 176,019 | 97,046 | 59,088 |
| 2013 | 523,622 | 179,271 | 180,052 | 102,318 | 61,981 |
| 2014 | 543,693 | 192,023 | 182,779 | 105,456 | 63,435 |
| 2015 | 556,172 | 194,298 | 186,561 | 108,790 | 66,523 |
| 2016 | 565,480 | 194,850 | 188,695 | 113,097 | 68,838 |
| 2017 | 578,240 | 198,019 | 192,562 | 115,482 | 72,177 |
| 2018 | 595,758 | 204,018 | 196,525 | 118,694 | 76,521 |
| 2019 | 612,259 | 210,660 | 200,276 | 120,726 | 80,597 |
| 2020 | 620,805 | 212,025 | 202,125 | 122,376 | 84,279 |
| 2021 | 641,763 | 219,295 | 208,344 | 126,874 | 87,250 |
| 2022 | 658,765 | 226,506 | 212,181 | 130,898 | 89,180 |
| 2010-2022 변화폭 | 191,629<br>(41.0%) | 66,843<br>(41.9%) | 46,890<br>(28.4%) | 44,361<br>(51.3%) | 33,535<br>(60.3%)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2010-2022년의 고용 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9,390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4,463명)임(〈표 3-2〉 참조).

○ 고용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건설업본사(소분류), 음식점업, 병원, 1차 철강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임.

○ 고용이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육상 여객 운송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등임.

〈표 3-2〉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전체

(단위 : 명, %)

| 구분 | KSIC | | 2010 | 2022 | 변화폭 | 변화율 |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6,264 | 45,654 | 29,390 | 181%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7,597 | 20,608 | 13,011 | 171%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36,554 | 48,115 | 11,561 | 32% |
| | 561 | 음식점업 | 4,373 | 14,444 | 10,071 | 230% |
| | 861 | 병원 | 14,363 | 24,033 | 9,670 | 67% |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21,505 | 29,913 | 8,408 | 39% |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26,616 | 32,905 | 6,289 | 24%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9,174 | 15,341 | 6,167 | 67% |
|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12,934 | 18,632 | 5,698 | 44% |
| | 471 | 종합 소매업 | 1,312 | 6,293 | 4,981 | 380%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11,876 | 7,413 | -4,463 | -38%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3,540 | 593 | -2,947 | -83% |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8,531 | 6,402 | -2,129 | -25%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6,890 | 5,315 | -1,575 | -23%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4,479 | 3,197 | -1,282 | -29%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8603 | 7,596 | -1,007 | -12%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881 | 383 | -498 | -57% |
|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920 | 460 | -460 | -50% |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397 | 70 | -327 | -82% |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409 | 129 | -280 | -68%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동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954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464명)임(〈표 3-3〉 참조).

○ 고용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차 철강 제조업, 병원, 음식점업, 건설업본사(소분류),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전기업 등임.

○ 고용이 많이 감소한 산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육상 여객 운송업,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해상 운송업, 금속 주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임.

〈표 3-3〉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동부권

(단위 : 명, %)

| 구분 | KSIC | | 2010 | 2022 | 변화폭 | 변화율 |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4,955 | 14,909 | 9,954 | 201% |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20,681 | 28,986 | 8,305 | 40% |
| | 861 | 병원 | 5,485 | 9,692 | 4,207 | 77% |
| | 561 | 음식점업 | 1,764 | 5,710 | 3,946 | 224%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14,291 | 16,998 | 2,707 | 19%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987 | 4,616 | 2,629 | 132% |
| | 351 | 전기업 | 3,944 | 6,414 | 2,470 | 63% |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 247 | 2,532 | 2,285 | 925%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4,122 | 5,884 | 1,762 | 43% |
| | 471 | 종합 소매업 | 335 | 1,882 | 1,547 | 462%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908 | 444 | -464 | -51%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3,603 | 3,142 | -461 | -13% |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업 | 3,529 | 3,195 | -334 | -9%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445 | 244 | -201 | -45% |
| | 501 | 해상 운송업 | 329 | 130 | -199 | -60% |
| | 243 | 금속 주조업 | 456 | 284 | -172 | -38% |
|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774 | 623 | -151 | -20% |
|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1,325 | 1,196 | -129 | -10% |
| | 602 | 텔레비전 방송업 | 212 | 98 | -114 | -54% |
| | 75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1,523 | 1,416 | -107 | -7%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서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7,518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3,958명)임(〈표 3-4〉 참조).

○ 고용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건설업본사(소분류),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음식점업, 병원 등임.

○ 고용이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임.

〈표 3-4〉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서부권

(단위 : 명, %)

| 구분 | KSIC | | 2010 | 2022 | 변화폭 | 변화율 |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5,722 | 13,240 | 7,518 | 131% |
|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9,330 | 14,319 | 4,989 | 53%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909 | 6,118 | 4,209 | 220%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151 | 11,513 | 3,362 | 41%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291 | 6,424 | 3,133 | 95% |
| | 561 | 음식점업 | 1,244 | 4,295 | 3,051 | 245% |
| | 861 | 병원 | 3,067 | 5,229 | 2,162 | 70% |
| | 682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1,853 | 3,587 | 1,734 | 94% |
| | 471 | 종합 소매업 | 379 | 1,964 | 1,585 | 418% |
| | 203 |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3,219 | 4,616 | 1,397 | 43%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10,794 | 6,836 | -3,958 | -37%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3,439 | 532 | -2,907 | -85% |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8,447 | 6,319 | -2,128 | -25% |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 1,859 | 645 | -1,214 | -65%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3,050 | 1,926 | -1,124 | -37% |
| | 75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2,633 | 2,054 | -579 | -22%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2,336 | 1,868 | -468 | -20%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741 | 339 | -402 | -54% |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397 | 70 | -327 | -82% |
| | 739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79 | 292 | -287 | -50%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남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5,115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885명)임(〈표 3-5〉 참조).

○ 고용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건설업본사(소분류), 음식점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종합 소매업 등임.

○ 고용이 많이 감소한 산업은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자부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기타 금융업, 토목 건설업 등임.

〈표 3-5〉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남부권

(단위 : 명, %)

| 구분 | KSIC | | 2010 | 2022 | 변화폭 | 변화율 |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2,849 | 7,964 | 5,115 | 180% |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10,020 | 14,646 | 4,626 | 46%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567 | 4,968 | 3,401 | 217%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6,917 | 8,996 | 2,079 | 30% |
| | 561 | 음식점업 | 648 | 2,424 | 1,776 | 274% |
| | 2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920 | 4,328 | 1,408 | 48% |
| | 471 | 종합 소매업 | 275 | 1,495 | 1,220 | 444% |
| | 861 | 병원 | 1,977 | 3,172 | 1,195 | 60% |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업 | 1,351 | 2,430 | 1,079 | 80% |
|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786 | 3,770 | 984 | 35%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3,748 | 2,863 | -885 | -24% |
| | 681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480 | 165 | -315 | -66% |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561 | 261 | -300 | -53% |
|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378 | 97 | -281 | -74%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63 | 1,193 | -170 | -12% |
| | 649 | 기타 금융업 | 539 | 391 | -148 | -27% |
| | 412 | 토목 건설업 | 97 | 9 | -88 | -91% |
| | 581 |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 695 | 608 | -87 | -13% |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98 | 14 | -84 | -86%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98 | 21 | -77 | -79%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북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6,803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62명)임(〈표 3-6〉 참조).

○ 고용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건설업본사(소분류),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병원,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음식점업, 전기업 등임.

○ 고용이 많이 감소한 산업은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전자부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등임.

〈표 3-6〉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 : 2010-2022년, 경북 북부권

(단위 : 명, %)

| 구분 | KSIC | | 2010 | 2022 | 변화폭 | 변화율 |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2,738 | 9,541 | 6,803 | 248%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7,195 | 10,608 | 3,413 | 47%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2,134 | 4,906 | 2,772 | 130% |
| | 861 | 병원 | 3,834 | 5,940 | 2,106 | 55% |
| | 841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2,811 | 4,328 | 1,517 | 54% |
| | 561 | 음식점업 | 717 | 2,015 | 1,298 | 181% |
| | 351 | 전기업 | 183 | 1,329 | 1,146 | 626% |
|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341 | 2,082 | 741 | 55% |
| | 852 | 중등 교육기관 | 1,135 | 1,807 | 672 | 59% |
| | 471 | 종합 소매업 | 323 | 952 | 629 | 195%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842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2,155 | 1,293 | -862 | -40% |
| | 742 | 건물 ·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업 | 683 | 315 | -368 | -54%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504 | 244 | -260 | -52% |
| | 39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13 | 62 | -251 | -80% |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24 | 31 | -193 | -86% |
|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업 | 1,185 | 995 | -190 | -16% |
|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131 | 12 | -119 | -91% |
| | 412 | 토목 건설업 | 130 | 25 | -105 | -81% |
|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76 | 5 | -71 | -93%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66 | 0 | -66 | -100%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요약) 고용보험DB 자료에서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 고용은 191,629명 증가하였으며, 권역별로는 동부권(66,843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권역별로는 동부권(66,843명), 서부권(46,890명), 남부권(44,361명), 북부권(33,535명) 순으로 고용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경북 전체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9,390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4,463명)임.

○ 경북 동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954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464명)임.

○ 경북 서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7,518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3,958명)임.

○ 경북 남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5,115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885명)임.

○ 경북 북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6,803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62명)임.

## 제2절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 요인 분석

□ 2010-2022년 기간 동안의 고용 변화는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의 고용 변화로 분해할 수 있음.

○ 2010-2022년 사이에 존재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지 사업장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된 사업장
- 생성 사업장 : 2010년에는 없었지만 2011-2022년 사이에 신규 진입한 사업장
- 소멸 사업장 : 2010년에는 존재했지만 2011-2022년 사이에 소멸한 사업장

○ 2010-2022년 기간 동안의 고용 변화는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의 고용 변화로 분해할 수 있으나, 일부 오차가 발생함.

- 특정 고용보험 사업장 자료에서 성립 연월보다 피보험자 자료에서 취득 연월이 빠른 표본, 또는 사업장 자료에서 소멸 연월보다 피보험자 자료에서 상실 연월이 늦은 표본들이 일부 존재
- 따라서 사업장 자료 기준으로는 특정 연도에 없는 사업장 또는 소멸 사업장이나 피보험자 자료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여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됨.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 사업장은 44,661개 증가하였으며, 권역별로는 동부권(13,943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표 3-7〉 참조).

○ 2022년 경북 전체 사업장(90,802개)은 2010년(46,141개) 대비 96.8% 증가함.

○ 권역별로는 동부권(13,943개), 서부권(13,106개), 남부권(10,274개), 북부권(7,338개) 순으로 사업장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증가율 기준으로는 남부권(106.8%), 동부권(97.7%), 북부권(94.4%), 서부권(90.5%) 순으로 고용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 기준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은 각각 23,735개, 67,067개, 22,406개로 나타남(〈표 3-7〉 참조).

○ 경북 동부권에서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은 각각 7,074개, 21,134개, 7,191개로 나타남.

○ 경북 서부권에서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은 각각 7,010개, 20,572개, 7,466개로 나타남.

○ 경북 남부권에서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은 각각 5,216개, 14,682개, 4,408개로 나타남.

○ 경북 북부권에서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은 각각 4,435개, 10,697개, 3,341개로 나타남.

〈표 3-7〉 경북 지역의 권역별 사업장 변화 추이 : 전체 산업

(단위 : 개)

| 연도 | 경북 전체 | 동부권 | 서부권 | 남부권 | 북부권 |
|---|---|---|---|---|---|
| 2010 | 46,141 | 14,265 | 14,476 | 9,624 | 7,776 |
| 2011 | 50,620 | 15,833 | 15,827 | 10,588 | 8,372 |
| 2012 | 55,107 | 17,119 | 17,172 | 11,634 | 9,182 |
| 2013 | 60,276 | 18,620 | 18,834 | 12,699 | 10,123 |
| 2014 | 64,569 | 19,945 | 20,354 | 13,577 | 10,693 |
| 2015 | 69,768 | 21,521 | 22,113 | 14,726 | 11,408 |
| 2016 | 73,165 | 22,416 | 23,416 | 15,396 | 11,937 |
| 2017 | 74,812 | 23,126 | 23,536 | 15,840 | 12,310 |
| 2018 | 76,311 | 23,447 | 23,865 | 16,453 | 12,546 |
| 2019 | 78,585 | 24,130 | 24,433 | 16,990 | 13,032 |
| 2020 | 81,468 | 24,939 | 25,223 | 17,755 | 13,551 |
| 2021 | 85,974 | 26,468 | 26,318 | 18,856 | 14,332 |
| 2022 | 90,802 | 28,208 | 27,582 | 19,898 | 15,114 |
| 2010-2022 변화폭 | 44,661<br>(96.8%) | 13,943<br>(97.7%) | 13,106<br>(90.5%) | 10,274<br>(106.8%) | 7,338<br>(94.4%) |
| 유지 사업장 | 23,735 | 7,074 | 7,010 | 5,216 | 4,435 |
| 생성 사업장 | 67,067 | 21,134 | 20,572 | 14,682 | 10,679 |
| (-)소멸 사업장 | -22,406 | -7,191 | -7,466 | -4,408 | -3,341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2010-2022년의 사업장수 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의 고용 증가(191,629명)는 유지 사업장 55,504명, 생성 사업장 278,501명, 소멸 사업장 -142,627명으로 분해되어 대부분 생성 사업장에서 고용이 창출됨(〈표 3-8〉 참조).

○ 경북 전체 고용 증가 중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은 29.0%, 145.3%, -74.4%로 나타나 생성 사업장의 기여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동부권(36.2%)임.

○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서부권(193.6.%)이며, 소멸 사업장의 (음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서부권(-124.4%)으로, 서부권에서는 사업장의 생성과 소멸이 다른 권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8〉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전체 산업

(단위 : 개, %)

| 구분 | | 경북 전체 | 동부권 | 서부권 | 남부권 | 북부권 |
|---|---|---|---|---|---|---|
| 2010-2022년 사업장수 | 변화폭 | 44,661 | 13,943 | 13,106 | 10,274 | 7,338 |
| | 유지 사업장 | 23,735 | 7,074 | 7,010 | 5,216 | 4,435 |
| | 생성 사업장 | 67,067 | 21,134 | 20,572 | 14,682 | 10,679 |
| | (-)소멸 사업장 | -22,406 | -7,191 | -7,466 | -4,408 | -3,341 |
| 2010-2022년 고용 | 변화폭 | 191,629<br>(100.0) | 66,843<br>(100.0) | 46,890<br>(100.0) | 44,361<br>(100.0) | 33,535<br>(100.0) |
| | 유지 사업장 | 55,504<br>(29.0) | 24,181<br>(36.2) | 14,358<br>(30.6) | 7,650<br>(17.2) | 9,315<br>(27.8) |
| | 생성 사업장 | 278,501<br>(145.3) | 86,460<br>(129.3) | 90,760<br>(193.6) | 61,132<br>(137.8) | 40,149<br>(119.7) |
| | (-)소멸 사업장 | -142,627<br>(-74.4) | -43,953<br>(-65.8) | -58,333<br>(-124.4) | -24,510<br>(-55.3) | -15,831<br>(-47.2) |
| | 오차 | 251<br>(0.1) | 155<br>(0.2) | 105<br>(0.2) | 89<br>(0.2) | -98<br>(-0.3)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2010-2022년 고용 변화폭에 대한 기여율(%)을 나타냄.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2010-2022년의 전체 고용 변화폭에 대한 분해 작업은 분석 기간 내에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사업장을 누락하는 문제가 있어, 연평균 고용 변화폭을 분해하여 기간 평균 내는 방식으로 기여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여

전히 생성 사업장의 고용 창출 기여율이 크게 나타남(〈표 3-9〉 참조).

○ 2010-2022년 사이의 전체 고용 변화폭에 대한 기여율 분해 작업에서는 2010년과 2022년 중간에 생성되었다가 소멸된 사업장을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2010-2022년 기간에 대해 연평균 고용 변화폭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해하고, 매년의 분해 결과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다시 분석을 수행함.

○ 분석 결과, 생성 사업장의 고용 창출 기여율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나며 2010-2022년의 전체 고용 변화폭을 분해하는 경우보다도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더 크게 나타남.

〈표 3-9〉 경북 지역의 권역별 고용 변화폭 분해 : 연평균, 전체 산업

(단위 : 개, %)

| 구분 | | 경북 전체 | 동부권 | 서부권 | 남부권 | 북부권 |
|---|---|---|---|---|---|---|
| 연간 사업장수 변화 평균 | 변화폭 | 3,722 | 1,162 | 1,092 | 856 | 612 |
| | 유지 사업장 | 61,727 | 18,936 | 19,197 | 13,317 | 10,277 |
| | 생성 사업장 | 10,061 | 3,211 | 3,192 | 2,051 | 1,607 |
| | (-)소멸 사업장 | -6,339 | -2,049 | -2,100 | -1,195 | -995 |
| 연간 고용 변화 평균 | 변화폭 | 15,969<br>(100.0) | 5,570<br>(100.0) | 3,908<br>(100.0) | 3,697<br>(100.0) | 2,795<br>(100.0) |
| | 유지 사업장 | 2,142<br>(13.4) | 1,105<br>(19.8) | -349<br>(-8.9) | 636<br>(17.2) | 749<br>(26.8) |
| | 생성 사업장 | 32,349<br>(202.6) | 10,064<br>(180.7) | 11,394<br>(291.6) | 6,462<br>(174.8) | 4,428<br>(158.5) |
| | (-)소멸 사업장 | -18,442<br>(-115.5) | -5,565<br>(-99.9) | -7,123<br>(-182.3) | -3,391<br>(-91.7) | -2,364<br>(-84.6) |
| | 오차 | -79<br>(-0.5) | -35<br>(-0.6) | -15<br>(-0.4) | -10<br>(-0.3) | -19<br>(-0.7)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2010-2022년 연간 고용 변화폭 평균에 대한 기여율(%)을 나타냄.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표 3-10〉-〈표 3-14〉는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지역의 산업별 고용 변화 분해 결과를 나타내며, 대체로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전체 기준 고용이 증가한 10대 산업 중 1차 철강 제조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동부권 기준 고용이 증가한 10대 산업 중 1차 철강 제조업, 전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서부권 기준 고용이 증가한 10대 산업 중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남부권 기준 고용이 증가한 10대 산업 모두에서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북부권 기준 고용이 증가한 10대 산업 중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중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대체로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전체 기준 고용이 감소한 10대 산업 중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동부권 기준 고용이 감소한 10대 산업 중 육상 여객 운송업, 해상 운송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서부권 기준 고용이 감소한 10대 산업 중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남부권 기준 고용이 감소한 10대 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타 금융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 북부권 기준 고용이 감소한 10대 산업 중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요약)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의 고용 증가(191,629명)는 유지 사업장 55,504명, 생성 사업장 278,501명, 소멸 사업장 -142,627명으로 분해되어 대부분 생성 사업장에서 고용이 창출됨.

○ 대체로 전 산업에 걸쳐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대체로 전 산업에 걸쳐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2010-2022년 기간의 전체 고용 변화폭을 분해하는 작업에는 중간에 생성되었다가 소멸된 사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연평균 고용 변화폭을 분해하여 기간 평균 내는 방식으로 기여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여전히 생성 사업장의 고용창출 기여율이 크게 나타남.

〈표 3-10〉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전체

(단위 : 명)

| 구분 | KSIC | | 2010-2022년 사업장수 변화폭 분해 | | | | 2010-2022년 고용 변화폭 분해 | | | | |
|---|---|---|---|---|---|---|---|---|---|---|---|
| | |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오차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020 | 960 | 2,594 | -1,574 | 29,390 | 6,507 | 31,311 | -8,390 | -38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491 | 317 | 762 | -271 | 13,011 | 3,061 | 12,773 | -2,826 | 3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3,450 | 3,753 | 4,951 | -1,501 | 11,561 | 2,426 | 17,235 | -8,153 | 53 |
| | 561 | 음식점업 | 7,058 | 544 | 8,529 | -1,471 | 10,071 | 355 | 12,082 | -2,434 | 68 |
| | 861 | 병원 | 50 | 325 | 180 | -130 | 9,670 | 4,487 | 8,108 | -2,925 | 0 |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29 | 79 | 78 | -107 | 8,408 | 8,548 | 2,450 | -2,590 | 0 |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346 | 482 | 778 | -432 | 6,289 | 2,583 | 9,251 | -5,553 | 8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1,300 | 484 | 1,756 | -456 | 6,167 | 1,228 | 7,828 | -2,915 | 26 |
|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325 | 262 | 637 | -312 | 5,698 | 5,041 | 3,303 | -2,649 | 3 |
| | 471 | 종합 소매업 | 1,679 | 171 | 1,972 | -293 | 4,981 | 258 | 5,379 | -672 | 16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5 | 132 | 277 | -282 | -4,463 | -1,597 | 3,299 | -6,168 | 3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20 | 17 | 17 | -37 | -2,947 | -969 | 84 | -2,062 | 0 |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13 | 38 | 63 | -76 | -2,129 | -189 | 476 | -2,416 | 0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175 | 344 | 454 | -279 | -1,575 | -1,082 | 1,989 | -2,487 | 5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4 | 199 | 284 | -150 | -1,282 | -537 | 1,359 | -2,104 | 0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48 | 170 | 103 | -55 | -1,007 | -1,163 | 1,660 | -1,505 | 1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7 | 12 | 27 | -20 | -498 | -31 | 100 | -567 | 0 |
|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0 | 16 | 57 | -67 | -460 | 41 | 309 | -810 | 0 |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2 | 2 | 2 | 0 | -327 | -386 | 59 | 0 | 0 |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12 | 11 | 41 | -29 | -280 | 30 | 77 | -387 | 0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1〉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동부권

(단위 : 명)

| 구분 | KSIC | | 2010-2022년 사업장수 변화폭 분해 | | | | 2010-2022년 고용 변화폭 분해 | | | | |
|---|---|---|---|---|---|---|---|---|---|---|---|
| | |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오차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228 | 318 | 814 | -586 | 9,954 | 1,883 | 10,883 | -2,770 | -42 |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31 | 61 | 50 | -81 | 8,305 | 8,612 | 1,910 | -2,217 | 0 |
| | 861 | 병원 | 29 | 112 | 78 | -49 | 4,207 | 2,423 | 3,469 | -1,685 | 0 |
| | 561 | 음식점업 | 2,624 | 203 | 3,153 | -529 | 3,946 | 225 | 4,596 | -885 | 10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84 | 1,059 | 1,426 | -542 | 2,707 | 951 | 4,806 | -3,071 | 21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01 | 85 | 163 | -62 | 2,629 | 967 | 2,499 | -838 | 1 |
| | 351 | 전기업 | 30 | 5 | 34 | -4 | 2,470 | 2,444 | 30 | -4 | 0 |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 120 | 14 | 130 | -10 | 2,285 | 44 | 2,267 | -26 | 0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52 | 152 | 377 | -125 | 1,762 | 633 | 2,091 | -968 | 6 |
| | 471 | 종합 소매업 | 650 | 40 | 741 | -91 | 1,547 | 58 | 1,689 | -206 | 6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6 | 15 | 49 | -65 | -464 | 43 | 293 | -800 | 0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26 | 56 | 50 | -24 | -461 | -780 | 1,026 | -707 | 0 |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업 | 130 | 125 | 351 | -221 | -334 | -392 | 1,541 | -1,488 | 5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21 | 7 | 30 | -9 | -201 | 20 | 90 | -311 | 0 |
| | 501 | 해상 운송업 | 1 | 11 | 9 | -8 | -199 | -186 | 34 | -47 | 0 |
| | 243 | 금속 주조업 | 2 | 6 | 24 | -22 | -172 | -107 | 165 | -231 | 1 |
|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1 | 49 | 40 | -29 | -151 | -105 | 242 | -289 | 1 |
|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224 | 85 | 331 | -107 | -129 | -148 | 491 | -475 | 3 |
| | 602 | 텔레비전 방송업 | -8 | 3 | 2 | -10 | -114 | -11 | 41 | -144 | 0 |
| | 75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75 | 30 | 106 | -31 | -107 | -342 | 706 | -472 | 1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2〉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서부권

(단위 : 명)

| 구분 | KSIC | | 2010-2022년 사업장수 변화폭 분해 | | | | 2010-2022년 고용 변화폭 분해 | | | | |
|---|---|---|---|---|---|---|---|---|---|---|---|
| | |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오차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222 | 281 | 779 | -557 | 7,518 | 2,544 | 7,790 | -2,817 | 1 |
|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65 | 63 | 162 | -97 | 4,989 | 4,825 | 1,151 | -988 | 1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37 | 82 | 224 | -87 | 4,209 | 850 | 4,040 | -681 | 0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970 | 917 | 1,379 | -409 | 3,362 | 779 | 4,713 | -2,145 | 15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694 | 223 | 926 | -232 | 3,133 | 493 | 3,966 | -1,346 | 20 |
| | 561 | 음식점업 | 2,058 | 145 | 2,517 | -459 | 3,051 | -12 | 3,750 | -710 | 23 |
| | 861 | 병원 | 12 | 99 | 51 | -39 | 2,162 | 868 | 1,809 | -515 | 0 |
| | 682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256 | 150 | 394 | -138 | 1,734 | -18 | 2,716 | -966 | 2 |
| | 471 | 종합 소매업 | 453 | 61 | 554 | -101 | 1,585 | 133 | 1,677 | -233 | 8 |
| | 203 |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54 | 91 | 140 | -86 | 1,397 | 1,181 | 1,204 | -990 | 2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7 | 119 | 240 | -267 | -3,958 | -1,283 | 2,988 | -5,665 | 2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23 | 13 | 12 | -35 | -2,907 | -981 | 65 | -1,991 | 0 |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21 | 33 | 51 | -72 | -2,128 | -175 | 443 | -2,396 | 0 |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 105 | 14 | 112 | -7 | -1,214 | -1,563 | 558 | -209 | 0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0 | 55 | 65 | -55 | -1,124 | -257 | 667 | -1,534 | 0 |
| | 75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122 | 32 | 239 | -117 | -579 | -453 | 1,579 | -1,708 | 3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16 | 42 | 34 | -18 | -468 | -223 | 385 | -631 | 1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0 | 8 | 17 | -17 | -402 | 58 | 66 | -526 | 0 |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2 | 2 | 2 | 0 | -327 | -386 | 59 | 0 | 0 |
| | 739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 | 10 | 7 | -10 | -287 | -217 | 21 | -91 | 0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3〉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남부권

(단위 : 명)

| 구분 | KSIC | | 2010-2022년 사업장수 변화폭 분해 | | | | 2010-2022년 고용 변화폭 분해 | | | | |
|---|---|---|---|---|---|---|---|---|---|---|---|
| | |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오차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204 | 152 | 464 | -260 | 5,115 | 1,133 | 5,528 | -1,547 | 1 |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158 | 190 | 297 | -139 | 4,626 | 1,870 | 3,892 | -1,139 | 3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62 | 55 | 218 | -56 | 3,401 | 585 | 3,557 | -741 | 0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700 | 715 | 952 | -252 | 2,079 | 189 | 3,383 | -1,503 | 10 |
| | 561 | 음식점업 | 1,189 | 65 | 1,393 | -204 | 1,776 | 58 | 2,049 | -350 | 19 |
| | 2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81 | 170 | 379 | -98 | 1,408 | 339 | 1,592 | -524 | 1 |
| | 471 | 종합 소매업 | 334 | 22 | 379 | -45 | 1,220 | 45 | 1,270 | -97 | 2 |
| | 861 | 병원 | 4 | 50 | 29 | -25 | 1,195 | 252 | 1,414 | -471 | 0 |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업 | 267 | 106 | 364 | -97 | 1,079 | -37 | 1,588 | -477 | 5 |
|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79 | 109 | 211 | -32 | 984 | 133 | 1,049 | -199 | 1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64 | 215 | 241 | -177 | -885 | -746 | 1,106 | -1,248 | 3 |
| | 681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101 | 16 | 124 | -23 | -315 | -264 | 146 | -199 | 2 |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12 | 5 | 21 | -9 | -300 | -103 | 136 | -334 | 1 |
|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5 | 8 | 14 | -9 | -281 | -76 | 51 | -257 | 1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19 | 141 | 210 | -91 | -170 | -262 | 645 | -553 | 0 |
| | 649 | 기타 금융업 | 1 | 10 | 1 | 0 | -148 | -148 | 0 | 0 | 0 |
| | 412 | 토목 건설업 | -11 | 0 | 7 | -18 | -88 | 0 | 6 | -97 | 3 |
| | 581 |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 11 | 10 | 12 | -1 | -87 | -125 | 39 | -1 | 0 |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3 | 0 | 7 | -4 | -84 | 0 | 14 | -98 | 0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5 | 1 | 6 | -1 | -77 | -78 | 20 | -19 | 0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4〉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에 대한 고용 변화폭 분해 : 2010-2022년, 경북 북부권

(단위 : 명)

| 구분 | KSIC | | 2010-2022년 사업장수 변화폭 분해 | | | | 2010-2022년 고용 변화폭 분해 | | | | |
|---|---|---|---|---|---|---|---|---|---|---|---|
| | |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변화폭 | 유지 | 생성 | (-)소멸 | 오차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366 | 209 | 537 | -171 | 6,803 | 947 | 7,110 | -1,256 | 2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96 | 1,062 | 1,194 | -298 | 3,413 | 507 | 4,333 | -1,434 | 7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91 | 95 | 157 | -66 | 2,772 | 659 | 2,677 | -566 | 2 |
| | 861 | 병원 | 5 | 64 | 22 | -17 | 2,106 | 944 | 1,416 | -254 | 0 |
| | 841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36 | 26 | 147 | -183 | 1,517 | 2,092 | 597 | -1,101 | -71 |
| | 561 | 음식점업 | 1,187 | 131 | 1,466 | -279 | 1,298 | 84 | 1,687 | -489 | 16 |
| | 351 | 전기업 | 62 | 24 | 65 | -3 | 1,146 | 129 | 1,023 | -1 | -5 |
|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58 | 102 | 190 | -32 | 741 | -14 | 978 | -223 | 0 |
| | 852 | 중등 교육기관 | -10 | 106 | 7 | -17 | 672 | 618 | 81 | -27 | 0 |
| | 471 | 종합 소매업 | 242 | 48 | 298 | -56 | 629 | 22 | 743 | -136 | 0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842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17 | 26 | 12 | -29 | -862 | 557 | 158 | -1,577 | 0 |
| | 742 | 건물 ·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업 | 31 | 14 | 70 | -39 | -368 | -97 | 246 | -508 | -9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3 | 26 | 27 | -24 | -260 | -182 | 83 | -161 | 0 |
| | 39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13 | 0 | 4 | -17 | -251 | 0 | 62 | -248 | -65 |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1 | 1 | 3 | -2 | -193 | -193 | 4 | -4 | 0 |
|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업 | 28 | 55 | 46 | -18 | -190 | -297 | 291 | -184 | 0 |
|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0 | 0 | 4 | -4 | -119 | 0 | 12 | -131 | 0 |
| | 412 | 토목 건설업 | -5 | 0 | 13 | -18 | -105 | 0 | 20 | -130 | 5 |
|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1 | 1 | 0 | -1 | -71 | 4 | 0 | -75 | 0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1 | 0 | 0 | -1 | -66 | 0 | 0 | -66 | 0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제3절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분석

□ 경북 전체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는 2022년에 여성(91.0%)과 장년(50-64세, 46.5%)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45.1%)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5〉 참조).

○ 한편, 경북 전체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전자부품 제조업에서는 2022년에 남성(63,7%)과 중년(35-49세, 44.4%)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2-3백만원(39.4%)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표 3-15〉 참조).

□ 경북 동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는 2022년에 여성(93.4%)과 장년(50-64세, 48.0%)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44.4%)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6〉 참조).

○ 한편, 경북 동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서는 2022년에 남성(79,7%)과 장년(50-64세, 38.1%)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2-3백만원(51.1%)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6〉 참조).

□ 경북 서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는 2022년에 여성(88.4%)과 장년(50-64세, 42.0%)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48.4%)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7〉 참조).

○ 한편, 경북 서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전자부품 제조업에서는 2022년에 남성(62.6%)과 중년(35-49세, 44.5%)이 많았으며, 입직 시

기의 월평균임금은 2-3백만원(39.3%)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7〉 참조).

□ 경북 남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는 2022년에 여성(90.9%)과 장년(50-64세, 49.1%)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43.2%)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8〉 참조).

○ 한편, 경북 남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에서는 2022년에 남성(54.7%)과 장년(50-64세, 53.0%)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2-3백만원(39.9%)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8〉 참조).

□ 경북 북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는 2022년에 여성(90.9%)과 장년(50-64세, 48.3%)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43.3%)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9〉 참조).

○ 한편, 경북 북부권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에서는 2022년에 여성(68.2%)과 중년(35-49세, 42.8%)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2-3백만원(26.5%)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3-19〉 참조).

□ (요약) 경북 전체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는 2022년에 여성(91.0%)과 장년(50-64세, 46.5%)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45.1%)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경북의 4개 권역 모두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므로, 해당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모두에서 여성과 장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표 3-15〉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전체

(단위 : %)

| 구분 | KSIC | | 성별 | | 연령대 | | | | 월평균임금(만원) | | | | | | |
|---|---|---|---|---|---|---|---|---|---|---|---|---|---|---|---|
| | | | 남 | 여 | 청년 | 중년 | 장년 | 고령 | 1백- | 1-2백 | 2-3백 | 3-4백 | 4-5백 | 5백+ | 누락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9.0 | 91.0 | 11.7 | 28.8 | 46.5 | 13.0 | 38.5 | 45.1 | 12.3 | 0.9 | 0.3 | 0.4 | 2.5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5.5 | 84.5 | 9.2 | 20.7 | 55.7 | 14.3 | 22.7 | 44.9 | 24.6 | 2.5 | 0.6 | 0.3 | 4.5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5.3 | 14.7 | 11.4 | 36.5 | 45.3 | 6.8 | 3.3 | 38.8 | 25.6 | 9.3 | 7.6 | 6.5 | 8.9 |
| | 561 | 음식점업 | 29.8 | 70.2 | 30.4 | 22.3 | 40.7 | 6.6 | 14.7 | 42.7 | 35.6 | 4.4 | 0.6 | 0.2 | 1.8 |
| | 861 | 병원 | 23.2 | 76.8 | 34.7 | 32.8 | 27.7 | 4.9 | 1.4 | 33.6 | 37.2 | 9.9 | 0.8 | 6.4 | 10.7 |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95.3 | 4.7 | 26.0 | 34.6 | 38.3 | 1.1 | 0.1 | 4.3 | 20.0 | 11.9 | 5.2 | 5.3 | 53.1 |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81.8 | 18.2 | 25.5 | 44.2 | 28.7 | 1.5 | 1.2 | 15.2 | 30.4 | 18.7 | 5.9 | 4.7 | 23.8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84.3 | 15.7 | 24.4 | 41.8 | 30.4 | 3.5 | 1.3 | 20.1 | 36.2 | 19.9 | 6.9 | 4.1 | 11.5 |
|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77.8 | 22.2 | 22.3 | 36.8 | 36.6 | 4.3 | 1.2 | 18.9 | 39.4 | 10.9 | 1.3 | 0.6 | 27.7 |
| | 471 | 종합 소매업 | 36.2 | 63.8 | 25.2 | 35.5 | 36.6 | 2.8 | 19.6 | 51.2 | 22.1 | 3.5 | 1.0 | 0.4 | 2.3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63.7 | 36.3 | 34.8 | 44.4 | 19.9 | 1.0 | 1.8 | 22.5 | 39.4 | 20.0 | 2.9 | 2.2 | 11.2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70.7 | 29.3 | 22.3 | 49.2 | 27.8 | 0.7 | 1.0 | 22.4 | 26.3 | 15.3 | 4.4 | 5.1 | 25.5 |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78.5 | 21.5 | 32.7 | 48.7 | 17.9 | 0.7 | 0.9 | 14.8 | 14.6 | 14.7 | 10.6 | 5.4 | 39.0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53.2 | 46.8 | 14.3 | 30.2 | 50.9 | 4.6 | 1.8 | 28.0 | 39.8 | 14.0 | 2.9 | 1.5 | 12.1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66.9 | 33.1 | 16.4 | 28.5 | 49.8 | 5.3 | 0.7 | 28.7 | 30.3 | 13.2 | 4.4 | 1.4 | 21.3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92.8 | 7.2 | 3.1 | 16.4 | 60.9 | 19.7 | 27.5 | 22.0 | 22.2 | 11.9 | 0.3 | 0.2 | 16.0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63.4 | 36.6 | 25.1 | 49.6 | 24.5 | 0.8 | 1.8 | 17.0 | 43.9 | 5.5 | 1.0 | 0.8 | 30.0 |
|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79.8 | 20.2 | 14.3 | 37.6 | 38.5 | 9.6 | 2.4 | 13.5 | 50.4 | 24.8 | 6.7 | 0.9 | 1.3 |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67.1 | 32.9 | 21.4 | 45.7 | 30.0 | 2.9 | 0.0 | 4.3 | 58.6 | 14.3 | 7.1 | 4.3 | 11.4 |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71.3 | 28.7 | 17.1 | 50.4 | 26.4 | 6.2 | 5.4 | 58.1 | 17.1 | 9.3 | 3.9 | 2.3 | 3.9 |

주 : 청년(34세 미만), 중년(35-49세), 장년(50-64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6〉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동부권

(단위 : %)

| 구분 | KSIC | | 성별 | | 연령대 | | | | 월평균임금(만원) | | | | | | |
|---|---|---|---|---|---|---|---|---|---|---|---|---|---|---|---|
| | | | 남 | 여 | 청년 | 중년 | 장년 | 고령 | 1백- | 1-2백 | 2-3백 | 3-4백 | 4-5백 | 5백+ | 누락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6.6 | 93.4 | 11.0 | 26.2 | 48.0 | 14.8 | 42.3 | 44.4 | 10.9 | 0.8 | 0.2 | 0.3 | 1.1 |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95.5 | 4.5 | 26.3 | 34.5 | 38.3 | 0.9 | 0.1 | 3.9 | 19.6 | 11.5 | 5.2 | 5.4 | 54.3 |
| | 861 | 병원 | 20.0 | 80.0 | 36.5 | 31.4 | 27.5 | 4.6 | 1.2 | 33.3 | 38.7 | 9.3 | 1.0 | 6.9 | 9.5 |
| | 561 | 음식점업 | 29.6 | 70.4 | 31.6 | 22.8 | 39.3 | 6.3 | 13.7 | 42.2 | 35.5 | 4.8 | 0.7 | 0.3 | 2.8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5.4 | 14.6 | 12.0 | 40.3 | 41.6 | 6.2 | 2.5 | 28.1 | 22.7 | 11.2 | 11.0 | 10.2 | 14.3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2.7 | 87.3 | 8.6 | 22.0 | 54.8 | 14.6 | 26.9 | 43.8 | 22.5 | 2.2 | 0.6 | 0.2 | 3.8 |
| | 351 | 전기업 | 82.4 | 17.6 | 31.3 | 44.9 | 23.6 | 0.1 | 0.2 | 10.7 | 28.3 | 0.4 | 0.8 | 0.7 | 58.8 |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 61.7 | 38.3 | 16.8 | 30.6 | 45.7 | 6.8 | 1.2 | 10.2 | 55.5 | 23.5 | 2.3 | 2.3 | 4.9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89.3 | 10.7 | 24.4 | 39.8 | 31.5 | 4.3 | 0.6 | 14.6 | 30.6 | 22.6 | 7.4 | 4.3 | 19.8 |
| | 471 | 종합 소매업 | 33.5 | 66.5 | 24.2 | 35.8 | 37.2 | 2.7 | 23.1 | 50.9 | 19.3 | 3.8 | 0.6 | 0.4 | 1.9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79.7 | 20.3 | 14.6 | 37.4 | 38.1 | 9.9 | 2.3 | 11.9 | 51.1 | 25.5 | 7.0 | 0.9 | 1.4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93.3 | 6.7 | 2.6 | 15.5 | 59.8 | 22.0 | 29.0 | 23.0 | 20.2 | 12.3 | 0.2 | 0.1 | 15.2 |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업 | 86.9 | 13.1 | 17.1 | 41.5 | 34.5 | 6.9 | 0.6 | 13.9 | 37.5 | 22.8 | 6.0 | 2.0 | 17.2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31.1 | 68.9 | 15.2 | 35.2 | 43.0 | 6.6 | 0.4 | 46.3 | 35.2 | 5.7 | 3.3 | 0.8 | 8.2 |
| | 501 | 해상 운송업 | 87.7 | 12.3 | 15.4 | 26.9 | 31.5 | 26.2 | 0.0 | 10.0 | 23.8 | 23.1 | 24.6 | 4.6 | 13.8 |
| | 243 | 금속 주조업 | 86.6 | 13.4 | 17.3 | 42.3 | 30.6 | 9.9 | 0.4 | 12.3 | 40.8 | 18.0 | 7.4 | 4.2 | 16.9 |
|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82.7 | 17.3 | 16.2 | 37.2 | 39.6 | 6.9 | 0.6 | 12.7 | 38.5 | 16.1 | 6.4 | 4.5 | 21.2 |
|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88.1 | 11.9 | 11.0 | 36.0 | 46.9 | 6.1 | 1.3 | 24.7 | 41.2 | 14.7 | 2.5 | 1.0 | 14.5 |
| | 602 | 텔레비전 방송업 | 72.4 | 27.6 | 23.5 | 35.7 | 39.8 | 1.0 | 1.0 | 4.1 | 21.4 | 17.3 | 5.1 | 16.3 | 34.7 |
| | 75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53.3 | 46.7 | 12.6 | 12.6 | 45.7 | 29.0 | 6.5 | 49.0 | 37.0 | 4.6 | 1.0 | 0.2 | 1.7 |

주 : 청년(34세 미만), 중년(35-49세), 장년(50-64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7〉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서부권

(단위 : %)

| 구분 | KSIC | | 성별 | | 연령대 | | | | 월평균임금(만원) | | | | | | |
|---|---|---|---|---|---|---|---|---|---|---|---|---|---|---|---|
| | | | 남 | 여 | 청년 | 중년 | 장년 | 고령 | 1백- | 1-2백 | 2-3백 | 3-4백 | 4-5백 | 5백+ | 누락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1.6 | 88.4 | 13.4 | 36.6 | 42.0 | 8.0 | 31.1 | 48.4 | 13.4 | 1.2 | 0.4 | 0.7 | 4.9 |
|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77.1 | 22.9 | 22.6 | 35.8 | 38.3 | 3.3 | 0.6 | 18.0 | 38.7 | 9.0 | 0.9 | 0.3 | 32.6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6.9 | 83.1 | 10.2 | 20.4 | 56.2 | 13.3 | 21.1 | 47.7 | 24.8 | 2.0 | 0.4 | 0.4 | 3.6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4.8 | 15.2 | 11.0 | 34.4 | 47.7 | 6.9 | 4.1 | 42.3 | 26.5 | 9.4 | 6.9 | 5.1 | 5.8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81.0 | 19.0 | 24.4 | 45.3 | 28.2 | 2.2 | 1.9 | 24.2 | 38.7 | 19.0 | 6.7 | 4.3 | 5.2 |
| | 561 | 음식점업 | 28.1 | 71.9 | 26.8 | 23.1 | 43.9 | 6.3 | 13.8 | 43.5 | 37.3 | 3.5 | 0.6 | 0.3 | 1.0 |
| | 861 | 병원 | 22.7 | 77.3 | 33.9 | 35.5 | 25.9 | 4.6 | 1.5 | 35.7 | 37.3 | 9.0 | 0.6 | 6.3 | 9.7 |
| | 682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63.0 | 37.0 | 3.7 | 12.5 | 52.9 | 30.9 | 5.1 | 49.2 | 36.2 | 6.6 | 0.7 | 0.1 | 2.1 |
| | 471 | 종합 소매업 | 35.4 | 64.6 | 23.7 | 38.8 | 35.2 | 2.2 | 18.1 | 54.5 | 20.4 | 3.6 | 1.3 | 0.5 | 1.6 |
| | 203 |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89.8 | 10.2 | 24.8 | 39.1 | 35.0 | 1.2 | 0.9 | 9.6 | 23.7 | 21.2 | 5.0 | 2.8 | 36.9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62.6 | 37.4 | 35.2 | 44.5 | 19.4 | 0.9 | 1.9 | 22.5 | 39.3 | 19.8 | 2.8 | 2.3 | 11.3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70.9 | 29.1 | 19.7 | 50.8 | 28.9 | 0.6 | 0.8 | 19.0 | 26.9 | 15.6 | 4.9 | 5.5 | 27.4 |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78.4 | 21.6 | 32.7 | 49.0 | 17.7 | 0.6 | 0.9 | 14.7 | 14.3 | 14.7 | 10.6 | 5.4 | 39.5 |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 68.1 | 31.9 | 31.8 | 36.1 | 27.0 | 5.1 | 8.7 | 39.2 | 33.6 | 7.0 | 1.7 | 2.6 | 7.1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77.2 | 22.8 | 16.8 | 34.0 | 45.3 | 3.9 | 0.3 | 19.4 | 28.4 | 13.6 | 5.3 | 1.5 | 31.5 |
| | 75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51.5 | 48.5 | 18.7 | 31.0 | 42.0 | 8.3 | 3.9 | 53.4 | 36.7 | 2.8 | 0.9 | 0.3 | 2.0 |
|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92.0 | 8.0 | 2.6 | 16.1 | 65.5 | 15.8 | 22.6 | 28.6 | 20.3 | 11.7 | 0.5 | 0.2 | 16.1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63.4 | 36.6 | 24.2 | 48.7 | 26.3 | 0.9 | 1.5 | 16.5 | 44.0 | 3.5 | 0.9 | 0.3 | 33.3 |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67.1 | 32.9 | 21.4 | 45.7 | 30.0 | 2.9 | 0.0 | 4.3 | 58.6 | 14.3 | 7.1 | 4.3 | 11.4 |
| | 739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81.8 | 18.2 | 37.7 | 29.8 | 25.0 | 7.5 | 0.7 | 11.3 | 47.3 | 18.8 | 8.2 | 9.6 | 4.1 |

주 : 청년(34세 미만), 중년(35-49세), 장년(50-64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8〉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남부권

(단위 : %)

| 구분 | KSIC | | 성별 | | 연령대 | | | | 월평균임금(만원) | | | | | | |
|---|---|---|---|---|---|---|---|---|---|---|---|---|---|---|---|
| | | | 남 | 여 | 청년 | 중년 | 장년 | 고령 | 1백- | 1-2백 | 2-3백 | 3-4백 | 4-5백 | 5백+ | 누락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9.1 | 90.9 | 10.6 | 27.1 | 49.1 | 13.1 | 42.2 | 43.2 | 11.6 | 0.6 | 0.2 | 0.1 | 2.2 |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84.7 | 15.3 | 28.1 | 45.1 | 25.3 | 1.5 | 1.1 | 14.7 | 29.4 | 21.7 | 6.2 | 4.8 | 22.2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3.9 | 86.1 | 8.2 | 19.9 | 56.6 | 15.3 | 22.7 | 46.1 | 23.9 | 2.7 | 0.7 | 0.3 | 3.6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3.9 | 16.1 | 12.3 | 34.3 | 45.8 | 7.6 | 3.3 | 41.2 | 28.6 | 9.6 | 6.2 | 4.7 | 6.4 |
| | 561 | 음식점업 | 34.0 | 66.0 | 34.0 | 21.6 | 38.0 | 6.4 | 17.2 | 40.4 | 34.9 | 5.6 | 0.6 | 0.2 | 1.2 |
| | 2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73.5 | 26.5 | 26.2 | 40.7 | 30.0 | 3.1 | 1.4 | 26.3 | 39.0 | 19.7 | 3.0 | 1.8 | 8.8 |
| | 471 | 종합 소매업 | 39.6 | 60.4 | 28.2 | 32.3 | 36.9 | 2.5 | 17.3 | 46.8 | 26.9 | 4.0 | 1.4 | 0.3 | 3.2 |
| | 861 | 병원 | 24.2 | 75.8 | 30.5 | 30.9 | 32.6 | 6.1 | 1.0 | 34.0 | 44.1 | 8.3 | 0.8 | 6.8 | 5.0 |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업 | 79.8 | 20.2 | 21.3 | 36.3 | 38.1 | 4.3 | 1.8 | 32.9 | 39.7 | 13.6 | 4.2 | 2.4 | 5.4 |
|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83.1 | 16.9 | 22.0 | 29.0 | 37.6 | 11.5 | 3.2 | 26.9 | 22.3 | 11.8 | 13.3 | 12.8 | 9.7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54.7 | 45.3 | 14.4 | 28.2 | 53.0 | 4.4 | 1.0 | 28.7 | 39.9 | 13.9 | 2.3 | 0.9 | 13.3 |
| | 681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55.2 | 44.8 | 21.8 | 36.4 | 32.1 | 9.7 | 7.3 | 46.1 | 20.0 | 9.1 | 7.9 | 7.3 | 2.4 |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65.9 | 34.1 | 21.5 | 51.0 | 26.1 | 1.5 | 1.5 | 34.5 | 42.5 | 5.0 | 2.7 | 1.1 | 12.6 |
|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66.0 | 34.0 | 5.2 | 25.8 | 59.8 | 9.3 | 2.1 | 32.0 | 37.1 | 13.4 | 2.1 | 3.1 | 10.3 |
|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50.0 | 50.0 | 14.6 | 19.6 | 58.1 | 7.7 | 1.5 | 42.8 | 33.7 | 12.8 | 2.7 | 1.2 | 5.3 |
| | 649 | 기타 금융업 | 60.1 | 39.9 | 26.1 | 42.2 | 30.7 | 1.0 | 1.0 | 22.5 | 16.4 | 7.4 | 5.9 | 7.4 | 39.4 |
| | 412 | 토목 건설업 | 88.9 | 11.1 | 11.1 | 33.3 | 44.4 | 11.1 | 0.0 | 22.2 | 33.3 | 22.2 | 22.2 | 0.0 | 0.0 |
| | 581 |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 68.6 | 31.4 | 30.3 | 27.6 | 42.1 | 0.0 | 0.0 | 18.9 | 21.1 | 0.0 | 0.0 | 0.0 | 60.0 |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71.4 | 28.6 | 28.6 | 42.9 | 14.3 | 14.3 | 0.0 | 71.4 | 28.6 | 0.0 | 0.0 | 0.0 | 0.0 |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66.7 | 33.3 | 38.1 | 61.9 | 0.0 | 0.0 | 0.0 | 9.5 | 57.1 | 23.8 | 4.8 | 0.0 | 4.8 |

주 : 청년(34세 미만), 중년(35-49세), 장년(50-64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표 3-19〉 고용 변화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 2022년 기준, 경북 북부권

(단위 : %)

| 구분 | KSIC | | 성별 | | 연령대 | | | | 월평균임금(만원) | | | | | | |
|---|---|---|---|---|---|---|---|---|---|---|---|---|---|---|---|
| | | | 남 | 여 | 청년 | 중년 | 장년 | 고령 | 1백- | 1-2백 | 2-3백 | 3-4백 | 4-5백 | 5백+ | 누락 |
| 고용 증가 10대 산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9.1 | 90.9 | 11.4 | 23.4 | 48.3 | 16.9 | 40.1 | 43.3 | 13.5 | 0.9 | 0.3 | 0.1 | 1.8 |
| | 419 | 건설업본사(소분류) | 86.9 | 13.1 | 10.0 | 34.6 | 48.4 | 7.0 | 3.6 | 50.1 | 26.5 | 6.2 | 4.2 | 3.9 | 5.5 |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7.9 | 82.1 | 9.7 | 20.8 | 55.0 | 14.5 | 20.7 | 41.1 | 27.2 | 3.0 | 0.8 | 0.2 | 7.0 |
| | 861 | 병원 | 28.2 | 71.8 | 34.7 | 33.6 | 26.9 | 4.9 | 1.8 | 32.0 | 31.1 | 12.5 | 0.6 | 5.6 | 16.5 |
| | 841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57.4 | 42.6 | 18.4 | 32.9 | 37.3 | 11.4 | 8.4 | 35.2 | 35.7 | 6.1 | 1.2 | 0.5 | 12.9 |
| | 561 | 음식점업 | 29.1 | 70.9 | 30.2 | 20.1 | 41.1 | 8.6 | 16.1 | 45.3 | 33.1 | 3.5 | 0.2 | 0.0 | 1.8 |
| | 351 | 전기업 | 78.6 | 21.4 | 47.4 | 23.5 | 27.8 | 1.3 | 1.2 | 5.9 | 47.6 | 1.4 | 1.1 | 3.4 | 39.4 |
|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9.1 | 20.9 | 18.8 | 35.4 | 31.3 | 14.6 | 10.4 | 47.4 | 22.7 | 6.6 | 3.4 | 2.4 | 7.3 |
| | 852 | 중등 교육기관 | 32.0 | 68.0 | 20.9 | 30.2 | 39.3 | 9.5 | 19.5 | 17.2 | 27.2 | 16.1 | 5.7 | 2.2 | 12.2 |
| | 471 | 종합 소매업 | 37.9 | 62.1 | 25.2 | 32.9 | 37.4 | 4.5 | 19.1 | 51.9 | 23.3 | 2.2 | 0.3 | 0.3 | 2.8 |
| 고용 감소 10대 산업 | 842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31.8 | 68.2 | 18.3 | 42.8 | 35.9 | 3.0 | 4.9 | 21.2 | 26.5 | 17.0 | 4.6 | 1.3 | 24.5 |
| | 742 | 건물 ·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업 | 48.3 | 51.4 | 10.2 | 16.2 | 52.1 | 21.6 | 11.7 | 54.9 | 28.3 | 1.3 | 1.0 | 0.0 | 2.9 |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42.6 | 57.4 | 7.8 | 28.7 | 57.0 | 6.6 | 2.0 | 31.6 | 33.6 | 8.6 | 2.0 | 1.2 | 20.9 |
| | 39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29.0 | 71.0 | 41.9 | 1.6 | 8.1 | 48.4 | 90.3 | 6.5 | 3.2 | 0.0 | 0.0 | 0.0 | 0.0 |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58.1 | 41.9 | 25.8 | 38.7 | 35.5 | 0.0 | 6.5 | 54.8 | 22.6 | 12.9 | 0.0 | 0.0 | 3.2 |
|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업 | 87.4 | 12.6 | 15.1 | 32.0 | 42.2 | 10.8 | 1.0 | 11.8 | 53.7 | 16.2 | 3.8 | 1.3 | 12.3 |
|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75.0 | 25.0 | 41.7 | 33.3 | 25.0 | 0.0 | 16.7 | 0.0 | 50.0 | 16.7 | 16.7 | 0.0 | 0.0 |
| | 412 | 토목 건설업 | 76.0 | 24.0 | 12.0 | 40.0 | 48.0 | 0.0 | 8.0 | 12.0 | 28.0 | 40.0 | 4.0 | 8.0 | 0.0 |
|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0.0 | 80.0 | 20.0 | 40.0 | 0.0 | 40.0 | 60.0 | 20.0 | 20.0 | 0.0 | 0.0 | 0.0 | 0.0 |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청년(34세 미만), 중년(35-49세), 장년(50-64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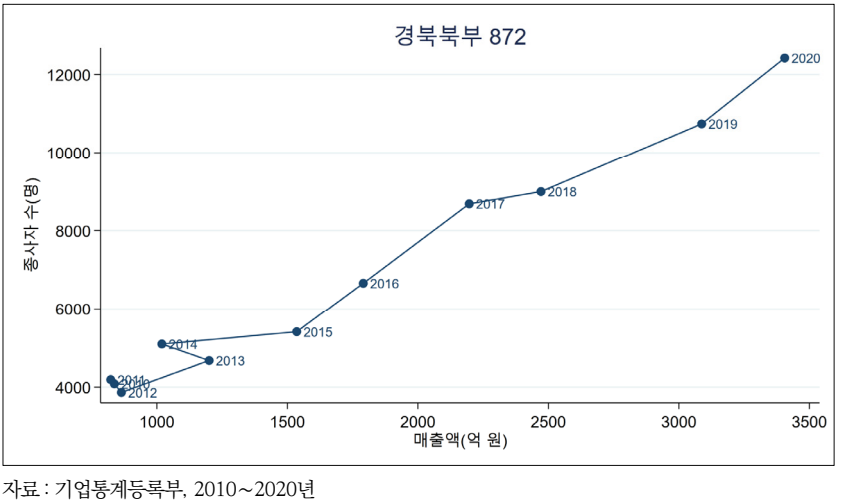
## 제4절 일자리 증가 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전략의 정합성 평가

□ (북부) 일자리 창출 목표의 양적 달성이 용이한 사례이나, 구체적인 대상 목표를 시니어 민간일자리 및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수정을 검토

○ 경상북도 전체 혹은 북부지역의 시니어 고용은 민간일자리에서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경북 북부지역으로 한정하여도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872)을 중심으로 민간 고용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서비스업(87)의 경우 한 해 1,000명 안팎의 순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그림 3-1] 경북북부 비거주복지시설(872) 산업의 고용 및 생산 추이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0~2020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경북 전체로 보았을 때 매년 8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일자리는 80-90%가 여성이며, 절반 가까이가 50-64세 장년층이고, 월 200만원(최저임금 풀타임) 이하 소득을 얻는 경우가 60-80%인

경력단절 여성을 상대적인 고령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함.

- 경북 북부 고용증가 10대 산업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병원,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전기업으로 나타났으나 병원의 경우 간호사 등 여성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이 양적으로 많고, 음식점업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의 경우에도 자본이나 기술이 있는 직종보다는 직업 안정성이 낮은 서빙,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질 좋은 청년일자리에 해당하지 않음.
- 전기업의 경우 건설업과 달리 중년보다 청년층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으나, 임금이 100-300만원에 해당함을 볼 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높은 일자리의 비중이 낮아보이며 산업의 규모 자체가 작고 성장성이 제한적인 기초인프라 산업에 해당하여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보기는 힘듦.

○ 북부지역에서 고용창출을 기대할 만한 신산업은 바이오헬스 밸류체인과 관련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임.

- 최근 5년내 고용 순증가(2018-2022년)를 기준으로 경북 북부를 살펴보면, 10위에 의약품 제조업(212)이 차지하고 있으며, 21위에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211), 18위에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이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헬스 중심의 고용성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됨(노동집약적인 식료품 제조업보다도 고용순증가 폭이 큰 상태임).
- 고령인구가 많은 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초화학물질제조업-의약품제조업-병원-사회복지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
- 다만, 아직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보다도 성장이 부진하므로 제조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3-20〉 경북북부 바이오헬스 관련 신산업

(단위 : 명)

| KSIC | 산업명 | 2018년 피보험자 | 2019년 피보험자 | 2020년 피보험자 | 2021년 피보험자 | 2022년 피보험자 | 2010-2022년 순증가 | 2018-2022년 순증가 |
|---|---|---|---|---|---|---|---|---|
| 212 | 의약품 제조업 | 198 | 228 | 479 | 568 | 510 | 493 | 295 |
| 861 | 병원 | 5,695 | 5,766 | 5,793 | 5,941 | 5,940 | 2,106 | 245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728 | 781 | 836 | 832 | 890 | 536 | 162 |
| 211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164 | 244 | 275 | 299 | 318 | 278 | 154 |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399 | 370 | 470 | 496 | 548 | 285 | 1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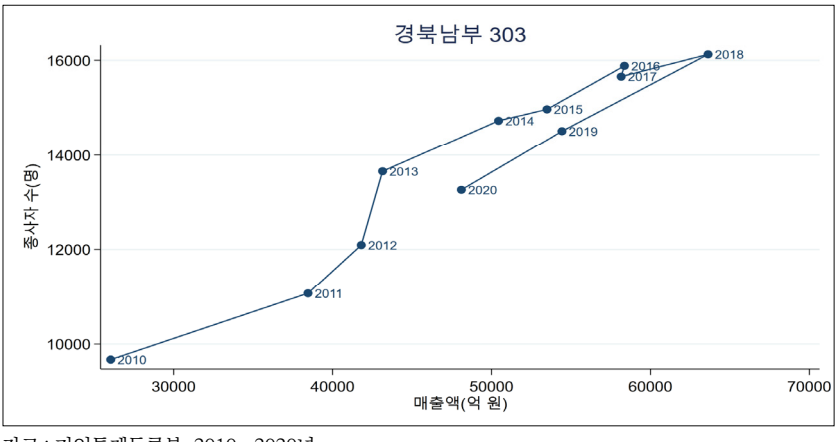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남부) 양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 변동성이 큰 자동차부품업 이 외에도 대안적인 산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고용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2018~2022년)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으로, 2017년 15,303명을 정점으로 고용이 정체 혹은 소폭 하락하고 있음.

- 기업통계등록부에서는 2018년 종사자 수 최고점 이후 생산과 고용이 동반 하락 중이므로, 일시적인 고용하락이라기보다는 저이윤 사업체의 구조조정을 동반한 구조적인 고용하락으로 보임.
- 특히, 코로나19 회복기였던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생산량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DB로 확인하였을 때 경북 남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는 2020년 대비 400명 정도 증가에 그쳐 그 크기가 제한적임.

[그림 3-2] 경북남부 자동차부품제조업(303)의 고용 및 생산 추이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0~2020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역에는 자동차부품제조에도 많이 활용되는 주물, 금형, 금속가공과 관련한 다른 산업들도 존재하므로 인적자원의 숙련을 활용하기 위한 금속가공 밸류체인을 넓게 잡아 일자리 창출을 다양한 전방산업을 대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고용이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하락한 소분류산업인 것과 대조적으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 공급 · 제어장치 제조업(281)은 고용순증가 10위 산업에 해당하고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또한 고용순증가 18위 산업에 해당함.
- 현재 자동차와 조선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건설업 경기는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동차 부품이라는 하나의 전방 수요산업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장비(28)와 조선(31), 자동차(30)의 경우 한동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금속가공 밸류체인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필요
- 경북 남부에서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의 고용순증가가 32위에 해당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아님을 감안할 때 다른 저부가가치형 일자리보다 고용창출의 양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21〉 경북남부 금속 · 기계와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상반된 고용 변화

(단위 : 명)

| KSIC | 산업명 | 2018년 피보험자 | 2019년 피보험자 | 2020년 피보험자 | 2021년 피보험자 | 2022년 피보험자 | 2010-2022년 순증가 | 2018-2022년 순증가 |
|---|---|---|---|---|---|---|---|---|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 2,135 | 2,524 | 2,453 | 2,437 | 2,454 | 903 | 319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257 | 2,269 | 2,464 | 2,402 | 2,487 | 814 | 230 |
| 203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1,148 | 1,165 | 1,137 | 1,195 | 1,345 | 423 | 197 |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233 | 441 | 376 | 394 | 424 | 244 | 191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265 | 2,293 | 2,281 | 2,295 | 2,430 | 1,079 | 165 |
| 742 |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973 | 1,085 | 1,057 | 1,093 | 1,097 | 389 | 124 |
| 465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358 | 363 | 402 | 424 | 450 | 250 | 92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704 | 706 | 653 | 686 | 794 | 216 | 90 |
| 739 |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7 | 192 | 214 | 212 | 204 | 120 | 67 |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003 | 2,903 | 2,848 | 2,831 | 2,798 | 669 | -205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3,420 | 3,313 | 2,820 | 2,885 | 2,863 | -885 | -557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15,239 | 14,911 | 14,209 | 14,337 | 14,646 | 4,626 | -5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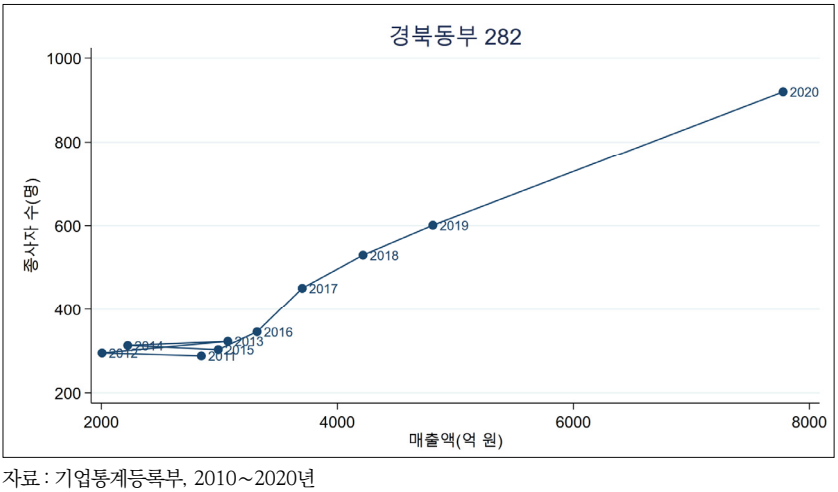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 (동부)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가 다양한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양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차전지산업 내에서 8,400명의 증가를 모두 이끌어낼 수는 없으므로 연구개발, 철강, 이차전지 소재, 이차전지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체로 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차전지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고용의 규모 자체가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므로 충분한 일자리가 확대되기는 힘듦.

- 통계기업등록부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산업 전체 고용 규모가 1,000여 명인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2022년에 산업 전체 고용 규모가 500명대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3-3] 경북동부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82)의 고용 및 생산 추이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0~2020년

○ 대기업 본사, 철강, 연구개발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차전지산업과 연관된 밸류체인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본사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용 순증가가 1,729명으로 이차전지 산업 전체 피보험자 수의 3배 이상이 본사에서 신규 고용이 늘어난 인원과 대등함.
- 타지역과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용 증가폭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회사본부의 고용 순증가가 전체 소분류 중 2위, 경비·경호 탐정업의 고용 증가가 5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의 고용 증가가 6위,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고용 증가가 15위, 자연과학연구개발업의 고용 증가가 16위,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 증가가 18위로 매우 높음.
- 이차전지(축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산업은 고용 증가 순위가 27위

에 그쳤으며,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경우 경북 남부뿐만 아니라 경북 동부에서도 최근 5년간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211위)으로 확인됨.

〈표 3-22〉 경북동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의 고용 변화

(단위 : 명)

| KSIC | 산업명 | 2018년 피보험자 | 2019년 피보험자 | 2020년 피보험자 | 2021년 피보험자 | 2022년 피보험자 | 2010-2022년 순증가 | 2018-2022년 순증가 |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803 | 1,433 | 2,076 | 2,368 | 2,532 | 2,285 | 1,729 |
| 753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 469 | 1,053 | 691 | 1,356 | 1,396 | 959 | 927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1,202 | 1,125 | 1,176 | 1,567 | 2,110 | 1,371 | 908 |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30 | 673 | 820 | 1,040 | 1,190 | 419 | 560 |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74 | 852 | 1059 | 1,151 | 1,305 | 512 | 531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28,478 | 28,812 | 28,522 | 29,350 | 28,986 | 8,305 | 508 |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302 | 541 | 538 | 517 | 531 | 247 | 229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14,294 | 13,759 | 13,346 | 13,658 | 13,544 | 841 | -750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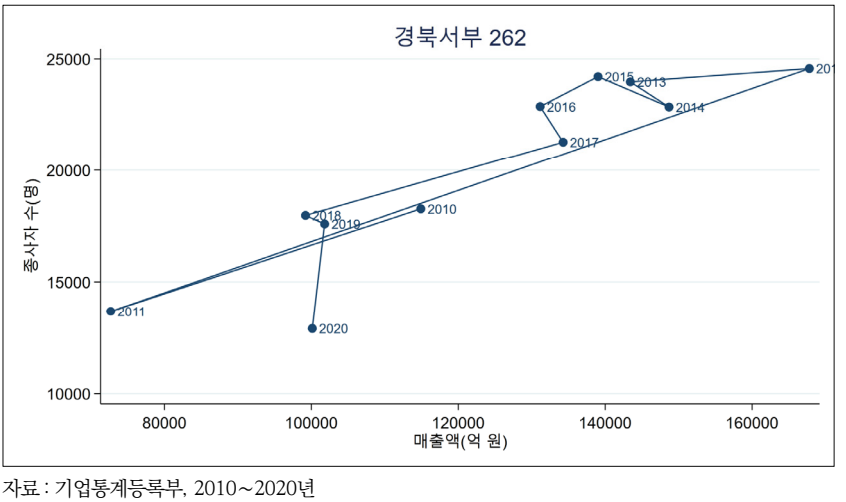
□ (서부) 전자산업 내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소분류산업과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소분류산업이 혼재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자리 순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화학제조업과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전자산업의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전략 수정 필요

○ 전자제조업 내 반도체제조업(261)의 경우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분류산업 19위에 해당하지만, 디스플레이나 기판부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제조업(262)은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 하위 7위

(197위)이며 가전,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265)은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 하위 8위(196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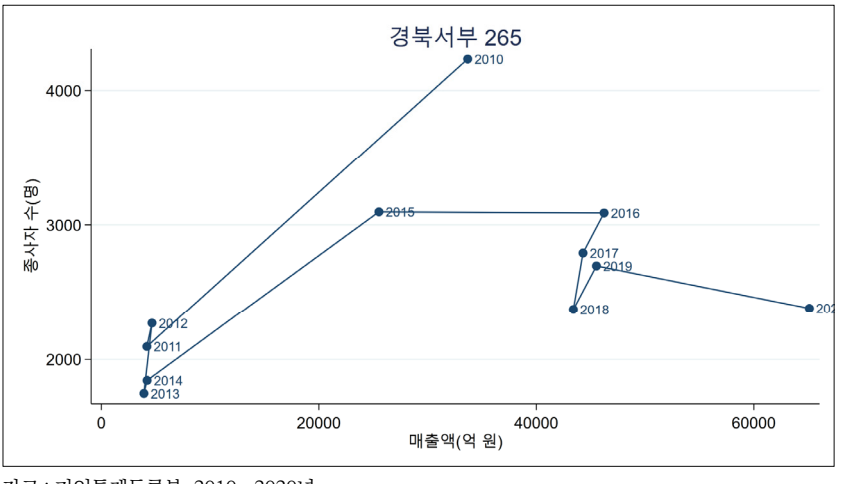
- 앞서 2010~2022년을 대상으로 고용변화 폭을 분해한 결과에서도 경북 서부지역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산업은 전자부품제조업(262)이고, 이러한 하락은 사업체의 소멸로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기업통계등록부를 확인해보아도, 경북 서부지역의 전자부품제조업(262)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모두 하락하였으므로 고용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영상 및 음향기기제조업(265)의 경우 2014년 이후 생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어 노동자가 담당하던 일부 공정이 기계로 대체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됨.
- 반도체 제조업(261)에서 고용 증가폭이 나머지 소분류산업의 고용하락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북서부의 경우 전자부품제조업(26) 중분류 전체 고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 경북서부 전자부품제조업(262)의 고용 및 생산 추이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0~2020년

[그림 3-5] 경북서부 영상 및 음향기기제조업(265)의 고용 및 생산 추이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0~2020년

○ 전자산업 대신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화학제조업, 금속가공, 기타운송서비스업을 대안으로 제안함.

- 화학제품제조업 내 다양한 소분류에서 고용 창출 규모가 큰 편으로,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203)은 고용 순증가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소분류산업이며,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은 13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은 16위에 해당함.
- 경북 내 다른 모든 지역은 최근 5년간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분류산업이 비거주복지시설(872)로 동일하였으나, 경북 서부지역에서는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으로 나타남.
- 해당 산업에서 이처럼 큰 폭의 고용 증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택시 · 음식배달 · 화물차 등 자영업자 및 종사자의 증가는 육상운송서비스업 내 소분류 492 혹은 494 등에 집계되므로 529의 고용 변화와는 관련성이 낮음.
-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의 경우 육상운송지원, 수상운송지원, 항공운송지원, 화물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어디에서 고용의 증가가 나타난 것인지 향후 보완 조사가 필요함.

- 기업통계등록부에서는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의 고용이 2017년 한 해만 높게 나타났다 사라진 것을 볼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와는 다른 고용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화물업의 SUB 혹은 HUB가 경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사자를 직고용 또는 인력공급업이나 사업자로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도 고용 증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서부지역의 일자리 양적 확대는 타지역에 비해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23〉 경북서부 고용증가 산업과 전자 제조업의 고용 변화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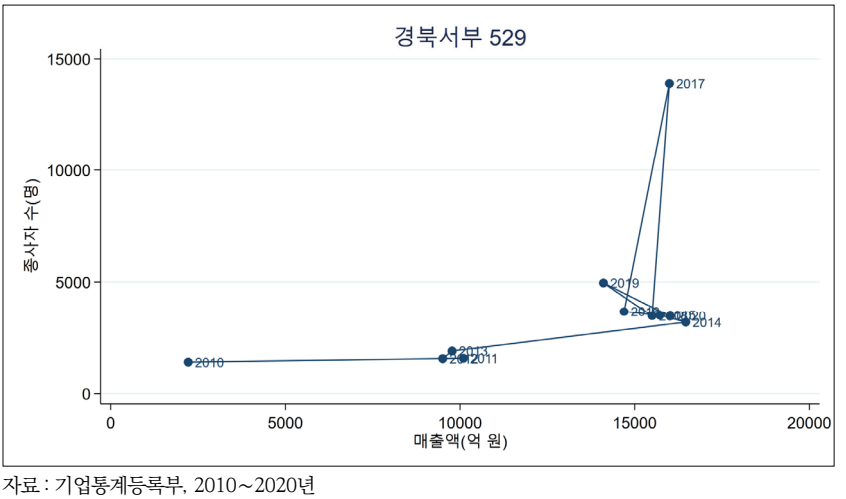
| KSIC | 산업명 | 2018년 피보험자 | 2019년 피보험자 | 2020년 피보험자 | 2021년 피보험자 | 2022년 피보험자 | 2010-2022년 순증가 | 2018-2022년 순증가 |
|---|---|---|---|---|---|---|---|---|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11,632 | 13,332 | 13,942 | 13,943 | 14,319 | 4,989 | 2,687 |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4,447 | 4,480 | 4,552 | 5,016 | 5,292 | 1,189 | 845 |
| 203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3,808 | 4,608 | 4,603 | 4,592 | 4,616 | 1,397 | 808 |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1,618 | 1,670 | 1,717 | 1,826 | 2,104 | -247 | 486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78 | 279 | 548 | 658 | 688 | 418 | 410 |
| 261 | 반도체 제조업 | 4,770 | 4,805 | 4,824 | 5,000 | 5,165 | 285 | 395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5,957 | 5,996 | 5,717 | 5,962 | 6,319 | -2,128 | 362 |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1,366 | 1,282 | 1,277 | 1,462 | 1,603 | 753 | 237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952 | 737 | 564 | 521 | 532 | -2,907 | -420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7,283 | 6,329 | 6,021 | 6,005 | 6,836 | -3,958 | -447 |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3,143 | 2,379 | 2,385 | 2,498 | 2,689 | 169 | -454 |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 1,986 | 1,901 | 1,725 | 1,661 | 1,496 | 383 | -490 |

〈표 3-23〉의 계속

| KSIC | 산업명 | 2018년 피보험자 | 2019년 피보험자 | 2020년 피보험자 | 2021년 피보험자 | 2022년 피보험자 | 2010-2022년 순증가 | 2018-2022년 순증가 |
|---|---|---|---|---|---|---|---|---|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6,650 | 6,410 | 6,245 | 6,192 | 6,124 | 363 | -526 |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1,299 | 1,364 | 1,374 | 1,420 | 757 | 211 | -542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642 | 633 | 474 | 420 | 70 | -327 | -572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5,416 | 4,962 | 4,835 | 4,985 | 4,540 | 839 | -876 |

자료 : 고용보험DB 원자료, 2010~2022년

[그림 3-6] 경북서부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의 고용 및 생산 추이




자료 : 기업통계등록부, 2010~2020년

제4장

# 경북 청년인구 이동 현황 및 특이점 분석

## 제1절 분석 개요

□ 본 절에서는 경북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관해 기초 분석을 하고자 함.

○ 특히,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나, 기존에 이러한 관점의 청년인구 이동에 관해 수행된 연구가 충분치 않으므로 본 장에서 관련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우선은 지역 청년 일자리의 질을 대표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 관련 마이크로 데이터 및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 현황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함.

□ 마이크로 분석은 크게 대졸 청년과 직업계고 졸업 청년에 대한 두 가지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 대졸 청년인구에 대해서만 기존에 축적된 통계자료가 존재하여,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점과 애초에 청년의 교육수준별로 이동 성향, 구직 성향이 상당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임.

○ 특히, 일반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치의 질이 높은 일자리를 구직할 동기가 높아 구직범위가 넓고, 지역 이동도 더 빈번함(Sjaastad, 1962; Melzer & Hinz, 2019; Schmutz, Sidibe, Vidal-Naquet, 2021; Wozniak, 2010; Bernard & Bell, 2018 등)

- 대졸 청년의 지역 이동에 대한 연구는 다수 축적되어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졸업시점의 지역경제(일자리) 여건으로 알려져 있음(한요셉, 2021; 김희삼, 2010 ; 강동우, 2016).

○ 이를 고려할 때, 지역 청년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대졸미만 청년들의 이탈 문제도 중요함.

○ 제3절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경북지역 대학 졸업 청년 표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 지역 이동 현황과 이동 청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간접적으로 이동시 어떤 일자리 요소가 고려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 제4절에서는 동일한 목적의 분석을 수행하되,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경북지역 직업계고 최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함.

- 직업계고 청년에 대해 일자리 관점에서 이동에 관해 조사함.
- 대졸 청년의 경우 기존에 축적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만 함의를 얻고 있어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청년이동의 일자리 요인에 관해서도 간접적으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제2절 경북지역 청년 일자리의 질 개관

## 1. 임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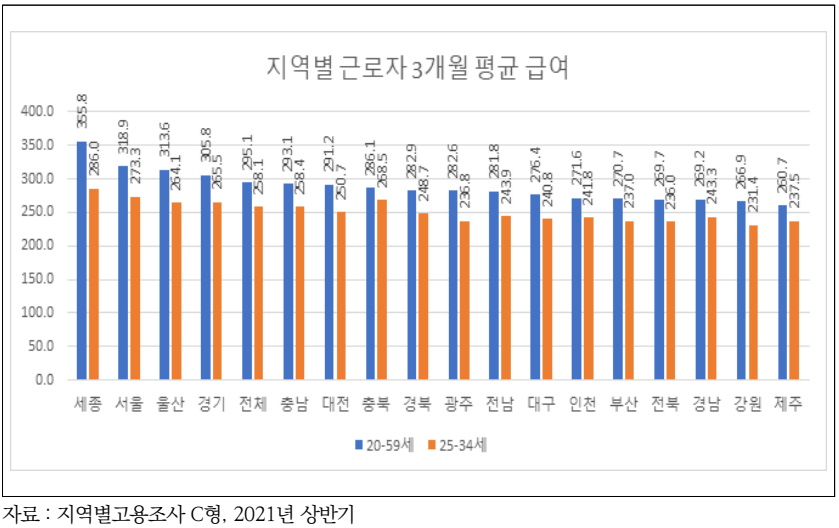
□ 전국 대비 높지 않은 임금 수준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기준)

○ 경북 근로자(20-59세)의 평균 급여 수준은 전국 대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 지역별 상대적 임금수준은 차이가 있는데, 경북 지역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전국 대비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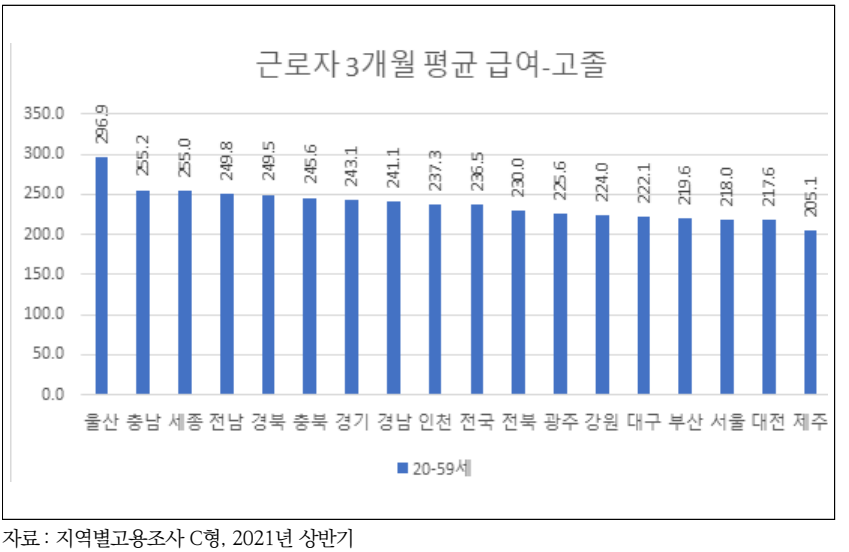
○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인구로 한정할 경우(만 20-34세) 고졸, 전문대졸 졸업자의 지역 평균임금은 여전히 상위권으로 나타나지만, 대졸 청년 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위에 가까움.

[그림 4-1]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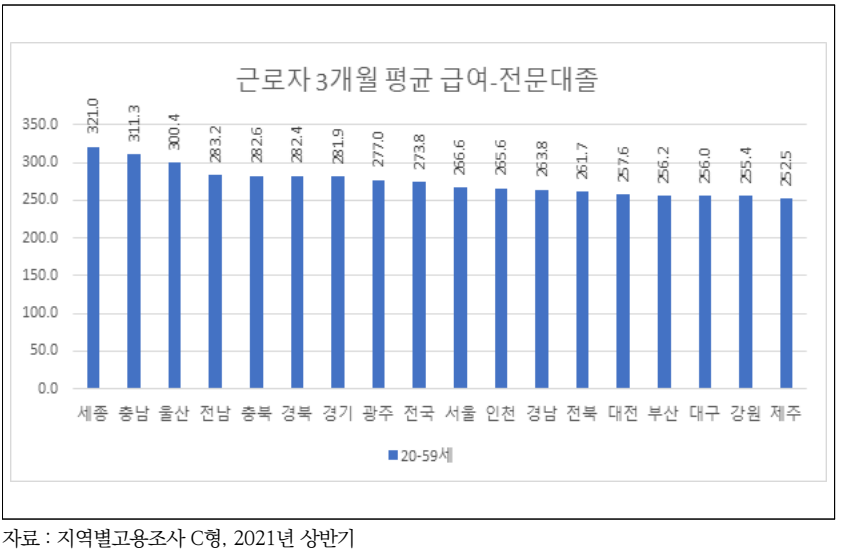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2]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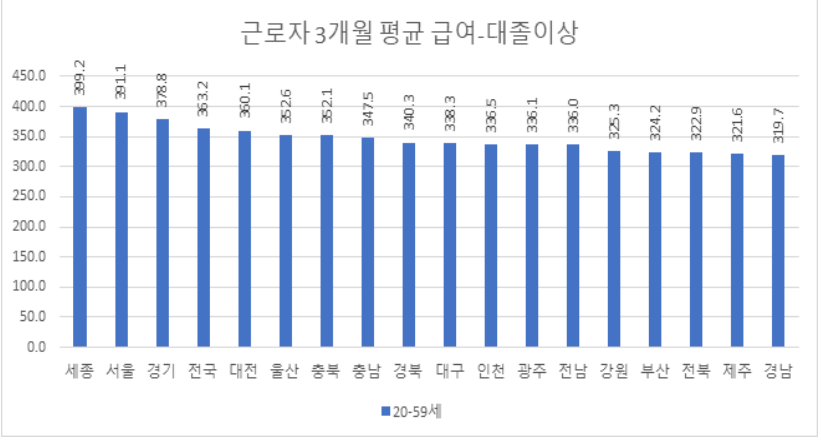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3]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전문대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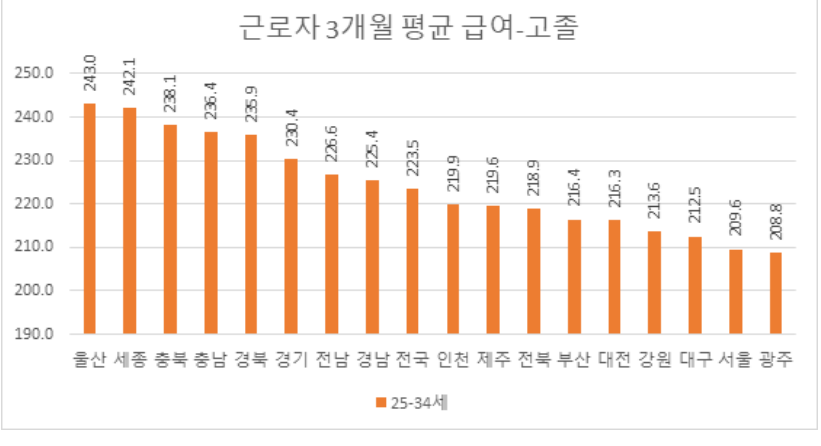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4] 지역별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대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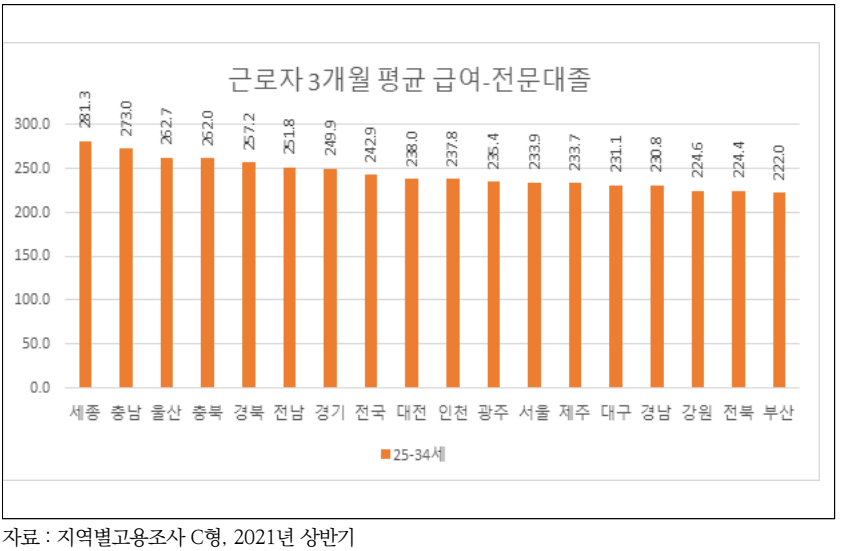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5] 지역별 청년(25-34세)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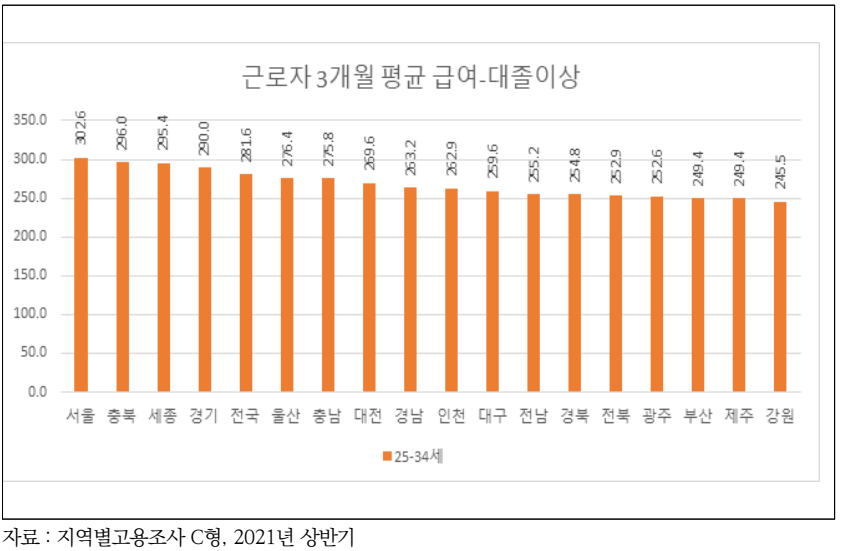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6] 지역별 청년(25-34세)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전문대졸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7] 지역별 청년(25-34세) 근로자의 3개월 평균 급여 수준 : 대졸 이상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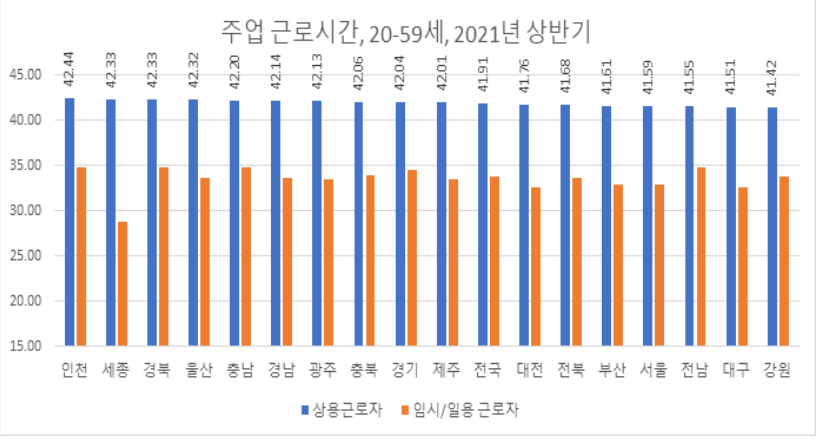
## 2. 근로시간

□ 전국 대비 긴 주업 근로시간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기준)

○ 경북지역 근로자의 평균 주업 근로시간은 인천, 세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 주 42.33시간 근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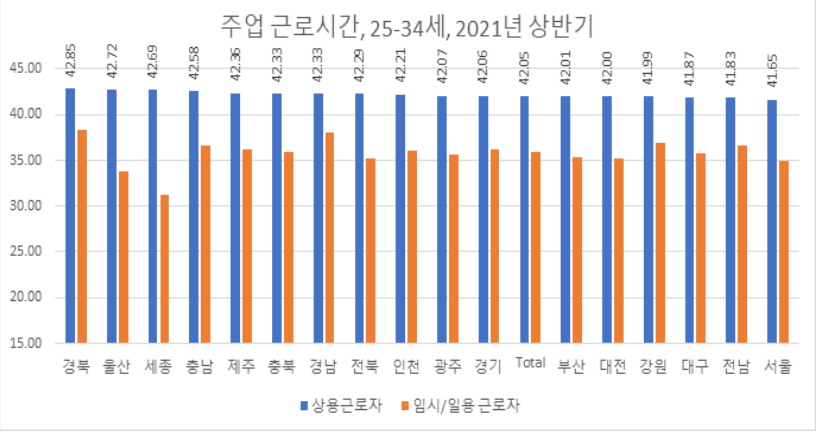
- 특히 주목할 점은 '주업'에 취업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집단(만 25-34세)만 제한할 경우, 전국에서 청년층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는 점임.
- 경북지역 청년은 주당 평균 42.8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지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주업 근로시간보다 높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 비중이 강한 타지역도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편이지만 근로자 연령대를 청년으로 제한하면 순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지역, 즉 청년 연령대의 근로시간이 유독 더 높은 지역은 경북지역인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 범주를 만 25-44세, 가임기 및 생산성이 성장하는 연령대로 넓혀보아도 경북이 전국에서 주업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해당 연령대(만 25-44세) 교육수준별로 보았을 때, 경북지역에서 고졸 및 전문대졸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높은 수준이며, 대졸자의 경우 임금과 마찬가지로 전국대비 거의 최하위 수준임.
- 즉, 경북 노동시장은 저학력 청년에게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과 전국 상위권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시장이고, 대졸자의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이 모두 낮은 일자리가 많은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음.

[그림 4-8] 지역별 평균 주업 근로시간 : 20-5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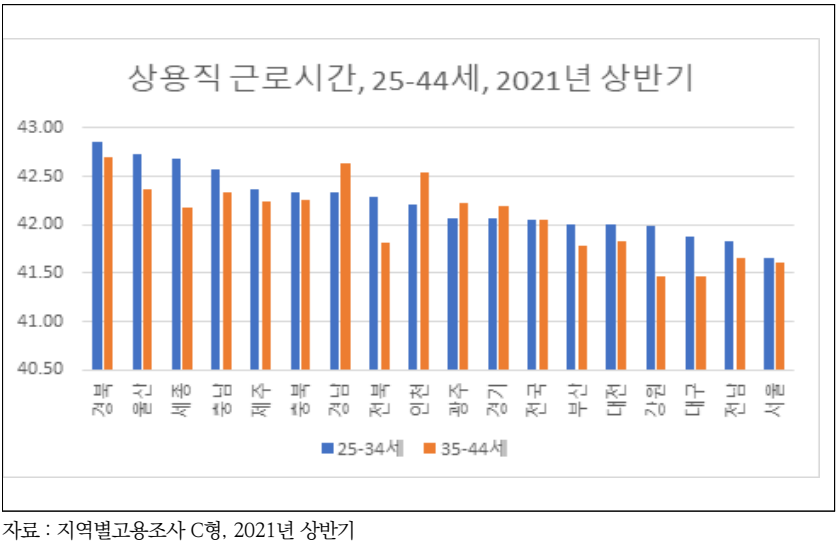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9] 지역별 평균 주업 근로시간 : 청년(2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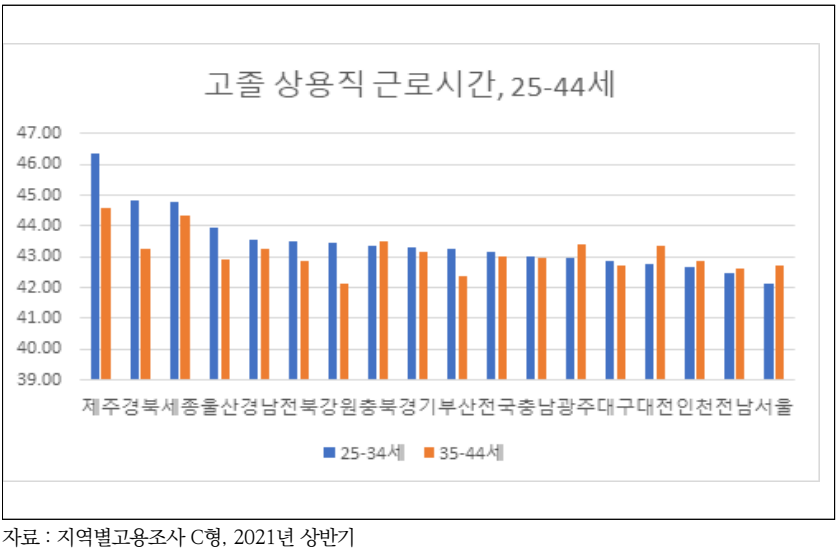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10] 지역별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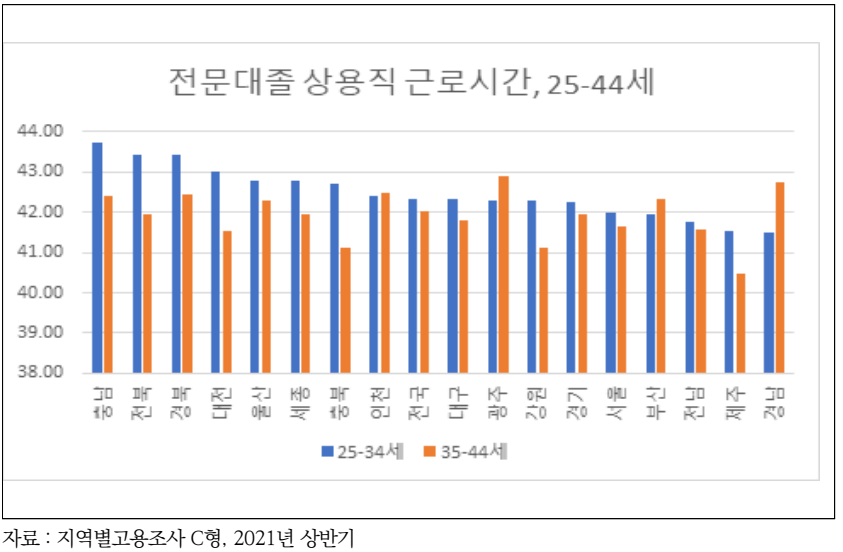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11] 지역별 고졸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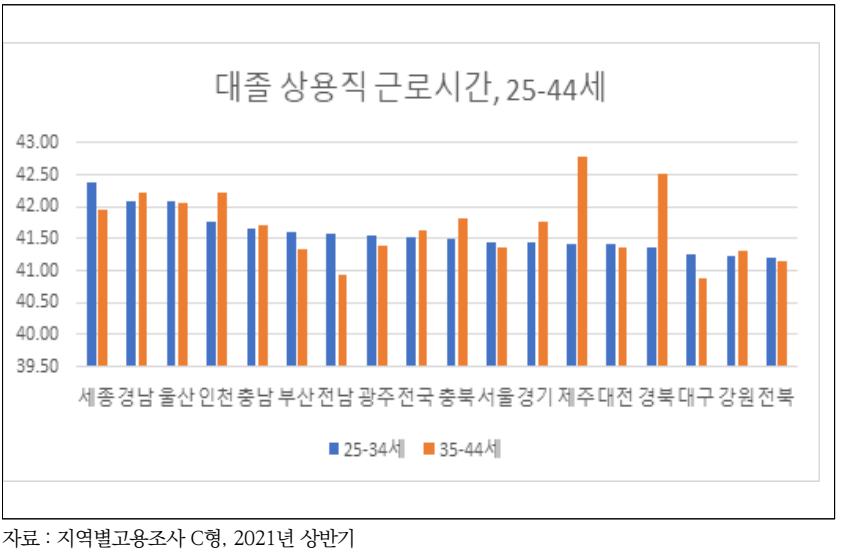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12] 지역별 전문대졸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그림 4-13] 지역별 대졸 상용직 근로시간 : 25-44세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표 4-1〉 고용형태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20-59세

| 시도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전체 |
|---|---|---|---|---|
| 서울 | 41.59 | 32.90 | 42.69 | 40.08 |
| 부산 | 41.61 | 32.85 | 44.31 | 40.64 |
| 대구 | 41.51 | 32.61 | 43.60 | 40.37 |
| 인천 | 42.44 | 34.81 | 45.09 | 41.26 |
| 광주 | 42.13 | 33.48 | 44.68 | 41.17 |
| 대전 | 41.76 | 32.57 | 44.34 | 40.55 |
| 울산 | 42.32 | 33.65 | 45.41 | 41.55 |
| 세종 | 42.33 | 28.83 | 43.52 | 41.18 |
| 경기 | 42.04 | 34.49 | 43.46 | 40.87 |
| 강원 | 41.42 | 33.72 | 45.39 | 41.03 |
| 충북 | 42.06 | 33.93 | 43.99 | 41.10 |
| 충남 | 42.20 | 34.76 | 44.19 | 41.45 |
| 전북 | 41.68 | 33.71 | 42.31 | 40.58 |
| 전남 | 41.55 | 34.89 | 43.71 | 40.93 |
| 경북 | 42.33 | 34.86 | 44.54 | 41.70 |
| 경남 | 42.14 | 33.68 | 43.86 | 41.11 |
| 제주 | 42.01 | 33.44 | 43.99 | 41.13 |
| 전국 | 41.91 | 33.80 | 43.77 | 40.80 |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원자료 재가공.

〈표 4-2〉 고용형태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25-34세

| 시도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전체 |
|---|---|---|---|---|
| 서울 | 41.65 | 34.90 | 42.24 | 40.59 |
| 부산 | 42.01 | 35.33 | 43.12 | 41.04 |
| 대구 | 41.87 | 35.76 | 41.67 | 40.73 |
| 인천 | 42.21 | 36.02 | 45.26 | 41.21 |
| 광주 | 42.07 | 35.68 | 45.06 | 41.23 |
| 대전 | 42.00 | 35.17 | 44.75 | 41.15 |
| 울산 | 42.72 | 33.82 | 45.33 | 41.76 |
| 세종 | 42.69 | 31.18 | 48.92 | 42.29 |
| 경기 | 42.06 | 36.21 | 41.48 | 41.01 |

〈표 4-2〉의 계속

| 시도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전체 |
|---|---|---|---|---|
| 강원 | 41.99 | 36.96 | 43.87 | 41.34 |
| 충북 | 42.33 | 35.90 | 47.43 | 41.83 |
| 충남 | 42.58 | 36.62 | 44.44 | 41.91 |
| 전북 | 42.29 | 35.25 | 39.89 | 40.86 |
| 전남 | 41.83 | 36.64 | 44.39 | 41.05 |
| 경북 | 42.85 | 38.40 | 43.07 | 42.20 |
| 경남 | 42.33 | 37.97 | 44.48 | 41.90 |
| 제주 | 42.36 | 36.16 | 43.05 | 41.73 |
| 전국 | 42.05 | 35.89 | 43.00 | 41.11 |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원자료 재가공.

〈표 4-3〉 25-34세 상용직 근로자 교육수준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시도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
| 서울 | 42.28 | 42.15 | 41.98 | 41.46 | 41.65 |
| 부산 | 44.17 | 43.28 | 41.96 | 41.60 | 42.01 |
| 대구 | 44.21 | 42.87 | 42.34 | 41.25 | 41.87 |
| 인천 | 47.80 | 42.68 | 42.40 | 41.77 | 42.21 |
| 광주 | 53.68 | 42.98 | 42.31 | 41.54 | 42.07 |
| 대전 | 54.36 | 42.74 | 43.03 | 41.41 | 42.00 |
| 울산 | 43.48 | 43.97 | 42.80 | 42.08 | 42.72 |
| 세종 | 43.45 | 44.78 | 42.79 | 42.38 | 42.69 |
| 경기 | 45.44 | 43.33 | 42.24 | 41.44 | 42.06 |
| 강원 | 53.17 | 43.46 | 42.30 | 41.22 | 41.99 |
| 충북 | 44.89 | 43.37 | 42.71 | 41.49 | 42.33 |
| 충남 | 41.30 | 43.00 | 43.73 | 41.66 | 42.58 |
| 전북 | 43.71 | 43.50 | 43.44 | 41.21 | 42.29 |
| 전남 | 39.59 | 42.47 | 41.75 | 41.59 | 41.83 |
| 경북 | 43.41 | 44.82 | 43.42 | 41.37 | 42.85 |
| 경남 | 41.63 | 43.57 | 41.51 | 42.09 | 42.33 |
| 제주 | 35.95 | 46.38 | 41.55 | 41.43 | 42.36 |
| 전국 | 44.01 | 43.14 | 42.34 | 41.51 | 42.05 |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원자료 재가공.

〈표 4-4〉 35-44세 상용직 근로자 교육수준별 주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시도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
| 서울 | 45.39 | 42.71 | 41.64 | 41.36 | 41.61 |
| 부산 | 42.50 | 42.37 | 42.32 | 41.34 | 41.78 |
| 대구 | 41.56 | 42.72 | 41.81 | 40.89 | 41.47 |
| 인천 | 44.85 | 42.87 | 42.47 | 42.22 | 42.54 |
| 광주 | 46.05 | 43.41 | 42.88 | 41.39 | 42.23 |
| 대전 | 40.98 | 43.36 | 41.55 | 41.35 | 41.83 |
| 울산 | 42.28 | 42.90 | 42.29 | 42.07 | 42.37 |
| 세종 | 40.00 | 44.36 | 41.96 | 41.96 | 42.19 |
| 경기 | 43.33 | 43.16 | 41.96 | 41.77 | 42.19 |
| 강원 | 41.25 | 42.11 | 41.10 | 41.30 | 41.47 |
| 충북 | 42.05 | 43.49 | 41.13 | 41.81 | 42.25 |
| 충남 | 43.53 | 42.95 | 42.42 | 41.71 | 42.33 |
| 전북 | 41.58 | 42.85 | 41.95 | 41.14 | 41.82 |
| 전남 | 47.65 | 42.60 | 41.57 | 40.92 | 41.66 |
| 경북 | 42.47 | 43.24 | 42.43 | 42.53 | 42.70 |
| 경남 | 41.10 | 43.28 | 42.75 | 42.22 | 42.64 |
| 제주 | 34.91 | 44.58 | 40.49 | 42.79 | 42.25 |
| 전국 | 42.93 | 43.01 | 42.02 | 41.62 | 42.05 |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원자료 재가공.

## 3. 근속기간

□ 경북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대 및 청년층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긴 지역으로 나타남(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기준).

○ 청년층 및 모든 학력수준별 집단에서 전국 대비 높은 편인 평균 근속기간을 나타내고 있음.

〈표 4-5〉 상용근로자 근속기간(개월) : 20-59세

| 시도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
| 서울 | 77.51 | 76.94 | 68.96 | 90.94 | 84.52 |
| 부산 | 91.94 | 86.46 | 81.48 | 95.21 | 90.31 |
| 대구 | 85.02 | 85.78 | 81.77 | 110.86 | 96.79 |
| 인천 | 79.85 | 81.92 | 67.68 | 86.03 | 80.25 |
| 광주 | 72.70 | 95.50 | 84.61 | 107.62 | 99.25 |
| 대전 | 102.46 | 76.27 | 77.36 | 103.75 | 91.98 |
| 울산 | 97.62 | 133.58 | 92.04 | 110.25 | 114.82 |
| 세종 | 63.44 | 88.51 | 87.53 | 114.48 | 105.90 |
| 경기 | 68.08 | 80.69 | 73.64 | 93.34 | 85.25 |
| 강원 | 91.42 | 94.02 | 91.45 | 117.77 | 103.81 |
| 충북 | 79.73 | 89.64 | 81.75 | 101.65 | 92.36 |
| 충남 | 78.58 | 91.81 | 96.09 | 111.96 | 99.60 |
| 전북 | 79.26 | 91.91 | 87.73 | 109.38 | 98.52 |
| 전남 | 87.64 | 106.65 | 101.16 | 117.91 | 109.03 |
| 경북 | 86.25 | 106.95 | 99.61 | 119.13 | 108.94 |
| 경남 | 77.07 | 97.68 | 88.19 | 100.48 | 96.03 |
| 제주 | 62.19 | 77.06 | 97.71 | 117.85 | 101.43 |
| 전국 | 78.33 | 87.63 | 80.30 | 98.34 | 91.21 |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원자료 재가공.

〈표 4-6〉 상용근로자 근속기간(개월) : 25-34세

| 시도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
| 서울 | 35.87 | 32.23 | 35.78 | 36.67 | 35.87 |
| 부산 | 18.93 | 35.48 | 39.12 | 36.28 | 36.46 |
| 대구 | 18.20 | 39.72 | 45.32 | 36.36 | 39.10 |
| 인천 | 30.08 | 34.71 | 33.88 | 36.03 | 35.07 |
| 광주 | 29.71 | 31.43 | 36.29 | 36.55 | 35.37 |
| 대전 | 26.14 | 39.00 | 41.77 | 37.35 | 38.50 |
| 울산 | 57.47 | 39.05 | 41.65 | 42.81 | 41.71 |
| 세종 | 50.89 | 39.13 | 38.97 | 44.23 | 42.90 |
| 경기 | 25.38 | 38.47 | 39.49 | 40.00 | 39.41 |
| 강원 | 52.02 | 41.02 | 35.13 | 38.68 | 38.38 |

〈표 4-6〉의 계속

| 시도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
| 충북 | 30.73 | 40.08 | 40.55 | 38.54 | 39.37 |
| 충남 | 26.80 | 49.75 | 50.77 | 38.88 | 45.00 |
| 전북 | 47.26 | 34.40 | 40.84 | 40.22 | 38.85 |
| 전남 | 25.05 | 44.70 | 46.38 | 38.69 | 42.09 |
| 경북 | 23.54 | 43.52 | 48.21 | 40.39 | 43.36 |
| 경남 | 24.22 | 41.24 | 44.25 | 43.38 | 42.75 |
| 제주 | 28.78 | 37.20 | 43.37 | 39.71 | 39.78 |
| 전국 | 28.18 | 38.09 | 40.03 | 38.45 | 38.62 |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원자료 재가공.

〈표 4-7〉 상용근로자 근속기간(개월) : 35-44세

| 시도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
| 서울 | 44.11 | 74.11 | 83.11 | 89.97 | 86.50 |
| 부산 | 81.06 | 74.73 | 86.72 | 94.88 | 88.70 |
| 대구 | 45.54 | 70.95 | 85.26 | 103.12 | 91.99 |
| 인천 | 57.92 | 69.38 | 83.09 | 86.16 | 79.35 |
| 광주 | 71.02 | 82.78 | 78.79 | 99.19 | 90.40 |
| 대전 | 63.73 | 64.72 | 83.22 | 94.73 | 86.01 |
| 울산 | 39.59 | 81.00 | 91.46 | 94.36 | 88.90 |
| 세종 | 15.00 | 92.94 | 76.28 | 107.50 | 101.78 |
| 경기 | 44.54 | 73.00 | 82.67 | 91.84 | 84.50 |
| 강원 | 44.98 | 79.15 | 92.16 | 95.99 | 89.74 |
| 충북 | 63.68 | 78.37 | 94.83 | 96.19 | 89.11 |
| 충남 | 51.27 | 90.13 | 97.15 | 99.24 | 94.79 |
| 전북 | 70.19 | 76.25 | 82.85 | 93.73 | 85.96 |
| 전남 | 78.38 | 80.98 | 95.03 | 95.68 | 91.09 |
| 경북 | 59.69 | 81.04 | 97.32 | 105.01 | 95.44 |
| 경남 | 55.28 | 69.06 | 87.83 | 93.18 | 84.25 |
| 제주 | 63.98 | 68.93 | 87.91 | 105.87 | 93.67 |
| 전국 | 52.38 | 75.02 | 86.41 | 93.58 | 87.13 |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21년 상반기 원자료 재가공.

## 4. 일을 그만둔 이유

□ 경북지역 청년 근로자(만 25-34세)가 일을 그만둔 이유는 타지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기준).

○ 다만, 타지역(특히, 타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 대비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기업체의 다양한 경영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4-8〉 지역별 청년근로자(25-34세)의 이전 일자리 그만둔 이유

| 응답 비중 (%) | 개인, 가족 관련 이유 | 육아 | 가사 | 심신 장애 | 작업 여건 (시간, 보수 등) 불만족 | 직장 휴/폐업 | 조기 퇴직/ 정리 해고 | 임시/ 계절 적일의 완료 | 일거리 없어서/ 사업 부진 | 기타 |
|---|---|---|---|---|---|---|---|---|---|---|
| 서울 | 14.5 | 7.4 | 1.7 | 1.4 | 31.6 | 7.5 | 6.0 | 14.9 | 13.6 | 1.4 |
| 부산 | 23.1 | 7.7 | 0.9 | 0.6 | 27.2 | 5.4 | 4.3 | 18.5 | 9.2 | 3.0 |
| 대구 | 28.2 | 6.7 | 2.4 | 1.3 | 33.6 | 3.0 | 4.1 | 14.3 | 4.9 | 1.5 |
| 인천 | 20.1 | 11.9 | 2.8 | 1.3 | 31.9 | 5.5 | 6.9 | 11.7 | 7.9 | 0.0 |
| 광주 | 26.2 | 13.2 | 0.7 | 0.2 | 25.7 | 3.6 | 2.3 | 19.2 | 6.8 | 2.0 |
| 대전 | 23.7 | 12.7 | 1.9 | 1.1 | 25.6 | 3.7 | 4.3 | 21.3 | 4.6 | 1.3 |
| 울산 | 25.7 | 10.7 | 1.8 | 0.0 | 27.4 | 4.0 | 2.8 | 15.7 | 11.0 | 0.8 |
| 세종 | 36.5 | 23.0 | 1.2 | 0.0 | 16.6 | 4.1 | 0.7 | 13.7 | 4.3 | 0.0 |
| 경기 | 28.9 | 10.1 | 2.3 | 0.8 | 26.8 | 3.9 | 3.3 | 13.7 | 7.4 | 2.7 |
| 강원 | 33.8 | 9.0 | 0.9 | 0.2 | 21.7 | 3.0 | 4.0 | 20.5 | 5.5 | 1.4 |
| 충북 | 36.4 | 12.6 | 0.7 | 0.2 | 25.5 | 1.9 | 2.6 | 15.6 | 4.1 | 0.3 |
| 충남 | 41.5 | 11.9 | 1.2 | 0.0 | 22.1 | 1.9 | 4.6 | 11.1 | 5.1 | 0.6 |
| 전북 | 24.8 | 10.6 | 3.0 | 0.0 | 34.3 | 2.7 | 2.5 | 12.6 | 9.2 | 0.4 |
| 전남 | 35.2 | 13.4 | 2.9 | 0.8 | 20.3 | 3.7 | 2.7 | 13.6 | 5.3 | 2.1 |
| 경북 | 24.2 | 12.6 | 5.3 | 0.4 | 27.7 | 1.5 | 3.0 | 15.8 | 9.4 | 0.2 |
| 경남 | 23.8 | 11.0 | 1.9 | 0.6 | 28.2 | 3.1 | 5.8 | 14.8 | 7.3 | 3.6 |
| 제주 | 18.8 | 13.1 | 0.4 | 0.0 | 16.7 | 1.5 | 7.7 | 19.1 | 12.2 | 10.4 |
| 전국 | 24.9 | 10.0 | 2.0 | 0.8 | 28.0 | 4.4 | 4.4 | 15.0 | 8.6 | 1.8 |

〈표 4-9〉 지역별 청년근로자(25-34세)의 이전 일자리 그만둔 이유 : 유사 선택지 취합 결과

| 응답 비중(%) | 개인,가족적 이유 | 육아+가사 | 심신장애 | 퇴직,일종료 | 경영문제 | 작업여건 불만족 |
|---|---|---|---|---|---|---|
| 서울 | 14.48 | 9.07 | 1.43 | 20.92 | 7.47 | 31.64 |
| 부산 | 23.14 | 8.59 | 0.61 | 22.86 | 5.38 | 27.25 |
| 대구 | 28.16 | 9.07 | 1.35 | 18.44 | 2.96 | 33.64 |
| 인천 | 20.07 | 14.67 | 1.31 | 18.62 | 5.47 | 31.93 |
| 광주 | 26.17 | 13.93 | 0.23 | 21.56 | 3.59 | 25.75 |
| 대전 | 23.67 | 14.53 | 1.06 | 25.58 | 3.66 | 25.63 |
| 울산 | 25.73 | 12.55 | 0.00 | 18.52 | 4.00 | 27.39 |
| 세종 | 36.49 | 24.16 | 0.00 | 14.38 | 4.11 | 16.59 |
| 경기 | 28.92 | 12.43 | 0.81 | 16.98 | 3.87 | 26.84 |
| 강원 | 33.84 | 9.87 | 0.17 | 24.53 | 2.97 | 21.73 |
| 충북 | 36.41 | 13.30 | 0.21 | 18.28 | 1.90 | 25.55 |
| 충남 | 41.50 | 13.12 | 0.00 | 15.63 | 1.92 | 22.14 |
| 전북 | 24.82 | 13.58 | 0.00 | 15.05 | 2.71 | 34.26 |
| 전남 | 35.16 | 16.31 | 0.83 | 16.29 | 3.74 | 20.31 |
| 경북 | 24.20 | 17.83 | 0.39 | 18.80 | 1.47 | 27.72 |
| 경남 | 23.76 | 12.88 | 0.64 | 20.62 | 3.06 | 28.22 |
| 제주 | 18.83 | 13.47 | 0.00 | 26.83 | 1.50 | 16.74 |
| 전국 | 24.95 | 12.06 | 0.82 | 19.33 | 4.39 | 28.04 |

# 제3절 대졸 청년인구 유출 현황 및 특이점

## 1. 분석 표본 및 주요 변수

□ 분석 데이터

○ GOMS 2013~2020년 데이터(2011.8월 졸업생~2019.2월 졸업생)의 전국 및 경북지역 표본

- 통합횡단면, 지역별, 지역/연도별 기초통계 및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함.
- 전체 경북 소재 대학 졸업 청년의 연도 통합 표본 수는 10,031개

○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 셋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함의를 도출함.

- GOMS는 전국 5개 권역 및 학생 성별/학교 유형별 대표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북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할 때 제공된 가중치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하고 해석을 제한함.
- 해석시 표집 데이터에 한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의를 유추함.

□ 지역 이동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청년 이동' 및 '이동 청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

- 청년 이동이란, 첫 직장 구직을 위해 졸업한 대학교의 소재지(시/도)로부터 벗어나 취업한 경우 청년이 해당권역으로 이동했다고 정의 즉,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졸업한 대학교의 권역(소재지)과 첫 일자리 권역이 다른 경우를 이동으로 봄.

□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

○ 본 절의 분석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음.

〈표 4-10〉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변수명 | 설명 |
|---|---|
| 성별 | 남성 1, 여성 2 |
| 만나이(세) | 연속변수 |
| 학교유형 | 2~3년제 1, 4년제 2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교육/공학/자연/의약/예체능 |
| 입학당시 부모소득 | 500미만/5000이상/소득없음 또는 사망 |
| 졸업대학 소재지 | 17개 광역시/도(졸업한 대학 소재지) |

〈표 4-10〉의 계속

| | |
|---|---|
| 첫 일자리 소재지 | 17개 광역시/도(첫 일자리 소재지) |
| 월평균 실질임금(원) | 실질임금 |
| 주당 근로시간 | 주당 총 근로시간(정규, 초과 근로시간의 합) |
| 종사상지위 | 상용직 1, 임시 · 일용직 0 (무급종사자, 자영업자 제외) |
| 사업체규모 | 5인 미만/5~29인/30~299인/300인 이상 |
|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 |
| 교육-일 수준 일치 정도 | 일의 수준이 매우 낮음/낮음/알맞음/높음/일의 수준이 매우 높음 |
| 첫 일자리 취업시 고려한 중요 요소(1순위) | 16가지 카테고리(근로소득, 근로시간, 적성, 전공분야 관련성 등) |
| 첫 일자리 산업대분류 | 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 청년 지역 이동 | 대학 졸업후 첫 일자리 소재지 중심으로 대학 소재지와 비일치한 경우(이동) 1, 일치(잔류)하면 0 |

## 2. 경북지역 대졸 청년의 지역 이동 경향

□ 전국 및 타시도 대비 경북 대졸자의 지역 이동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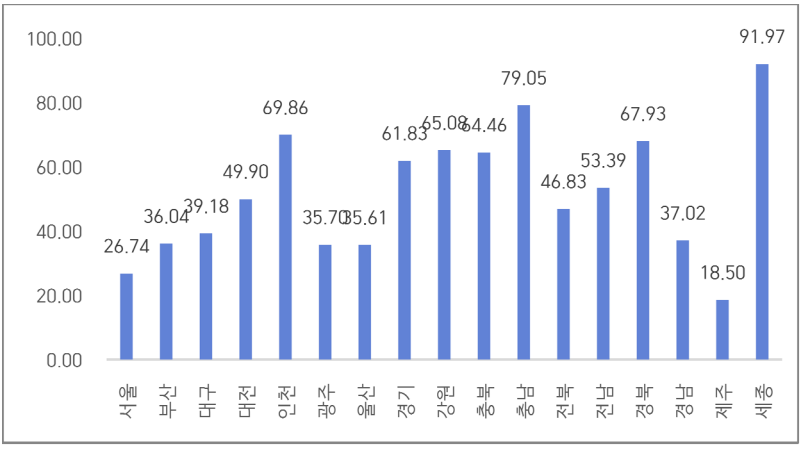
○ 각 지역 졸업자 대비 타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비중을 17개 권역(광역시/도)별로 살펴보았음.

- 연도 통합 표본(기간 전체 평균으로 이해)을 기준, 서울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인천, 충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지역의 지역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도별 데이터로 살펴보더라도 경북은 전 기간 타지역 대비 높은 이탈률을 나타냄.

-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동자 비율을 산출할 경우에 비해,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을 산출하면, 2013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현 일자리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탈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경북지역 청년들이 첫 일자리 이후에도 지역이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4-14] 졸업대학 소재지별 첫 일자리 지역 이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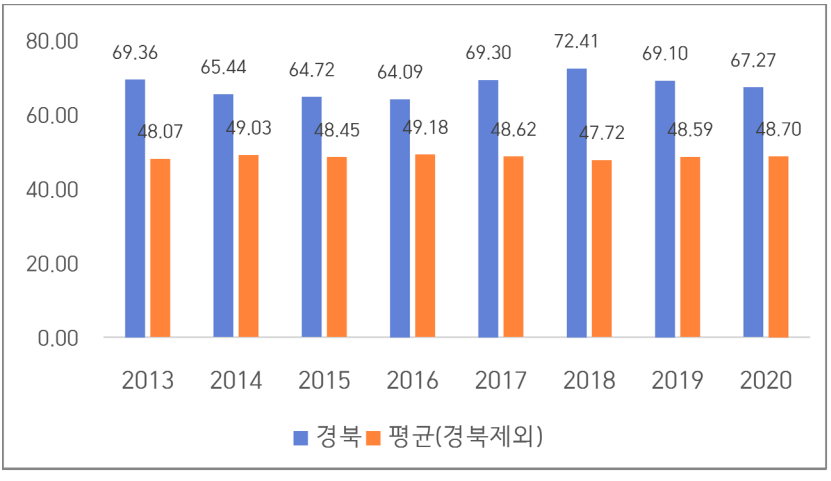



〈표 4-11〉 연도-시도별 첫 일자리 이동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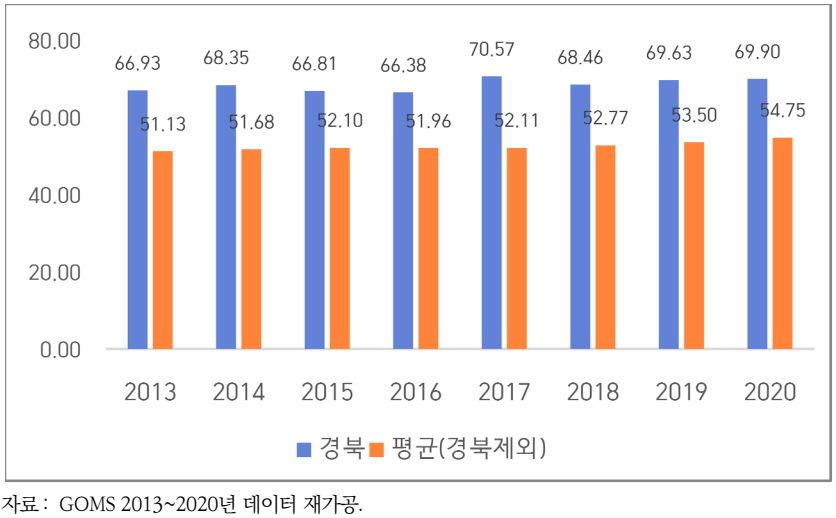
| 대학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서울 | 24.34 | 24.65 | 22.87 | 27.10 | 29.37 | 26.36 | 27.77 | 29.69 |
| 부산 | 36.48 | 35.82 | 32.32 | 33.64 | 36.76 | 37.95 | 35.52 | 38.44 |
| 대구 | 35.24 | 32.99 | 40.31 | 38.77 | 38.60 | 39.85 | 46.33 | 40.36 |
| 대전 | 44.19 | 48.70 | 51.61 | 52.96 | 47.41 | 52.75 | 52.15 | 49.46 |
| 인천 | 76.98 | 69.12 | 73.47 | 69.49 | 68.09 | 67.12 | 67.86 | 67.53 |
| 광주 | 38.75 | 27.91 | 30.43 | 39.26 | 36.99 | 37.70 | 39.49 | 31.82 |
| 울산 | 22.50 | 23.68 | 33.33 | 29.41 | 35.38 | 38.46 | 45.00 | 47.54 |
| 경기 | 64.12 | 61.85 | 61.68 | 63.54 | 61.67 | 60.89 | 60.83 | 59.98 |
| 강원 | 68.00 | 73.27 | 57.31 | 59.38 | 66.04 | 66.93 | 65.35 | 62.29 |
| 충북 | 58.88 | 66.67 | 64.78 | 64.09 | 62.93 | 67.23 | 66.67 | 63.67 |
| 충남 | 81.66 | 79.67 | 78.48 | 79.52 | 80.00 | 76.28 | 79.23 | 77.78 |
| 전북 | 46.55 | 49.69 | 48.82 | 42.80 | 43.49 | 45.89 | 52.21 | 47.60 |
| 전남 | 42.42 | 59.49 | 58.25 | 58.59 | 49.32 | 64.06 | 40.82 | 60.42 |
| 경북 | 69.36 | 65.44 | 64.72 | 64.09 | 69.30 | 72.41 | 69.10 | 67.27 |
| 경남 | 33.33 | 30.41 | 35.38 | 33.51 | 37.27 | 38.79 | 42.91 | 40.35 |
| 제주 | 18.18 | 25.42 | 17.65 | 14.29 | 19.61 | 14.29 | 13.04 | 23.08 |
| 세종 | | 94.12 | 97.92 | 92.31 | 93.06 | 91.89 | 86.00 | 88.46 |
| 평균 (경북제외) | 48.07 | 49.03 | 48.45 | 49.18 | 48.62 | 47.72 | 48.59 | 48.70 |

주 : 첫 일자리 기준이므로 비이동자 외에, 첫 일자리 구직이 없는 경우는 missing 처리되어 해당 수치에 미포함

[그림 4-15] 졸업 대학 소재지로부터 첫 일자리 이동 비중 경북 vs 전국 시계열 변화




[그림 4-16] 연도별 대학 소재지로부터 현 일자리 이동 비중 경북 vs 전국(%)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 대학 학제별 이동자 비중

○ 연도 통합 표본 기준, 대체로 4년제 졸업자의 이동 비율이 2년제 졸업자의 이동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패턴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교육 투자 정도가 높을수록 투자 대비 최대의 보상을 찾아 이동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특화된 스킬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보상률이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분산이 커 이동으로 인한 보상의 규모가 저학력자에 비해 커서 이동 비용 대비 보상으로 이동이 결정된다면 고학력자의 이동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음.

○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전북, 대전, 제주 등), 전문대졸자의 이탈률이 높거나 4년제 졸업자와 전문대졸자의 이탈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반면, 경북의 경우, 전문대졸자의 지역이탈률도 높은 편이지만, 대졸자의 이탈률도 매우 높고 두 집단간 이탈률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약 12%p).
- 즉, 경북지역은 전문대졸자, 대졸자 모두 이탈률이 높은데, 특히 대졸자의 이탈률은 전문대졸자 이탈률에 비해 훨씬 높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연도별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이동 비율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된 수치를 나타냄.

- 4년제 졸업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지역이동 비율이 높은 모습을 나타냄.

□ 전공별 이탈률

○ 전공 계열별로 이탈률을 볼 때, 지역별 평균과 마찬가지로 경북지역은 모든 전공계열의 이탈률이 높은데, 전국 평균과 격차가 적은 전공은 (특수전공을 제외하고) 공학계열로, 상대적으로는 공학계열 청년들이 지역이탈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4-12〉 졸업대학 소재지별·학제별 지역이동 청년 비중 비교 : 연도 통합

| 대학지역 | 2~3년제 | 4년제 | 총 비중 (%) |
|---|---|---|---|
| 서울 | 26.82 | 26.72 | 26.87 |
| 부산 | 32.85 | 37.04 | 36.56 |
| 대구 | 36.46 | 41.62 | 39.32 |
| 대전 | 49.60 | 50.00 | 49.90 |
| 인천 | 65.76 | 73.40 | 69.83 |
| 광주 | 36.71 | 35.39 | 36.22 |
| 울산 | 21.92 | 42.81 | 35.61 |
| 경기 | 59.57 | 64.54 | 61.75 |
| 강원 | 46.28 | 68.93 | 65.13 |
| 충북 | 55.37 | 67.01 | 64.67 |
| 충남 | 64.08 | 81.49 | 79.05 |
| 전북 | 47.22 | 46.72 | 47.03 |
| 전남 | 46.15 | 56.77 | 53.39 |
| 경북 | 58.26 | 70.27 | 67.93 |
| 경남 | 28.73 | 40.57 | 37.33 |
| 제주 | 17.22 | 19.20 | 18.41 |
| 세종 | 92.06 | 91.92 | 91.97 |
| 평균(경북제외) | 45.59 | 52.64 | 50.76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13〉 졸업대학 소재지별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이동 비율(%)

| 대학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Total(%) |
|---|---|---|---|---|---|---|---|---|---|
| 서울 | 22.28 | 26.50 | 26.64 | 26.63 | 27.78 | 26.25 | 24.38 | 33.51 | 26.82 |
| 부산 | 28.16 | 32.14 | 34.74 | 31.68 | 32.87 | 37.90 | 30.59 | 33.85 | 32.85 |
| 대구 | 37.50 | 35.29 | 30.93 | 37.30 | 36.43 | 33.33 | 44.19 | 38.00 | 36.46 |
| 대전 | 50.63 | 56.41 | 52.78 | 47.62 | 40.98 | 46.15 | 47.50 | 50.85 | 49.60 |
| 인천 | 69.44 | 67.95 | 71.43 | 68.00 | 66.13 | 59.02 | 68.52 | 55.22 | 65.76 |
| 광주 | 27.45 | 29.63 | 29.41 | 32.56 | 36.21 | 47.83 | 50.00 | 44.74 | 36.71 |
| 울산 | 16.67 | 20.00 | 20.83 | 26.32 | 23.08 | 23.53 | 28.57 | 15.79 | 21.92 |
| 경기 | 62.21 | 57.79 | 59.33 | 61.84 | 59.36 | 59.18 | 59.05 | 58.02 | 59.57 |
| 강원 | 45.45 | 48.28 | 24.14 | 48.94 | 55.32 | 47.92 | 45.71 | 46.43 | 46.28 |
| 충북 | 56.82 | 62.71 | 59.32 | 53.13 | 54.10 | 47.62 | 56.41 | 50.00 | 55.37 |
| 충남 | 80.30 | 56.14 | 70.15 | 56.14 | 62.07 | 48.48 | 73.33 | 55.81 | 64.08 |
| 전북 | 51.22 | 46.00 | 49.15 | 52.54 | 41.51 | 38.30 | 54.72 | 41.18 | 47.22 |
| 전남 | 46.67 | 43.33 | 51.85 | 50.00 | 40.00 | 68.00 | 28.21 | 56.00 | 46.15 |

〈표 4-13〉의 계속

| 대학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Total(%) |
|---|---|---|---|---|---|---|---|---|---|
| 경북 | 63.77 | 56.06 | 54.22 | 53.09 | 60.95 | 60.76 | 61.82 | 55.74 | 58.26 |
| 경남 | 26.53 | 27.27 | 28.57 | 20.00 | 25.77 | 32.43 | 35.21 | 34.69 | 28.73 |
| 제주 | 28.57 | 35.71 | 5.56 | 16.67 | 15.00 | 0.00 | 5.88 | 27.78 | 17.22 |
| 세종 | 0.00 | 100.00 | 93.75 | 90.00 | 95.45 | 95.83 | 83.33 | 80.00 | 92.06 |
| 평균 (경북제외) | 48.86 | 48.39 | 48.24 | 47.77 | 46.37 | 46.11 | 47.85 | 47.96 | 47.7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14〉 졸업대학 소재지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이동 비율(%)

| 대학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Total(%) |
|---|---|---|---|---|---|---|---|---|---|
| 서울 | 24.89 | 24.19 | 21.65 | 27.22 | 29.69 | 26.38 | 28.33 | 28.95 | 26.72 |
| 부산 | 39.57 | 37.67 | 31.56 | 34.50 | 38.22 | 37.96 | 36.49 | 39.31 | 37.04 |
| 대구 | 33.02 | 29.33 | 49.49 | 40.59 | 40.69 | 44.74 | 47.73 | 41.71 | 41.62 |
| 대전 | 41.49 | 44.74 | 51.21 | 54.74 | 49.28 | 54.09 | 53.25 | 49.09 | 50.00 |
| 인천 | 87.04 | 70.69 | 75.32 | 70.59 | 69.62 | 72.94 | 67.44 | 77.01 | 73.40 |
| 광주 | 44.04 | 27.45 | 30.83 | 41.67 | 37.27 | 35.35 | 37.42 | 27.59 | 35.39 |
| 울산 | 27.27 | 26.09 | 42.42 | 31.25 | 38.46 | 45.71 | 53.85 | 61.90 | 42.81 |
| 경기 | 66.59 | 67.51 | 65.06 | 65.82 | 64.34 | 62.37 | 62.71 | 62.13 | 64.54 |
| 강원 | 73.24 | 77.13 | 64.08 | 62.15 | 68.33 | 71.29 | 68.49 | 65.31 | 68.93 |
| 충북 | 59.48 | 68.21 | 66.67 | 67.69 | 66.08 | 71.50 | 68.52 | 66.36 | 67.01 |
| 충남 | 81.99 | 84.04 | 80.25 | 83.70 | 82.69 | 78.99 | 80.06 | 80.39 | 81.49 |
| 전북 | 45.11 | 51.33 | 48.68 | 40.09 | 43.98 | 47.83 | 51.45 | 48.85 | 46.72 |
| 전남 | 38.89 | 69.39 | 60.53 | 64.41 | 54.84 | 63.11 | 45.37 | 61.97 | 56.77 |
| 경북 | 70.69 | 68.10 | 68.08 | 67.26 | 71.89 | 75.00 | 70.26 | 69.11 | 70.27 |
| 경남 | 36.63 | 32.03 | 38.64 | 39.69 | 43.68 | 41.06 | 45.90 | 41.90 | 40.57 |
| 제주 | 12.24 | 22.22 | 24.24 | 12.50 | 22.58 | 22.58 | 17.24 | 20.59 | 19.20 |
| 세종 | 0.00 | 91.18 | 100.00 | 94.74 | 92.00 | 90.00 | 86.84 | 91.89 | 91.92 |
| 평균 (경북제외) | 47.65 | 49.38 | 48.57 | 49.86 | 49.59 | 48.23 | 48.83 | 48.96 | 48.89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15〉 졸업대학 소재지 및 전공계열별 지역이동 비중(%)

| 대학지역 | 인문 | 사회 | 교육 | 공학 | 자연 | 의약 | 예체능 | 총 비중 (%) |
|---|---|---|---|---|---|---|---|---|
| 서울 | 23.18 | 21.11 | 32.47 | 40.66 | 28.86 | 28.20 | 21.45 | 26.87 |
| 부산 | 32.88 | 32.32 | 35.78 | 44.44 | 35.37 | 30.43 | 35.65 | 36.56 |
| 대구 | 34.72 | 33.83 | 29.20 | 48.92 | 48.03 | 40.47 | 27.24 | 39.32 |
| 대전 | 44.62 | 46.97 | 47.58 | 51.09 | 49.22 | 61.82 | 48.77 | 49.90 |
| 인천 | 75.86 | 66.79 | 65.00 | 70.52 | 66.37 | 55.56 | 77.70 | 69.83 |
| 광주 | 35.75 | 30.21 | 40.72 | 31.23 | 41.75 | 44.19 | 37.25 | 36.22 |
| 울산 | 26.00 | 28.05 | 25.00 | 42.57 | 34.55 | 57.14 | 24.00 | 35.61 |
| 경기 | 64.98 | 64.76 | 49.39 | 55.37 | 59.49 | 54.24 | 68.89 | 61.75 |
| 강원 | 65.56 | 60.27 | 59.12 | 64.37 | 65.56 | 73.09 | 75.20 | 65.13 |
| 충북 | 64.15 | 63.91 | 66.17 | 63.00 | 57.79 | 70.41 | 71.49 | 64.67 |
| 충남 | 81.96 | 81.13 | 69.13 | 77.97 | 74.93 | 73.03 | 85.96 | 79.05 |
| 전북 | 45.18 | 39.26 | 35.71 | 44.09 | 43.05 | 58.08 | 66.53 | 47.03 |
| 전남 | 56.94 | 48.86 | 33.93 | 48.54 | 53.33 | 68.87 | 63.08 | 53.39 |
| 경북 | 65.97 | 68.22 | 62.40 | 64.48 | 66.27 | 75.30 | 75.70 | 67.93 |
| 경남 | 43.33 | 33.97 | 36.73 | 35.39 | 34.19 | 50.31 | 37.50 | 37.33 |
| 제주 | 11.11 | 14.17 | 16.33 | 18.64 | 24.05 | 39.13 | 21.05 | 18.41 |
| 세종 | 97.62 | 89.58 | 66.67 | 92.86 | 91.30 | 100.00 | 92.00 | 91.97 |
| 평균(경북 제외) | 50.24 | 47.20 | 44.31 | 51.86 | 50.49 | 56.56 | 53.36 | 50.82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 성별 이탈률

○ 성별로 졸업대학 소재지 이탈률을 살펴보면, 경북의 특이점이 발견됨.

○ 물론 남성, 여성 모두 경북의 이탈률은 전국대비(경북 제외) 매우 높은 수준

○ 흥미로운 점은 전국 평균(경북 제외) 및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 기간 남성의 이동률이 여성의 이동률보다 높은데 비해, 경북은 반대의 추세를 보임.

○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위험회피(risk-aversion)가 강하므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지역이동을 선호하지

않음 (Sjagaard, 1962.; Jaeger et al, 2010 등). 이와 일맥상통하게 경북(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남성의 이동 확률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편임.

- 경북의 경우, 충남에 비해서도 성별 이동 비중 격차가 크면서 여성의 이동 확률이 높아, 여성 대졸자가 대학 졸업 지역을 이탈하는 경향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경북과 대구를 구분하지 않고, 권역을 단위로 하여 대학졸업지역 이탈 비율을 살펴보면, 각 시도 단위별로 지역이동률을 산출하였을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역이동률이 낮게 나타남.

- 이는 청년들이 지역이동을 하더라도 권역내 이동을 하는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이 부재한 강원도,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 지역의 이탈률이 높은 편임.
- 권역으로 제한할 경우, 대구/경북의 여성 지역이동률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 다만 경북도나 어떤 지역이든 청년인구 유인 목표는 해당 지역 대학 재학/졸업생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대학은 경북에서 다니지만 많은 비율이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결국 이동한다는 점은 관심가질 만한 사실임.

〈표 4-16〉 졸업대학 소재지별 남성 이동자(첫 일자리 기준) 비중(%)

| 대학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Total(%) |
|---|---|---|---|---|---|---|---|---|---|
| 서울 | 27.83 | 31.16 | 27.10 | 33.33 | 33.18 | 31.06 | 32.67 | 34.23 | 31.47 |
| 부산 | 49.07 | 40.85 | 39.38 | 38.95 | 38.81 | 39.31 | 42.75 | 45.81 | 41.51 |
| 대구 | 36.54 | 41.46 | 50.51 | 48.06 | 40.25 | 39.10 | 50.83 | 41.53 | 43.43 |
| 대전 | 45.32 | 54.62 | 53.74 | 48.39 | 54.55 | 52.73 | 52.53 | 55.12 | 52.12 |
| 인천 | 80.28 | 57.38 | 73.85 | 67.86 | 65.22 | 64.47 | 68.00 | 78.69 | 69.48 |
| 광주 | 36.14 | 29.31 | 32.95 | 40.30 | 37.37 | 45.71 | 40.00 | 30.88 | 37.25 |
| 울산 | 35.29 | 15.79 | 35.71 | 17.24 | 37.84 | 47.06 | 43.59 | 51.61 | 37.18 |
| 경기 | 62.22 | 60.89 | 56.91 | 61.72 | 61.54 | 59.20 | 58.33 | 58.81 | 59.97 |
| 강원 | 64.77 | 67.97 | 57.89 | 61.74 | 66.06 | 71.43 | 67.12 | 66.23 | 65.91 |

〈표 4-16〉의 계속

| 대학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Total(%) |
|---|---|---|---|---|---|---|---|---|---|
| 충북 | 61.18 | 63.96 | 67.20 | 62.86 | 61.24 | 69.17 | 66.67 | 65.83 | 64.92 |
| 충남 | 80.45 | 79.43 | 81.50 | 78.50 | 78.92 | 75.29 | 76.84 | 76.67 | 78.54 |
| 전북 | 50.57 | 48.10 | 54.13 | 44.44 | 42.34 | 51.16 | 60.19 | 53.85 | 50.06 |
| 전남 | 41.30 | 53.19 | 52.94 | 68.75 | 46.51 | 71.88 | 39.77 | 60.47 | 53.07 |
| 경북 | 64.89 | 63.70 | 65.80 | 66.27 | 66.95 | 69.71 | 72.20 | 66.20 | 67.24 |
| 경남 | 31.40 | 28.97 | 36.89 | 34.29 | 33.12 | 37.09 | 47.59 | 40.00 | 36.63 |
| 제주 | 20.45 | 31.03 | 13.64 | 10.71 | 19.44 | 12.00 | 0.00 | 6.25 | 15.84 |
| 세종 | 0.00 | 92.59 | 96.15 | 95.45 | 97.30 | 94.59 | 82.14 | 90.91 | 92.96 |
| 평균 (경북제외) | 50.43 | 51.68 | 51.41 | 51.60 | 50.32 | 50.87 | 51.47 | 51.97 | 51.19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17〉 졸업대학 소재지별 여성 이동자(첫 일자리 기준) 비중(%)

| 대학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Total(%) |
|---|---|---|---|---|---|---|---|---|---|
| 서울 | 22.41 | 21.04 | 20.91 | 23.65 | 27.20 | 23.48 | 24.96 | 28.18 | 24.24 |
| 부산 | 28.51 | 32.96 | 27.49 | 29.52 | 34.75 | 37.45 | 29.30 | 33.47 | 31.94 |
| 대구 | 33.94 | 27.43 | 30.36 | 26.85 | 37.69 | 40.44 | 42.16 | 40.37 | 35.32 |
| 대전 | 42.97 | 41.00 | 49.24 | 57.36 | 40.58 | 52.78 | 51.82 | 44.74 | 47.63 |
| 인천 | 72.88 | 75.95 | 74.19 | 70.97 | 70.83 | 70.00 | 67.69 | 60.22 | 70.15 |
| 광주 | 42.68 | 27.27 | 27.78 | 38.32 | 36.59 | 32.65 | 42.34 | 35.79 | 35.41 |
| 울산 | 13.04 | 31.58 | 31.03 | 45.45 | 32.14 | 22.22 | 47.62 | 43.33 | 33.68 |
| 경기 | 65.66 | 62.69 | 65.35 | 64.86 | 61.59 | 62.50 | 62.50 | 60.73 | 63.23 |
| 강원 | 71.58 | 79.79 | 55.00 | 56.64 | 64.81 | 61.32 | 63.96 | 61.17 | 64.20 |
| 충북 | 57.89 | 69.61 | 61.82 | 65.00 | 65.71 | 66.04 | 68.18 | 61.70 | 64.41 |
| 충남 | 83.13 | 79.49 | 75.81 | 79.33 | 81.42 | 76.88 | 82.51 | 78.38 | 79.54 |
| 전북 | 43.75 | 51.69 | 43.36 | 39.52 | 43.97 | 40.57 | 47.69 | 43.55 | 44.10 |
| 전남 | 43.40 | 68.75 | 63.46 | 49.02 | 53.23 | 56.25 | 42.37 | 60.38 | 53.76 |
| 경북 | 74.27 | 67.11 | 63.33 | 62.18 | 72.06 | 75.77 | 65.14 | 68.28 | 68.69 |
| 경남 | 38.24 | 33.70 | 34.15 | 32.95 | 42.86 | 42.34 | 35.00 | 41.60 | 38.15 |
| 제주 | 14.29 | 20.00 | 20.69 | 21.43 | 20.00 | 16.67 | 24.00 | 30.56 | 21.15 |
| 세종 | 0.00 | 95.83 | 100.00 | 88.24 | 88.57 | 89.19 | 90.91 | 86.67 | 90.91 |
| 평균 (경북제외) | 46.51 | 46.87 | 45.99 | 46.74 | 47.10 | 45.04 | 46.43 | 46.97 | 46.46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18〉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시 권역 이동 비율(pooled)

| 대학지역 | 비이동 | 이동 | Total(%) |
|---|---|---|---|
| 1 (서울/경기/인천) | 94.47 | 5.53 | 100 |
| 2 (부산/울산/경남) | 81.10 | 18.90 | 100 |
| 3 (대구/경북) | 65.87 | 34.13 | 100 |
| 4 (충남/충북/대전/세종) | 42.04 | 57.96 | 100 |
| 5 (광주/전북/전남) | 67.68 | 32.32 | 100 |
| 6 (강원) | 34.92 | 65.08 | 100 |
| 7 (제주) | 81.50 | 18.50 | 100 |
| Total | 74.61 | 25.39 | 10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19〉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시 권역 이동 비율 : 남성(pooled)

| 대학지역 | 비이동 | 이동 | Total(%) |
|---|---|---|---|
| 1 (서울/경기/인천) | 92.74 | 7.26 | 100 |
| 2 (부산/울산/경남) | 79.90 | 20.10 | 100 |
| 3 (대구/경북) | 63.66 | 36.34 | 100 |
| 4 (충남/충북/대전/세종) | 42.35 | 57.65 | 100 |
| 5 (광주/전북/전남) | 65.51 | 34.49 | 100 |
| 6 (강원) | 33.99 | 66.01 | 100 |
| 7 (제주) | 84.16 | 15.84 | 100 |
| Total | 71.61 | 28.39 | 10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20〉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시 권역 이동 비율 : 여성(pooled)

| 대학지역 | 비이동 | 이동 | Total(%) |
|---|---|---|---|
| 1 (서울/경기/인천) | 95.69 | 4.31 | 100 |
| 2 (부산/울산/경남) | 82.34 | 17.66 | 100 |
| 3 (대구/경북) | 68.22 | 31.78 | 100 |
| 4 (충남/충북/대전/세종) | 41.73 | 58.27 | 100 |
| 5 (광주/전북/전남) | 69.74 | 30.26 | 100 |
| 6 (강원) | 36.06 | 63.94 | 100 |
| 7 (제주) | 78.64 | 21.36 | 100 |
| Total | 77.24 | 22.76 | 10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 3. 이탈 청년의 전반적 특징

□ 대학 소재지와 첫 일자리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 비이동 집단을 비교하면, 이동집단의 4년제 졸업자 비중이 더 크고, 사회, 의약, 예체능 계열 전공자 비율이 높고, 부모 고소득자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하면, 이동 청년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더 높고, 평균 근로시간, 상용직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의 경우, 비이동 집단 300인 이상 기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평균적으로는 '이동' 집단의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교육수준과 현재 하는 일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비이동 집단이 현재 일을 '수준이 낮은' 편으로 평가하고 이동 집단은 비이동 집단에 비해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동-비이동 집단 간 일자리 질의 차이는 이동 및 비이동 결정과 관련되는 관측 및 불관측 특성의 차이로 인해 기인될 수 있음에 유의

□ 이동 청년과 비이동 청년의 첫 일자리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비이동 청년 집단은 제조업,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의 비중이 높고, 이동 청년은 제조업 외 업종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도매, 소매업, 운수, 창고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이동집단에서 취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청년들이 이동한 지역은 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울, 경기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1〉 첫 일자리 중심으로 대학소재지(경북)로부터 이동한 청년 인적 특성 비교(pooled)

| 특성 | 비이동 N=988 | 이동 N-2093 | | |
|---|---|---|---|---|
| | 전체 | 전체 | 남성 (N=1086) | 여성 (N=1007) |
| 여성 | 0.47 | 0.48 | | |
| 평균연령(만나이) | 25.28 | 25.47 | 26.47 | 24.40 |
| 대학교 유형 | · | · | · | · |
| 초대졸 | 0.25 | 0.17 | 0.18 | 0.15 |
| 4년제 | 0.75 | 0.83 | 0.82 | 0.85 |
| 전공계열 | · | · | · | · |
| 인문 | 0.12 | 0.11 | 0.07 | 0.14 |
| 사회 | 0.19 | 0.20 | 0.197 | 0.20 |
| 교육 | 0.09 | 0.07 | 0.05 | 0.10 |
| 공학 | 0.29 | 0.25 | 0.387 | 0.09 |
| 자연 | 0.14 | 0.13 | 0.123 | 0.14 |
| 의약 | 0.08 | 0.12 | 0.084 | 0.16 |
| 예체능 | 0.09 | 0.13 | 0.089 | 0.17 |
| 입학당시 부모소득 | · | · | · | · |
| 500만원 미만 | 0.78 | 0.74 | 0.752 | 0.73 |
| 500만원 이상 | 0.21 | 0.25 | 0.238 | 0.27 |
| 소득없음/사망 | 0.02 | 0.01 | 0.01 | 0.01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22〉 첫 일자리 중심으로 대학소재지(경북)로부터 이동한 청년 첫 일자리 특성 비교 (pooled)

| 특성 | 비이동 N=988 | 이동 N=2093 | | |
|---|---|---|---|---|
| | 전체 | 전체 | 남성 (N=1086) | 여성 (N=1007) |
| 월평균임금 (실질:단위 천원) | 1,567 | 1,604 | 1,761 | 1,434 |
| 주당근로시간 | 42.96 | 43.24 | 45.403 | 40.91 |
| 상용직 여부(상용직=1) | 0.56 | 0.60 | 0.639 | 0.55 |
| 사업체규모 | · | · | · | · |
| 5인 미만 | 0.15 | 0.16 | 0.135 | 0.19 |

〈표 4-22〉의 계속

| 특성 | 비이동 N=988 | 이동 N=2093 | | |
|---|---|---|---|---|
| | 전체 | 전체 | 남성 (N=1086) | 여성 (N=1007) |
| 5~29인 | 0.39 | 0.43 | 0.425 | 0.44 |
| 30~299인 | 0.30 | 0.30 | 0.327 | 0.26 |
| 300인 이상 | 0.17 | 0.11 | 0.113 | 0.11 |
|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 . | . | . | . |
| 매우 불만족 | 0.06 | 0.07 | 0.062 | 0.08 |
| 불만족 | 0.20 | 0.24 | 0.242 | 0.23 |
| 보통 | 0.44 | 0.42 | 0.436 | 0.40 |
| 만족 | 0.24 | 0.23 | 0.211 | 0.24 |
| 매우 만족 | 0.06 | 0.05 | 0.05 | 0.05 |
| 교육-일 일치정도 | . | . | . | . |
| 일의 수준이 매우 낮음 | 0.09 | 0.07 | 0.079 | 0.06 |
| 일의 수준이 낮음 | 0.31 | 0.30 | 0.275 | 0.32 |
| 일의 수준이 알맞음 | 0.53 | 0.51 | 0.515 | 0.50 |
| 일의 수준이 높음 | 0.07 | 0.11 | 0.114 | 0.10 |
| 일의 수준이 매우 높음 | 0.01 | 0.02 | 0.017 | 0.02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23〉 경북 청년의 첫 일자리 산업분포 비교(pooled)

| 첫 일자리 산업 분포 | 비이동 | 이동 | | |
|---|---|---|---|---|
| | 전체 | 전체 | 남성 | 여성 |
| N | 985 | 2077 | 1078 | 999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10 | 0.14 | 0.28 | 0.00 |
| 제조업 | 18.98 | 15.50 | 22.82 | 7.61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0.61 | 0.34 | 0.19 | 0.50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0.81 | 0.05 | 0.09 | 0.00 |
| 건설업 | 3.76 | 4.38 | 7.05 | 1.50 |
| 도매 및 소매업 | 8.83 | 11.60 | 10.76 | 12.51 |
| 운수 및 창고업 | 0.41 | 2.02 | 3.06 | 0.90 |
| 숙박 및 음식점업 | 7.92 | 10.35 | 8.81 | 12.01 |

〈표 4-23〉의 계속

| 첫 일자리 산업 분포 | 비이동 | 이동 | | |
|---|---|---|---|---|
| | 전체 | 전체 | 남성 | 여성 |
| 정보통신업 | 2.34 | 6.45 | 7.33 | 5.51 |
| 금융 및 보험업 | 0.91 | 2.07 | 2.04 | 2.10 |
| 부동산업 | 0.71 | 0.82 | 0.93 | 0.7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11 | 8.91 | 9.65 | 8.11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94 | 5.06 | 5.47 | 4.60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3.05 | 1.64 | 1.39 | 1.90 |
| 교육 서비스업 | 25.38 | 11.12 | 6.68 | 15.92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86 | 13.19 | 6.77 | 20.12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74 | 3.76 | 3.90 | 3.6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54 | 2.60 | 2.78 | 2.4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24〉 경북 청년 첫 일자리 이동 지역 분포(pooled)

| | 이동자(명) | 비중 | | |
|---|---|---|---|---|
| | | 전체 | 남성 (N=1086) | 여성 (N=1007) |
| 서울 | 377 | 18.01 | 18.69 | 17.28 |
| 부산 | 98 | 4.68 | 3.96 | 5.46 |
| 대구 | 898 | 42.9 | 39.41 | 46.67 |
| 대전 | 47 | 2.25 | 2.49 | 1.99 |
| 인천 | 47 | 2.25 | 1.75 | 2.78 |
| 광주 | 6 | 0.29 | 0.37 | 0.20 |
| 울산 | 112 | 5.35 | 5.71 | 4.97 |
| 경기 | 227 | 10.85 | 13.08 | 8.44 |
| 강원 | 42 | 2.01 | 2.39 | 1.59 |
| 충북 | 47 | 2.25 | 2.39 | 2.09 |
| 충남 | 37 | 1.77 | 2.03 | 1.49 |
| 전북 | 5 | 0.24 | 0.18 | 0.30 |
| 전남 | 9 | 0.43 | 0.46 | 0.40 |
| 경남 | 129 | 6.16 | 6.54 | 5.76 |
| 제주 | 10 | 0.48 | 0.46 | 0.50 |
| 세종 | 2 | 0.1 | 0.09 | 0.10 |
| 계 | 2,093 | 100 | 100 | 10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 다음은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경북지역 소재 대학졸업 청년이 지역 밖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둔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동 확률이 높았는지 살펴본 결과임.

○ 설명변수는 첫 취업 및 이동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변수만을 우변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취업과 동시에 결정되는 일자리 특징은 포함하지 않았음.

○ 앞서 확인한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확인됨.

○ 경북의 경우, 특이하게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성별 이동 확률의 격차가 나타나지 않음.

- 다른 지역은 여성 인구의 이동확률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경북지역은 여성 이동이 활발한 편임을 재확인한 것

○ 2년제 졸업자에 비해 4년제 졸업자의 이동확률이 높고

○ 전공계열별로는 의약, 예체능 계열 전공자의 이동확률이 높음.

○ 성별로 분리한 표본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이동확률의 차이가 더 뚜렷함.

- 여성의 경우 2년제 졸업자에 비해 4년제 졸업자의 이동확률이 15.9% 높게 나타나고, 남성은 9% 높게 나타남.
- 남성은 사회계열, 의약, 예체능 계열일 때 이동확률이 높고, 여성은 의약, 예체능 계열일 때 이동확률이 높음.
- 졸업연도별로 이탈이 달랐던 것도 다시 확인되는데, 남성은 2011년 졸업자 대비 2016~2018년 졸업생의 이동확률이 높았고, 여성은 2013, 2015, 2018년도 졸업생의 이동확률이 낮았음.
- 성별로 취업 일자리 업종/직종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코호트별 평균 특성이 유사했다면, 해당 시점별 업종이나 직종별 노동시장에 변화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표 4-25〉 경북소재 대졸청년 지역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 첫 일자리 기준 지역 이동 여부(1: 이동) | 경북 전체 | 남성 | 여성 |
|---|---|---|---|
| 여성(base=남성) | 0.014 | | |
| | (0.02) | | |
| 4년제(base=2~3년제) | 0.121*** | 0.09** | 0.159*** |
| | (0.03) | (0.04) | (0.04) |
| 전공계열(base=인문) | | | |
| 사회 | 0.03 | 0.094* | -0.026 |
| | (0.03) | (0.05) | (0.04) |
| 교육 | -0.03 | -0.048 | -0.013 |
| | (0.04) | (0.07) | (0.05) |
| 공학 | 0 | 0.001 | 0.061 |
| | (0.03) | (0.05) | (0.05) |
| 자연 | 0.02 | 0.061 | -0.011 |
| | (0.04) | (0.06) | (0.05) |
| 의약 | 0.128*** | 0.131** | 0.135*** |
| | (0.04) | (0.06) | (0.05) |
| 예체능 | 0.107*** | 0.129** | 0.098** |
| | (0.04) | (0.06) | (0.05) |
| 만나이(세) | 0.007 | 0.012 | 0.001 |
| | (0.01) | (0.01) | (0.01) |
| 대학 입학 당시 부모소득 | | | |
| 500만원 이상 | 0.034 | 0.039 | 0.031 |
| | (0.02) | (0.03) | (0.03) |
| 소득없음/사망 | -0.126 | -0.21** | 0.028 |
| | (0.08) | (0.10) | (0.13) |
| 졸업연도(준거 : 2011 졸업) | | | |
| 2012 | 0.026 | 0.113 | -0.083 |
| | (0.06) | (0.08) | (0.08) |
| 2013 | -0.023 | 0.081 | -0.152* |
| | (0.06) | (0.08) | (0.08) |
| 2014 | 0.005 | 0.114 | -0.126 |
| | (0.06) | (0.08) | (0.08) |
| 2015 | -0.042 | 0.096 | -0.196** |
| | (0.06) | (0.08) | (0.08) |
| 2016 | 0.051 | 0.137* | -0.056 |
| | (0.06) | (0.08) | (0.08) |
| 2017 | 0.052 | 0.147* | -0.056 |
| | (0.06) | (0.08) | (0.08) |
| 2018 | 0.005 | 0.132* | -0.151* |
| | (0.06) | (0.08) | (0.08) |
| 2019 | -0.023 | 0.034 | -0.101 |
| | (0.06) | (0.08) | (0.09) |
| 상수항 | 0.335** | 0.108 | 0.615*** |
| | (0.16) | (0.22) | (0.23) |
| N | 2837 | 1501 | 1336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 4. 취업시 고려한 일자리 요소

□ 경북지역 청년들이 취업시 고려한 일자리 요소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지역 이동 및 비이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음.

○ 대졸 청년의 경우 취업 당시 지역 노동시장 상황이 지역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에서 지역이동 청년들이 취업에 특정 요건을 고려한 비중보다 경북이 유독 높은 지표가 나타날 경우, 지역 노동시장에서 취업 당시 해당 조건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음.

○ 이동/비이동과 관련되는 일자리 요소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경북지역 이동/비이동 청년을 비교해보면, 비이동 청년이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을 취업시 1순위로 고려한다는 비중이 이동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이동집단은 자신의 적성/흥미, 전공분야 관련성,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1순위로 고려한 비중이 비이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이동 집단 내에서 지역간 비교를 해보면, 경북 청년의 경우 전국(경북 제외)이나 부울경 지역 청년에 비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고, 직장(고용) 안정성, 근무환경, 회사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 비중이 다른 지역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지역 이동한 청년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북지역 남성은 타지역 남성에 비해 '근로시간'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타지역에서 지역 이동한 여성 청년에 비해 전공분야 관련성을 선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여성 청년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근무환경, 기업규모를 선택한 비중도 약간 높게 나타남.

○ 4년제, 2년제 대학 졸업생을 구분하여 패턴을 확인해 보아도, 경북지역 졸업청년은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이 타지역 대비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동일하게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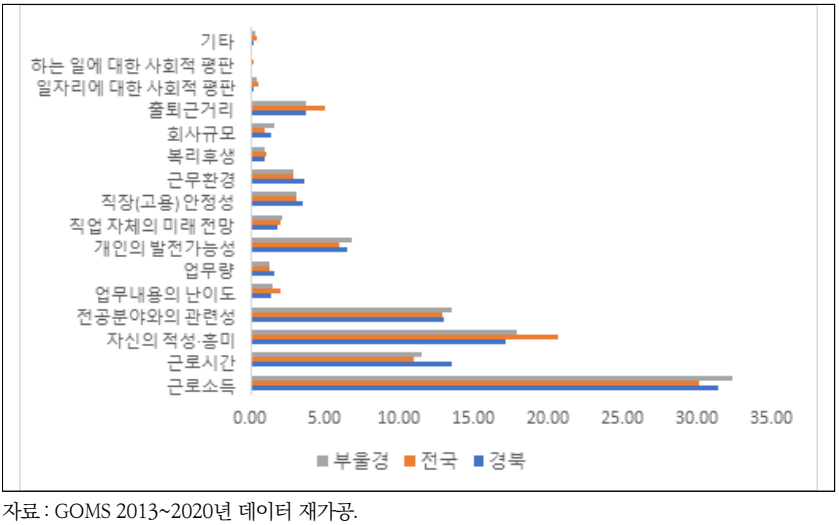
- 또한, 4년제 졸업 이동 청년의 경우 타지역의 이동 청년 대비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선택한 비중도 약간 높음.

〈표 4-26〉 경북 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1순위) : 전국 및 부울경 지역 비교(%)

| | 이동 | | | 비이동 | | |
|---|---|---|---|---|---|---|
| | 경북 | 전국 (경북제외) | 부울경 | 경북 | 전국 (경북제외) | 부울경 |
| 근로소득 | 31.45 | 30.18 | 32.39 | 32.99 | 29.13 | 31.78 |
| 근로시간 | 13.56 | 11.00 | 11.46 | 16.04 | 13.55 | 14.09 |
| 자신의 적성 · 흥미 | 17.15 | 20.63 | 17.85 | 15.39 | 19.93 | 17.90 |
| 전공분야와 관련성 | 12.96 | 12.84 | 13.57 | 11.77 | 12.25 | 12.11 |
| 업무내용의 난이도 | 1.34 | 2.03 | 1.51 | 2.20 | 2.14 | 2.26 |
| 업무량 | 1.58 | 1.26 | 1.27 | 1.55 | 1.65 | 1.45 |
| 개인의 발전가능성 | 6.45 | 5.96 | 6.82 | 5.95 | 5.67 | 5.08 |
|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1.82 | 1.98 | 2.11 | 1.29 | 1.95 | 1.94 |
| 직장(고용) 안정성 | 3.53 | 3.11 | 3.08 | 3.36 | 2.78 | 2.37 |
| 근무환경 | 3.59 | 2.82 | 2.83 | 3.36 | 3.12 | 3.39 |
| 복리후생 | 0.97 | 1.08 | 0.90 | 0.52 | 0.83 | 0.88 |
| 회사규모 | 1.40 | 0.99 | 1.57 | 0.52 | 0.99 | 0.64 |
| 출퇴근거리 | 3.71 | 4.97 | 3.74 | 4.14 | 4.81 | 5.30 |
|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 0.24 | 0.53 | 0.42 | 0.39 | 0.52 | 0.49 |
|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0.00 | 0.24 | 0.12 | 0.26 | 0.28 | 0.07 |
| 기타 | 0.24 | 0.37 | 0.36 | 0.26 | 0.40 | 0.25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그림 4-17] 경북 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 지역 비교(%)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27〉 경북 비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 : 전국 및 부울경 지역 비교(%)

| | 경북 | 전국(경북제외) | 부울경 |
|---|---|---|---|
| 근로소득 | 31.45 | 30.18 | 32.39 |
| 근로시간 | 13.56 | 11.00 | 11.46 |
| 자신의 적성 · 흥미 | 17.15 | 20.63 | 17.85 |
| 전공분야와 관련성 | 12.96 | 12.84 | 13.57 |
| 업무내용의 난이도 | 1.34 | 2.03 | 1.51 |
| 업무량 | 1.58 | 1.26 | 1.27 |
| 개인의 발전가능성 | 6.45 | 5.96 | 6.82 |
|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1.82 | 1.98 | 2.11 |
| 직장(고용) 안정성 | 3.53 | 3.11 | 3.08 |
| 근무환경 | 3.59 | 2.82 | 2.83 |
| 복리후생 | 0.97 | 1.08 | 0.90 |
| 회사규모 | 1.40 | 0.99 | 1.57 |
| 출퇴근거리 | 3.71 | 4.97 | 3.74 |
|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 0.24 | 0.53 | 0.42 |
|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0.00 | 0.24 | 0.12 |
| 기타 | 0.24 | 0.37 | 0.36 |
| 합계 | 100 | 100 | 10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표 4-28〉 경북 이동 청년의 취업시 고려한 요소 (남성) – 전국 및 부울경 지역 비교(%)

| | 남성 | | | 여성 | | |
|---|---|---|---|---|---|---|
| | 경북 | 전국 (경북제외) | 부울경 | 경북 | 전국 (경북제외) | 부울경 |
| 근로소득 | 34.41 | 32.90 | 34.57 | 28.13 | 27.65 | 29.69 |
| 근로시간 | 13.46 | 9.96 | 9.92 | 13.68 | 11.97 | 13.36 |
| 자신의 적성 · 흥미 | 16.92 | 19.75 | 16.79 | 17.42 | 21.46 | 19.16 |
| 전공분야와 관련성 | 10.36 | 12.30 | 13.85 | 15.87 | 13.34 | 13.23 |
| 업무내용의 난이도 | 1.38 | 1.77 | 1.42 | 1.29 | 2.27 | 1.62 |
| 업무량 | 1.73 | 1.20 | 1.42 | 1.42 | 1.31 | 1.08 |
| 개인의 발전가능성 | 7.25 | 6.99 | 7.74 | 5.55 | 5.01 | 5.67 |
|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2.07 | 2.35 | 2.07 | 1.55 | 1.64 | 2.16 |
| 직장(고용) 안정성 | 3.34 | 3.28 | 2.40 | 3.74 | 2.95 | 3.91 |
| 근무환경 | 3.45 | 2.71 | 2.94 | 3.74 | 2.92 | 2.70 |
| 복리후생 | 0.81 | 1.15 | 0.98 | 1.16 | 1.02 | 0.81 |
| 회사규모 | 1.27 | 1.00 | 2.29 | 1.55 | 0.99 | 0.67 |
| 출퇴근거리 | 3.11 | 3.67 | 2.62 | 4.39 | 6.18 | 5.13 |
|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 0.23 | 0.51 | 0.33 | 0.26 | 0.55 | 0.54 |
|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0.00 | 0.15 | 0.11 | 0.00 | 0.32 | 0.13 |
| 기타 | 0.23 | 0.33 | 0.55 | 0.26 | 0.41 | 0.13 |
| 합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재가공.

## 5. 시사점

□ 본 절에서 경북소재 대학 졸업 청년을 이동/비이동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 및 전국/유사지역과 비교하였음.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북지역 대졸 청년 이탈의 특이점을 확인하였음.

○ 경북지역은 타지역 대비 대졸 청년 이탈률이 높은데, 전문대졸 졸업생의 이탈도 높은 특징을 보임.

○ 일반적으로(이론적, 실증적[1]) 여성 청년의 지역이동 확률이 남성에 비해 낮고, 타지역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분명하게 관찰되는 것에 비해, 경북

1) 예 : Keith & McWilliams(1999), Carnicer et al(2003) 등

도는 성별에 따른 지역 이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즉 여성 대졸 청년 이탈 경향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음.

○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에 관련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체능 계열 전공자와 의약학계열 전공자의 이탈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남.

○ 이탈 청년들의 경우 평균 소득이 높고, 근로시간, 상용직 비중도 약간 높은데, 이들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애초에 불가측 특성이 뛰어난 청년이 이탈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경북지역에서 이탈한 청년들은 대다수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로 이동하였음.

○ 경북지역의 이탈 청년은 타지역의 이탈 청년 대비 취업시 고려한 1순위 요소로 근로시간을 선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이점이 발견됨.

- 선택 비중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근무환경, 회사규모를 선택한 비중이 타지역이나 부울경 지역의 이탈 청년보다 높게 나타남.

## 제4절 직업계고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이탈에 관한 실태조사

###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상대적 저학력자(고졸, 전문대졸자)는 지역이동에 따른 보상률이 고학력자 대비 높지 않아 지역이동 확률이 낮고 정주확률이 높음.

- 따라서 지역 청년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저학력 집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이들 인구의 유지를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정책 과제일 수도 있음.

○ 경북의 경우, 대졸자의 이탈률도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 발표된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2020~2022)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경우에도, 타

시도 대비 이탈률이 매우 높음(〈표 4-29〉 참조)

- 아래의 〈표 4-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경우 전국 대비 취업이행률이 높음.
- 하지만 관외 취업 비중이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타 지역, 특히 유사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경남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관외 취업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졸 청년들의 지역이동의 요인,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지역내 정착을 위한 필요한 정책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표 4-29〉 근로지역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 | 졸업자 (천명) | | | 보험가입자 (졸업자 중 비중, %) | | | 관내 취업자 (취업자 중 비중, %) | | | 관외 취업자 (취업자 중 비중%)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총계(명) | 76.8 | 44.6 | 32.2 | 22.6 | 13.2 | 9.4 | 13.1 | 7.3 | 5,8 | 9.5 | 5.9 | 3.6 |
| 전국(%) | | | | 29.4 | 29.7 | 29.1 | 58.0 | 55.3 | 61.8 | 42.0 | 44.7 | 38.2 |
| 서울 | 13.1 | 6.3 | 6.8 | 32.1 | 30.7 | 33.5 | 74.8 | 62.5 | 85.2 | 25.2 | 37.5 | 14.8 |
| 부산 | 5.6 | 3.6 | 2.0 | 23.2 | 25.3 | 19.3 | 51.4 | 47.9 | 59.8 | 48.6 | 52.1 | 40.2 |
| 대구 | 4.2 | 2.8 | 1.4 | 29.2 | 28.1 | 31.3 | 53.3 | 50.1 | 59.0 | 46.7 | 49.9 | 41.0 |
| 인천 | 4.9 | 2.6 | 2.3 | 31.2 | 31.3 | 31.0 | 57.4 | 56.3 | 58.7 | 42.6 | 43.7 | 41.3 |
| 광주 | 2.4 | 1.5 | 1.0 | 28.4 | 25.5 | 32.5 | 42.4 | 46.6 | 37.5 | 57.6 | 53.4 | 62.5 |
| 대전 | 2.2 | 1.2 | 0.9 | 35.1 | 38.0 | 31.1 | 49.7 | 43.2 | 60.7 | 50.3 | 56.8 | 39.3 |
| 울산 | 1.8 | 1.2 | 0.7 | 28.9 | 31.1 | 25.1 | 33.9 | 29.9 | 42.5 | 66.1 | 70.1 | 57.5 |
| 세종 | 0.1 | 0.1 | 0.1 | 25.2 | 28.4 | 21.3 | 55.9 | 57.1 | 53.8 | 44.1 | 42.9 | 46.2 |
| 경기 | 15.7 | 8.9 | 6.8 | 27.2 | 27.5 | 26.7 | 65.9 | 68.3 | 62.7 | 34.1 | 31.7 | 37.3 |
| 강원 | 2.4 | 1.5 | 0.9 | 27.5 | 25.1 | 31.6 | 40.1 | 37.2 | 44.0 | 59.9 | 62.8 | 56.0 |
| 충북 | 3.5 | 2.0 | 1.5 | 27.7 | 28.4 | 26.8 | 55.0 | 60.2 | 47.8 | 45.0 | 39.8 | 52.2 |
| 충남 | 3.8 | 2.2 | 1.6 | 32.8 | 33.6 | 31.7 | 60.9 | 60.2 | 61.9 | 39.1 | 39.8 | 38.1 |
| 전북 | 3.1 | 1.9 | 1.1 | 25.3 | 29.2 | 18.8 | 50.5 | 48.7 | 55.1 | 49.5 | 51.3 | 44.9 |
| 전남 | 4.1 | 2.4 | 1.7 | 27.4 | 27.1 | 27.7 | 45.8 | 46.0 | 45.7 | 54.2 | 54.0 | 54.3 |
| 경북 | 4.7 | 3.1 | 1.6 | 40.5 | 38.3 | 45.0 | 38.2 | 39.2 | 36.6 | 61.8 | 60.8 | 63.4 |
| 경남 | 3.8 | 2.5 | 1.3 | 29.4 | 34.9 | 18.9 | 61.8 | 64.8 | 51.2 | 38.2 | 35.2 | 48.8 |
| 제주 | 1.3 | 0.8 | 0.6 | 20.8 | 19.3 | 22.7 | 74.6 | 74.3 | 75.0 | 25.4 | 25.7 | 25.0 |

자료 : 교육개발원, 직업계고 취업통계(2022)

□ 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 대상은 최근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전체 52개교[2])
- 2016년 이후 졸업생
- 관내 취업, 관외 취업, 진학자 구분하지 않고 조사

○ 조사 규모 : 약 500여명 목표하여 80%인 400명 조사 성공
- N=400

○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 4-30〉과 같이 일반적 특성, 현재 상태(취업/진학 )로 이행한 요인 및 향후 계획, 지역 이동시 결정 요소, 정책 수요 등으로 구성됨.
- 설문지는 부록 참조

〈표 4-30〉 조사 내용 구성

| 대상 | 문항 구분 | 조사 내용 |
|---|---|---|
| 졸업생 | 일반 특성 및 현황 | 재학시절 가구 특성, 현재 거주지, 직장, 졸업 학교, 교육투자 및 투자 결정 요인 등 |
| | 현재 상태(취업/진학 등) 이행 이유 및 향후 계획 | 일자리 특성, 취업 및 지역이동-취업시 고려사항 |
| | 지역 이동의 요인 | 전반, 일자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생활 환경적 요인 등 |
| | 지역 정착의 조건 | 일자리적 요소, 정책 수요 |
| | 정책 수요 | 정주를 위한 일자리 등 관련 정책 수요 |

2) 경북도 소재 직업계고 및 마이스터고 특성

(단위 : 개, %)

| 구 분 | | 학교 수 | 비 율 |
|---|---|---|---|
| 총 계 | | 52 | 100.0 |
| 계열구분 | 가사 · 실업 | 11 | 21.2 |
| | 공업 | 23 | 44.2 |
| | 농생명 | 6 | 11.5 |
| | 상업 · 정보 | 10 | 19.2 |
| | 수산 · 해운 | 2 | 3.8 |
| 설립구분 | 공립 | 31 | 59.6 |
| | 국립 | 1 | 1.9 |
| | 사립 | 20 | 38.5 |
| 남녀구분 | 남 | 7 | 13.5 |
| | 남녀공학 | 40 | 76.9 |
| | 여 | 5 | 9.6 |
| 특성구분 | 마이스터고 | 7 | 13.5 |
| | 특성화고 | 45 | 86.5 |

□ 조사 방법 및 기간

○ 조사 표본 구축 방법 :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 기존 축적된 온라인 패널과 직업계고 현직 교사 및 취업지도교사의 소개를 통해 1차 모집단을 선정한 후 조사표본 적격여부를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확인한 후 해당 표본 및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3]으로 확대·보충한 표본을 활용

○ 조사 방법 : 웹 기반 조사

○ 조사 기간 : 2023년 6월 15일~8월 19일

##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가. 응답자 기초 특성

□ 응답자 성별 및 연령대

○ 전체 응답자 400명 중 남성은 197명, 여성은 203명으로 각각 49.2%와 50.8%를 차지

○ 표집방법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표본(74.5%)은 20대 초반 연령대로 나타나며, 20대 중후반 표본은 전체의 25.5%에 그침.
- 따라서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갓 졸업하여 사회진입한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편임.

□ 학교 유형 및 졸업 연도

○ 졸업 학교의 유형은 공업계열이 59.75%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가사·실

3)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이란 비확률 표본추출의 한 종류로서, 최초 접근 대상자의 소개 혹은 정보제공을 통해서 적절히 표본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수를 늘려가는 추출 방법임. 이러한 특징으로 연쇄소개추출(chain referral sampling)로도 불리고 있으며, 특히 눈덩이 표집은 특수한 특성·조건을 가진 대상자로서 거취를 파악하기 힘들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예 : 매춘, 마약, 성소수자, 불법과외 등).

업(17.25%), 상업·정보(12.5%), 농생명(5.75%), 수산·해운(6.25%) 순임.

- 전체 학교 분포를 고려할 때, 공업계열 졸업생과 수산·해운계열 졸업생이 과대 표집된 편임.
- 성별로 남학생이 공업계열 졸업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사·실업, 상업·정보계열 졸업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공업계열 졸업생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음.

○ 한편, 표본의 대부분은 2020-2023년 졸업생(301명, 75.3%)을 나타내며, 2016-2019년 졸업생은 전체 표본 중 99명(24.8%)임.

□ 현재 사회경제적 상태

○ 전체 표본 중 현재 고용상태인 표본은 59.75%이며 그 외(실업+비경활) 표본은 41.25%임.

- 표에서는 생략하였지만, 연령대별로 20대 후반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대 초반은 59.1%, 20대 중반은 53.8%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자는 대부분이 대학 진학 후 재학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 표본의 대학 진학률은 44%(176명)이며 이 중 재학생은 55.7%(98명)임(졸업생 44명, 휴학생 34명).

□ 현재 거주지

○ 표본의 대다수는 경북에서 거주하고 있음(42.5%). 남성의 경우 50.8%, 여성의 경우 34.5%로 남성은 과반 이상이, 여성은 과반 이하가 현재 경북에서 거주하고 있음.

- 세부 지역으로 보았을 때, 대졸 청년과는 달리 직업계고 졸업생 중 현재 경북에서 거주하지 않는 청년은 인근 광역시인 대구나 부울경 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음 (*참고 : 고교 재학시절 거주지는 전체 표본의 98.3%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1〉 응답자 성별, 연령대, 현재 활동, 거주지, 졸업고교 계열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비율 | 남 성 | | 여 성 | |
|---|---|---|---|---|---|---|---|
| | | | | 명수 | 비율 | 명수 | 비율 |
| 전 체 | | 400 | 100 | 197 | 100.0 | 203 | 100.0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298 | 74.5 | 151 | 76.6 | 147 | 72.4 |
| | 20대 중반(24~26세) | 80 | 20 | 32 | 16.2 | 48 | 23.6 |
| | 20대 후반(27~29세) | 22 | 5.5 | 14 | 7.1 | 8 | 3.9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235 | 58.75 | 146 | 74.1 | 87 | 42.9 |
| | 가사 · 실업 | 69 | 17.25 | 12 | 6.1 | 57 | 28.1 |
| | 상업 · 정보 | 50 | 12.5 | 12 | 6.1 | 38 | 18.7 |
| | 농생명 | 23 | 5.75 | 11 | 5.6 | 12 | 5.9 |
| | 수산 · 해운 | 25 | 6.25 | 16 | 8.1 | 9 | 4.4 |
| 경제활동 여부 | 경제활동 중 | 235 | 58.75 | 104 | 52.8 | 131 | 64.5 |
| | 非경제활동 | 165 | 41.25 | 93 | 47.2 | 72 | 35.5 |
| 직업계고 특성 | 특성화고 | 281 | 70.25 | 130 | 66.0 | 151 | 74.4 |
| | 마이스터고 | 119 | 29.75 | 67 | 34.0 | 52 | 25.6 |
| 현 거주지 1 | 서울 | 53 | 13.25 | 21 | 10.7 | 32 | 15.8 |
| | 경기/인천 | 77 | 19.25 | 27 | 13.7 | 50 | 24.6 |
| | 부산/울산/경남 | 36 | 9 | 19 | 9.6 | 17 | 8.4 |
| | 대구 | 26 | 6.5 | 12 | 6.1 | 14 | 6.9 |
| | 경북 | 170 | 42.5 | 100 | 50.8 | 70 | 34.5 |
| | 광주/전라 | 6 | 1.5 | 3 | 1.5 | 3 | 1.5 |
| | 대전/세종/충청 | 28 | 7 | 13 | 6.6 | 15 | 7.4 |
| | 강원 | 4 | 1 | 2 | 1.0 | 2 | 1.0 |
| 현 거주지 2 | 경북 거주 | 170 | 42.5 | 100 | 50.8 | 70 | 34.5 |
| | 경북 外 거주 | 230 | 57.5 | 97 | 49.2 | 133 | 65.5 |

□ 군 복무 현황

○ 전체 표본 중 비해당자로 응답한 50.5%(202명)를 제외한 대부분은 입대 예정(130명)으로 나타남.

- 그 외 전역자는 58명, 면제자 10명임.

□ 고교시절 가구 배경

○ 표본의 고교시절 가구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표본이 가구소득 연 3~5천만원 미만(43.3%)로 나타나며 그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구간인 연 3천만원 미만 비중도 29.8%에 달해 대부분이 중산층 미만 가구배경을 가지고 있음.

○ 부모님 중 학력이 높은 분의 학력을 기준으로 표본의 과반 이상의 부모님이 전문대졸 이하 학력이며, 부모님 중 학력이 높은 분의 학력이 대졸인 비중이 41.8%, 대학원졸이 4.5%로 나타남.

〈표 4-32〉 고교시절 가정 특성

(단위 : 명, %)

| 구 분 | | | 사례수 | 구성비 |
|---|---|---|---|---|
| 전 체 | | | 400 | 100.0 |
| 고교 재학 시절 | 가구소득 | 연 3천만원 미만 | 119 | 29.8 |
| | | 연 3~5천만원 미만 | 173 | 43.3 |
| | | 연 5~7천만원 미만 | 77 | 19.3 |
| | | 연 7천만원 이상 | 31 | 7.8 |
| | 부모님 학력 | 고졸 미만 | 23 | 5.8 |
| | | 고졸 | 134 | 33.5 |
| | | 전문대졸 | 57 | 14.3 |
| | | 대졸 | 167 | 41.8 |
| | | 대학원졸 이상 | 18 | 4.5 |
| | | 부모님 부재 | 1 | 0.3 |

□ 현재 경제활동상태(상세)

○ 표본의 58.8%는 현재 취업 상태이며 11%는 실업(미취업/구직), 30.2%는 비경제활동 상태임.

○ 취업자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89.8%)로 나타났으며, 이 중 58.3%는 정규직으로 나타나 과반 이상은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임.

- 다만, 표본 중 재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인 일자리 취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나타나는 특징임.

〈표 4-33〉 경제활동참가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 | | 사례수 | | 구성비 | |
|---|---|---|---|---|---|---|---|
| 전 체 | | | | 400 | | 100.0 | |
| 경제활동 여부 | 취업 | | | 235 | | 58.8 | |
| | 미취업 | | | 165 | | 41.3 | |
| | | 지난 한달간 구직활동 | 구직활동 함 | 44 | | 26.7 | |
| | | | 안함 | 121 | | 73.3 | |
| 취업 유형 | 임금근로자 | | 정규직 | 123 | 211 | 30.8 | 52.8 |
| | | | 비정규직 | 88 | | 22.0 | |
|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 | 고용인력 있다 | 3 | 15 | 0.8 | 3.8 |
| | | | 없다 | 12 | | 3.0 | |
| | 기타(무급종사) | | | 9 | | 2.3 | |
| | 미취업 | | | 165 | | 41.3 | |

## 나. 교육, 훈련, 진학 경험

□ 고교 재학 당시 교육 및 훈련 참여 경험

○ 고교 재학시절 경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기업 탐방 프로그램(76.3%)과 채용약정형 현장실습(75.8%)으로 나타남.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37.5%)의 참여 경험률은 낮았음.

○ 각 프로그램별 참여율은 직업계고의 계열과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은 공업, 농생명, 가사/실업계열, 수산/해운계열의 경우 높지만, 상업/정보계열은 매우 낮게(36%) 나타났음.
- 상업/정보계열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 참여율도 낮았으며, 중소기업 등 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76%로 낮지 않은 참여율을 나타냄.
-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직접적인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은 상업/정보계열 고교에서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참여율도 남학교〉남녀공학〉여학교 순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어, 여학생 비중이 높은 고교 및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취업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훈련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음.

〈표 4-34〉 고교 재학 시 교육·훈련 참여 경험률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고교 졸업 후 취업 전제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 | 중소기업 등 기업 탐방 프로그램 | 기타 (현장실습 등) |
|---|---|---|---|---|---|---|
| 전 체 | | 400 | 75.8 | 37.5 | 76.3 | 6.8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233 | 77.3 | 37.8 | 74.2 | 6.0 |
| | 가사 · 실업 | 69 | 89.9 | 31.9 | 78.3 | 10.1 |
| | 상업 · 정보 | 50 | 36.0 | 30.0 | 76.0 | 2.0 |
| | 농생명 | 23 | 91.3 | 91.3 | 69.6 | 8.7 |
| | 수산 · 해운 | 25 | 88.0 | 16.0 | 96.0 | 12.0 |
| 직업계고 설립 | 공립 | 270 | 77.4 | 46.7 | 78.9 | 7.0 |
| | 국립 | 42 | 54.8 | 0.0 | 40.5 | 2.4 |
| | 사립 | 88 | 80.7 | 27.3 | 85.2 | 8.0 |
| 직업계고 남녀구성 | 남학교 | 25 | 88.0 | 88.0 | 100.0 | 8.0 |
| | 여학교 | 33 | 63.6 | 18.2 | 51.5 | 3.0 |
| | 남녀공학 | 342 | 76.0 | 35.7 | 76.9 | 7.0 |
| 직업계고 특성 | 특성화고 | 281 | 82.6 | 41.3 | 75.4 | 7.5 |
| | 마이스터고 | 119 | 59.7 | 28.6 | 78.2 | 5.0 |

□ 대학 진학 현황

○ 경북도내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44.0%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공업계열(49.8%), 설립형태별로는 사립고(63.6%), 특성별로는 특성화고(53.7%) 졸업생의 대학 진학 비율이 더 높음.

○ 3졸업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대 초반 졸업생(2020~2023년, 37.9%)에 비해 2010년대 후반 졸업생(2016~2019년, 62.9%)의 대학 진학 비율이 약 25%p 더 높음.

- 일부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한편, 고교 졸업직후 대학 입학률을 졸업 연도별로 살펴보면(*각 사례수가 크지 않음에 유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진학률이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기간 졸업생 코호트에서 급증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저숙련 노동시장이 위축된 것의 영향일 수 있음.

〈표 4-35〉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 상황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대학 진학함 | 진학 안함 | 계 |
|---|---|---|---|---|---|
| 전 체 | | 400 | 44.0 | 56.0 | 100.0 |
| 졸업 연도 | 2016-2019년 | 99 | 62.9 | 37.4 | 100.0 |
| | 2020-2023년 | 301 | 37.9 | 62.1 | 100.0 |
| 성별 | 남성 | 197 | 43.7 | 56.3 | 100.0 |
| | 여성 | 203 | 44.3 | 55.7 | 100.0 |
| 연령별 | 20대 초반(20~23세) | 298 | 37.6 | 62.4 | 100.0 |
| | 20대 중반(24~26세) | 80 | 63.8 | 36.3 | 100.0 |
| | 20대 후반(27~29세) | 22 | 59.1 | 40.9 | 100.0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233 | 49.8 | 50.2 | 100.0 |
| | 가사 · 실업 | 69 | 36.2 | 63.8 | 100.0 |
| | 상업 · 정보 | 50 | 32.0 | 68.0 | 100.0 |
| | 농생명 | 23 | 60.9 | 39.1 | 100.0 |
| | 수산·해운 | 25 | 20.0 | 80.0 | 100.0 |
| 직업계고 설립 | 공립 | 270 | 43.0 | 57.0 | 100.0 |
| | 국립 | 42 | 9.5 | 90.5 | 100.0 |
| | 사립 | 88 | 63.6 | 36.4 | 100.0 |
| 직업계고 남녀구성 | 남학교 | 25 | 48.0 | 52.0 | 100.0 |
| | 여학교 | 33 | 57.6 | 42.4 | 100.0 |
| | 남녀공학 | 342 | 42.4 | 57.6 | 100.0 |
| 직업계고 특성 | 특성화고 | 281 | 53.7 | 46.3 | 100.0 |
| | 마이스터고 | 119 | 21.0 | 79.0 | 100.0 |

○ 한편 대학에 진학한 학생(176명)의 진학한 대학 유형을 살펴보면, 전문대학(55.7%)이 4년제 일반대학(40.3%)에 비해 많음.

○ 계열별로는 공학·기술계열(56.3%)이 압도적으로 많고

- 다음으로 자연(9.7%), 경상(8.0%), 예체능 · 디자인(7.4%), 사회(6.3%), 인문(5.1%), 의약(4.5%)계열 순으로 나타남.

〈표 4-36〉 입학한 대학의 유형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전문대학 | 4년제 일반대학 | 학점은행제 | 폴리텍대학 | 기타 |
|---|---|---|---|---|---|---|---|
| 전 체 | | 176 | 55.7 | 40.3 | 0.6 | 1.7 | 1.7 |
| 졸업 연도 | 2016-2019년 | 62 | 48.4 | 50.0 | 0.0 | 1.6 | 0.0 |
| | 2020-2023년 | 114 | 59.6 | 35.1 | 0.9 | 1.8 | 2.6 |
| 성별 | 남성 | 86 | 57.0 | 38.4 | 0.0 | 3.5 | 1.2 |
| | 여성 | 90 | 54.4 | 42.2 | 1.1 | 0.0 | 2.2 |
| 연령별 | 20대 초반 | 112 | 60.7 | 33.9 | 0.9 | 1.8 | 2.7 |
| | 20대 중반 | 51 | 45.1 | 52.9 | 0.0 | 2.0 | 0.0 |
| | 20대 후반 | 13 | 53.8 | 46.2 | 0.0 | 0.0 | 0.0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116 | 54.3 | 40.5 | 0.0 | 2.6 | 2.6 |
| | 가사 · 실업 | 25 | 64.0 | 32.0 | 4.0 | 0.0 | 0.0 |
| | 상업 · 정보 | 16 | 50.0 | 50.0 | 0.0 | 0.0 | 0.0 |
| | 농생명 | 14 | 50.0 | 50.0 | 0.0 | 0.0 | 0.0 |
| | 수산 · 해운 | 5 | 80.0 | 20.0 | 0.0 | 0.0 | 0.0 |

□ 대학 진학 의향, 진학 이유, 진학 선택 애로사항

○ 대학에 진학한 직업계고 졸업생(176명)의 진학 이유 1순위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32.4%)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특정 자격(면허 등)을 얻거나, 이론·기술을 더 익히기 위해(28.4%), 직장 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15.3%), 시간을 갖고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12.5%) 순

○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나 향후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141명)의 진학 희망 이유 1순위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 확보(34%)로 나타났음.

- 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이미 진학한 학생에 비해 '좋은 일자리 확보',

'직장 내 더 나은 대우', '시간을 갖고 진로탐색' 선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7〉 대학 진학생과 非진학생의 대학 진학 이유 비교

(단위 : 명, %)

| 구 분 | 사례수 | 좋은 조건 일자리 확보 | 자격면허 취득 및 기술습득 | 직장 내 더 나은 대우받기 | 시간갖고 진로 탐색 | 부모님 기대 | 남들 다 가니까 | 계 |
|---|---|---|---|---|---|---|---|---|
| 대학 진학 졸업생 | 176 | 32.4 | 28.4 | 15.3 | 12.5 | 6.8 | 4.5 | 100.0 |
| 대학 비진학 졸업생 중 대학 진학 희망자 | 141 | 34.0 | 22.0 | 17.7 | 19.1 | 2.8 | 4.3 | 100.0 |

○ 대학 진학한 학생 및 진학 희망 학생의 희망 이유를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드러나는 몇 가지 특이점은 다음과 같음.

- 진학 청년 및 진학 희망 청년에서 모두 연령대가 어릴수록 실질적인 능력 개발(면허 및 기술 습득)을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 확보를 이유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음.
- 남학생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 확보를 선택하는 비중이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은 다양한 이유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선택하였는데, 특히 남학생에 비해 '자격면허 및 기술 습득'을 선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고교 재학시 받은 직업 교육이 희망 일자리 취업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모든 집단에서 대학 입학 및 입학 희망 이유를 대체로 실질적인 이유(좋은 직업, 스킬 개발, 임금/대우 상승, 진로 탐색)를 선택하고 있음.

〈표 4-38〉 대학 입학 및 입학 희망 이유

(단위 : 명, %)

| | 구 분 | | 사례수 | 좋은 조건 일자리 확보 | 자격면허 취득 및 기술습득 | 직장 내 더 나은 대우받기 | 시간갖고 진로 탐색 | 부모님 기대 | 남들 다 가니까 |
|---|---|---|---|---|---|---|---|---|---|
| 진학 청년 | 전 체 | | 176 | 32.4 | 28.4 | 15.3 | 12.5 | 6.8 | 4.5 |
| | 졸업 연도 | 2016-2019년 | 62 | 35.5 | 22.6 | 21.0 | 9.7 | 3.2 | 8.1 |
| | | 2020-2023년 | 114 | 30.7 | 31.6 | 12.3 | 14.0 | 8.8 | 2.6 |
| | 성별 | 남성 | 86 | 34.9 | 26.7 | 16.3 | 11.6 | 8.1 | 2.3 |
| | | 여성 | 90 | 30.0 | 30.0 | 14.4 | 13.3 | 5.6 | 6.7 |
| | 연령별 | 20대 초반 | 112 | 30.4 | 32.1 | 12.5 | 13.4 | 8.9 | 2.7 |
| | | 20대 중반 | 51 | 41.2 | 25.5 | 15.7 | 7.8 | 2.0 | 7.8 |
| | | 20대 후반 | 13 | 15.4 | 7.7 | 38.5 | 23.1 | 7.7 | 7.7 |
| | 현 거주지 | 경북 거주 | 76 | 28.9 | 30.3 | 17.1 | 14.5 | 6.6 | 2.6 |
| | | 경북外 거주 | 100 | 35.0 | 27.0 | 14.0 | 11.0 | 7.0 | 6.0 |
| | 경제활동 | 취업 | 72 | 29.2 | 27.8 | 20.8 | 12.5 | 5.6 | 4.2 |
| | | 미취업 | 104 | 34.6 | 28.8 | 11.5 | 12.5 | 7.7 | 4.8 |
| 진학 희망 청년 | 전 체 | | (141) | 34.0 | 22.0 | 17.7 | 19.1 | 2.8 | 4.3 |
| | 졸업 연도 | 2016-2019년 | (22) | 59.1 | 13.6 | 18.2 | 4.5 | 4.5 | 0.0 |
| | | 2020-2023년 | (119) | 29.4 | 23.5 | 17.6 | 21.8 | 2.5 | 5.0 |
| | 성별 | 남성 | (72) | 40.3 | 23.6 | 15.3 | 15.3 | 4.2 | 1.4 |
| | | 여성 | (69) | 27.5 | 20.3 | 20.3 | 23.2 | 1.4 | 7.2 |
| | 연령별 | 20대 초반 | (119) | 29.4 | 23.5 | 17.6 | 21.8 | 2.5 | 5.0 |
| | | 20대 중반 | (15) | 53.3 | 13.3 | 26.7 | 0.0 | 6.7 | 0.0 |
| | | 20대 후반 | (7) | 71.4 | 14.3 | 0.0 | 14.3 | 0.0 | 0.0 |
| | 현 거주지 | 경북 거주 | (54) | 40.7 | 24.1 | 13.0 | 11.1 | 1.9 | 9.3 |
| | | 경북外 거주 | (87) | 29.9 | 20.7 | 20.7 | 24.1 | 3.4 | 1.1 |
| | 경제활동 | 취업 | (110) | 35.5 | 21.8 | 18.2 | 18.2 | 3.6 | 2.7 |
| | | 미취업 | (31) | 29.0 | 22.6 | 16.1 | 22.6 | 0.0 | 9.7 |

○ 한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직업계고 졸업생(224명)이 진학을 선택한다면 예상된 애로사항은 대학 등록금 마련 방안(21.0%), 공부하고 노력할 자신감 부족(20.5%),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일자리 마련 불확실성(19.2%) 순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1순위 + 2순위)에서는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일자리 마련 불확실성(36.6%), 대학 등록금 마련 방안(34.8%), 공부하고 노력할 자신감 부족(33.5%) 순으로 약간의 순위 차이가 발생함.
- 취업 불확실성과 공부 자신감 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대학 등록금 마련 방안 및 기타 비용 마련 방안과 관련된 항목들이 낮지 않은 비중(69.2%)를 나타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수의 직업계고 졸업생이 진학시 직업현장 맞춤형 심화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전문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표 4-36〉 참조. 58%가 전문대 등 2년제 학위 과정 진학)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고등직업교육에 희망하는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표 4-39〉 대학 非진학생의 진학 고민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

| 진학 고민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 1순위 | 종합순위 (1+2순위) |
|---|---|---|
| 사례수 | 224 | 224 |
| 공부하고 노력할 자신감 부족 | 20.5 | 33.5 |
| 대학 등록금 마련 방안 | 21.0 | 34.8 |
| 대학생활 동안 본인 생활비 마련 방안 | 11.6 | 27.7 |
| 대학생활 동안 부양가족 생활비 마련 방안 | 3.6 | 6.7 |
|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일자리 마련 불확실성 | 19.2 | 36.6 |
| 학업과 다른 활동 병행어렵다는 점 | 9.8 | 23.7 |
| 가까운 지역에 적당한 대학이 없다는 점 | 5.8 | 12.1 |
| 특별히 고민되는 어려움 없다 | 8.5 | 12.9 |
| 기타 | - | 1.3 |
| 소 계 | 100.0 | - |

## 다. 현재 일자리

□ 현재 일자리 소재지

○ 취업한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의 소재지는 지역별 비중은 경북이 가장 높지만 26.4%에 그치고 있음.

- 다음으로 경기/인천이 26%, 서울이 17.9%로 높게 나타나며(수도권 총 43.9%), 부/울/경 지역은 11.9%, 대전/충청 지역이 9.8%로 나타남. 대구는 5.1%에 그치고 있음. 즉,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이동을 고려할 때 대구/경북이 한 권역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특별히 대구를 선호하여 이동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음.
- 현재 일자리의 소재지는 성별차이가 뚜렷한 편인데, 남학생은 33.7%가 경북에 잔류하고 있으며 경북 다음으로는 경기/인천(21.2%), 부/울/경(16.3%)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20.6%만 경북에서 취업하였고, 경기/인천이 29.8%, 서울이 21.4%로 수도권 취업 비중이 51.2%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도 확인됨. 즉, 졸업 이후 바로 지역을 이탈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이탈이 발생하는 추이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함. 추가 이탈자가 왜 결국 지역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표 4-40〉 현재 일자리의 지역

| | | 사례수 | 서울 | 경기/인천 | 부산/울산/경남 | 대구 | 경북 | 광주/전라 | 대전/세종/충청 | 강원 | 계 |
|---|---|---|---|---|---|---|---|---|---|---|---|
| | | (235) | 17.9 | 26.0 | 11.9 | 5.1 | 26.4 | 1.3 | 9.8 | 1.7 | 100.0 |
| 성별 | 남성 | (104) | 13.5 | 21.2 | 16.3 | 2.9 | 33.7 | 1.9 | 8.7 | 1.9 | 100.0 |
| | 여성 | (131) | 21.4 | 29.8 | 8.4 | 6.9 | 20.6 | 0.8 | 10.7 | 1.5 | 100.0 |
| 연령 | 20대 초반 (20~23세) | (176) | 13.6 | 25.6 | 13.6 | 5.7 | 27.8 | 1.1 | 10.2 | 2.3 | 100.0 |
| | 20대 중반 (24~26세) | (43) | 30.2 | 27.9 | 4.7 | 4.7 | 18.6 | 2.3 | 11.6 | 0.0 | 100.0 |
| | 20대 후반 (27~29세) | (16) | 31.3 | 25.0 | 12.5 | 0.0 | 31.3 | 0.0 | 0.0 | 0.0 | 100.0 |
| 현 거주지 | 경북 거주 | (63) | 0.0 | 0.0 | 0.0 | 1.6 | 98.4 | 0.0 | 0.0 | 0.0 | 100.0 |
| | 경북外 거주 | (172) | 24.4 | 35.5 | 16.3 | 6.4 | 0.0 | 1.7 | 13.4 | 2.3 | 100.0 |
| 계열 | 공업 | (122) | 10.7 | 34.4 | 9.0 | 5.7 | 27.9 | 1.6 | 8.2 | 2.5 | 100.0 |
| | 가사 · 실업 | (51) | 37.3 | 17.6 | 13.7 | 5.9 | 15.7 | 0.0 | 9.8 | 0.0 | 100.0 |
| | 상업 · 정보 | (31) | 25.8 | 22.6 | 6.5 | 6.5 | 29.0 | 3.2 | 6.5 | 0.0 | 100.0 |
| | 농생명 | (16) | 12.5 | 12.5 | 25.0 | 0.0 | 31.3 | 0.0 | 12.5 | 6.3 | 100.0 |
| | 수산 · 해운 | (15) | 0.0 | 6.7 | 26.7 | 0.0 | 40.0 | 0.0 | 26.7 | 0.0 | 100.0 |

□ 근로시간 및 소득

○ 취업자인 직업계고 졸업생의 현 직장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5시간으로 나타남.

- 구간별로, 주당 평균 40시간(33.6%), 41시간 이상(33.2%)이 가장 많음.
- 성별로는 여성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군복무의 영향으로 첫 '주된 일자리' 이행이 상대적으로 늦어 나타나는 현상임.
- 연령대별로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 비중은 2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20대 중후반의 경우 대다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거주지별로 특이한 패턴은 서울, 경기, 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지역 거주 청년의 경우 대다수가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 및 대구지역 거주 청년은 상대적으로 전일제 근무 비중이 낮았음. 이는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학하는 학생은 대체로 근교로 진학을 하지만 취업시는 경북에 남거나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을 보여줌(후반부 '구직 희망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에서 취업지역은 제한하지 않는 경향이 재확인됨).

〈표 4-41〉 현 직장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 시간)

| 구 분 | | 사례수 | 6~10시간 | 11~14시간 | 15~39시간 | 40시간 | 41시간이상 | 평균 |
|---|---|---|---|---|---|---|---|---|
| 전 체 | | 235 | 9.4 | 8.1 | 15.7 | 33.6 | 33.2 | 34.96 |
| 성별 | 남성 | 104 | 8.7 | 5.8 | 21.2 | 34.6 | 29.8 | 34.27 |
| | 여성 | 131 | 9.9 | 9.9 | 11.5 | 32.8 | 35.9 | 35.50 |
| 연령 | 20대 초반 | 176 | 11.4 | 10.2 | 16.5 | 32.4 | 29.5 | 33.30 |
| | 20대 중반 | 43 | 4.7 | 2.3 | 16.3 | 30.2 | 46.5 | 39.28 |
| | 20대 후반 | 16 | 0.0 | 0.0 | 6.3 | 56.3 | 37.5 | 41.56 |
| 현 거주지1 | 서울 | 42 | 9.5 | 2.4 | 14.3 | 38.1 | 35.7 | 37.81 |
| | 경기/인천 | 61 | 9.8 | 4.9 | 18.0 | 34.4 | 32.8 | 35.52 |
| | 부산/울산/경남 | 28 | 10.7 | 17.9 | 17.9 | 14.3 | 39.3 | 30.93 |
| | 대구 | 11 | 18.2 | 27.3 | 9.1 | 9.1 | 36.4 | 26.27 |
| | 경북 | 63 | 4.8 | 9.5 | 17.5 | 34.9 | 33.3 | 35.54 |
| | 광주/전라 | 3 | 0.0 | 0.0 | 33.3 | 66.7 | 0.0 | 37.33 |
| | 대전/세종/충청 | 23 | 8.7 | 4.3 | 8.7 | 47.8 | 30.4 | 37.22 |
| | 강원 | 4 | 50.0 | 0.0 | 0.0 | 50.0 | 0.0 | 24.50 |

○ 현재 취업상태인 청년(235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세후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평균 201만원으로 나타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36.2%)과 200~250만원 미만(31.1%)이 가장 많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소득수준이 높음.
- 취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평균 206만원, 개인사업자는 평균 175만원으로 약 30만원 정도의 월평균 소득 격차를 보임.
- 지역별로 경북으로부터 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나타냄. 근거리의 재학생 비중이 높은 경향과 애초에 지역노동시장 임금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 이동을 결정하는 영향도 존재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표 4-42〉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세후소득 기준)

(단위 : 명, %, 만원)

| 구 분 | | 사례수 | 200만원 미만 | 200~250만원 미만 | 250~300만원 미만 | 300~350만원 미만 | 350~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평균 |
|---|---|---|---|---|---|---|---|---|---|
| 전 체 | | 235 | 36.2 | 31.1 | 20.9 | 5.5 | 4.7 | 1.7 | 201.31 |
| 성별 | 남성 | 104 | 36.5 | 28.8 | 17.3 | 7.7 | 6.7 | 2.9 | 202.33 |
| | 여성 | 131 | 35.9 | 32.8 | 23.7 | 3.8 | 3.1 | 0.8 | 200.51 |
| 연령 | 20대 초반 | 176 | 44.3 | 31.8 | 17.0 | 4.0 | 2.3 | 0.6 | 182.73 |
| | 20대 중반 | 43 | 14.0 | 30.2 | 37.2 | 7.0 | 11.6 | 0.0 | 241.58 |
| | 20대 후반 | 16 | 6.3 | 25.0 | 18.8 | 18.8 | 12.5 | 18.8 | 297.50 |
| 현 거주지1 | 서울 | 42 | 28.6 | 31.0 | 23.8 | 7.1 | 4.8 | 4.8 | 227.95 |
| | 경기/인천 | 61 | 26.2 | 29.5 | 29.5 | 6.6 | 6.6 | 1.6 | 216.59 |
| | 부산/울산/경남 | 28 | 50.0 | 17.9 | 25.0 | 0.0 | 7.1 | 0.0 | 163.00 |
| | 대구 | 11 | 54.5 | 27.3 | 18.2 | 0.0 | 0.0 | 0.0 | 167.27 |
| | 경북 | 63 | 44.4 | 31.7 | 11.1 | 7.9 | 3.2 | 1.6 | 189.60 |
| | 광주/전라 | 3 | 33.3 | 33.3 | 0.0 | 0.0 | 33.3 | 0.0 | 251.67 |
| | 대전/세종/충청 | 23 | 21.7 | 52.2 | 21.7 | 4.3 | 0.0 | 0.0 | 209.65 |
| | 강원 | 4 | 75.0 | 25.0 | 0.0 | 0.0 | 0.0 | 0.0 | 149.25 |
| 경제활동 유형 | 임금근로자 | 211 | 33.6 | 32.7 | 21.3 | 6.2 | 4.7 | 1.4 | 206.30 |
| | 개인사업자 | 15 | 53.3 | 6.7 | 26.7 | 0.0 | 6.7 | 6.7 | 174.67 |
| | 기타(무급) | 9 | 66.7 | 33.3 | 0.0 | 0.0 | 0.0 | 0.0 | 128.89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122 | 32.0 | 31.1 | 18.9 | 9.8 | 5.7 | 2.5 | 210.02 |
| | 가사・실업 | 51 | 43.1 | 31.4 | 23.5 | 0.0 | 2.0 | 0.0 | 185.04 |
| | 상업・정보 | 31 | 29.0 | 45.2 | 16.1 | 3.2 | 6.5 | 0.0 | 213.16 |
| | 농생명 | 16 | 43.8 | 18.8 | 31.3 | 0.0 | 6.3 | 0.0 | 180.81 |
| | 수산・해운 | 15 | 53.3 | 13.3 | 26.7 | 0.0 | 0.0 | 6.7 | 183.27 |

□ 현 직장 규모

○ 현 소속직장의 총 직원수는 30~99명(33.2%) 규모가 가장 많음.

- 다음으로 10~29명(22.6%), 5~9명 및 100~299명(각 13.6%), 1~4명(12.8%) 순
- 전체적으로 99명 이하 규모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속직장의 종사자 규모는 30~99명(36.5%)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는 1~4명 규모가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3〉 현재 직장의 총 직원수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
| 전 체 | | 235 | 12.8 | 13.6 | 22.6 | 33.2 | 13.6 | 0.9 | 3.4 |
| 성별 | 남성 | 104 | 10.6 | 10.6 | 25.0 | 33.7 | 12.5 | 1.0 | 6.7 |
| | 여성 | 131 | 14.5 | 16.0 | 20.6 | 32.8 | 14.5 | 0.8 | 0.8 |
| 연령 | 20대 초반 | 176 | 14.8 | 14.8 | 23.3 | 30.7 | 12.5 | 0.6 | 3.4 |
| | 20대 중반 | 43 | 7.0 | 11.6 | 20.9 | 37.2 | 18.6 | 2.3 | 2.3 |
| | 20대 후반 | 16 | 6.3 | 6.3 | 18.8 | 50.0 | 12.5 | 0.0 | 6.3 |
| 현 거주지1 | 서울 | 42 | 7.1 | 19.0 | 28.6 | 31.0 | 14.3 | 0.0 | 0.0 |
| | 경기/인천 | 61 | 8.2 | 11.5 | 16.4 | 37.7 | 19.7 | 1.6 | 4.9 |
| | 부산/울산/경남 | 28 | 17.9 | 17.9 | 28.6 | 32.1 | 3.6 | 0.0 | 0.0 |
| | 대구 | 11 | 18.2 | 36.4 | 27.3 | 18.2 | 0.0 | 0.0 | 0.0 |
| | 경북 | 63 | 19.0 | 11.1 | 25.4 | 30.2 | 7.9 | 1.6 | 4.8 |
| | 광주/전라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0.0 |
| | 대전/세종/충청 | 23 | 4.3 | 4.3 | 13.0 | 39.1 | 30.4 | 0.0 | 8.7 |
| | 강원 | 4 | 50.0 | 0.0 | 25.0 | 25.0 | 0.0 | 0.0 | 0.0 |
| 경제활동 유형 | 임금근로자 | 211 | 7.1 | 12.8 | 23.7 | 36.5 | 15.2 | 0.9 | 3.8 |
| | 개인사업자 | 15 | 80.0 | 6.7 | 6.7 | 6.7 | 0.0 | 0.0 | 0.0 |
| | 기타(무급) | 9 | 33.3 | 44.4 | 22.2 | 0.0 | 0.0 | 0.0 | 0.0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122 | 9.8 | 9.8 | 23.0 | 32.8 | 16.4 | 1.6 | 6.6 |
| | 가사・실업 | 51 | 11.8 | 29.4 | 27.5 | 27.5 | 3.9 | 0.0 | 0.0 |
| | 상업・정보 | 31 | 12.9 | 6.5 | 19.4 | 41.9 | 19.4 | 0.0 | 0.0 |
| | 농생명 | 16 | 18.8 | 12.5 | 18.8 | 37.5 | 12.5 | 0.0 | 0.0 |
| | 수산・해운 | 15 | 33.3 | 6.7 | 13.3 | 33.3 | 13.3 | 0.0 | 0.0 |

□ 현 일자리 평가

○ 현재 일자리에 대해 13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모든 취업자 대상), 전체 평균은 3.40점(5점 만점 기준, '보통')으로 나타남.

○ 현재 직장 평가 항목 중 결과, ㉥ 작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직장(3.70점)이라는 점에 긍정적 공감도가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 근로환경(근무장소, 휴게실, 화장실 등)이 쾌적한 기업(3.56점), ㉢ 현장에서 교육 ·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은 직업과 ㉨ 직장 동료와 협력이 원활한 기업(각각 3.51점), ㉩ 부하직원을 존중해주는 상사 및 상사와 협력관계가 원활한 기업(3.47점), ㉤ 계속 근무하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직장(3.43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반면 ㉡ 회사가 비전이 있어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직장(3.21점)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낮았음.

- 그 밖에 ㉮ 주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보장과 ㉯ 성비가 균등하고,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각각 3.24점), ㉠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가 있는 직장(3.30점) 요소는 상대적으로 공감도가 낮았음.

〈표 4-44〉 현 직장 평가 종합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전체 평균 |
|---|---|---|---|---|---|---|---|---|---|---|---|---|---|---|---|---|
| 전 체 | | 235 | 3.24 | 3.38 | 3.51 | 3.21 | 3.43 | 3.70 | 3.56 | 3.30 | 3.51 | 3.47 | 3.24 | 3.32 | 3.34 | 3.40 |
| 성별 | 남성 | 104 | 3.50 | 3.15 | 3.45 | 3.21 | 3.53 | 3.58 | 3.47 | 3.26 | 3.38 | 3.43 | 3.14 | 3.29 | 3.25 | 3.36 |
| | 여성 | 131 | 3.04 | 3.56 | 3.56 | 3.20 | 3.36 | 3.79 | 3.63 | 3.34 | 3.63 | 3.50 | 3.31 | 3.35 | 3.40 | 3.44 |
| 연령별 | 20대 초반 | 176 | 3.23 | 3.30 | 3.54 | 3.21 | 3.44 | 3.69 | 3.56 | 3.23 | 3.50 | 3.52 | 3.26 | 3.28 | 3.34 | 3.39 |
| | 20대 중반 | 43 | 3.21 | 3.74 | 3.40 | 3.16 | 3.44 | 3.63 | 3.51 | 3.51 | 3.49 | 3.33 | 3.19 | 3.37 | 3.23 | 3.40 |
| | 20대 후반 | 16 | 3.50 | 3.25 | 3.50 | 3.25 | 3.38 | 4.00 | 3.69 | 3.56 | 3.75 | 3.31 | 3.19 | 3.69 | 3.56 | 3.51 |
| 현 거주지 | 경북 거주 | 63 | 3.33 | 3.52 | 3.51 | 3.27 | 3.48 | 3.67 | 3.59 | 3.37 | 3.46 | 3.51 | 3.17 | 3.24 | 3.38 | 3.42 |
| | 경북外 거주 | 172 | 3.21 | 3.33 | 3.51 | 3.18 | 3.42 | 3.71 | 3.55 | 3.28 | 3.53 | 3.45 | 3.26 | 3.35 | 3.32 | 3.39 |
| 취업 유형 | 직장인 | 211 | 3.30 | 3.45 | 3.59 | 3.23 | 3.49 | 3.75 | 3.62 | 3.36 | 3.59 | 3.52 | 3.27 | 3.35 | 3.33 | 3.45 |
| | 개인사업 | 15 | 2.73 | 3.20 | 3.27 | 3.53 | 3.33 | 3.60 | 3.33 | 3.00 | 3.07 | 3.20 | 3.00 | 3.27 | 3.73 | 3.25 |
| | 기타 | 9 | 2.67 | 1.89 | 2.11 | 2.11 | 2.33 | 2.56 | 2.44 | 2.56 | 2.56 | 2.67 | 2.78 | 2.78 | 2.78 | 2.48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122 | 3.29 | 3.25 | 3.52 | 3.27 | 3.51 | 3.72 | 3.63 | 3.32 | 3.48 | 3.48 | 3.22 | 3.41 | 3.33 | 3.42 |
| | 가사 · 실업 | 51 | 3.00 | 3.90 | 3.88 | 3.16 | 3.16 | 3.78 | 3.47 | 3.78 | 3.76 | 3.63 | 3.45 | 3.33 | 3.41 | 3.52 |

〈표 4-44〉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전체 평균 |
|---|---|---|---|---|---|---|---|---|---|---|---|---|---|---|---|---|
| | 상업 · 정보 | 31 | 3.42 | 3.45 | 3.16 | 3.10 | 3.65 | 3.74 | 3.65 | 2.90 | 3.52 | 3.39 | 3.13 | 3.26 | 3.32 | 3.36 |
| | 농생명 | 16 | 3.50 | 3.06 | 3.38 | 3.25 | 3.69 | 3.63 | 3.44 | 3.06 | 3.38 | 3.50 | 3.25 | 3.38 | 3.50 | 3.38 |
| | 수산 · 해운 | 15 | 3.07 | 2.87 | 3.00 | 3.00 | 3.07 | 3.20 | 3.20 | 2.60 | 3.07 | 2.93 | 2.87 | 2.67 | 3.00 | 2.96 |
| 직업계고 | 특성화고 | 148 | 3.12 | 3.43 | 3.55 | 3.13 | 3.30 | 3.63 | 3.47 | 3.38 | 3.53 | 3.41 | 3.28 | 3.30 | 3.39 | 3.38 |
| 특성 | 마이스터고 | 87 | 3.45 | 3.29 | 3.44 | 3.33 | 3.66 | 3.82 | 3.70 | 3.17 | 3.49 | 3.57 | 3.17 | 3.36 | 3.25 | 3.44 |

가) 주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보장
나) 내 전공계열과 일치도가 높은 직업
다) 현장에서 교육 ·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은 직업
라) 회사가 비전이 있어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직장
마) 계속 근무하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직장
바) 작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직장
사) 근로환경(근무장소, 휴게실, 화장실 등)이 쾌적한 기업
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가 있는 직장
자) 직장동료와 협력이 원활한 기업
차) 부하직원을 존중해주는 상사 및 상사와 협력관계가 원활한 기업
카) 성비가 균등하고,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
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워라벨)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기업
파)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

※ 심각도 : 5점 척도('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1점, '대체로 심각하지 않았다' 2점, '보통' 3점, '대체로 심각한 편' 4점, '매우 심각했다' 5점)의 평균

## 라. 구직 및 희망 일자리

### □ 구직 지역 범위

○ 현재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경북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취업 당시 혹은 구직시(현재 및 향후 구직의향이 있는 자) 구직 지역 범위를 질문한 결과 두 그룹(경북 거주자 및 경북 외 거주자) 모두 현재 거주 지역에서 구직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경북 거주자의 경우, 현재 거주지역에서 구직희망하는 비중이 38.7%로 나타났고, 경북 외 지역으로 이미 이주한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 청년의 경우, 36.2%가 현재 거주지역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이한 점은 경북 거주 청년과 경북 외 거주 청년 집단 모두에서 남성의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구직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여성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은 구직 지역 범위를 더 넓게(인근 광역시나 경북 거주 청년의 경우 경북과 대구) 설정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음.

○ 현재 거주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약간 다른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현재 경북 거주 청년의 경우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구직한다는 비중 다음으로 높은 선택지는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로 25.4%가 선택하였음. 즉, 경북지역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다수가 특별한 지역 선호 없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애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동성(mobility)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노동경제학적 이론을 벗어나지 않는 현상임.

- 세부 집단별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비중이 높음.
- 다만 타지역의 직업계고 졸업 청년대비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 청년이 이동성이 높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청년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을 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음으로 선택 비중이 높은 선택지는 거주지역 및 (경북)도내 인근지역으로 19.4%가 응답하였음. 선택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경북도내 모두 가능(7.4%)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경북내 거주 지역 및 경북내 다른 지자체를 포함하여 '경북'에 잔류하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의 비중은 65.5%로 높음.

○ 이미 경북에서 이탈한 타지역 거주 청년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구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69.5%로 나타남. 즉, 경북 외 지역으로 이미 이주한 청년의 대다수는 해당 지역에 계속 잔류를 선호함을 알 수 있음.

- 특이한 점은, 경북 거주 여성 청년의 경우 타지역(대구)이나 지역 제한 없이 구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남성 청년에 비해 높았으나, 경북을 이미 이탈한 집단에서는 지역 제한없이 구직하는 남성 청년보다 낮게 나타남.

〈표 4-45〉 현 경북도 내 거주자의 구직 희망 지역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거주 지역 | 거주 지역+ 도내 인근 지역 | 경북 도내 모두 가능 | 경북 도내 및 대구 | 특별한 지역 제한 없음 | 계 |
|---|---|---|---|---|---|---|---|---|
| 전 체 | | 150 | 38.7 | 19.4 | 7.4 | 9.3 | 25.4 | 100.0 |
| 성별 | 남성 | 91 | 41.8 | 19.8 | 7.7 | 7.7 | 23.1 | 100.0 |
| | 여성 | 59 | 33.9 | 18.6 | 6.8 | 11.9 | 28.8 | 100.0 |
| 연령 | 20대 초반 | 119 | 36.1 | 19.4 | 6.8 | 9.2 | 28.6 | 100.0 |
| | 20대 중반 | 22 | 50.0 | 13.6 | 13.6 | 9.1 | 13.6 | 100.0 |
| | 20대 후반 | 9 | 44.4 | 33.3 | 0.0 | 11.1 | 11.1 | 100.0 |
| 경제활동 상태 | 취업자 | 59 | 47.4 | 20.3 | 5.1 | 1.7 | 25.4 | 100.0 |
| | 실업자 | 91 | 33.0 | 18.7 | 8.8 | 14.3 | 25.3 | 100.0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95 | 36.8 | 15.8 | 10.6 | 10.6 | 26.3 | 100.0 |
| | 가사 · 실업 | 16 | 31.3 | 37.5 | 6.3 | 0.0 | 25.0 | 100.0 |
| | 상업 · 정보 | 19 | 42.1 | 10.5 | 0.0 | 15.7 | 31.6 | 100.0 |
| | 농생명 | 7 | 42.9 | 42.9 | 0.0 | 14.3 | 0.0 | 100.0 |
| | 수산 · 해운 | 13 | 53.8 | 23.1 | 0.0 | 0.0 | 23.1 | 100.0 |

* 취업자 : 현재 취·창업자(프리랜서 활동자 포함)
* 실업자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자 및 향후 구직의향자
* 비경제활동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 불참 및 향후 구직의향 없음

〈표 4-46〉 현 경북 외 지역 거주자의 구직 희망 지역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거주 지역 | 거주 지역 및 광역시도내 인근지역 | 특별한 지역 제한없음 | 계 |
|---|---|---|---|---|---|---|
| 전 체 | | 141 | 36.2 | 33.3 | 30.5 | 100.0 |
| 성별 | 남성 | 52 | 40.3 | 25.0 | 34.7 | 100.0 |
| | 여성 | 89 | 33.8 | 38.3 | 28.1 | 100.0 |
| 연령 | 20대 초반 | 89 | 34.8 | 26.9 | 38.1 | 100.0 |
| | 20대 중반 | 42 | 40.5 | 45.2 | 14.3 | 100.0 |
| | 20대 후반 | 10 | 30.0 | 40.0 | 30.0 | 100.0 |
| 경제활동 상태 | 취업자 | 93 | 36.6 | 27.9 | 35.5 | 100.0 |
| | 실업자 | 48 | 35.4 | 43.8 | 20.8 | 100.0 |

〈표 4-46〉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거주 지역 | 거주 지역 및 광역시도내 인근지역 | 특별한 지역 제한없음 | 계 |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72 | 33.3 | 29.2 | 37.5 | 100.0 |
| | 가사 · 실업 | 32 | 28.2 | 40.6 | 31.2 | 100.0 |
| | 상업 · 정보 | 16 | 50.1 | 31.3 | 18.7 | 100.0 |
| | 농생명 | 13 | 38.5 | 46.2 | 15.4 | 100.0 |
| | 수산 · 해운 | 8 | 62.5 | 25.0 | 12.4 | 100.0 |

* 경제활동 상태 중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의 정의
- 취업자 : 현재 취 · 창업자(프리랜서 활동자 포함)
- 실업자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자 및 향후 구직의향자
- 비경제활동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 불참 및 향후 구직의향 없음

□ 구직 경험자의 구직시 애로사항

○ 현재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 청년의(현 일자리 구직 당시 및 현재) 구직시 애로사항으로 동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다른 활동과 병행가능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음(3.24점).

- 이는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이 당장 커리어 경로에 정착하기보다는 커리어 경로 진입을 위해 추가적인 교육(학업이나 훈련과정)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호를 가진 집단이 다수 존재하여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경북지역 청년들은 다른 지역 거주 청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 현재 구직자들의 경우 다양한 희망 조건(금전적 보상 및 환경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 정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편임.

〈표 4-47〉 구직 중 어려웠던 점 : 5점 평균(점) 기준

(단위 : 명, 평균(점))

| 구 분 | | 사례수 | ㉮ 희망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 ㉯ 다른 조건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 | ㉰ 다른 활동과 병행 가능 일자리 부족 | ㉱ 전공과 일치 하는 일자리 부족 | ㉲ 내 교육 기술·숙련 수준 등 부족 | 전체 평균 |
|---|---|---|---|---|---|---|---|---|
| 전 체 | | 400 | 3.21 | 3.23 | 3.24 | 3.01 | 2.88 | 3.11 |
| 성별 | 남성 | 197 | 3.31 | 3.24 | 3.20 | 2.97 | 2.89 | 3.12 |
| | 여성 | 203 | 3.11 | 3.22 | 3.28 | 3.05 | 2.87 | 3.11 |
| 연령별 | 20대 초반 | 298 | 3.07 | 3.13 | 3.11 | 2.91 | 2.84 | 3.01 |
| | 20대 중반 | 80 | 3.51 | 3.47 | 3.61 | 3.27 | 2.97 | 3.37 |
| | 20대 후반 | 22 | 3.95 | 3.77 | 3.55 | 3.41 | 3.05 | 3.55 |
| 현 거주지 | 경북 거주 | 170 | 3.24 | 3.29 | 3.31 | 3.08 | 2.98 | 3.18 |
| | 경북外 거주 | 230 | 3.19 | 3.19 | 3.19 | 2.96 | 2.81 | 3.07 |
| 경제활동 상태 | 취업자 | 235 | 3.03 | 3.11 | 3.09 | 2.84 | 2.70 | 2.95 |
| | 실업자 | 139 | 3.53 | 3.45 | 3.50 | 3.31 | 3.19 | 3.39 |
| | 비경제활동 | 26 | - | - | - | - | - | -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233 | 3.29 | 3.15 | 3.15 | 2.95 | 2.92 | 3.09 |
| | 가사 · 실업 | 69 | 3.19 | 3.27 | 3.17 | 2.86 | 2.64 | 3.03 |
| | 상업 · 정보 | 50 | 3.09 | 3.60 | 3.66 | 3.62 | 3.21 | 3.43 |
| | 농생명 | 23 | 3.00 | 3.30 | 3.48 | 2.83 | 2.74 | 3.07 |
| | 수산 · 해운 | 25 | 3.04 | 3.08 | 3.16 | 3.00 | 2.64 | 2.98 |
| 직업계고 특성 | 특성화고 | 281 | 3.33 | 3.29 | 3.30 | 3.06 | 2.94 | 3.19 |
| | 마이스터고 | 119 | 2.93 | 3.10 | 3.10 | 2.90 | 2.74 | 2.95 |

㉮ 임금, 근로시간, 정규직 일자리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교육 · 훈련 제공 등)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
㉰ 다른 활동(육아, 교육 · 훈련 이수 등)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 전공계열과 일치하는 일자리 부족
㉲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직하기에는 나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숙련수준 등이 부족

* 경제활동 상태 중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의 정의
- 취업자 : 현재 취·창업자(프리랜서 활동자 포함)
- 실업자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자 및 향후 구직의향자
- 비경제활동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 불참 및 향후 구직의향 없음

※ 심각도 : 5점 척도('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1점, '대체로 심각하지 않았다' 2점, '보통' 3점, '대체로 심각한 편' 4점, '매우 심각했다' 5점)의 평균

〈표 4-48〉 구직 중 어려웠던 점 : 심각성 동의(④+⑤) 비율(%) 기준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 희망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 ㉯ 다른 조건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 | ㉰ 다른 활동과 병행 가능 일자리 부족 | ㉱ 전공과 일치 하는 일자리 부족 | ㉲ 내 교육 기술·숙련 수준 등 부족 | 전체 평균 |
|---|---|---|---|---|---|---|---|---|
| 전 체 | | 400 | 37.3 | 37.8 | 38.8 | 31.8 | 22.5 | 33.6 |
| 성별 | 남성 | 197 | 40.6 | 36.5 | 36.0 | 28.9 | 20.8 | 32.6 |
| | 여성 | 203 | 34.0 | 38.9 | 41.4 | 34.5 | 24.1 | 34.6 |
| 연령별 | 20대 초반 | 298 | 30.5 | 31.9 | 31.5 | 25.8 | 19.1 | 27.8 |
| | 20대 중반 | 80 | 52.5 | 52.5 | 58.8 | 46.3 | 32.5 | 48.5 |
| | 20대 후반 | 22 | 72.7 | 63.6 | 63.6 | 59.1 | 31.8 | 58.2 |
| 현 거주지 | 경북 거주 | 170 | 38.8 | 38.2 | 38.8 | 30.6 | 21.8 | 33.6 |
| | 경북外 거주 | 230 | 36.1 | 37.4 | 38.7 | 32.6 | 23.0 | 33.6 |
| 경제활동 상태 | 취업자 | 235 | 34.0 | 36.6 | 35.3 | 29.4 | 19.6 | 31.0 |
| | 실업자 | 139 | 49.6 | 46.8 | 51.8 | 41.7 | 31.7 | 44.3 |
| | 비경제활동 | 26 | - | - | - | - | - | -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233 | 40.8 | 34.3 | 34.3 | 29.6 | 24.0 | 32.6 |
| | 가사 · 실업 | 69 | 37.7 | 40.6 | 37.7 | 30.4 | 17.4 | 32.8 |
| | 상업 · 정보 | 50 | 32.0 | 52.0 | 52.0 | 50.0 | 32.0 | 43.6 |
| | 농생명 | 23 | 21.7 | 43.5 | 60.9 | 26.1 | 21.7 | 34.8 |
| | 수산 · 해운 | 25 | 28.0 | 28.0 | 36.0 | 24.0 | 4.0 | 24.0 |
| 직업계고 특성 | 특성화고 | 281 | 42.0 | 39.5 | 40.2 | 33.5 | 25.3 | 36.1 |
| | 마이스터고 | 119 | 26.1 | 33.6 | 35.3 | 27.7 | 16.0 | 27.7 |

㉮ 임금, 근로시간, 정규직 일자리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교육 · 훈련 제공 등)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
㉰ 다른 활동(육아, 교육 · 훈련 이수 등)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 전공계열과 일치하는 일자리 부족
㉲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직하기에는 나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숙련수준 등이 부족

* 경제활동 상태 중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의 정의
  - 취업자 : 현재 취·창업자(프리랜서 활동자 포함)
  - 실업자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자 및 향후 구직의향자
  - 비경제활동 : 미취업자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 불참 및 향후 구직의향 없음

※ 심각성 동의 비율 : '대체로 심각한 편' 4점 + '매우 심각했다' 5점의 합계

□ 이전 일자리

○ 취업자와 미취업자 중 이전(직전)에 다른 일자리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3%(93명)로 나타남.

○ 직전 일자리 유형은 모두 임금근로자(100%, 93명)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40.9%)보다 비정규직(59.1%) 비율이 더 높았음.

〈표 4-49〉 현 직장 이전/직전 일자리의 고용형태

(단위 : 명, %, 임금근로자 기준)

| 구 분 | | 사례수 | 임금근로자 기준 | | 계 |
|---|---|---|---|---|---|
| | | |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음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음 | |
| 전 체 | | 93 | 40.9 | 59.1 | 100.0 |
| 성별 | 남성 | 44 | 34.1 | 65.9 | 100.0 |
| | 여성 | 49 | 46.9 | 53.1 | 100.0 |
| 연령별 | 20대 초반(20~23세) | 66 | 40.9 | 59.1 | 100.0 |
| | 20대 중반(24~26세) | 18 | 33.3 | 66.7 | 100.0 |
| | 20대 후반(27~29세) | 9 | 55.6 | 44.4 | 100.0 |

○ 직전 일자리의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18.3%)이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10.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8.6%), 기타 제품 제조업(8.6%), 식료품 제조업(5.4%), 전기장비 제조업(4.3%), 종합 건설업(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직전 일자리의 직종은 음식 서비스직(21.5%)이 1위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제조 단순직(12.9%), 경영 · 행정 · 사무직(10.8%), 전기 · 전자 설치 · 정비 · 생산직(8.6%), 미용 · 예식 서비스직(7.5%), 운전 · 운송직(7.5%), 기계 설치 · 정비 · 생산직(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전/직전 일자리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율이 63.4%에 달하고 있음.

○ 이전/직전 일자리에서의 종사자 규모를 분석해보면, 30~99명(39.8%)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29명 이하 규모가 전체의 52.7%를 차지하였음.

○ 이전/직전 일자리 경험자(n=93)들의 40.9%는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고등학교/교육청 취업지원 서비스(31.2%),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12.9%), 사설 직업알선 기관이나 학원(7.5%) 순

○ 종합해보면, 표본 청년들의 직전일자리는 주된 일자리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이를 반영하듯, 이전/직전 일자리를 그만둔 첫 번째 이유는 계속 다녀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48.4%)으로 조사됨.
- 그 밖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제도, 고용형태 등) 불만족(30.1%), 열악한 근로환경(작업장 안전성 문제 등)(23.7%), 직장내 인간관계 괴롭힘, 상사의 권위적인 태도 등 문제와 진학/자격증 취득 등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각각 20.4%),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 부재(16.1%) 순으로 나타남.

〈표 4-50〉 직전/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
| 전 체 | | 93 | 30.1 | 23.7 | 11.8 | 48.4 | 20.4 | 16.1 | 9.7 | 20.4 | 4.3 | 7.5 | 1.1 | 5.4 | 1.1 |
| 성별 | 남성 | 44 | 29.5 | 22.7 | 13.6 | 36.4 | 18.2 | 22.7 | 4.5 | 27.3 | 4.5 | 15.9 | 0.0 | 2.3 | 2.3 |
| | 여성 | 49 | 30.6 | 24.5 | 10.2 | 59.2 | 22.4 | 10.2 | 14.3 | 14.3 | 4.1 | 0.0 | 2.0 | 8.2 | 0.0 |
| 연령별 | 20대 초반 | 66 | 34.8 | 24.2 | 9.1 | 50.0 | 18.2 | 18.2 | 7.6 | 18.2 | 6.1 | 9.1 | 1.5 | 3.0 | 0.0 |
| | 20대 중반 | 18 | 22.2 | 33.3 | 27.8 | 38.9 | 22.2 | 0.0 | 16.7 | 22.2 | 0.0 | 5.6 | 0.0 | 11.1 | 0.0 |
| | 20대 후반 | 9 | 11.1 | 0.0 | 0.0 | 55.6 | 33.3 | 33.3 | 11.1 | 33.3 | 0.0 | 0.0 | 0.0 | 11.1 | 11.1 |
| 현 거주지 | 경북 거주 | 47 | 34.0 | 23.4 | 17.0 | 34.0 | 23.4 | 19.1 | 10.6 | 21.3 | 4.3 | 10.6 | 0.0 | 2.1 | 0.0 |
| | 경북外 거주 | 46 | 26.1 | 23.9 | 6.5 | 63.0 | 17.4 | 13.0 | 8.7 | 19.6 | 4.3 | 4.3 | 2.2 | 8.7 | 2.2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49 | 30.6 | 28.6 | 8.2 | 55.1 | 18.4 | 16.3 | 10.2 | 16.3 | 4.1 | 2.0 | 2.0 | 6.1 | 2.0 |
| | 非경제활동 | 44 | 29.5 | 18.2 | 15.9 | 40.9 | 22.7 | 15.9 | 9.1 | 25.0 | 4.5 | 13.6 | 0.0 | 4.5 | 0.0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48 | 22.9 | 22.9 | 10.4 | 52.1 | 16.7 | 20.8 | 6.3 | 31.3 | 2.1 | 6.3 | 0.0 | 6.3 | 2.1 |
| | 가사 · 실업 | 23 | 30.4 | 26.1 | 4.3 | 52.2 | 30.4 | 17.4 | 4.3 | 8.7 | 8.7 | 4.3 | 4.3 | 8.7 | 0.0 |
| | 상업 · 정보 | 7 | 14.3 | 28.6 | 42.9 | 28.6 | 28.6 | 0.0 | 57.1 | 0.0 | 0.0 | 0.0 | 0.0 | 0.0 | 0.0 |
| | 농생명 | 3 | 33.3 | 33.3 | 33.3 | 66.7 | 0.0 | 0.0 | 0.0 | 33.3 | 0.0 | 0.0 | 0.0 | 0.0 | 0.0 |
| | 수산 · 해운 | 12 | 66.7 | 16.7 | 8.3 | 33.3 | 16.7 | 8.3 | 8.3 | 8.3 | 8.3 | 25.0 | 0.0 | 0.0 | 0.0 |

〈표 4-50〉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
| 직업계고 특성 | 특성화고 | 74 | 21.6 | 24.3 | 13.5 | 47.3 | 23.0 | 18.9 | 10.8 | 21.6 | 4.1 | 5.4 | 1.4 | 6.8 | 1.4 |
| | 마이스터고 | 19 | 63.2 | 21.1 | 5.3 | 52.6 | 10.5 | 5.3 | 5.3 | 15.8 | 5.3 | 15.8 | 0.0 | 0.0 | 0.0 |

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제도, 고용형태 등) 불만족
② 열악한 근로환경(작업장 안전성 문제 등)
③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이 어려워서
④ 계속 다녀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님
⑤ 직장내 인간관계(동료/상사), 괴롭힘, 상사 권위적 태도 등 문제
⑥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의 부재
⑦ 내가 사는 곳(살고 싶은 곳)과 너무 멀었음
⑧ 진학/자격증 취득 등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
⑨ 개인적 심신장애
⑩ 군 입대를 위해서
⑪ 가족적 이유(육아, 가사, 가족 돌봄 등 포함)
⑫ 직장의 휴업·폐업, 정리해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회사 사업부진
⑬ 기타

## 마. 희망 일자리와 장기근속을 위한 조건

### □ 희망 일자리의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

○ 졸업생들이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정도'(72.8%)로 나타남.

- 한편 '주당 40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희망하는 의견은 15.5%, '주당 40시간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희망하는 의견은 11.8%에 그쳤음.

〈표 4-51〉 희망하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주 40시간 보다 적게 | 주 40시간 정도 | 주 40시간 보다 많게 | 계 |
|---|---|---|---|---|---|---|
| 전 체 | | 400 | 15.5 | 72.8 | 11.8 | 100.0 |
| 성별 | 남성 | 197 | 13.7 | 71.1 | 15.2 | 100.0 |
| | 여성 | 203 | 17.2 | 74.4 | 8.4 | 100.0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298 | 13.1 | 75.2 | 11.7 | 100.0 |
| | 20대 중반(24~26세) | 80 | 26.3 | 65.0 | 8.8 | 100.0 |
| | 20대 후반(27~29세) | 22 | 9.1 | 68.2 | 22.7 | 100.0 |
| 현 거주지1 | 서울 | 53 | 20.8 | 66.0 | 13.2 | 100.0 |
| | 경기/인천 | 77 | 18.2 | 68.8 | 13.0 | 100.0 |
| | 부산/울산/경남 | 36 | 11.1 | 72.2 | 16.7 | 100.0 |
| | 대구 | 26 | 11.5 | 73.1 | 15.4 | 100.0 |
| | 경북 | 170 | 13.5 | 77.1 | 9.4 | 100.0 |
| | 광주/전라 | 6 | 0.0 | 83.3 | 16.7 | 100.0 |

〈표 4-51〉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주 40시간 보다 적게 | 주 40시간 정도 | 주 40시간 보다 많게 | 계 |
|---|---|---|---|---|---|---|
| 현 거주지1 | 대전/세종/충청 | 28 | 25.0 | 64.3 | 10.7 | 100.0 |
| | 강원 | 4 | 0.0 | 100.0 | 0.0 | 100.0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235 | 16.6 | 71.9 | 11.5 | 100.0 |
| | 非경제활동 | 165 | 13.9 | 73.9 | 12.1 | 100.0 |
| 경제활동 유형 | 직장인 | 211 | 16.1 | 72.5 | 11.4 | 100.0 |
| | 개인사업 | 15 | 20.0 | 66.7 | 13.3 | 100.0 |
| | 기타 | 9 | 22.2 | 66.7 | 11.1 | 100.0 |
| | 非경제활동 | 165 | 13.9 | 73.9 | 12.1 | 100.0 |

○ 졸업생들이 희망하는 최소 임금 수준은 '평균 262만원'(72.8%)

- 구간별로는 250~300만원 미만(31.8%), 200~250만원 미만(30.0%), 300~350만원 미만(20.8%), 350~400만원 미만(8.8%) 순

〈표 4-52〉 희망하는 최소 임금 수준

(단위 : 명, %, 만원)

| 구 분 | | 사례수 | 200 만원 미만 | 200~250 만원 미만 | 250~300 만원 미만 | 300~350 만원 미만 | 350~400 만원 미만 | 400 만원 이상 | 평균 |
|---|---|---|---|---|---|---|---|---|---|
| 전 체 | | 400 | 4.3 | 30.0 | 31.8 | 20.8 | 8.8 | 4.5 | 262 |
| 성별 | 남성 | 197 | 5.6 | 24.9 | 28.4 | 22.8 | 11.2 | 7.1 | 272 |
| | 여성 | 203 | 3.0 | 35.0 | 35.0 | 18.7 | 6.4 | 2.0 | 253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298 | 4.7 | 32.6 | 30.2 | 19.5 | 8.4 | 4.7 | 260 |
| | 20대 중반(24~26세) | 80 | 2.5 | 22.5 | 36.3 | 25.0 | 10.0 | 3.8 | 269 |
| | 20대 후반(27~29세) | 22 | 4.5 | 22.7 | 36.4 | 22.7 | 9.1 | 4.5 | 269 |
| 현 거주지1 | 서울 | 53 | 3.8 | 18.9 | 39.6 | 26.4 | 5.7 | 5.7 | 270 |
| | 경기/인천 | 77 | 2.6 | 22.1 | 35.1 | 27.3 | 11.7 | 1.3 | 270 |
| | 부산/울산/경남 | 36 | 2.8 | 30.6 | 30.6 | 16.7 | 16.7 | 2.8 | 265 |
| | 대구 | 26 | 7.7 | 26.9 | 19.2 | 30.8 | 3.8 | 11.5 | 270 |
| | 경북 | 170 | 5.3 | 38.8 | 24.7 | 17.6 | 8.8 | 4.7 | 255 |
| | 광주/전라 | 6 | 16.7 | 33.3 | 33.3 | 16.7 | 0.0 | 0.0 | 240 |
| | 대전/세종/충청 | 28 | 0.0 | 21.4 | 64.3 | 10.7 | 3.6 | 0.0 | 255 |
| | 강원 | 4 | 0.0 | 25.0 | 25.0 | 0.0 | 0.0 | 50.0 | 333 |

〈표 4-52〉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200 만원 미만 | 200~250 만원 미만 | 250~300 만원 미만 | 300~350 만원 미만 | 350~400 만원 미만 | 400 만원 이상 | 평균 |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235 | 3.4 | 27.7 | 36.2 | 20.4 | 9.4 | 3.0 | 262 |
| | 非경제활동 | 165 | 5.5 | 33.3 | 25.5 | 21.2 | 7.9 | 6.7 | 263 |
| 경제활동 유형 | 직장인 | 211 | 3.8 | 28.0 | 35.5 | 21.3 | 9.5 | 1.9 | 261 |
| | 개인사업 | 15 | 0.0 | 33.3 | 26.7 | 13.3 | 13.3 | 13.3 | 273 |
| | 기타 | 9 | 0.0 | 11.1 | 66.7 | 11.1 | 0.0 | 11.1 | 276 |
| | 非경제활동 | 165 | 5.5 | 33.3 | 25.5 | 21.2 | 7.9 | 6.7 | 263 |

□ 장기근속을 위한 조건

○ 현재 취업자, 미취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장기근속을 위한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여러 요인 중 ㉲ 계속 근무하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직장(4.40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 즉, 현재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줌.
- 다음으로 ㉳ 부하직원을 존중해주고 상사와 협력관계가 원활한 기업(4.37점), ㉴ 작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직장(4.37점), ㉵ 근로환경(근무장소, 휴게실, 화장실 등)이 쾌적한 기업(4.36점), ㉶ 근로자의 '워라밸'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기업(4.32점)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음.
-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해보이지 않을 수 있는 요소인 교육 훈련 기회, 회사의 비전, 또래 동료의 존재, 성평등 기업 문화, 주거 지역과 인접성과 같은 요소도 평균 4점 이상의 점수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음.
- 반면, ㉯ 내 전공계열과 일치도가 높은 직업(3.81점) 요인과 ㉮ 주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보장(3.93점) 요인의 경우 보통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청년 세부 집단별로 결과의 차이가 약간은 존재하지만 대체로 유사함.

○ 현재 경북 거주 청년만 한정해서 보면, 계속 근무하면 임금이 높아지는 직장(4.39점), 작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직장(4.36점), 근로환경이 쾌적한 직장(4.35점), 부하 직원 존중 기업(4.33점), 동료와 협력이 원활한

기업(4.24점), 주거환경과 인접한 기업(4.12점), 또래 동료가 있는 기업(4.11점), 회사 비전 보유 직장(4.09점) 성평등 기업문화 보유 기업(4.06점) 순으로 응답 점수가 높았고, 평균 4점 이상임.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경북 거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비임금적인 요소'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은 편임.

- 경북 거주 청년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주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보장, 전공계열 일치도, 교육 훈련 받을 기회, 비전 보유 회사 여부에 대한 중요도는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의 현재 임금이나 근로시간보다도 개인의 발전, 상사와 동료의 상호 관계, 근무환경의 쾌적성과 안전, 근로자의 개인 생활 존중과 같은 '소프트한' 영역, 비임금적인 영역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줌.

- 앞선 경북지역의 전반적인 '객관적' 일자리 지표(임금 및 근로시간)가 타지역보다 좋지 못함을 고려할 때,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들의 비임금적인 요소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청년 유지에 관건일 수 있음을 시사함.

〈표 4-53〉 장기근속을 위한 영향요인별 중요도

(단위 : 명, 점)

| 구 분 | | 사례수 | ㉮ 근로시간 보장 | ㉯ 전공계열과 일치도 | ㉰ 교육·훈련 받을 기회 | ㉱ 회사 비전 보유 직장 | ㉲ 임금 지속적 인상 직장 | ㉳ 작업장 안전 운영 | ㉴ 근로 환경 쾌적한 기업 | ㉵ 또래 동료 있는 직장 | ㉶ 직장 동료와 협력 원활한 기업 | ㉷ 부하 직원 존중 기업 | ㉸ 성평등 기업 문화 보유 기업 | ㉹ 워라밸 존중 장려 기업 | ㉺ 주거 환경 좋은 지역 위치 기업 | 전체 평균 |
|---|---|---|---|---|---|---|---|---|---|---|---|---|---|---|---|---|
| 전 체 | | 400 | 3.93 | 3.81 | 4.05 | 4.20 | 4.40 | 4.37 | 4.36 | 4.05 | 4.25 | 4.37 | 4.07 | 4.32 | 4.12 | 4.18 |
| 성별 | 남성 | 197 | 3.82 | 3.75 | 4.00 | 4.13 | 4.37 | 4.34 | 4.37 | 4.10 | 4.28 | 4.31 | 4.02 | 4.21 | 4.14 | 4.14 |
| | 여성 | 203 | 4.03 | 3.87 | 4.09 | 4.27 | 4.43 | 4.39 | 4.35 | 3.99 | 4.23 | 4.43 | 4.11 | 4.41 | 4.11 | 4.21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298 | 3.89 | 3.82 | 4.08 | 4.24 | 4.42 | 4.42 | 4.44 | 4.09 | 4.25 | 4.42 | 4.11 | 4.36 | 4.14 | 4.21 |
| | 20대 중반(24~26세) | 80 | 4.05 | 3.78 | 3.91 | 4.05 | 4.29 | 4.15 | 4.14 | 3.83 | 4.21 | 4.15 | 3.95 | 4.11 | 4.03 | 4.05 |
| | 20대 후반(27~29세) | 22 | 3.95 | 3.82 | 4.09 | 4.14 | 4.50 | 4.41 | 4.14 | 4.18 | 4.41 | 4.50 | 3.82 | 4.45 | 4.18 | 4.20 |
| 현 거주지 | 서울 | 53 | 4.02 | 3.96 | 4.00 | 4.30 | 4.40 | 4.43 | 4.26 | 3.94 | 4.25 | 4.45 | 3.98 | 4.38 | 4.00 | 4.18 |
| | 경기/인천 | 77 | 4.03 | 4.06 | 4.23 | 4.31 | 4.55 | 4.42 | 4.43 | 4.03 | 4.38 | 4.43 | 4.04 | 4.23 | 4.26 | 4.26 |
| | 부산/울산/경남 | 36 | 3.86 | 3.58 | 3.97 | 4.22 | 4.39 | 4.33 | 4.39 | 3.97 | 4.17 | 4.36 | 4.17 | 4.53 | 4.00 | 4.15 |
| | 대구 | 26 | 4.04 | 4.04 | 4.27 | 4.42 | 4.27 | 4.35 | 4.42 | 4.12 | 4.23 | 4.38 | 4.15 | 4.23 | 4.19 | 4.24 |
| | 경북 | 170 | 3.88 | 3.69 | 3.96 | 4.09 | 4.39 | 4.36 | 4.35 | 4.11 | 4.24 | 4.33 | 4.06 | 4.32 | 4.12 | 4.15 |

〈표 4-53〉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 근로시간 보장 | ㉯ 전공계열과 일치도 | ㉰ 교육·훈련 받을 기회 | ㉱ 회사 비전 보유 직장 | ㉲ 임금 지속적 인상 직장 | ㉳ 작업장 안전 운영 | ㉴ 근로 환경 쾌적한 기업 | ㉵ 또래 동료 있는 직장 | ㉶ 직장 동료와 협력 원활한 기업 | ㉷ 부하 직원 존중 기업 | ㉸ 성평등 기업 문화 보유 기업 | ㉹ 워라벨 존중 장려 기업 | ㉺ 주거 환경 좋은 지역 위치 기업 | 전체 평균 |
|---|---|---|---|---|---|---|---|---|---|---|---|---|---|---|---|---|
| 현 거주지 | 광주/전라 | 6 | 4.00 | 3.33 | 4.00 | 4.17 | 4.17 | 4.50 | 4.50 | 3.83 | 4.17 | 4.33 | 4.17 | 4.17 | 4.17 | 4.12 |
| | 대전/세종/충청 | 28 | 3.75 | 3.75 | 3.96 | 4.11 | 4.21 | 4.21 | 4.29 | 4.00 | 4.14 | 4.32 | 4.21 | 4.25 | 4.07 | 4.10 |
| | 강원 | 4 | 3.75 | 3.75 | 4.25 | 4.25 | 4.25 | 4.25 | 4.50 | 4.00 | 4.50 | 4.50 | 3.25 | 4.25 | 4.25 | 4.13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235 | 4.00 | 3.94 | 4.17 | 4.31 | 4.49 | 4.42 | 4.38 | 4.04 | 4.29 | 4.46 | 4.09 | 4.37 | 4.14 | 4.24 |
| | 非경제활동 | 165 | 3.83 | 3.63 | 3.87 | 4.04 | 4.27 | 4.29 | 4.33 | 4.05 | 4.19 | 4.24 | 4.02 | 4.24 | 4.10 | 4.09 |
| 경제활동 유형 | 직장인 | 211 | 3.98 | 3.91 | 4.14 | 4.30 | 4.49 | 4.41 | 4.39 | 4.07 | 4.30 | 4.47 | 4.11 | 4.38 | 4.15 | 4.24 |
| | 개인사업 | 15 | 4.27 | 4.40 | 4.53 | 4.47 | 4.47 | 4.53 | 4.53 | 3.80 | 4.33 | 4.47 | 4.07 | 4.33 | 4.20 | 4.34 |
| | 기타 | 9 | 4.00 | 3.78 | 4.22 | 4.22 | 4.44 | 4.44 | 4.00 | 3.78 | 4.00 | 4.22 | 3.78 | 4.22 | 3.78 | 4.07 |
| | 非경제활동 | 165 | 3.83 | 3.63 | 3.87 | 4.04 | 4.27 | 4.29 | 4.33 | 4.05 | 4.19 | 4.24 | 4.02 | 4.24 | 4.10 | 4.09 |
| 고졸 후 거주지 변화 | 이동없음 | 107 | 3.88 | 3.65 | 3.94 | 4.10 | 4.38 | 4.38 | 4.34 | 4.13 | 4.16 | 4.35 | 4.06 | 4.31 | 4.10 | 4.14 |
| | 경북도내 이동 | 63 | 3.89 | 3.75 | 4.00 | 4.08 | 4.41 | 4.32 | 4.37 | 4.06 | 4.37 | 4.30 | 4.06 | 4.33 | 4.14 | 4.16 |
| | 경북에서 대구 이동 | 26 | 4.04 | 4.04 | 4.27 | 4.42 | 4.27 | 4.35 | 4.42 | 4.12 | 4.23 | 4.38 | 4.15 | 4.23 | 4.19 | 4.24 |
| | 경북에서 대구外 他시도 | 204 | 3.95 | 3.88 | 4.08 | 4.26 | 4.42 | 4.38 | 4.36 | 3.99 | 4.27 | 4.41 | 4.06 | 4.32 | 4.12 | 4.19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233 | 3.93 | 3.84 | 4.11 | 4.23 | 4.48 | 4.46 | 4.44 | 4.14 | 4.35 | 4.41 | 4.10 | 4.35 | 4.22 | 4.23 |
| | 가사 · 실업 | 69 | 3.80 | 3.91 | 4.01 | 4.17 | 4.20 | 4.17 | 4.14 | 3.94 | 4.09 | 4.22 | 4.04 | 4.06 | 4.00 | 4.06 |
| | 상업 · 정보 | 50 | 4.14 | 3.64 | 4.06 | 4.36 | 4.52 | 4.30 | 4.28 | 3.94 | 4.22 | 4.38 | 3.90 | 4.58 | 4.00 | 4.18 |
| | 농생명 | 23 | 4.04 | 4.00 | 4.09 | 4.13 | 4.26 | 4.22 | 4.43 | 3.91 | 4.17 | 4.52 | 4.17 | 4.26 | 4.04 | 4.17 |
| | 수산 · 해운 | 25 | 3.76 | 3.44 | 3.44 | 3.76 | 4.08 | 4.28 | 4.32 | 3.80 | 3.96 | 4.32 | 4.00 | 4.24 | 3.88 | 3.94 |

가) 주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보장
나) 내 전공계열과 일치도가 높은 직업
다) 현장에서 교육 ·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은 직업
라) 회사가 비전이 있어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직장
마) 계속 근무하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직장
바) 작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직장
사) 근로환경(근무장소, 휴게실, 화장실 등)이 쾌적한 기업
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가 있는 직장
자) 직장동료와 협력이 원활한 기업
차) 부하직원을 존중해주는 상사 및 상사와 협력관계가 원활한 기업
카) 성비가 균등하고,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
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워라벨)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기업
파)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

※ 중요도 :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2점, '보통' 3점, '대체로 중요하다' 4점, '매우 중요하다' 5점)의 평균

## 바. 지역 이동과 일자리

□ 지역 이동 청년(경북 이탈)의 구직시 고려 요인

○ 경북지역 고교를 졸업한 후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주된 이유(n=235)는 일자리 때문(62.1%)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거주지역 전반적인 생활환경(51.9%), 대학교육/학원수강 등 학업 때문(45.1%), 가족 및 결혼 때문(25.1%) 순
- 성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응답은

남성(59.4%)보다 여성(64.2%)이 더 높고, 대학교육/학원수강 등 학업 때문이라는 이유는 여성(41.8%)보다 남성(49.5%)이 더 높았음.

- 여학생의 경우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희망 일자리 구직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앞선 고교시절 훈련 경험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지역노동시장과 연관되는 실질적인 훈련을 상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음).

〈표 4-54〉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일자리 때문 | 가족/결혼 때문 | 대학교육/학원수강 등 학업 때문 | 거주지역 전반적인 생활환경 때문 | 부모님 일/가업 잇기 위해 | 기타 |
|---|---|---|---|---|---|---|---|---|
| 전 체 | | 235 | 62.1 | 25.1 | 45.1 | 51.9 | 2.6 | 13.2 |
| 성별 | 남성 | 101 | 59.4 | 25.7 | 49.5 | 49.5 | 2.0 | 13.9 |
| | 여성 | 134 | 64.2 | 24.6 | 41.8 | 53.7 | 3.0 | 12.7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168 | 66.7 | 25.6 | 39.3 | 48.8 | 2.4 | 17.3 |
| | 20대 중반(24~26세) | 55 | 41.8 | 25.5 | 67.3 | 60.0 | 3.6 | 1.8 |
| | 20대 후반(27~29세) | 12 | 91.7 | 16.7 | 25.0 | 58.3 | 0.0 | 8.3 |
| 현 거주지1 | 서울 | 53 | 69.8 | 18.9 | 56.6 | 50.9 | 0.0 | 3.8 |
| | 경기/인천 | 77 | 64.9 | 24.7 | 45.5 | 50.6 | 1.3 | 13.0 |
| | 부산/울산/경남 | 36 | 66.7 | 19.4 | 38.9 | 55.6 | 5.6 | 13.9 |
| | 대구 | 26 | 38.5 | 42.3 | 42.3 | 57.7 | 7.7 | 11.5 |
| | 경북 | 5 | 60.0 | 60.0 | 20.0 | 0.0 | 0.0 | 60.0 |
| | 광주/전라 | 6 | 33.3 | 16.7 | 50.0 | 66.7 | 16.7 | 16.7 |
| | 대전/세종/충청 | 28 | 60.7 | 25.0 | 35.7 | 57.1 | 0.0 | 21.4 |
| | 강원 | 4 | 75.0 | 25.0 | 50.0 | 25.0 | 0.0 | 25.0 |
| 경제 활동 | 경제활동 중 | 177 | 72.9 | 22.6 | 39.5 | 49.2 | 1.1 | 14.7 |
| | 非경제활동 | 58 | 29.3 | 32.8 | 62.1 | 60.3 | 6.9 | 8.6 |
| 경제 활동 유형 | 직장인 | 160 | 73.8 | 20.6 | 40.0 | 48.8 | 1.3 | 15.6 |
| | 개인사업 | 10 | 60.0 | 40.0 | 40.0 | 60.0 | 0.0 | 0.0 |
| | 기타 | 7 | 71.4 | 42.9 | 28.6 | 42.9 | 0.0 | 14.3 |
| | 非경제활동 | 58 | 29.3 | 32.8 | 62.1 | 60.3 | 6.9 | 8.6 |
| 직업 계고 계열 | 공업 | 130 | 56.9 | 30.8 | 44.6 | 53.1 | 2.3 | 12.3 |
| | 가사 · 실업 | 49 | 75.5 | 14.3 | 42.9 | 55.1 | 4.1 | 8.2 |
| | 상업 · 정보 | 28 | 57.1 | 28.6 | 46.4 | 50.0 | 3.6 | 14.3 |
| | 농생명 | 16 | 62.5 | 12.5 | 68.8 | 43.8 | 0.0 | 12.5 |
| | 수산 · 해운 | 12 | 75.0 | 16.7 | 25.0 | 41.7 | 0.0 | 41.7 |

○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직활동시(n=146),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67.8%)이 일자리의 객관적인 요소로 조사됨.

- 다음으로 일자리 자체의 충분성(지역 노동시장 수요 규모)과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워라밸 등)(각각 44.5%),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27.4%), 또래 동료들이 있는가 여부(15.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중요하게 고려했던 응답요소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학생은 일자리 자체의 충분성(지역 노동시장 수요)을 남학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고려함(52.3% vs. 33.3%). 반면, 남학생은 일자리의 객관적 조건을 여학생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흥미롭게도 일자리의 비임금적 요소(기업문화, 워라밸, 환경 등)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 이를 종합해 볼 때, 구직 당시 여학생은 일자리 자체의 부족에서 어려움이 커서, 남학생은 임금 등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워라밸, 기업문화와 같은 비임금적 요소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역 이동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표 4-55〉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 이동하여 구직활동시 일자리관련 고려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일자리' 자체의 충분성 |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 | 다른 조건 (기업문화, 일터 환경, 워라밸 등) | '또래 동료들' 있는가 여부 |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
|---|---|---|---|---|---|---|---|
| 전 체 | | 146 | 44.5 | 67.8 | 44.5 | 15.8 | 27.4 |
| 성별 | 남성 | 60 | 33.3 | 78.3 | 51.7 | 16.7 | 20.0 |
| | 여성 | 86 | 52.3 | 60.5 | 39.5 | 15.1 | 32.6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112 | 40.2 | 65.2 | 44.6 | 18.8 | 31.3 |
| | 20대 중반(24~26세) | 23 | 60.9 | 73.9 | 43.5 | 4.3 | 17.4 |
| | 20대 후반(27~29세) | 11 | 54.5 | 81.8 | 45.5 | 9.1 | 9.1 |

〈표 4-55〉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일자리' 자체의 충분성 |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 | 다른 조건 (기업문화, 일터 환경, 워라벨 등) | '또래 동료들' 있는가 여부 |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
|---|---|---|---|---|---|---|---|
| 현 거주지1 | 서울 | 37 | 59.5 | 54.1 | 54.1 | 8.1 | 24.3 |
| | 경기/인천 | 50 | 36.0 | 74.0 | 40.0 | 14.0 | 36.0 |
| | 부산/울산/경남 | 24 | 62.5 | 75.0 | 37.5 | 12.5 | 12.5 |
| | 대구 | 10 | 20.0 | 70.0 | 30.0 | 40.0 | 40.0 |
| | 경북 | 3 | 66.7 | 66.7 | 33.3 | 33.3 | 0.0 |
| | 광주/전라 | 2 | 0.0 | 50.0 | 100.0 | 0.0 | 50.0 |
| | 대전/세종/충청 | 17 | 23.5 | 76.5 | 52.9 | 23.5 | 23.5 |
| | 강원 | 3 | 66.7 | 33.3 | 33.3 | 33.3 | 33.3 |
| 경제 활동 | 경제활동 중 | 129 | 41.9 | 68.2 | 46.5 | 15.5 | 27.9 |
| | 非경제활동 | 17 | 64.7 | 64.7 | 29.4 | 17.6 | 23.5 |
| 경제 활동 유형 | 직장인 | 118 | 39.0 | 69.5 | 50.0 | 12.7 | 28.8 |
| | 개인사업 | 6 | 66.7 | 50.0 | 16.7 | 50.0 | 16.7 |
| | 기타 | 5 | 80.0 | 60.0 | 0.0 | 40.0 | 20.0 |
| | 非경제활동 | 17 | 64.7 | 64.7 | 29.4 | 17.6 | 23.5 |
| 직업 계고 계열 | 공업 | 74 | 40.5 | 64.9 | 51.4 | 20.3 | 23.0 |
| | 가사 · 실업 | 37 | 48.6 | 64.9 | 32.4 | 16.2 | 37.8 |
| | 상업 · 정보 | 16 | 56.3 | 75.0 | 50.0 | 0.0 | 18.8 |
| | 농생명 | 10 | 40.0 | 70.0 | 50.0 | 10.0 | 30.0 |
| | 수산 · 해운 | 9 | 44.4 | 88.9 | 22.2 | 11.1 | 33.3 |

○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직활동하는 졸업생(122명)이 거주환경(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주로 고려했던 점은 쾌적한 주거환경(50.0%)과 일터/대학/학원과의 근접성(45.9%)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저렴한 주거비 및 생활비(42.6%), 문화, 유흥 및 여가환경(28.7%),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또래 집단의 존재(19.7%), 지역의 청년 정착지원정책(7.4%) 순으로 나타남.

〈표 4-56〉 고교 졸업 후 타지역 이동하여 구직활동시 거주환경관련 고려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저렴한 주거/생활비 | 쾌적한 주거 환경 | 적당한 규모의 또래 집단의 존재 | 문화, 유흥 및 여가 환경 | 자녀 양육 여건 | 일터/대학과의 근접성 | 지역청년 정착지원 정책 |
|---|---|---|---|---|---|---|---|---|---|
| 전 체 | | 122 | 42.6 | 50.0 | 19.7 | 28.7 | 5.7 | 45.9 | 7.4 |
| 성별 | 남성 | 50 | 46.0 | 52.0 | 22.0 | 24.0 | 12.0 | 42.0 | 2.0 |
| | 여성 | 72 | 40.3 | 48.6 | 18.1 | 31.9 | 1.4 | 48.6 | 11.1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81 | 51.9 | 51.9 | 17.3 | 25.9 | 4.9 | 43.2 | 4.9 |
| | 20대 중반(24~26세) | 33 | 21.2 | 51.5 | 27.3 | 33.3 | 9.1 | 45.5 | 12.1 |
| | 20대 후반(27~29세) | 8 | 37.5 | 25.0 | 12.5 | 37.5 | 0.0 | 75.0 | 12.5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87 | 47.1 | 46.0 | 14.9 | 26.4 | 5.7 | 54.0 | 5.7 |
| | 非경제활동 | 35 | 31.4 | 60.0 | 31.4 | 34.3 | 5.7 | 25.7 | 11.4 |
| 직업계고계열 | 공업 | 68 | 44.1 | 48.5 | 22.1 | 25.0 | 7.4 | 45.6 | 7.4 |
| | 가사 · 실업 | 27 | 44.4 | 37.0 | 14.8 | 37.0 | 0.0 | 55.6 | 11.1 |
| | 상업 · 정보 | 14 | 50.0 | 64.3 | 14.3 | 35.7 | 0.0 | 28.6 | 7.1 |
| | 수산 · 해운 | 7 | 14.3 | 71.4 | 28.6 | 28.6 | 28.6 | 28.6 | 0.0 |

□ 정주 청년의 정주 이유와 구직시 고려 요인

○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졸업생(107명)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전반적인 생활환경(53.3%)을 선택함.

- 그 밖에 일자리 때문(49.5%), 가족 및 결혼 때문(46.7%), 대학교육 및 학원수강 등 학업 때문(32.7%) 순으로 나타남.
- 남성들은 거주지역 전반적인 생활환경 때문(58.7%), 여성들은 일자리 때문(61.4%)을 우선적으로 꼽았음.
- 즉, 현재 생활환경이 만족스럽고 본인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생활환경과 일자리를 이유로 정주함을 시사함.

〈표 4-57〉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동일지역 거주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일자리 때문 | 가족/결혼 때문 | 대학/학원 교육 때문 | 전반적인 생활환경 | 가업 잇기 /도와주기 | 기타 |
|---|---|---|---|---|---|---|---|---|
| 전 체 | | 107 | 49.5 | 46.7 | 32.7 | 53.3 | 6.5 | 11.2 |
| 성별 | 남성 | 63 | 41.3 | 47.6 | 38.1 | 58.7 | 4.8 | 9.5 |
| | 여성 | 44 | 61.4 | 45.5 | 25.0 | 45.5 | 9.1 | 13.6 |
| 연령 | 20대 초반 | 89 | 49.4 | 46.1 | 31.5 | 53.9 | 5.6 | 13.5 |
| | 20대 중반 | 13 | 46.2 | 46.2 | 38.5 | 53.8 | 15.4 | 0.0 |
| | 20대 후반 | 5 | 60.0 | 60.0 | 40.0 | 40.0 | 0.0 | 0.0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35 | 68.6 | 45.7 | 17.1 | 51.4 | 2.9 | 14.3 |
| | 非경제활동 | 72 | 40.3 | 47.2 | 40.3 | 54.2 | 8.3 | 9.7 |
| 경제활동 유형 | 직장인 | 33 | 69.7 | 45.5 | 15.2 | 51.5 | 3.0 | 15.2 |
| | 개인사업 | 1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 | 기타 | 1 | 0.0 | 0.0 | 100.0 | 100.0 | 0.0 | 0.0 |
| | 非경제활동 | 72 | 40.3 | 47.2 | 40.3 | 54.2 | 8.3 | 9.7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67 | 38.8 | 44.8 | 37.3 | 62.7 | 4.5 | 11.9 |
| | 가사 · 실업 | 12 | 58.3 | 33.3 | 25.0 | 58.3 | 16.7 | 8.3 |
| | 상업 · 정보 | 13 | 69.2 | 46.2 | 23.1 | 38.5 | 15.4 | 7.7 |
| | 농생명 | 3 | 100.0 | 66.7 | 33.3 | 0.0 | 0.0 | 0.0 |
| | 수산 · 해운 | 12 | 66.7 | 66.7 | 25.0 | 25.0 | 0.0 | 16.7 |

○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동일지역 거주자 중 정주의 주된 이유를 일자리로 선택한 청년(n=53)들은 구직활동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66.0%)을 선택함.

- 다음으로 일자리 자체가 충분히 있는가 여부(47.2%),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의 여부(43.4%),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워라밸 등)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32.1%),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들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11.3%) 순
- 남성은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73.1%)을 우선 고려하는 반면, 여성은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51.9%)를 우선 고려하였음. 경북지역 여성 청년의 경우 자신이 받은 교육과 일치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지역에 있는가가 정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표 4-58〉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구직활동시 일자리관련 주요 고려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일자리' 자체의 충분성 |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 | 다른 조건 (기업문화, 일터 환경, 워라밸 등) | '또래 동료들' 있는가 여부 |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
|---|---|---|---|---|---|---|---|
| 전 체 | | 53 | 47.2 | 66.0 | 32.1 | 11.3 | 43.4 |
| 성별 | 남성 | 26 | 50.0 | 73.1 | 23.1 | 19.2 | 34.6 |
| | 여성 | 27 | 44.4 | 59.3 | 40.7 | 3.7 | 51.9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44 | 40.9 | 65.9 | 34.1 | 9.1 | 50.0 |
| | 20대 중반(24~26세) | 6 | 83.3 | 50.0 | 16.7 | 33.3 | 16.7 |
| | 20대 후반(27~29세) | 3 | 66.7 | 100.0 | 33.3 | 0.0 | 0.0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24 | 41.7 | 70.8 | 29.2 | 12.5 | 45.8 |
| | 非경제활동 | 29 | 51.7 | 62.1 | 34.5 | 10.3 | 41.4 |
| 직업 계고 계열 | 공업 | 26 | 42.3 | 57.7 | 30.8 | 11.5 | 57.7 |
| | 가사 · 실업 | 7 | 42.9 | 71.4 | 28.6 | 0.0 | 57.1 |
| | 상업 · 정보 | 9 | 55.6 | 66.7 | 44.4 | 22.2 | 11.1 |
| | 농생명 | 3 | 33.3 | 100.0 | 66.7 | 0.0 | 0.0 |
| | 수산 · 해운 | 8 | 62.5 | 75.0 | 12.5 | 12.5 | 37.5 |

○ 고교 졸업 후 정주한 청년이 정주 선택시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은 저렴한 주거 및 생활비(54.4%)와 쾌적한 주거환경(52.6%)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일터/학교/학원과의 근접성(40.4%),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또래 집단의 존재(24.6%), 문화, 유흥 및 여가환경(15.8%), 지역의 청년 정착지원정책(10.5%) 순으로 나타남.

〈표 4-59〉 고교 졸업 후 지역 이동없이 구직활동시 지역 전반적 환경관련 고려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저렴한 주거/생활비 | 쾌적한 주거 환경 | 적당한 규모의 또래 집단의 존재 | 문화, 유흥 및 여가 환경 | 자녀양육 여건 | 일터/대학과의 근접성 | 지역청년 정착지원 정책 |
|---|---|---|---|---|---|---|---|---|---|
| 전 체 | | 57 | 54.4 | 52.6 | 24.6 | 15.8 | 1.8 | 40.4 | 10.5 |
| 성별 | 남성 | 37 | 59.5 | 59.5 | 21.6 | 5.4 | 2.7 | 43.2 | 8.1 |
| | 여성 | 20 | 45.0 | 40.0 | 30.0 | 35.0 | 0.0 | 35.0 | 15.0 |

〈표 4-59〉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저렴한 주거/생활비 | 쾌적한 주거 환경 | 적당한 규모의 또래 집단의 존재 | 문화, 유흥 및 여가 환경 | 자녀양육 여건 | 일터/대학과의 근접성 | 지역청년 정착지원 정책 |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48 | 54.2 | 54.2 | 25.0 | 16.7 | 2.1 | 39.6 | 8.3 |
| | 20대 중반(24~26세) | 7 | 71.4 | 42.9 | 14.3 | 0.0 | 0.0 | 42.9 | 28.6 |
| | 20대 후반(27~29세) | 2 | 0.0 | 50.0 | 50.0 | 50.0 | 0.0 | 50.0 | 0.0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18 | 50.0 | 38.9 | 27.8 | 27.8 | 0.0 | 55.6 | 0.0 |
| | 非경제활동 | 39 | 56.4 | 59.0 | 23.1 | 10.3 | 2.6 | 33.3 | 15.4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42 | 47.6 | 57.1 | 26.2 | 14.3 | 2.4 | 42.9 | 9.5 |
| | 가사 · 실업 | 7 | 71.4 | 42.9 | 28.6 | 0.0 | 0.0 | 57.1 | 0.0 |
| | 상업 · 정보 | 5 | 80.0 | 40.0 | 0.0 | 40.0 | 0.0 | 0.0 | 40.0 |
| | 수산 · 해운 | 3 | 66.7 | 33.3 | 33.3 | 33.3 | 0.0 | 33.3 | 0.0 |

## 사. 정책 수요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의 경북도 내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이 졸업 후 경북도 내 정착을 위해 각 항목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4.29점), ㉲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4.27점), ㉮ 일자리의 양 증가(4.23점), ㉰ 일자리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등)(4.20점),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4.19점), ㉱ 지역내 기업맞춤형 교육 · 훈련 지원(4.15점), ㉴ 직업계고 졸업 청년 창업 위한 교육 · 훈련 지원(4.15점) 순으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음.
- 위의 항목들은 평균 점수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평균 4점을 뛰어넘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모두가 중요한 개선 필요 항목임을 알 수 있음.
- 반면 ㉵ 또래 집단간 친목,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마련(3.86점) 요인은 상대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낮았음.

○ 현재 거주지역별로 나누어 볼 경우, 현재 경북 거주자(170명)는 ㉲ 쾌적

한 거주환경 마련(4.31점), ㉮ 일자리의 양 증가(4.28점), ㉯ 일자리의 질 개선(4.26점), 일자리의 다른 조건(워라밸 등) 개선(4.19점), ㉱ 지역내 기업맞춤형 교육 · 훈련 지원(4.18점),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취업 알선(4.13점), ㉳ 직업계고 졸업 청년 창업 위한 교육 · 훈련 지원(4.11점) 순으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 특히 일자리 양 증가,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 지역내 기업 맞춤형 교육, 훈련 지원에 대한 수요는 경북 비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현재 경북 외 거주자(n=230)인 경우, ㉯ 일자리의 질(4.32점),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4.25점), ㉰ 쾌적한 거리환경 마련(4.23점) 순으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 또래 집단간 구심점 마련(3.83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4점을 훨씬 뛰어 넘는 높은 동의 점수를 나타냄.

- 이탈자인 이들의 경우, 경북지역 일자리의 객관적인 질, 다른 조건 개선,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에 대한 필요성을 경북 정주 청년에 비해 높게 평가함.

〈표 4-60〉 청년들의 경북도 내 정착위한 영향요인별 개선 필요성 종합

(단위 : 명, %)

| 구 분 | 현재 경북도 내 거주자 | 현재 경북 外 거주자 | 전 체 |
|---|---|---|---|
| 사례수 | 170 | 230 | 400 |
| ㉮ 일자리 양 증가 | 4.28 | 4.17 | 4.23 |
| ㉯ 일자리 질(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개선 | 4.26 | 4.32 | 4.29 |
| ㉰ 일자리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 환경 등) 개선 | 4.19 | 4.20 | 4.20 |
| ㉱ 또래 집단간 구심점 마련(예-청년센터 활성화 등) | 3.89 | 3.83 | 3.86 |
| ㉲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예-청년 임대 아파트 등) | 4.31 | 4.23 | 4.27 |
|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 · 훈련 지원 | 4.18 | 4.12 | 4.15 |
|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 4.13 | 4.25 | 4.19 |
| ㉵ 직업계고 졸업 청년 창업 위한 체계적인 교육 · 훈련 지원 | 4.11 | 4.20 | 4.15 |
| 전체 평균 | 4.17 | 4.17 | 4.17 |

주 : 개선도 : 5점 척도('전혀 개선할 필요 없음' 1점, '별로 개선할 필요 없음' 2점, '보통' 3점, '약간 개선해야 함' 4점, '적극 개선해야 함' 5점)의 평균

〈표 4-61〉 현재 경북도 내 거주자 기준 도내 정착위한 영향요인별 개선 필요성

(단위 : 명, %, 점)

| 구 분 | | 사례수 | ㉮ 일자리 양 증가 | ㉯ 일자리 질 개선 | ㉰ 일자리 다른 조건 개선 | ㉱ 또래 집단간 구심점 마련 | ㉲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 | ㉳ 지역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취업 알선 | ㉵ 직업계고 졸업청년 창업위한 교육훈련 지원 | 전체 평균 |
|---|---|---|---|---|---|---|---|---|---|---|---|
| 전 체 | | 170 | 4.28 | 4.26 | 4.19 | 3.89 | 4.31 | 4.18 | 4.13 | 4.11 | 4.17 |
| 성별 | 남성 | 100 | 4.38 | 4.35 | 4.28 | 3.99 | 4.31 | 4.21 | 4.19 | 4.20 | 4.24 |
| | 여성 | 70 | 4.13 | 4.13 | 4.07 | 3.74 | 4.30 | 4.14 | 4.04 | 3.99 | 4.07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134 | 4.26 | 4.25 | 4.17 | 3.87 | 4.31 | 4.17 | 4.17 | 4.11 | 4.16 |
| | 20대 중반(24~26세) | 26 | 4.38 | 4.31 | 4.27 | 4.12 | 4.27 | 4.35 | 3.96 | 4.12 | 4.22 |
| | 20대 후반(27~29세) | 10 | 4.20 | 4.30 | 4.30 | 3.60 | 4.40 | 3.90 | 4.00 | 4.10 | 4.10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63 | 4.43 | 4.46 | 4.25 | 3.90 | 4.44 | 4.29 | 4.22 | 4.25 | 4.28 |
| | 非경제활동 | 107 | 4.19 | 4.14 | 4.16 | 3.88 | 4.22 | 4.12 | 4.07 | 4.03 | 4.10 |
| 경제 활동 유형 | 직장인 | 54 | 4.37 | 4.44 | 4.20 | 3.83 | 4.44 | 4.30 | 4.20 | 4.31 | 4.26 |
| | 개인사업 | 5 | 4.60 | 4.20 | 4.40 | 4.20 | 4.20 | 4.00 | 4.20 | 3.80 | 4.20 |
| | 기타 | 4 | 5.00 | 5.00 | 4.75 | 4.50 | 4.75 | 4.50 | 4.50 | 4.00 | 4.63 |
| | 非경제활동 | 107 | 4.19 | 4.14 | 4.16 | 3.88 | 4.22 | 4.12 | 4.07 | 4.03 | 4.10 |
| 직업 계고 계열 | 공업 | 108 | 4.36 | 4.32 | 4.27 | 4.00 | 4.37 | 4.23 | 4.19 | 4.19 | 4.24 |
| | 가사 · 실업 | 20 | 4.25 | 4.05 | 4.15 | 3.85 | 4.10 | 4.20 | 4.05 | 3.90 | 4.07 |
| | 상업 · 정보 | 22 | 4.18 | 4.27 | 4.18 | 3.55 | 4.27 | 4.09 | 4.00 | 4.05 | 4.07 |
| | 농생명 | 7 | 4.14 | 4.14 | 4.00 | 3.71 | 4.14 | 4.29 | 4.43 | 4.29 | 4.14 |
| | 수산 · 해운 | 13 | 3.85 | 4.08 | 3.77 | 3.69 | 4.23 | 3.85 | 3.77 | 3.77 | 3.88 |

주 : 개선도 : 5점 척도('전혀 개선할 필요 없음' 1점, '별로 개선할 필요 없음' 2점, '보통' 3점, '약간 개선해야 함' 4점, '적극 개선해야 함' 5점)의 평균

〈표 4-62〉 현재 경북外 거주자 기준 경북도 내 정착위한 영향요인별 개선 필요성

(단위 : 명, %, 점)

| 구 분 | | 사례수 | ㉮ 일자리 양 증가 | ㉯ 일자리 질 개선 | ㉰ 일자리 다른조건 개선 | ㉱ 또래 집단간 구심점 마련 | ㉲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 | ㉳ 지역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취업 알선 | ㉵ 직업계고 졸업청년 창업위한 교육훈련 지원 | 전체 평균 |
|---|---|---|---|---|---|---|---|---|---|---|---|
| 전 체 | | 230 | 4.17 | 4.32 | 4.20 | 3.83 | 4.23 | 4.12 | 4.25 | 4.20 | 4.17 |
| 성별 | 남성 | 97 | 4.10 | 4.07 | 4.14 | 3.93 | 4.20 | 3.97 | 4.28 | 4.15 | 4.11 |
| | 여성 | 133 | 4.23 | 4.50 | 4.25 | 3.75 | 4.26 | 4.23 | 4.23 | 4.23 | 4.21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164 | 4.13 | 4.30 | 4.26 | 3.87 | 4.31 | 4.16 | 4.32 | 4.26 | 4.20 |
| | 20대 중반(24~26세) | 54 | 4.24 | 4.35 | 4.02 | 3.70 | 4.06 | 4.00 | 4.07 | 4.06 | 4.06 |
| | 20대 후반(27~29세) | 12 | 4.50 | 4.42 | 4.33 | 3.75 | 4.00 | 4.08 | 4.08 | 4.00 | 4.15 |
| 현 거주지 | 서울 | 53 | 4.32 | 4.43 | 4.32 | 3.83 | 4.25 | 4.11 | 4.25 | 4.02 | 4.19 |
| | 경기/인천 | 77 | 4.21 | 4.43 | 4.30 | 3.78 | 4.35 | 4.14 | 4.35 | 4.32 | 4.24 |
| | 부산/울산/경남 | 36 | 4.08 | 4.19 | 4.14 | 3.92 | 4.17 | 4.06 | 4.11 | 4.08 | 4.09 |

〈표 4-62〉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 일자리 양 증가 | ㉯ 일자리 질 개선 | ㉰ 일자리 다른조건 개선 | ㉱ 또래 집단간 구심점 마련 | ㉲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 | ㉳ 지역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 ㉴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취업 알선 | ㉵ 직업계고 졸업청년 창업위한 교육훈련 지원 | 전체 평균 |
|---|---|---|---|---|---|---|---|---|---|---|---|
| 현 거주지 | 대구 | 26 | 4.23 | 4.46 | 4.27 | 4.15 | 4.50 | 4.38 | 4.50 | 4.50 | 4.38 |
| | 광주/전라 | 6 | 3.67 | 3.50 | 3.50 | 3.17 | 3.83 | 3.67 | 3.83 | 4.00 | 3.65 |
| | 대전/세종/충청 | 28 | 3.96 | 4.00 | 3.93 | 3.82 | 3.96 | 4.11 | 4.04 | 4.07 | 3.99 |
| | 강원 | 4 | 4.25 | 4.25 | 4.00 | 2.75 | 3.25 | 3.25 | 4.25 | 4.25 | 3.78 |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중 | 172 | 4.21 | 4.34 | 4.27 | 3.84 | 4.23 | 4.08 | 4.25 | 4.17 | 4.17 |
| | 非경제활동 | 58 | 4.07 | 4.24 | 4.02 | 3.78 | 4.26 | 4.22 | 4.26 | 4.28 | 4.14 |
| 경제활동 유형 | 직장인 | 157 | 4.18 | 4.34 | 4.24 | 3.81 | 4.21 | 4.06 | 4.26 | 4.17 | 4.16 |
| | 개인사업 | 10 | 4.70 | 4.60 | 4.80 | 4.30 | 4.70 | 4.50 | 4.30 | 4.30 | 4.53 |
| | 기타 | 5 | 4.00 | 3.80 | 4.00 | 4.00 | 3.80 | 3.80 | 3.80 | 4.00 | 3.90 |
| | 非경제활동 | 58 | 4.07 | 4.24 | 4.02 | 3.78 | 4.26 | 4.22 | 4.26 | 4.28 | 4.14 |

주 : 개선도 : 5점 척도('전혀 개선할 필요 없음' 1점, '별로 개선할 필요 없음' 2점, '보통' 3점, '약간 개선해야 함' 4점, '적극 개선해야 함' 5점)의 평균

□ 정책 수요 및 참여 의향

○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장 필요성을 높게 평가 받은 사업은 ㉲ 자격증 취득 위해 공부 · 실습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생활비 및 교육비 보조(4.30점)로 나타남.
- 대학 진학 청년 및 대졸 청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수혜 정도가 낮은 직업계고 청년들의 인적자원 개발 보조에 대한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다음으로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4.28점), ㉰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4.26점), ㉴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4.23점), ㉱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 워라밸 장려를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4.22점) 순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았음.
- 또한 ㉵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예 : 가족돌봄, 미혼 부모, 심신장애 등)로 취업 등 자기개발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복지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 연결)(4.15점) ㉲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활성화(4.07점),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지원(4.03점), ㉴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 확대(4.01점)가 해당 정책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반면 ㉵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교류 · 모임 활성화(3.88점)는 상대적으로 필요성 인식이 낮았음.
- 성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여학생 4.31점 〉 남학생 4.24점), ㉰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여학생 4.25점 〉 남학생 -4.21점),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여학생 3.99점 〈 남학생 4.07점), ㉶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예 : 가족돌봄, 미혼 부모, 심신장애 등)로 취업 등 자기개발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복지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 연결)(여학생 4.09점 〈 남학생 4.20점)으로 나타남.

〈표 4-63〉 경북도 내 정착을 위한 정부추진 정책 · 사업 필요성 종합

(단위 : 명, 점)

| 구 분 | | 사례수 | ㉮ | ㉯ | ㉰ | ㉱ | ㉲ | ㉳ | ㉴ | ㉵ | ㉶ | ㉷ | 전체 평균 |
|---|---|---|---|---|---|---|---|---|---|---|---|---|---|
| 전 체 | | 400 | 4.01 | 4.28 | 4.26 | 4.22 | 4.07 | 4.30 | 4.23 | 3.88 | 4.03 | 4.15 | 4.14 |
| 성별 | 남성 | 197 | 4.01 | 4.24 | 4.27 | 4.22 | 4.11 | 4.31 | 4.21 | 3.99 | 4.07 | 4.20 | 4.16 |
| | 여성 | 203 | 4.00 | 4.31 | 4.25 | 4.21 | 4.02 | 4.29 | 4.25 | 3.76 | 3.99 | 4.09 | 4.12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298 | 4.02 | 4.30 | 4.31 | 4.23 | 4.05 | 4.33 | 4.29 | 3.84 | 4.03 | 4.19 | 4.16 |
| | 20대 중반(24~26세) | 80 | 3.98 | 4.23 | 4.11 | 4.19 | 4.15 | 4.23 | 4.09 | 4.00 | 4.04 | 4.01 | 4.10 |
| | 20대 후반(27~29세) | 22 | 3.86 | 4.18 | 4.14 | 4.05 | 3.95 | 4.18 | 3.95 | 3.95 | 3.91 | 4.00 | 4.02 |
| 현 거주지1 | 서울 | 53 | 3.92 | 4.26 | 4.09 | 4.21 | 4.00 | 4.19 | 4.04 | 3.68 | 3.91 | 4.06 | 4.04 |
| | 경기/인천 | 77 | 4.25 | 4.39 | 4.32 | 4.31 | 4.23 | 4.23 | 4.31 | 3.94 | 4.17 | 4.22 | 4.24 |
| | 부산/울산/경남 | 36 | 3.69 | 4.11 | 4.25 | 3.92 | 3.83 | 4.31 | 4.31 | 4.00 | 3.78 | 4.08 | 4.03 |
| | 대구 | 26 | 4.42 | 4.35 | 4.31 | 4.23 | 4.23 | 4.38 | 4.35 | 3.96 | 4.35 | 4.27 | 4.28 |
| | 경북 | 170 | 3.99 | 4.27 | 4.29 | 4.28 | 4.04 | 4.38 | 4.26 | 3.95 | 4.05 | 4.15 | 4.17 |
| | 광주/전라 | 6 | 3.50 | 4.33 | 4.33 | 4.17 | 3.83 | 4.33 | 3.83 | 3.83 | 3.67 | 4.17 | 4.00 |
| | 대전/세종/충청 | 28 | 3.79 | 4.21 | 4.14 | 3.96 | 4.07 | 4.18 | 4.14 | 3.54 | 3.89 | 4.04 | 4.00 |
| | 강원 | 4 | 3.25 | 4.00 | 4.25 | 4.00 | 4.00 | 4.00 | 4.00 | 3.00 | 3.75 | 4.00 | 3.83 |
| 경제활동 유형 | 직장인 | 211 | 4.01 | 4.31 | 4.28 | 4.23 | 4.09 | 4.34 | 4.25 | 3.85 | 4.04 | 4.20 | 4.16 |
| | 개인사업 | 15 | 4.40 | 4.27 | 4.13 | 4.40 | 4.33 | 4.33 | 4.33 | 4.47 | 4.27 | 4.27 | 4.32 |
| | 기타 | 9 | 4.00 | 4.00 | 4.22 | 3.89 | 3.78 | 4.22 | 4.00 | 3.78 | 3.78 | 4.44 | 4.01 |
| | 非경제활동 | 165 | 3.96 | 4.25 | 4.25 | 4.20 | 4.03 | 4.25 | 4.22 | 3.86 | 4.01 | 4.04 | 4.11 |

〈표 4-63〉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 | ㉯ | ㉰ | ㉱ | ㉲ | ㉳ | ㉴ | ㉵ | ㉶ | ㉷ | 전체 평균 |
|---|---|---|---|---|---|---|---|---|---|---|---|---|---|
| 고졸 후 거주지 변화 | 이동없음 | 107 | 3.96 | 4.26 | 4.25 | 4.22 | 4.06 | 4.37 | 4.31 | 3.92 | 4.04 | 4.18 | 4.16 |
| | 경북도내 이동 | 63 | 4.05 | 4.29 | 4.37 | 4.38 | 4.02 | 4.38 | 4.17 | 4.00 | 4.06 | 4.11 | 4.18 |
| | 경북에서 대구 이동 | 26 | 4.42 | 4.35 | 4.31 | 4.23 | 4.23 | 4.38 | 4.35 | 3.96 | 4.35 | 4.27 | 4.28 |
| | 경북에서 대구外 他시도 | 204 | 3.96 | 4.27 | 4.23 | 4.16 | 4.06 | 4.23 | 4.20 | 3.80 | 3.97 | 4.12 | 4.10 |
| 직업계고 계열 | 공업 | 233 | 4.09 | 4.32 | 4.35 | 4.27 | 4.17 | 4.36 | 4.29 | 3.97 | 4.11 | 4.22 | 4.22 |
| | 가사 · 실업 | 69 | 3.77 | 4.22 | 4.16 | 4.10 | 3.84 | 4.22 | 4.19 | 3.83 | 3.94 | 4.17 | 4.04 |
| | 상업 · 정보 | 50 | 3.94 | 4.36 | 4.30 | 4.26 | 4.06 | 4.28 | 4.10 | 3.42 | 3.86 | 3.94 | 4.05 |
| | 농생명 | 23 | 4.13 | 4.13 | 4.04 | 4.04 | 4.09 | 4.30 | 4.22 | 4.04 | 4.17 | 4.26 | 4.14 |
| | 수산 · 해운 | 25 | 3.84 | 4.04 | 3.80 | 4.04 | 3.72 | 4.00 | 4.08 | 3.88 | 3.68 | 3.68 | 3.88 |

가)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 확대
나)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
다)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라)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 워라밸 장려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마)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활성화
바) 자격증 취득 위해 공부실습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생활비/교육비 보조
사)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
아)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교류·모임 활성화
자)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지원
차)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

※ 필요성 :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 2점, '보통' 3점, '약간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의 평균

○ 대체로 모든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도 높게 나타났음.

- 필요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참여의향률도 높은 '정(正)'의 관계
-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위한 정부추진 정책 · 사업 8개 중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것은 ㉲ 자격증 취득 위해 공부 · 실습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생활비 및 교육비 보조로 82.3%의 응답자가 '참여의향 있음'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80.5%), ㉳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79.0%), ㉱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활성화(74.0%) 순으로 정책 참여의향이 높았음.
- 반면 ㉴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교류 · 모임 활성화(60.3%), ㉮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 확대(65.3%), ㉶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69.5%),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지원(69.8%)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참여의향을 나타냈음.
- 따라서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은 제시한 정책 항목을 대체로 모두 필요하다고 여기며 참여의향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64〉 지역 정착위한 경북 정책 · 사업 필요성과 참여의향 종합

(단위 : 점, %)

| 구 분 | 필요성 | 참여의향률 |
|---|---|---|
| ㉮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 확대 | 4.01 | 65.3 |
|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 | 4.28 | 80.5 |
| ㉰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4.26 | |
| ㉱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 워라밸 장려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 4.22 | |
| ㉲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활성화 | 4.07 | 74.0 |
| ㉳ 자격증 취득 위해 공부·실습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생활비/교육비 보조 | 4.30 | 82.3 |
| ㉴ 산업단지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 | 4.23 | 79.0 |
| ㉵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교류 · 모임 활성화 | 3.88 | 60.3 |
| ㉶ 직업계고 졸업 청년 위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지원 | 4.03 | 69.8 |
| ㉷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예 : 가족돌봄, 미혼 부모, 심신장애 등)로 취업 등 자기개발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 (복지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 연결) | 4.15 | 69.5 |
| 전체 평균 | 4.14 | 72.6 |

주 : 필요성 :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 2점, '보통' 3점, '약간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의 평균

〈표 4-65〉 경북도 내 정착위한 정부추진 정책 · 사업 추진시 참여의향 종합

(단위 : 명, %)

| 구 분 | | 사례수 | (가) | (나)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전체 평균 |
|---|---|---|---|---|---|---|---|---|---|---|---|
| 전 체 | | 400 | 65.3 | 80.5 | 74.0 | 82.3 | 79.0 | 60.3 | 69.8 | 69.5 | 72.6 |
| 성별 | 남성 | 197 | 67.0 | 79.2 | 74.6 | 80.2 | 76.6 | 68.0 | 67.5 | 73.6 | 73.4 |
| | 여성 | 203 | 63.5 | 81.8 | 73.4 | 84.2 | 81.3 | 52.7 | 71.9 | 65.5 | 71.8 |
| 연령 | 20대 초반(20~23세) | 298 | 63.8 | 78.9 | 73.2 | 82.9 | 78.2 | 59.7 | 70.8 | 69.8 | 72.1 |
| | 20대 중반(24~26세) | 80 | 70.0 | 82.5 | 76.3 | 81.3 | 82.5 | 65.0 | 68.8 | 67.5 | 74.2 |
| | 20대 후반(27~29세) | 22 | 68.2 | 95.5 | 77.3 | 77.3 | 77.3 | 50.0 | 59.1 | 72.7 | 72.2 |
| 현 거주지1 | 서울 | 53 | 67.9 | 84.9 | 79.2 | 84.9 | 79.2 | 66.0 | 64.2 | 66.0 | 74.1 |
| | 경기/인천 | 77 | 63.6 | 81.8 | 81.8 | 84.4 | 88.3 | 62.3 | 77.9 | 68.8 | 76.1 |
| | 부산/울산/경남 | 36 | 58.3 | 83.3 | 72.2 | 77.8 | 72.2 | 63.9 | 72.2 | 72.2 | 71.5 |
| | 대구 | 26 | 61.5 | 69.2 | 69.2 | 73.1 | 76.9 | 53.8 | 57.7 | 57.7 | 64.9 |
| | 경북 | 170 | 65.3 | 78.2 | 70.0 | 82.4 | 74.7 | 58.2 | 68.8 | 70.0 | 71.0 |
| | 광주/전라 | 6 | 83.3 | 100.0 | 83.3 | 83.3 | 100.0 | 50.0 | 83.3 | 66.7 | 81.3 |
| | 대전/세종/충청 | 28 | 78.6 | 92.9 | 78.6 | 89.3 | 89.3 | 67.9 | 75.0 | 85.7 | 82.1 |
| | 강원 | 4 | 25.0 | 25.0 | 25.0 | 50.0 | 50.0 | 0.0 | 25.0 | 50.0 | 31.3 |
| 경제활동 | 취업 | 235 | 66.0 | 83.0 | 75.3 | 84.7 | 83.4 | 62.1 | 70.6 | 71.5 | 74.6 |
| | 非취업 | 165 | 64.2 | 77.0 | 72.1 | 78.8 | 72.7 | 57.6 | 68.5 | 66.7 | 69.7 |

〈표 4-65〉의 계속

| 구 분 | | 사례수 | (가) | (나)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전체 평균 |
|---|---|---|---|---|---|---|---|---|---|---|---|
| 경제활동 유형 | 직장인 | 211 | 66.8 | 83.9 | 75.8 | 86.3 | 84.8 | 63.0 | 71.1 | 73.5 | 75.7 |
| | 개인사업 | 15 | 66.7 | 86.7 | 80.0 | 80.0 | 73.3 | 60.0 | 80.0 | 60.0 | 73.3 |
| | 기타 | 9 | 44.4 | 55.6 | 55.6 | 55.6 | 66.7 | 44.4 | 44.4 | 44.4 | 51.4 |
| | 非경제활동 | 165 | 64.2 | 77.0 | 72.1 | 78.8 | 72.7 | 57.6 | 68.5 | 66.7 | 69.7 |
| 고졸 후 거주지 변화 | 이동없음 | 107 | 63.6 | 75.7 | 65.4 | 80.4 | 75.7 | 51.4 | 68.2 | 66.4 | 68.3 |
| | 경북도내 이동 | 63 | 68.3 | 82.5 | 77.8 | 85.7 | 73.0 | 69.8 | 69.8 | 76.2 | 75.4 |
| | 경북에서 대구 이동 | 26 | 61.5 | 69.2 | 69.2 | 73.1 | 76.9 | 53.8 | 57.7 | 57.7 | 64.9 |
| | 경북에서 대구 외 타시도 | 204 | 65.7 | 83.8 | 77.9 | 83.3 | 82.8 | 62.7 | 72.1 | 70.6 | 74.9 |

가)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 확대
나)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
마)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활성화
바) 자격증 취득 위해 공부실습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생활비/교육비 보조
사)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
아)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교류·모임 활성화
자)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지원
차)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예 : 가족돌봄, 미혼 부모, 심신장애 등)로 취업 등 자기개발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 (복지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 연결)

○ 세부 집단별로 참여의향의 차이가 약간은 존재하는데

- 성별로 참여의향의 차이가 뚜렷한 편인 정책은 (가)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과 확대(남학생 67% 〉 여학생 63.5%), (아)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교류·모임 활성화(남학생 68% 〉 여학생 52.7%), (차)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로 취업 등 자기개발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남학생 73.6% 〉 여학생 65.5%)에서 성별 선호 차이가 드러남.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에서도 여학생, 남학생 모두 50% 이상의 참여의향을 나타내고 있음.
- 현 거주지가 경북인 청년의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정책은 (바) 자격증 취득 위해 공부, 실습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생활비/교육비 보조(82.4%)이며, 다음 순으로는 (나)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발굴 및 알선(78.2%)으로 나타남.
- 한편, 집단간 응답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비교하였을 때인데,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의향이 비취업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가구 배경이 열악할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을 수 있음. 자격증 취득준비자 경제적 지원,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발굴, 알선, 산업단지 인

근 청년을 위한 주거 환경 마련에 대한 참여의향은 80%를 초과하고 있음.

## 3. 주요 결과 요약

□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과 지역 이탈

○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된 공식 통계인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은 취업이행률이 높은 편이지만(40.5%) 지역 이탈률(관외 취업률 61.8%)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지역 이동) 경북지역의 직업계고에서 2016-2022년도에 졸업한 청년들을 실태조사한 결과에서도 현재 거주지가 경북이 아닌 비중은 전체 표본의 57.5%로 나타남. 취업 청년의 현재 일자리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전체 235명 중 26.4%만이 경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는 5.1%로 대구를 포함하더라도 경북지역 직업계고를 졸업하여 취업한 청년들이 대구/경북지역에 남은 비중은 31.5%에 그침.

- 특히 앞서 대졸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성 청년의 이탈이 남성 청년에 비해 두드러짐. 남성 직업계고 졸업 청년의 33.7%가 경북에 취업한 것에 비해 여성 졸업자의 20.6%만이 경북지역에 남았음. 여성 청년은 과반 이상(51.2%)이 수도권에서 취업한 것을 확인함.
- 하지만  현재 취업 청년과 비취업 청년의 구직시 지역 범위를 조사해 본 결과, 과반 이상이 거주지 인근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현재 경북 거주 중인 직업계고 졸업 청년의 65% 이상은 구직한다면 희망 지역 범위가 경북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별도로 조사한 지역이동 요인 응답치의 경우, 지역이동 청년은 대체로 일자리를 이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즉, 애초에 지역내에서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했다면 다수의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이 잔류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음.

○ (진학) 직업계고 졸업 청년 중 많은 청년이 진학하였는데, 진학한 청년과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은 과반 이상이(55.7%)이 직업과 관련된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에 진학하였고, 이들이 진학한(진학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더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자격증/면허 취득 등 기술을 더 습득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함.

- 비진학 청년의 진학 선택 애로사항은 본인 공부 역량, 노력 자신감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유(등록금, 생활비, 재학기간 중 가족 부양)를 선택하였음.

○ (일자리)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의 구직시 애로사항은 다른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과 희망 조건(고용형태 등 조건 및 근로환경)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남.

- 지역이동과 관련하여 일자리적 요인을 지목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지역에서 객관적 그리고 비임금적 조건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찾는 것의 어려움을 지목하였고, 성별로 두드러지는 차이는 여성 청년의 경우 일자리 양 자체의 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구체적으로, 고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이유로 지역 이동한 여성 청년들의 경우(지역 노동시장 일자리의 임금 및 비임금적 요인을 지목한) 남성 청년과는 달리 '일자리 자체의 충분성(노동 수요)'+전공에 맞는 일자리의 충분성 문제를 지목함, 지역 노동시장에서 직업계열 고교 졸업 여성 청년이 취업할 일자리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정도로 나타나며 특별히 높은 임금을 희망 임금으로 선택하지 않았음(평균 262만원).
- 장기근속하기 위해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은 제시한 선택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요함(평균 4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는데, 해당 조건들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임금 성장형 일자리, 안전한 작업장, 쾌적한 근로환경, 부하직원 존중 문화, 동료 협력 원활한 기업, 주거환경 인접 기업 , 또래 동료 있는 기업, 비전이 있는 회사의 일자리, 성

평등 문화가 있는 기업임. 즉, '주거환경 인접'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조직문화,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일터의 안전/쾌적함과 관련된 요건이 지속 근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정책 수요)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은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정책 전체 개선 필요성 점수 : 평균 4.17/5점).

- 도내 정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별로 대부분에 대해 필요하다(평균 4점 이상, 5점 만점)는 응답을 하였음. 평균 점수 순으로(*전부 4.15/5점 이상) (1)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개선, (2) 쾌적한 거주 환경(예 : 청년 임대아파트 등) 마련, (3) 일자리의 양 증가, (4) 일자리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워라밸 등) 개선, (5)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 훈련 지원, (6)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7) 직업계고 졸업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지원이었음. 또래 집단간 구심점 마련(예 : 청년센터 활성화 등)의 경우 평균 3.86/5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음.
- 정책 수요와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정책/사업 항목에 대해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필요성을 응답하였고, 모든 정책/사업 항목에 대해 참여의향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응답하였음.
- 필요성 인식이 높은 순으로 (1) 자격증 취득 위해 공부/실습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생활비 및 교육비 보조, (2)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 (3)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4)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 (5) 청년고용 지역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 및 워라밸 장려를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6)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예 : 가족 돌봄, 미혼 부모, 심신장애 등)로 취업 등 자기개발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복지 지원 및 연결), (7)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활성화, (8) 직업계고 졸업 청년을 위한 창업교

육, 인큐베이팅 지원, (9)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 확대가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필요성 점수를 받았음. 참여의향도 대체로 비례하여 높게 나타남.

## 제5절 정책 시사점

□ 경북 지역은 청년인구 이탈로 인한 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 청년 인구를 교육수준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대졸 청년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청년 다수가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이슈로 인해 이탈하고 있음.

○ 이들은 일자리를 이유로 이탈할 때 전국 단위의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각지로 이탈하고 있음. 특히 직업계고 졸업 청년의 경우 졸업 이후 특별히 인근 광역시인 대구로 이탈하는 경향보다는 '잔류' 선호가 높지만 지역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구가 아닌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이 특징임.

○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이동 경향이 낮고 그러한 선호가 실태조사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업계고 졸업 청년이 지역 인구로 남게 하는 전략이 청년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적절할 수 있음.

□ 경북의 청년 일자리는 객관적인 측면(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직업계고 청년 한정 실태조사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이 임금 외 근로조건(일터의 안전, 환경, 쾌적함, 조직 문화 등)이 근속, 구직시 매우 중요한 조건임이 확인되고, 정책수요 관련 조사에서도 지역 일자리의 임금 외적 조건들의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비임금적 조건 측면이 타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음.

○ 지역 청년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 일자리의 여러 조건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도입 혹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활용(예 :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기준'보다는 전국 기준에서 볼 때 우수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인력과 연계해주는 노력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자에게 일터, 근로자 처우에 대한 기준치를 재설정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함.

- 지역 청년들은 '지역'에 한정하여 구직하지 않고, 대구가 아닌 수도권, 전국을 단위로 구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실제 청년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 한편, 지역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 발굴, 개발, 연계 지원이 필요함.

○ 대졸자 및 직업계고 졸업 청년집단 모두에서 여성 청년의 이탈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 특히 직업계고 졸업 여성 청년들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보다도 일자리 자체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에 직업계고 졸업 여성 청년도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및 일자리의 연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지역의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이나 일자리 알선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청년 거주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이 유독 강한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거나, 정책 지

원 대상으로서 대졸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점을 반영하는 것이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은 다양한 정책에 대해 강한 수요를 나타냄.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은 일자리의 다양한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풀을 개선하는 다음의 정책들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임.

○ 노동 수요자(기업)에 대한 정책 : 비임금적 조건 개선(조직문화 컨설팅, 일자리 환경 직접 개선, 기업문화 개선, 직무능력 향상과 연계된 임금체계 점검 등)

○ 노동 공급자(청년)에 대한 정책

- 학교 졸업 이후 직업능력 개발 지원 필요 : 지역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지원, 지역 수요에 맞는 자격증 준비자, 기능 습득자 혹은 습득 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교육 지원, 금전적 지원, 전문대학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 노동시장과 미스매치 높은 집단(예 : 여성, 정보/상업계 고교 졸업자)의 전직을 위한 훈련/교육 지원, 직종 및 일자리 발굴 등
- 학습 능력 외적으로 능력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취약성을 가진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 (예 : 미국의 지역 Job Corp 프로그램[4])을 '경북형 JOB Corp'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4) 취약 청년(만 16-24세)에 대한 기숙형 직업교육 기관으로 총 2년에 걸쳐 진로 상담 → 기초 학습 보충 지원(예 : 검정고시나 희망직업교육 이수를 위한 수학, 언어 등 기초 학습능력 지원) → 주요 직종(지역 일자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자격 취득 지원, 취업 준비(이력서 작성, 면접 등) 및 '사회성' 등 직업윤리의식 함양 교육 → 취업 알선, 연계, 혹은 추가 교육 희망자에 대해 다른 교육/훈련 이행 지원(예 : 일/학습 병행, 인턴십, 전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저소득, 홈리스, 보육원 퇴소청년, 중퇴청년, 미혼부모 청년 등을 선발하여 의식주(기숙사 생활) 및 클럽활동, 주기적인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직업훈련 사업임.

제5장

# 경북의 바이오산업 현황 및 고용 정책

## 제1절 경북의 바이오산업 현황

### 1. 바이오산업 개념

○ 바이오산업은 의료산업과 바이오산업이 결합된 형태의 산업으로 산업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임.

- 일반적으로 의료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로 구분됨.
-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산업의 범위가 국가별로 상이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산업을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 이용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함.[5)]
- 2008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은 8개의 대분류와 51개의 중분류로 구성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KS J 1009)를 제정하여 사용 중임.

---

5) 자료 : 바이오타임즈(http://www.biotimes.co.kr)

〈표 5-1〉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 코드 | 산 업 분 류 명 | 영 문 명 |
|---|---|---|
| 1 | 바이오의약산업 | Biopharmaceutical Industry |
| 1010 | 바이오항생제 | Bio-antibiotics |
| 1020 |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 Biologically manufactured low molecular medicine |
| 1030 | 백신 | Vaccines |
| 1040 | 호르몬제 | Hormones |
| 1050 |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 Therapeutic antibodies and cytokines |
| 1060 | 혈액제제 | Blood products |
| 1070 | 세포기반치료제 | Cell-based therapeutics |
| 1080 | 유전자의약품 | Gene therapeutics |
| 1090 | 바이오진단의약품 | Biological diagnostic products |
| 1100 | 효소 및 생균의약품 | Enzyme and live bacteria medicine |
| 1110 | 바이오소재 의약품 | Biomaterial-based medicine |
| 1120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Veterinary biopharmaceuticals |
| 1000 | 기타 바이오의약품 | Other veterinary biopharmaceuticals |
| 2 | 바이오화학 · 에너지산업 | Biochemical and bioenergy industry |
| 2010 | 바이오고분자제품 | Biopolymers |
| 2020 |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 Industrial enzymes and reagents |
| 2030 | 연구 · 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 Enzymes and reagents for research |
| 2040 |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 Biocosmetics and home & personal care chemicals |
| 2050 | 바이오농약 및 비료 | Biological agrochemicals and fertilizers |
| 2060 | 바이오연료 | Biofuel |
| 2000 | 기타 바이오화학·에너지제품 | Other biochemicals and bioenergy |
| 3 | 바이오식품산업 | Biofood Industry |
| 3010 | 건강기능식품 | Functional health foods |
| 3020 |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 Food-grade microorganisms & enzymes |
| 3030 | 식품첨가물 | Food additives |
| 3040 | 발효식품 | Fermented foods |
| 3050 | 사료첨가제 | Feed additives |
| 3000 | 기타 바이오식품 | Other biofoods |
| 4 | 바이오환경산업 | Bioenvironmental Industry |
| 4010 |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 Biological treatment agents and systems |
| 4020 |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 Materials and equipments for bio immobilization |
| 4030 | 환경처리, 자원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 Bioenvironmental agents and systems for treatment and recycle |
| 4040 | 환경오염 측정기구 및 진단, 서비스 | Measuring apparatus and servic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ssessment |
| 4000 |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 Other bioenvironmental products and services |

〈표 5-1〉의 계속

| 코드 | 산 업 분 류 명 | 영 문 명 |
|---|---|---|
| 5 | 바이오의료기기산업 | Biomedical equipment industry |
| 5010 | 바이오센서 | Biosensors |
| 5020 | 체외진단 | In-vitro diagnostics |
| 5030 | 바이오센서/마커 장착 의료기기 | Medical devices using biosensors and/or biomarkers |
| 5000 | 기타 바이오의료기기 | Other biomedical equipment |
| 6 |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 Bioinstrument and bioequipment industry |
| 6010 |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 · 합성 · 생산 기기 | Gene/protein/peptide analysis, synthesis and manufacturing instruments |
| 6020 | 세포 분석 · 배양 장비 | Cell analysis and cultivation equipments |
| 6030 |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 Multi-functional and other bioanalysis instruments |
| 6040 | 연구 및 생산장비 | R&D and manufacturing equipments |
| 6050 | 공정용 부품 | Bioprocess equipment parts |
| 6000 | 기타 바이오장비 및 기기 | Other bioinstruments and bioequipments |
| 7 | 바이오자원산업 | Bioresource industry |
| 7010 | 종자 및 묘목 | Seeds and seedlings |
| 7020 | 유전자변형 생물체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for use as food, feed or processing |
| 7030 | 실험동물 | Other bioresources |
| 7000 | 기타 바이오자원 | Bioservice industry |
| 8 | 바이오서비스산업 | Bioservice industry |
| 8010 | 바이오 위탁생산 · 대행 서비스 | Bio consignment production & procuration services |
| 8020 | 바이오 분석 · 진단 서비스 | Bio diagnostic and analytical service |
| 8030 | 임상 · 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 R&D services |
| 8040 |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 Other R&D services |
| 8050 | 가공 및 처리 · 보관 서비스 | Processing treatment & warehousing services |
| 8000 |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 Other bioservices |

자료 : 한국바이오협회,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재인용

- 최근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산업의 인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을 정의함.
- 업종은 대분류 기준 식료품 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으로 구분함.
- 세세분류로는 12개의 산업이 포함됨.

〈표 5-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 중분류 | 세세분류 코드 | 항목명 |
|---|---|---|
| 식료품 제조업(10)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10801 | 배합 사료 제조업 |
| | 10802 |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에 근거하여 생명공학기술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모집단은 1,281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유효 표본은 모집단의 82.4%에 해당하는 1,055개 기업임.
- 국내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매년 설문을 통해 매출, 종사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가.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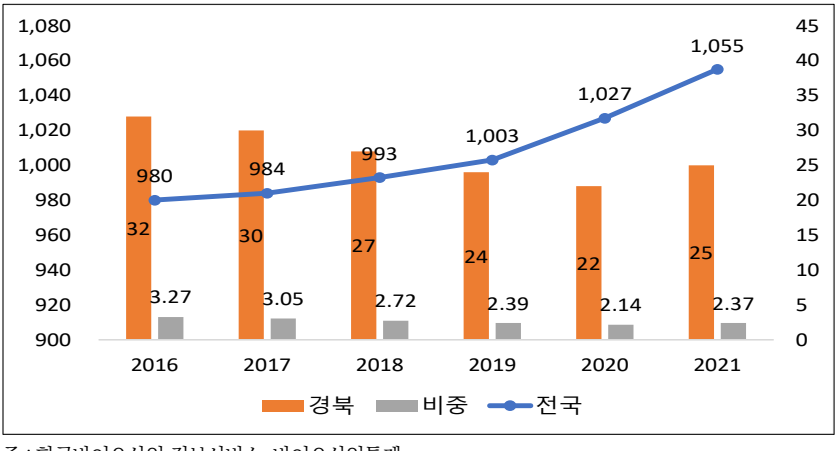
□ 사업체 수

○ 국내의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980개에서 2021년 1,055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북의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32개에서 2021년 25개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전국 대비 비중 또한 2016년 기준 3.27%에서 2021년 2.37%로 축소되었음.

[그림 5-1]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

(단위 : 개, %)




주 : 한국바이오산업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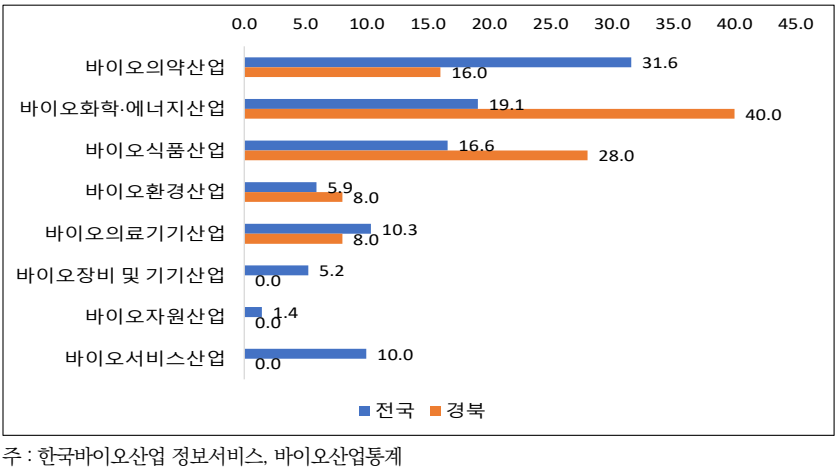
□ 산업분류

○ 전국은 바이오의약산업이 전체의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 경북은 바이오화학 · 에너지산업이 40.0%(10개)로 가장 많고, 바이오식품산업이 28.0%(7개) 순임.

[그림 5-2] 바이오산업 산업분류별 사업체 비중 : 2021년 기준

(단위 : %)




주 : 한국바이오산업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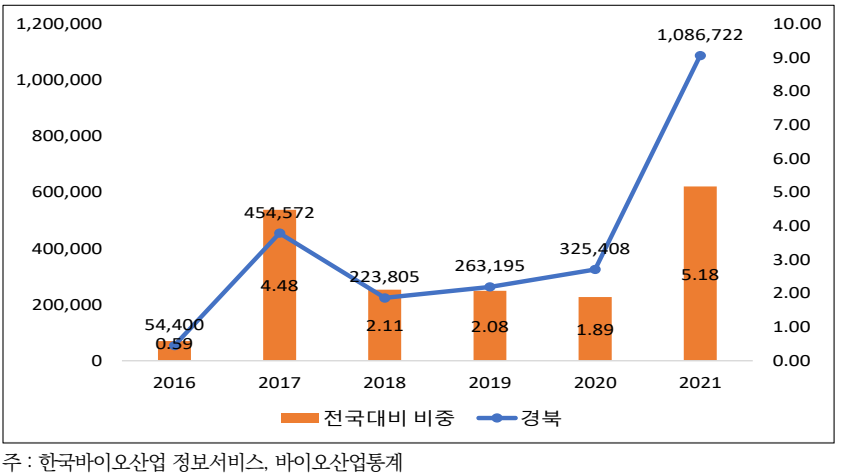
□ 판매액

○ 경북의 바이오산업 판매액은 2016년 544억 원에서 2021년 1조 867억 원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음.

- 전국 대비 1~2%에 불과했던 판매액 규모는 2021년 5.18%까지 증가하여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 경북 바이오산업 판매액 추이 및 전국 대비 비중 변화

(단위 : 백만 원)




주 : 한국바이오산업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통계

□ 투자 규모

○ 바이오산업 기업들의 기업 전체 총 투자비는 2021년 기준 약 6조 9,610억 원 규모이며, 경북의 기업들은 약 1.0%에 해당하는 678억 원 정도로 조사됨.

- 기업당 평균 투자액을 보면, 전국은 평균 약 68억 원 규모이며, 경북은 41.5% 수준에 해당하는 약 28억 원 규모로 조사됨.
- 전체 투자 중 바이오산업 부문에 대한 전국 총 투자액은 약 44.1%에 해당하는 3조 680억 원이지만, 경북은 98.8%에 해당하는 670억 원을 바이오산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바이오산업 부문 연구개발비의 경우 평균 투자액이 경북은 약

23억 원으로 전국 평균인 22억 원보다 많아 투자 규모 대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3〉 바이오산업 투자 현황 : 2021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 기업 전체 투자비 | | 바이오산업 부문 투자비 | | | | | |
|---|---|---|---|---|---|---|---|---|
| | | | | | 연구개발비 | | 시설투자비 | |
| | 총투자액 | 평균 투자액 | 총투자액 | 평균 투자액 | 총투자액 | 평균 투자액 | 총투자액 | 평균 투자액 |
| 전국 | 6,961,058 | 6,805 | 3,067,868 | 2,999 | 2,270,466 | 2,219 | 797,402 | 779 |
| 경북 | 67,826 | 2,826 | 67,012 | 2,792 | 56,050 | 2,335 | 10,962 | 457 |
| (비중) | (1.0) | (41.5) | (2.2) | (93.1) | (2.5) | (105.2) | (1.4) | (58.7) |

주 : 한국바이오산업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통계

## 나. 인력 현황

○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수는 전국 합계 2016년 41,559명에서 2021년 55,618명으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북의 경우 2017년 1,276명을 정점으로 2021년까지 300~4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전국은 약 50~60명 규모인 반면, 경북은 20명 내외로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4〉 바이오산업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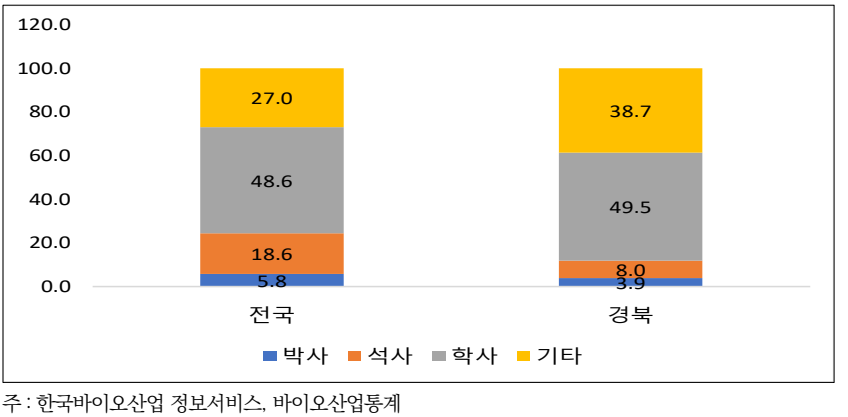
| 구분 | 전체종사자 수 | | 기업당 평균 | |
|---|---|---|---|---|
| | 전국 | 경북 | 전국 | 경북 |
| 2016 | 41,559 | 358 | 57 | 12 |
| 2017 | 44,895 | 1,276 | 58 | 44 |
| 2018 | 46,488 | 805 | 60 | 31 |
| 2019 | 48,683 | 368 | 51 | 18 |
| 2020 | 52,297 | 386 | 53 | 19 |
| 2021 | 55,618 | 463 | 54 | 20 |

□ 학력별

○ 학력별로 보면, 전국에 비해 석박사 등 고학력 인력 비중은 적은 반면, 학사 인력 비중은 유사하며, 저학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4] 바이오산업 종사자 학력별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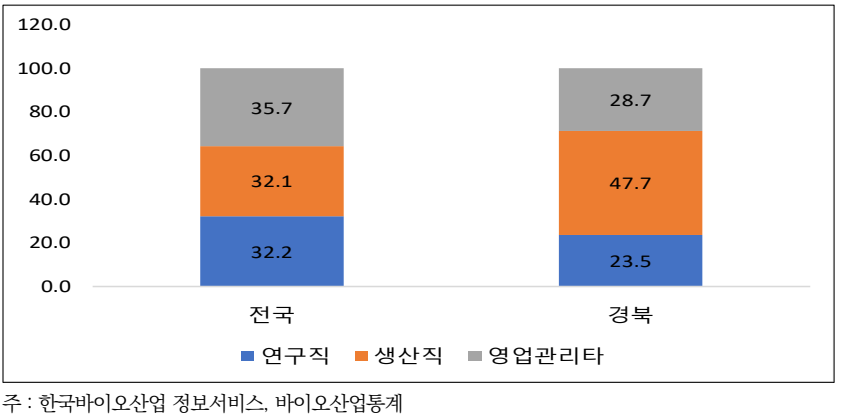

주 : 한국바이오산업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통계

□ 직군별

○ 직군별로 보면, 경북은 전국 평균과는 다르게 생산직이 4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5] 바이오산업 종사자 직군별 비중

(단위 : %)




주 : 한국바이오산업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통계

## 3. 전국사업체조사

○ 최근 바이오산업협회가 제안한 바이오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5-2〉를 활용하여 경북의 바이오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분석함.

### 가. 사업체 수

□ 산업별 사업체 수

○ 경북 바이오산업은 사업체는 2017년 316개에서 2021년 479개로 연평균 11.0% 증가하고 있음(〈표 5-5〉 참조).

- 세세분류 기준으로 보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이 109개사로 가장 많고, 「화장품 제조업」 98개사, 「배합 사료 제조업」 77개사 순임.
-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산업은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으로 연평균 29.1%씩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표 5-5〉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증감률 |
|---|---|---|---|---|---|---|---|
| 바이오산업 | | 316 | 345 | 366 | 464 | 479 | 11.0 |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9 | 14 | 21 | 27 | 25 | 29.1 |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44 | 46 | 48 | 55 | 58 | 7.2 |
| | 배합 사료 제조업 | 46 | 53 | 59 | 72 | 77 | 13.7 |
| |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29 | 37 | 42 | 52 | 54 | 16.8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장품 제조업 | 63 | 75 | 79 | 101 | 98 | 11.7 |
|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2 | 2 | 3 | 3 | 3 | 10.7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90 | 89 | 80 | 104 | 109 | 4.9 |

〈표 5-5〉의 계속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증감률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3 | 3 | 4 | 5 | 8 | 27.8 |
|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7 | 6 | 7 | 8 | 8 | 3.4 |
|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4 | 4 | 4 | 5 | 5 | 5.7 |
|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1 | 1 | 1 | 1 | 1 | 0.0 |
|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18 | 15 | 18 | 31 | 33 | 16.4 |

자료 : 경북통계, 전국사업체조사

□ 조직 형태별

○ 경북의 바이오산업 사업체는 54.3%가 회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38.4%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음(〈표 5-6〉 참조).

〈표 5-6〉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조직 형태 : 2021년 기준

(단위 : 개, %)

| 구분 | | 사업체 수 | 개인 | 회사법인 | 회사이외법인 |
|---|---|---|---|---|---|
| 바이오산업 | | 479 | 38.4 | 54.3 | 7.3 |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25 | 56.0 | 36.0 | 8.0 |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58 | 53.4 | 31.0 | 15.5 |
| | 배합 사료 제조업 | 77 | 26.0 | 53.2 | 20.8 |
| |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54 | 53.7 | 38.9 | 7.4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장품 제조업 | 98 | 40.8 | 58.2 | 1.0 |
|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3 | 33.3 | 66.7 | 0.0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109 | 30.3 | 68.8 | 0.9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8 | 0.0 | 100.0 | 0.0 |
|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8 | 12.5 | 75.0 | 12.5 |
|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5 | 0.0 | 100.0 | 0.0 |
|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1 | 0.0 | 100.0 | 0.0 |
|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33 | 45.5 | 51.5 | 3.0 |

자료 : 경북통계, 전국사업체조사

□ 종사자 규모별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4인의 영세 사업체가 64.9%로 가장 많음.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는 8개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5-7〉 참조).

〈표 5-7〉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 2021년 기준

(단위 : 개, %)

| 구분 | | 사업체 수 | 1~4명 | 5~9명 | 10~99명 | 100~299명 | 300인 이상 |
|---|---|---|---|---|---|---|---|
| 바이오산업 | | 479 | 64.9 | 16.3 | 17.5 | 1.0 | 0.2 |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25 | 76.0 | 16.0 | 8.0 | 0.0 | 0.0 |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58 | 84.5 | 8.6 | 6.9 | 0.0 | 0.0 |
| | 배합 사료 제조업 | 77 | 53.2 | 18.2 | 27.3 | 1.3 | 0.0 |
| |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54 | 79.6 | 14.8 | 5.6 | 0.0 | 0.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장품 제조업 | 98 | 83.7 | 9.2 | 7.1 | 0.0 | 0.0 |
|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3 | 66.7 | 33.3 | 0.0 | 0.0 | 0.0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109 | 47.7 | 22.0 | 29.4 | 0.9 | 0.0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8 | 50.0 | 25.0 | 25.0 | 0.0 | 0.0 |
|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8 | 37.5 | 12.5 | 25.0 | 12.5 | 12.5 |
|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5 | 20.0 | 0.0 | 60.0 | 20.0 | 0.0 |
|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1 | 100.0 | 0.0 | 0.0 | 0.0 | 0.0 |
|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33 | 42.4 | 30.3 | 24.2 | 3.0 | 0.0 |

자료 : 경북통계, 전국사업체조사

## 나. 종사자 수

○ 경북 바이오산업은 사업체 종사자는 2017년 3,687명에서 2021년 4,782명으로 연평균 6.7% 증가함(〈표 5-8〉 참조).

- 세세분류 기준으로 보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가 2021년 기준 1,477명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으로 연평균 107.5% 증가하여 2021년 기준 889명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해 왔음.

〈표 5-8〉 경북 바이오산업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증감률 |
|---|---|---|---|---|---|---|---|
| 바이오산업 | | 3,687 | 4,620 | 4,349 | 4,749 | 4,782 | 6.7 |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44 | 88 | 116 | 100 | 101 | 23.1 |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300 | 256 | 297 | 277 | 254 | -4.1 |
| | 배합 사료 제조업 | 582 | 602 | 654 | 713 | 776 | 7.5 |
| |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56 | 162 | 217 | 154 | 149 | -1.1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화장품 제조업 | 367 | 328 | 354 | 328 | 312 | -4.0 |
|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15 | 7 | 17 | 15 | 9 | -12.0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1,612 | 2,459 | 1,829 | 1,838 | 1,477 | -2.2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69 | 77 | 97 | 114 | 124 | 15.8 |
|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48 | 146 | 465 | 769 | 889 | 107.5 |
|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67 | 297 | 156 | 149 | 180 | -9.4 |
|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5 | 5 | 5 | 4 | 4 | -5.4 |
|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222 | 193 | 142 | 288 | 507 | 22.9 |

자료 : 경북통계, 전국사업체조사

## 4. 기타 바이오산업 인력 특징

○ 한국바이오협회에서는 2022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의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사업체 일반 현황을 비롯해 산업기술인력의 보유 인원, 부족 인원, 구인 및 채용인력 등을 조사함.
- 표본이 150개밖에 되지 않고 특히 경북지역 사업체의 표본은 6개에 불과하지만, 산업의 인력 특성은 확인할 수 있음.

### 가. 산업 인력 수급 현황

○ 2022년 말 기준 바이오산업 인력은 7,717명으로 업체의 약 61.6% 수준임.
- 세부 업종별로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산업)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며, 세세분류 업종으로는 바이오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이 22.0%로 가장 많음.

○ 부족인력은 521명으로 부족률은 6.3% 수준임.
- 세부 업종별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부족인원은 281명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률은 8.1% 수준임.

○ 산업체 규모별로는 30~99인 규모의 종사자가 가장 많음.
- 식료품 제조업은 100~299인의 규모가 47.6%인 반면,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은 30~99인이 42.5%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6.0%로 가장 많음.
- 대부분 업종에서 30~39세가 많은데, 특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서 41.3%로 가장 많음.

○ 성별로는 남성이 59.7%로 여성(40.3%)보다 많음.
- 다만, 세세분류업종 중 화장품 제조업(52.9%)과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51.8%)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40.9%로 가장 많음.
- 경북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경북의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인원은 9명으로 부족률은 7.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임.

○ 바이오산업 인력의 직무별 비중은 연구개발직이 36.8%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기술직과 생산직이 30.3%, 사무관리직이 28.9%로 비중의 차이가 크지는 않음.
- 인력 부족률은 기술직 및 생산직이 6.8%로 가장 높고, 사무관리직 6.5%, 연구개발직 6.3% 수준임.

### 나. 산업 인력 수급 애로사항

○ 구인 사유는 대체로 이직 및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가장 높았음.
- 이는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서도 유사한 응답을 보였음.

○ 부족인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순위가 달랐음.
- 사무관리직은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가 24.6%
- 연구개발직은 해당 직무의 전공자나 경력직이 공급되지 않아서가 25.6%
- 기술(능)직은 경기변동(불황, 호황)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변동해서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 산업 인력 이동 현황

○ 2022년 바이오산업 인력의 퇴사 인력 규모는 849명 수준으로 집계됨.
- 업종별로는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이 390명(45.9%)으로 가장 많음.
- 경북은 37명으로 전체 4.4% 수준이며, 신입(25명)이 경력(12명)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력자 중 절반(6명)은 2022년 입사자로 1년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라. 구인 및 채용 현황

○ 2022년 바이오산업 사업체가 구인 활동을 통해 채용하고자 했던 인력은

1,002명으로 그 중 경력자가 54.3%를 차지함.

- 실제 채용된 인력은 908명으로 구인 인력의 90.6% 수준임.
- 경북은 23명을 구인했는데, 경력자 7명, 신입자 16명으로 신입 비중이 69.6%로 전국 평균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
- 채용은 43명으로 구인 인력의 187% 수준으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짐.
- 채용 인력 43명 중 경력직이 28명으로 65.1%를 차지해 구인과 실제 채용된 인력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2023년 채용 예정 인력은 전국 429명 수준이며, 학사가 5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전공별로는 자연계가 31.0%, 공학계 30.1% 순임.

○ 미충원인력의 발생사유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학력 및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음.

- 연구개발직은 다른 회사들과 치열한 인력확보 경쟁 응답이 타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마. 교육훈련 수요

○ 인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능력 · 성과에 기반한 승진과 보상체계를 통한 동기 유발이 64.0%로 가장 높았음.

○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소요 기간은 학력별로는 고졸 및 전문대졸 이하가 6.31개월, 직군별로는 연구개발직이 4.90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음.

○ 신입사원 필수 교육과정으로는 사무관리직은 바이오산업의 시장 및 기술 동향이 66.0%로 가장 높았음.

- 연구개발직은 시험분석법(실험장비 운영) 교육이 56.7%로 가장 높았음.
- 기술(능)직은 품질 및 생산관리 기술(ISO 등) 교육이 58.7%로 가장 높았음.

○ 내부 직원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4.0%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교육훈련 관련 정보는 기업단체(협회, 조합 등)를 통해서 가장 많이 습득하고 있었음.
- 교육 내용 및 교육 대상자 선정 시 가장 많은 의견이 반영되는 곳은 부서별 관리자가 50.0%로 가장 높았음.
- 외부교육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교육과정 내용이 4.31%, 교육비의 지원 여부 4.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강사에 대한 선호는 현장(실무) 전문가가 80.0%로 가장 높았고,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사례분석 포함)이 52.7%로 가장 높았음.
- 교육훈련의 기업 생산성 및 경쟁성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전체 67.3%로 부정의견 2.7%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음.
- 인력수급 미스매칭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지원 활동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구직자에 대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8.7%, 다양한 재직자 대상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37.3% 순으로 나타남.

## 제2절 경북의 바이오산업 정책

### 1. 경북 바이오산업 정책 현황

□ 바이오산업의 특징

○ 바이오산업은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첨단지식기반 산업임.
- 둘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높은 지식수준의 인력이 필요함.
- 셋째,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나노, 환경 기술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적 응용과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높은 응용잠재력 보유

- 넷째,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차세대 핵심 산업
- 다섯째, 국가나 지역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는 것을 지향함.

○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라이프케어 뷰티산업 육성을 추진 중
- 의약품, 백신 등 신사업 분야 확대 및 화장품산업의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비중을 확대
- 바이오의약과 기능성 화장품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라이프케어뷰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진행 중
- 하지만 지역의 여건상 높은 지식수준의 인력이 부족

○ 북부권의 경우 농업 중심 지역으로 다양한 천연소재 및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국제백신연구소 등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안동지역 유치, 의약품 및 의약품 소재 산업의 육성 중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식품 관련 산업에 치중하고 있어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접근성이 낮은 한계를 보임.

## 2. 경북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사업

### 가. 인력양성 사업 사례

○ 경북의 바이오산업 관련 다수의 사업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업 중 인력양성 관련 사업 3개를 소개하고,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FGI를 통해 도출함.

□ 바이오인력 양성사업

○ 본 사업은 바이오분야 산업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약 174백만 원의 소요 예산은 모두 산업부 예

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북지역 이외의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 바이오의약 및 건강기능식품 공정 분야 기술 인력(GMP[6])과 바이오의약 및 화이트 바이오 연구개발 핵심 인력을 양성함.
- 인력수급조사, 직무정보 개발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역할도 포함되어 있음.
- 2023년에는 215명의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207명(96%) 수료, 140명(68%) 취업 성과를 이룸.

□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연구기관 연계형 R&D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경북지역 그린바이오산업 중심[농 · 식품, HEMP] 기업의 R&D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연구기관 주도의 R&D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사업

- 사업구조는 그린바이오산업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청년 R&D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 지역정착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연구기관 연계형 사업임.

6)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 관리 기준)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규정한 것임.

[그림 5-6]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 구조도

| 그린바이오산업 유망기업 발굴 | 수요자 맞춤형 청년 R&D 전문인력양성 | 청년 지역정착 지원체계 마련 |
|---|---|---|
| 농식품, HEMP 기반 소재의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술 경쟁력 강화 | 제품고급화 R&D심화 교육, 멘토-멘티 컨설팅,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내 핵심인재양성 | 연구기관 보유 공유오피스, 공유랩 활용 R&D 전담 업무 수행(미스매치 최소화), 정착지원금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 |

▼ ▼ ▼

**『연구기관 연계형』 청년 지역정착 유도 및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5-7]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 세부 프로그램 | | 주요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
| 필수 지원 | 인건비 | • 그린바이오 R & BD분야 청년 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 | 월 최대 200만원 (기업부담 20% 포함) |
| 자율 지원 | 청년 직무 및 자기개발비 | • 직무교육·훈련비<br>• 도서구입비<br>• 자기개발비(자격증 취득 등)<br>• 문화활동비 | 최대 50만원(연) |
| | 청년 장착 지원금 | • 주거비용<br>• 통신비(핸드폰, 인터넷)<br>• 대중교통비, 유류비<br>• 생활비(기초생필품, 식비 등) | 월 50만원 이내 (최대 350만원/연) |
| 기타 지원 | R & B D 플랫폼 지원 | • 공유오피스, 공유 랩(공동실험실) 지원<br>• 경북 바이오랩(Bio Open Lab)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지원 | 연회비 지원 |
| | 직무역량 강화교육 | • 제품고급화 R&D심화 맞춤형 교육 | 40시간 이상 |
| | 연구개발 자문 및 컨설팅 | • 멘토-멘티 무료 자문 및 컨설팅<br>• 기술닥터(외부전문가) 활용 애로사항 컨설팅 | 자문비 지원 |
| | 네트워킹 지원 | •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간담회<br>• 우수기업 등 선진지역 견학<br>• 워크숍 심화교육 | 4회 개최 |

자료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부자료

○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린바이오 사업체에서 R&D분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기업부담 20%)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 이 밖에도 자기개발 비용 최대 50만 원(연), 청년 정착 지원금 월 50만 원 이내(최대 350만 원/연) 지원 등 청년 근로자 지원과 연구개발 자문 및 컨설팅 등의 사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지원 규모는 1기 17명 대상 647백만 원(행안부 299, 경북도 348), 2기 10명 대상 275백만 원(행안부 112, 경북도 163)으로 예산 대비 채용 규모는 다소 적은 편임.

□ 2023년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농산물 제품화 과정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화 농·식품 가공 분야 청년 창업자의 경험 부족 해결 및 시행착오 최소화로 고부가 제품의 개발 및 제조 지원체계 마련, 전문기관의 특화된 지원으로 조기 사업화 유도를 위한 제품 개발, 전문연구원의 자문으로 해당 제품의 양산을 추진하는 사업임.

-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중 식품 분야 창업자를 2~3명 선발하여 제품개발부터 양산품 생산까지를 지원함.
- 1 : 1멘토링과 총 16회 이상의 컨설팅을 통해 농식품 시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나. 인력양성 사업 운영 및 개선방안 FGI

□ 인력양성사업 운영 현황

○ 바이오생명산업의 범위가 넓으나 경상북도 북부권은 주로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백신, 햄프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상용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함.

-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는 구성되었으나, 초기 단계로 안

동을 제외한 북부권역은 식품이나 농식품 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안동대, 안동과학대 등의 대학에서 학과개설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인력을 육성 중이나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턴 등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되고 있음.

□ 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

○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분야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당해연도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하지만, 단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업들의 입장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으로 고용된 인력의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근속으로 연계되지 않은 실정임.
- 또한, 기업의 인력수요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발생으로 구인-구직 연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멀티가 가능한 인력)과 청년들이 희망하는 니즈(근로조건, 기업규모 등)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 식품 분야 중심의 기업체 분포로 연구인력보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산인력에 대한 채용이 잘 이루어지는 편임.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중장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없음.

○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과 연계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작아 큰 효과는 없는 실정임.

-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R&D 인력을 도내로 유입하기 위해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을 위한 자기개발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

-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인건비 지원방식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바이오 인력양성사업으로는 농식품공장 개발 과정으로 도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바이오마이스터 학교 밖 교육을 진행 중으로, 바이오마이스터 교육은 기업과-청년의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해 기업니즈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도내 인력이 아닌 전국 단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전국 단위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바이오마이스터 교육은 전국단위로 모집하다 보니 모집률이 높은 편이나 도내 취업인력은 많지 않은 상황임.
- 농식품 개발 과정의 경우 경북 북부권(예천, 문경, 성주, 영주, 안동, 봉화 등) 지역의 창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바이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경우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바이오산업 관련 네트워킹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 간의 네트워크 수준으로 여러 기관이 모여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협의체 등의 조직 구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백신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준비된 기업에서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1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수 있으며, 특히나 단위사업의 경우는 더 심함.

○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부족하며,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해당 인력을 지역내에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한 상황임.

□ 개선 방향

○ 첫째, 단발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및 북부권역 자치단체의 일자리공시제에 바이오산업 중장기 인력양성이 포함되어 단기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플랜하에 장기적인 전문인력 육성 필요
- 경북 북부지역의 면적이 넓은 상황을 고려하여, 북부권역 모두를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단순 인건비 지원이 아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셋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 청년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중장년층임.
- 기존의 일자리사업(인력양성/고용지원장려금/창업지원 등)은 유지하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여야 함.

○ 넷째, 지역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하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보유한 지원기관의 예산 확대를 통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제3절 바이오산업 사업체 FGI

□ 식품산업 : A, B 사업체

○ (산업동향 및 전망) 농산가공품을 국내외에 판매 중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 및 연구 · 개발 중임.

-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경우 산업기반이 약해 영세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곡물, 김치, 흑마늘, 누룽지, 간고등어, 삼계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산업이 발달함.
- 직접적인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등 위탁생산을 하고 있으며, B사업체의 경우 2024년 이후 직접제조를 위해 준비 중임.
- 안동지역이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헴프와 연계한 식품 개발을 통해 메디컬푸드 분야로 성장하길 기대 중임.

○ (기업규모 및 종사자 구조) 식품산업의 특성상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구조임.

- 국외 수출 및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한 수도권에 상주하는 인력과 지역 내에서 연구, 생산/품질 관리 인력이 있는 구조로 운영 중임.
- 연구인력의 경우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협업 또는 지원사업 참여 중임.

○ (인력수급 실태 및 교육훈련 참여 등) 지역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수농식품 우수사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인력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특성상 멀티가 가능한 인력을 희망하나 해당 인력의 채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품질관리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자는 있으나, 품질 관련 경력자는 부재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가

르치면서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보니 경력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채용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기업의 경우 직무능력향상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퇴사율이 낮은 편으로 교육 효과에 만족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교육훈련에 참여시키기에는 생산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존재함.
- R&D 인력 지원사업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참여를 통해 역량강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 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음.

○ (이직 방지 방안 및 인력양성 필요 정책, 중장기 지원 방안 등)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독려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교통 등의 여건 개선이 필요함.

- 인건비 지원사업이 다수 존재하나, 단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원이 끝날 경우 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함.
- 현재 바이오산업단지 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

□ 헴프산업 : C, D 사업체

○ (산업동향 및 전망)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기업들이 단지 내로 입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약 10개사)는 미미한 수준임.

- 다수의 기업들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규제자유특구 내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대마 관련 CBD 아이솔레이트 품목을 연구하면서 규제 등의 문제로 다른 품목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 중임.
- GMP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며, 공정개발 단계로 공장 설립 완료 시 인력채용이 발생될 예정임.

○ (기업규모 및 종사자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특구 내에 입주해 있으나, 안동지역 연구소의 경우는 약 4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인력이 본사에서 내려오는 구조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임.

○ (인력수급 실태 및 교육훈련 참여 등) 인턴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6개월)적인 기간이다 보니 인턴을 구하기도 어렵고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지역 내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으나, 지역 대학 내 학과에서 교육하는 분야와 기업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다름으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상황이며, 생산관리 인력과 연구경험이 있는 인력 채용을 희망하고 있음.
- 다만, 연구인력이라고 해서 석박사 인력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며, 리턴 인력이 있으나 전공이 다르다 보니 적응이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

○ (이직 방지 방안 및 인력양성 필요 정책, 중장기 지원 방안 등) 지역인재 채용보다는 수도권 인력이 본사에서 내려오는 구조다 보니 해당 인력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나,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공통사항

○ (지원정책 경험 유무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바이오산업 채용 박람회, 스타기업 발굴 등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며, 채용직전에 기본 소양교육 등을 통해 해당 인력이 기업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필요함.
-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실태,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고 경북 지역에 필요한 바이오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함.

- 바이오산업은 범위가 넓지만 경북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식품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헴프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토대로 식품과 헴프산업을 중점으로 결론을 도출함.
- 연구 결과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바이오산업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경북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등)이 함께 이끌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업에서 인턴채용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한 단순 채용보다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R&D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인력 육성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기업이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인력관리 및 연구진행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형태

□ 산학연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업 시스템 구축

○ 일부 협의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북지역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해 해당 산업 동향 및 인력, 정부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다만, 네트워킹에서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 주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 단계별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 단기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보다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 대상 5년 이상의 장기적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년 동일한 지원이 아닌 연차별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등의 사업으로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북 북부권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단지역 내 출퇴근 버스 배정을 늘리는 등의 여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과 구직자들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산업 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규제 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규제완화 및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헴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재료비, 임대비, 장비 지원 등 연구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특구내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력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중장기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인력수급 체계 마련이 시급함.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와 지역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상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직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 등을 통해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임.

□ 패키지 형태의 인력양성 지원사업

○ 교육훈련, 연구개발, 청년 인턴십, 고용장려금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인력공급과 기업 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구축

- 헴프산업이나 백신 등 연구 중심의 산업은 기업의 R&D에 학사급 인력을 필수로 매칭하도록 하고, 인턴십 후 정식으로 채용될 경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 구축
- 식품산업의 경우 품질관리 등 식품산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직무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시 기업 실습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실습에 참여한 기업에 채용될 경우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의 패키지 구성

제6장

# 요약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경북지역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북지역 일자리전략 개선방안을 목적으로 수행

○ 경북의 생활경제권은 지역산업 및 노동수급 특성에 기반하여 권역을 구분한 것으로 크게 북부, 남부, 동부, 서부권으로 구분

-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4,6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도입·정착기(2022~23년), 성장·성숙기(2024~25년), 재도약기(2026년)로 구분하여 일자리 창출전략을 수립
- 이러한 전략은 경북도 전체의 일자리 전략의 틀하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접근으로 정책 목표의 구체성 및 정책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평가는 크게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시적 평가와 '경북형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 전략'에 포함된 주요 과제 중 '청년인구 이탈, 인구 고령화 이슈에 대한 현황 및 특이점 분석', '북부지역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이슈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

○ 평가결과와 이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제1절 권역별 일자리 특성 및 고용변화 분석결과와 정책제언

## 1. 고용변동폭의 변화 및 변화요인 분석결과와 시사점

□ (고용변동 분석)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4개 권역(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 고용은 191,629명 증가하였으며, 권역별로는 동부권(66,843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권역별로는 동부권(66,843명), 서부권(46,890명), 남부권(44,361명), 북부권(33,535명) 순으로 고용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경북 전체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9,390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4,463명)임.

○ 경북 동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954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464명)임.

○ 경북 서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7,518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3,958명)임.

○ 경북 남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5,115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885명)임.

○ 경북 북부권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6,803명)이며,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62명)임.

□ (고용변동 요인분석) 2010-2022년 기간 동안의 고용 변화를 유지 사업장, 생성 사업장, 소멸 사업장의 고용 변화로 분해

○ 2010-2022년 기간 동안 경북 전체의 고용 증가(191,629명)는 유지 사업장 55,504명, 생성 사업장 278,501명, 소멸 사업장 -142,627명으로 분해되어 대부분 생성 사업장에서 고용이 창출됨.

○ 대체로 전 산업에 걸쳐 고용 증가에 대한 생성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대체로 전 산업에 걸쳐 고용 감소에 대한 소멸 사업장의 기여율이 유지 사업장의 기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2010-2022년 기간의 전체 고용 변화폭을 분해하는 작업에는 중간에 생성되었다가 소멸된 사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연평균 고용 변화폭을 분해하여 기간 평균 내는 방식으로 기여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여전히 생성 사업장의 고용창출 기여율이 크게 나타남.

□ (고용변화 폭이 큰 산업의 근로자 특성) 경북 전체 기준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는 2022년에 여성(91.0%)과 장년(50-64세, 46.5%)이 많았으며, 입직 시기의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45.1%)인 경우가 가장 많음.

○ 경북의 4개 권역 모두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므로, 해당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모두에서 여성과 장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임금은 1-2백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2. 일자리 증가 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전략의 정합성 평가결과

□ (북부) 일자리 창출 목표의 양적 달성이 용이한 사례이나, 구체적인 대

상 목표를 시니어 민간일자리 및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 경상북도 전체 혹은 북부지역의 시니어 고용은 민간일자리에서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경북 북부지역으로 한정하여도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872)을 중심으로 민간 고용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서비스업(87)의 경우 한 해 1,000명 안팎의 순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경북 전체로 보았을 때 매년 8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일자리는 80-90%가 여성이며, 절반 가까이가 50-64세 장년층이고, 월 200만원(최저임금 풀타임) 이하 소득을 얻는 경우가 60-80%인 경력단절 여성을 상대적인 고령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함.
- 경북 북부 고용증가 10대 산업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병원,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전기업으로 나타났으나 병원의 경우 간호사 등 여성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이 양적으로 많고, 음식점업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의 경우에도 자본이나 기술이 있는 직종보다는 직업 안정성이 낮은 서빙,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질 좋은 청년일자리에 해당하지 않음.
- 전기업의 경우 건설업과 달리 중년보다 청년층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으나, 임금이 100-300만원에 해당함을 볼 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높은 일자리의 비중이 낮아보이며 산업의 규모 자체가 작고 성장성이 제한적인 기초인프라 산업에 해당하여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보기는 힘듦.

○ 북부지역에서 고용창출을 기대할 만한 신산업은 바이오헬스 밸류체인과 관련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임.

- 최근 5년내 고용 순증가(2018-2022년)를 기준으로 경북 북부를 살펴보면, 10위에 의약품 제조업(212)이 차지하고 있으며, 21위에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211), 18위에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이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헬스 중심의 고용성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됨

(노동집약적인 식료품 제조업보다도 고용순증가 폭이 큰 상태임).

- 고령인구가 많은 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초화학물질제조업-의약품제조업-병원-사회복지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
- 다만, 아직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보다도 성장이 부진하므로 제조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남부) 양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 변동성이 큰 자동차부품업 이 외에도 대안적인 산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고용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2018~2022년)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으로, 2017년 15,303명을 정점으로 고용이 정체 혹은 소폭 하락

- 기업통계등록부에서는 2018년 종사자 수 최고점 이후 생산과 고용이 동반 하락 중이므로, 일시적인 고용하락이라기보다는 저이윤 사업체의 구조조정을 동반한 구조적인 고용하락으로 보임.
- 특히, 코로나19 회복기였던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생산량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DB로 확인하였을 때 경북 남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는 2020년 대비 400명 정도 증가에 그쳐 그 크기가 제한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역에는 자동차부품제조에도 많이 활용되는 주물, 금형, 금속가공과 관련한 다른 산업들도 존재하므로 인적자원의 숙련을 활용하기 위한 금속가공 밸류체인을 넓게 잡아 일자리 창출을 다양한 전방산업을 대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고용이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하락한 소분류산업인 것과 대조적으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 공급 · 제어장치 제조업(281)은 고용순증가 10위 산업에 해당하고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또한 고용순증가 18위 산업에 해당함.

- 현재 자동차와 조선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건설업 경기는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이므로 자동차부품이라는 하나의 전방 수요산업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장비(28)와 조선(31), 자동차(30)의 경우 한동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금속가공 밸류체인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필요
- 경북 남부에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의 고용순증가가 32위에 해당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아님을 감안할 때 다른 저부가가치형 일자리에 비해 고용창출의 양적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동부)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가 다양한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양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차전지산업 내에서 8,400명의 증가를 모두 이끌어낼 수는 없으므로 연구개발, 철강, 이차전지 소재, 이차전지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체로 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차전지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고용의 규모 자체가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므로 충분한 일자리가 확대되기는 힘듦.
- 통계기업등록부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산업 전체 고용 규모가 1,000여명인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2022년에 산업 전체 고용 규모가 500명대인 것으로 파악됨.

○ 대기업 본사, 철강, 연구개발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차전지산업과 연관된 밸류체인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본사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용 순증가가 1,729명으로 이차전지산업 전체 피보험자 수의 3배 이상이 본사에서 새롭게 고용이 늘어난 인원과 대등함.
- 타지역과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용 증가폭이 높은 지역으로, 최

근 5년을 기준으로 회사본부의 고용 순증가가 전체 소분류 중 2위, 경비·경호 탐정업의 고용 증가가 5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의 고용 증가가 6위,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고용 증가가 15위, 자연과학연구개발업의 고용 증가가 16위,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 증가가 18위로 매우 높음.

- 이차전지(축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산업은 고용 증가 순위가 27위에 그쳤으며,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경우 경북 남부뿐만 아니라 경북 동부에서도 최근 5년간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211위)으로 확인됨.

□ (서부) 전자산업 내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소분류산업과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소분류산업이 혼재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자리 순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화학제조업과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전자산업의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전략 수정 필요

○ 전자제조업 내 반도체제조업(261)의 경우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분류산업 19위에 해당하지만, 디스플레이나 기판부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제조업(262)은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 하위 7위(197위)이며 가전,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265)은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소분류산업 하위 8위(196위)에 해당함.

- 앞서 2010~2022년을 대상으로 고용변화 폭을 분해한 결과에서도 경북 서부지역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산업은 전자부품제조업(262)이고, 이러한 하락은 사업체의 소멸로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기업통계등록부를 확인해보아도, 경북 서부지역의 전자부품제조업(262)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모두 하락하였으므로 고용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영상 및 음향기기제조업(265)의 경우 2014년 이후 생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어 노동자가 담당하던 일부 공정이 기계로 대체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됨.

- 반도체 제조업(261)에서 고용 증가폭이 나머지 소분류산업의 고용하락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북서부의 경우 전자부품제조업(26) 중분류 전체 고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산업 대신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화학제조업, 금속가공, 기타운송서비스업을 대안으로 제안함.

- 화학제품제조업 내 다양한 소분류에서 고용창출 규모가 큰 편으로,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203)은 고용 순증가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소분류산업이며,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은 13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은 16위에 해당함.
- 경북 내 다른 모든 지역은 최근 5년간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분류산업이 비거주복지시설(872)로 동일하였으나, 서부지역에서는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으로 나타남.
- 해당 산업에서 이처럼 큰 폭의 고용 증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택시 · 음식배달 · 화물차 등 자영업자 및 종사자의 증가는 육상운송서비스업 내 소분류 492 혹은 494 등에 집계되므로 529의 고용 변화와는 관련성이 낮음.
-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의 경우 육상운송지원, 수상운송지원, 항공운송지원, 화물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어디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난 것인지 향후 보완 조사가 필요함.
- 기업통계등록부에서는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의 고용이 2017년 한 해만 높게 나타났다 사라진 것을 볼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와는 다른 고용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화물업의 SUB 혹은 HUB가 경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종사자를 직고용하는지 혹은 인력공급업이나 사업자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도 고용 증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서부지역의 일자리 양적 확대는 타지역에 비해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권역별 양적 달성 목표 가능성과 정책방향

○ (양적 달성 쉬운 편) 경북 북부의 경우 향토기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4년간 3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유한 산업 생산기반이 부족하며 거주생활형 산업과 건설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업 · 수공예 · 지역상권 · 바이오첨단산업 등 어떠한 분야의 향토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 필요
-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비거주복지시설, 거주복지시설, 공공일자리사업)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3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양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청년일자리 확대는 쉽지 않은 목표에 해당함.

○ (양적 달성 검토 필요) 경북 남부의 경우 자동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미래차 전환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일자리 창출 5,8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임.

- 미래차 전환에서 완성차 및 부품기업의 유불리는 통념과는 다르게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자동차부품업에 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5,800명이라는 양적 목표가 높은 편이고 서부에 비해 남부의 자동차부품업체의 1인당 부가가치가 낮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여력이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철강에서 이차전지까지 더 넓은 밸류체인으로 확장할 필요) 경북 동부의 경우 재해방지 기업과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8,400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지역권역 중 가장 높은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동부에 이차전지산업이 이미 큰 규모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새롭게 기업유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에 이르는 후방밸류체인으로 목표 산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재해방지기업의 특성상 외부환경(기후재난, 코로나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코로나19 회복기에는 성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지속성장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산업의 고용 회복 가능성 전면 검토 필요) 경북 서부의 경우 전자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4년간 일자리 창출을 7,800명 목표로 하고 있음.

- 서부에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이 이미 구축된 것은 전자산업 위주 밸류체인인 것은 맞으나, 전국적으로 전자산업 내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등의 고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자산업에서 고용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서부는 지역내 산업기반이 우수한 편이므로, 전자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여력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부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이 이미 존재하므로,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복수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전략을 전후방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진단할 필요

○ (직접일자리 사업) 경상북도 전체에서는 취약계층 및 시니어 일자리창출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직접일자리사업과 민간일자리 창출 목표를 분리하여 설정한다면 적절한 목표일 것으로 보임.

- 특히 북부 일자리창출 목표와 경상북도 전체의 일자리창출 목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고령층의 민간일자리 확대는 경상북도 일자리 사업 계획으로 차별화할 것을 제언함.

## 제2절 경북 청년층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 분석결과와 정책제언

### 1. 청년 일자리 특성

□ 4년제 대졸 취업자의 낮은 일자리

○ 경북 청년층(만 20-34세)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 전문대졸 졸

업자의 지역 평균임금은 타지역에 비해 상위권으로 나타나지만, 대졸 청년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가까움(지역별 고용조사, 2021년 상반기 기준).

- 경북 대졸 청년층의 임금수준은 2021년 상반기 기준 254.8만원으로 전국평균 281.6만원의 90.5% 수준으로 이는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속함(뒤에서 5번째).

□ 상대적으로 긴 근속기간

○ 경북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대 및 청년층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긴 지역으로 나타남(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기준).

- 청년층 및 모든 학력수준별 집단에서 전국대비 높은 편인 평균 근속기간을 나타내고 있음.

## 2. 대졸 청년인구의 유출 특징

□ 분석자료 및 개념

○ 분석자료 : GOMS 2013~2020년 데이터

○ 청년층 지역 이동 : 첫 직장 구직을 위해 졸업한 대학교의 소재지(시/도)로부터 벗어나 취업한 경우 청년이 해당권역으로 이동했다고 정의 즉,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졸업한 대학교의 권역(소재지)과 첫 일자리 권역이 다른 경우를 이동으로 봄.

□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 이동

○ 연도 통합 표본 기준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인천, 충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지역의 지역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도별 데이터로 살펴보더라도 경북은 전 기간 타지역 대비 높은 이탈률을 나타냄.

-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동자 비율을 산출할 경우에 비해, 현재 일자

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을 산출하면, 2013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현 일자리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탈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경북지역 청년들이 첫 일자리 이후에도 지역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4년제 대졸자 비중의 이동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도 통합 표본 기준, 대체로 4년제 졸업자의 이동 비율이 2년제 졸업자의 이동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의 경우, 전문대졸자의 지역이탈률도 높은 편이지만, 대졸자의 이탈률도 매우 높고 두 집단간 이탈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약 12%p).

□ 전공별 이동률

○ 전공 계열별 이동률을 보면 모든 전공계열의 이동률이 높은데, 전국 평균과 격차가 적은 전공은(특수전공을 제외) 공학계열로, 상대적으로는 공학계열 청년들이 지역 이동률이 낮음.

□ 성별 이동률

○ 성별로 졸업대학 소재지 이탈률을 살펴보면, 경북의 특이점이 발견됨.

○ 남성, 여성 모두 경북의 이탈률은 전국대비(경북 제외) 높은 수준이나 전국 평균(경북 제외) 및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 기간, 남성의 이동률이 여성의 이동률보다 높은데 비해, 경북은 반대의 추세를 보임.

- 경북의 경우, 충남에 비해서도 성별 이동 비중 격차가 크면서 여성의 이동 확률이 높아, 여성 대졸자가 대학 졸업 지역을 이탈하는 경향이 타지역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경북과 대구를 구분하지 않고 권역을 단위로 할 경우 대구/경북의 여성 지역이동률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 요약하면 여학생들이 대학은 경북에서 다니지만 많은 비율이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결국 이동한다는 점은 경북의 대졸 여성에게

일자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함.

□ 이동지역

○ 경북지역에서 이탈한 청년들은 대다수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로 이동하였음.

○ 경북지역의 이탈 청년은 타지역의 이탈 청년 대비 취업시 고려한 1순위 요소로 근로시간을 선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이점이 발견됨.

- 경북 선택 비중은 전체적으로는 낮지만, 근무환경, 회사규모를 선택한 비중이 타지역이나 부울경 지역의 이탈 청년보다 높게 나타남.

## 3. 직업계고 청년의 지역정착 및 이탈실태

○ 직업계고 졸업 청년의 경우 졸업 이후 특별히 인근 광역시인 대구로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기보다, '잔류' 선호가 높지만 지역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구가 아닌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이 특징임.

○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이동 경향이 낮고 그러한 선호가 실태조사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업계고 졸업 청년이 지역 인구로 남게 하는 전략이 청년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적절할 수 있음.

○ 또한 직업계고 청년 한정 실태조사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이 임금 외 근로조건(일터의 안전, 환경, 쾌적함, 조직 문화 등)이 근속, 구직시 중요한 조건임이 확인되고, 정책 수요 관련 조사에서도 지역 일자리의 임금 외적 조건의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역 노동시장 일자리의 비임금적 조건 측면이 타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

○ (진학) 직업계고 졸업 청년 중 많은 청년이 진학하였는데, 진학한 청년과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은 과반 이상이(55.7%)이 직업과 관련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에 진학하였고, 이들이 진학한(진학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더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자격증/면허 취득 등 기술

을 더 습득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함.

- 비진학 청년의 진학 선택 애로사항은 본인 공부 역량, 노력 자신감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유(등록금, 생활비, 재학기간 중 가족 부양)를 선택하였음.

○ (일자리)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의 구직시 애로사항은 다른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과 희망 조건(고용형태 등 조건 및 근로환경)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남.

-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정도로 나타나며 특별히 높은 임금을 희망 임금으로 선택하지 않았음(평균 262만원).

○ (정책 수요) 경북지역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은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정책 전체 개선 필요성 점수 : 평균 4.17/5점).

- 도내 정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별로 대부분에 대해 필요하다(평균 4점 이상, 5점 만점)는 응답을 하였음. 평균 점수 순으로(*전부 4.15/5점 이상) (1)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개선, (2) 쾌적한 거주 환경(예 : 청년 임대아파트 등) 마련, (3) 일자리의 양 증가, (4) 일자리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워라밸 등) 개선, (5)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 훈련 지원, (6)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7) 직업계고 졸업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지원이었음. 또래 집단간 구심점 마련(예 : 청년센터 활성화 등)의 경우 평균 3.86/5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음.
- 정책 수요와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정책/사업 항목에 대해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필요성을 응답하였고, 모든 정책/사업 항목에 대해 참여 의향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응답

## 4. 경북 청년(일자리) 정책 제언

□ 일자리 환경 개선

○ 지역 청년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 일자리의 여러 조건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도입 혹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활용(예 :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을 고려할 필요

- 지역 청년들은 '지역'에 한정하여 구직하지 않고, 대구가 아닌 수도권, 전국을 단위로 구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실제 청년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 점검이 필요

□ 지역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 발굴, 개발, 연계 지원

○ 대졸자 및 직업계고 졸업 청년집단 모두에서 여성 청년의 이탈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보다도 일자리 자체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에 직업계고 졸업 여성 청년도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
- 또한 지역의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이나 일자리 알선체계를 강화

□ 청년 거주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은 일자리의 다양한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노동 수요자(기업)에 대한 정책

- 비임금적 조건 개선 : 조직문화 컨설팅, 일자리 환경 직접 개선, 기업문화 개선, 직무능력 향상과 연계된 임금 체계 점검 등

○ 노동 공급자(청년)에 대한 정책

- 학교 졸업 이후 직업능력 개발 지원 필요 : 지역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지원, 지역 수요에 맞는 자격증 준비자, 기능 습득자 혹은 습득 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교육 지원, 금전적 지원, 전문대학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 노동시장과 미스매치 높은 집단(예 : 여성, 정보/상업계 고교 졸업자)의 전직을 위한 훈련/교육 지원, 직종 및 일자리 발굴
- 학습능력 외적으로 능력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취약성을 가진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 (예 : 미국의 지역 Job Corp 프로그램)을 '경북형 JOB Corp'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3절 경북 바이오산업의 고용영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1. 경북 바이오산업 현황

○ 경북 바이오산업은 사업체는 2017년 316개에서 2021년 479개로 연평균 11.0% 증가

-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산업은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으로 연평균 29.1%씩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증가세가 둔화

○ 경북 바이오산업은 사업체 종사자는 2017년 3,687명에서 2021년 4,782명으로 연평균 6.7% 증가함.

- 최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으로 연평균 107.5% 증가하여 2021년 기준 889명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

○ 2022년 말 기준 바이오산업 인력은 7,717명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산업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며, 세세분류 업종으로는 바이오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이 22.0%로 가장 많음.

○ 부족인력은 521명으로 부족률은 6.3% 수준임.

- 세부 업종별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부족인원은 281명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률은 8.1% 수준임.

## 2. 경북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운영실태와 정책시사점

□ 인력양성사업 운영 현황

○ 바이오생명산업의 범위가 넓으나 경상북도 북부권은 주로 그린바이오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백신, 헴프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상용화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함.

○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안동대, 안동과학대 등의 대학에서 학과개설을 통해 바이오산업 인력을 육성 중이나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협약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턴 등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되고 있음.

□ 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

○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분야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당해연도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하지만, 단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업들의 입장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으로 고용된 인력의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근속으로 연계되지 않은 실정
- 또한, 기업의 인력수요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발생으로 구인-구직 연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멀티가 가능한 인력)과 청년들이 희망하는 니즈(근로조건, 기업규모 등)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 식품 분야 중심의 기업체 분포로 연구인력보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산인력에 대한 채용이 잘 이루어지는 편임.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중장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없음.

○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과 연계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작아 큰 효과는 없는 실정임.

-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R&D 인력을 도내로 유입하기 위해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을 위한 자기개발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
-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인건비 지원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바이오 인력양성사업으로는 농식품공장 개발 과정으로 도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바이오마이스터 학교 밖 교육을 진행 중으로, 바이오마이스터 교육의 경우 기업과-청년의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해 기업 니즈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도내 인력이 아닌 전국 단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전국 단위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바이오 마이스터 교육은 전국단위로 모집하다 보니 모집률이 높은 편이나 도내 취업인력은 많지 않은 상황임.
- 농식품 개발과정의 경우 경북 북부권(예천, 문경, 성주, 영주, 안동, 봉화 등) 지역의 창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바이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경우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바이오산업 관련 네트워킹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 간의 네트

워크 수준으로 여러 기관이 모여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협의체 등의 조직 구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백신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준비된 기업에서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1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수 있으며, 특히나 단위사업의 경우는 더 심함.

○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부족하며,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해당 인력을 지역내에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한 상황임.

□ 정책시사점

○ 첫째, 단발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및 북부권역 자치단체의 일자리공시제에 바이오산업 중장기 인력양성이 포함되어 단기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플랜하에 정기적인 전문인력 육성 필요
- 경북 북부지역의 면적이 넓은 상황을 고려하여, 북부권역 모두를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단순 인건비 지원이 아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셋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 청년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이나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중장년층임.
- 기존의 일자리사업(인력양성/고용지원장려금/창업지원 등)은 유지하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함.

○ 넷째, 지역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하며, 기업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보유한 지원기관의 예산 확대를 통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 3. 경북 바이오산업 고용영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바이오산업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경북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등)이 함께 이끌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업에서 인턴채용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한 단순 채용보다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R&D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인력 육성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기업이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인력관리 및 연구진행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형태

□ 산학연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업 시스템 구축

○ 일부 협의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경북지역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해 해당 산업 동향 및 인력, 정부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다만, 네트워킹에서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 주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 단계별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 단기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보다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 대상 5년 이상의 장기적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년 동일한 지원이 아닌 연차별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등의 사업으로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
- 또한, 경북 북부권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단지역 내 출퇴근 버스 배정을 늘리는 등의 여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과 구직자들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산업 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규제 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규제완화 및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헴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재료비, 임대비, 장비 지원 등 연구소 구축 비용 지원을 통해 특구내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력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중장기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인력수급 체계 마련이 시급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와 지역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상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직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 등을 통해 시스

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임.

□ 패키지 형태의 인력양성 지원사업

○ 교육훈련, 연구개발, 청년 인턴십, 고용장려금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인력공급과 기업 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구축

- 헴프산업이나 백신 등 연구 중심의 산업은 기업의 R&D에 학사급 인력을 필수로 매칭하도록 하고, 인턴십 후 정식으로 채용될 경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 구축
- 식품산업의 경우 품질관리 등 식품산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직무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시 기업 실습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실습에 참여한 기업에 채용될 경우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의 패키지 구성

# 참고문헌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2), pp.55~92.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2019),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47~60.

Sjaastad, L. A.(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p.80-93.

Melzer S. M. and Thomas Hinz(2019). "The role of education and educational-occupational mismatches in decisions regarding commuting and interregional migration from eastern to western Germany", *Demographic Research*, 41, pp.461-476.

Schmutz, B., M. Sidibé, & É. Vidal-Naquet, (2021). "Why Are Low-Skilled Workers Less Mobile? The Role of Mobility Costs and Spatial Frictions".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42, pp.283-304.

Wozniak, A.(2010). "Are College Graduates More Responsive to Distant Labor Market Opportun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4), pp.944-970.

Bernard A. and Martin Bell(2018). "Educational selectivity of internal migrants". *Demographic Research* 39, pp.35-854.

Dohmen, T., D. Huffman, J. Schupp, A. Falk, U. Sunde, & G. G. Wagner(2011). "Individual Risk Attitudes: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Behavioral Consequenc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9(3), pp.522-550.

# 부 록

| ID | | | | |
|---|---|---|---|---|

## 경상북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이동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 ㈜월드리서치앤컨설팅** 입니다.

이번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경북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2016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졸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지역 내 '정착' 혹은 '이동' 여부**와 **지역 이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지역 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경북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4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익명성 및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 ~ 8월

| 주관기관 | 수행기관 |
|---|---|
| KLI 한국노동연구원 | WR WORLD INC. ㈜월드리서치&컨설팅 |

### SQ. 응답자 선정을 위한 질문

| | | |
|---|---|---|
| SQ1. 출신 고교명 | 【보기카드 - 1】의 해당학교 번호 기록 [ ][ ]<br>【보기카드 - 1】에 없는 경우 직접 기록해 주세요. _____ | |
| SQ2. 고교 졸업년도 | ◉ 2015년 이전 ▶[면접 중단]<br>① 2016년 2월 ② 2017년 2월 ③ 2018년 2월 ④ 2019년 2월<br>⑤ 2020년 2월 ⑥ 2021년 2월 ⑦ 2022년 2월 ⑧ 2023년 2월 | |
| SQ3. 군 복무 현황 | ① 군 복무 중 | ▶[면접 중단] |
| | ② 일반병으로 전역 ⑥ 입대 예정<br>③ 특기병으로 전역 ⑦ 군대 면제<br>④ 전문부사관으로 전역 ⑧ 해당사항 없음<br>⑤ 장교로 전역 | ▶[DQ1 이동] |

## A. 통계분석을 위한 기본 정보

| | |
|---|---|
| DQ1. 성 별 | ① 남성 ② 여성 |
| DQ2. 출생년도 | □□□□ 년 |
| DQ3. 현재 거주지 | ※ 만약 거주지가 2곳(예-주말/평일 다른 거주지)이면, 현재 실제 거주지 (기숙사 포함)로 적어주세요.<br>광역시도: (광역시도 번호를 적어 주세요) (예) ③ 대구<br>시/군/구: (직접 적어 주세요) (예) 수성구<br>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 DQ4. 혼인상태 | ① 배우자 있는 기혼자 [▶ AQ1A, AQ1C 이동]<br>② 배우자 없는 기혼자(이혼, 사별 등) [▶ AQ1A, AQ1C 이동]<br>③ 미혼자 [▶ AQ2B, AQ2C 이동] |

| | | |
|---|---|---|
| AQ1A. 자녀 유무 | ① 자녀 있다 ▶ □□ 명 | [▶ DQ5 이동] |
| | ② 자녀 없다 | [▶ AQ1C 이동] |
| AQ1C.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 ① 있다 ② 없다 |

⇒ 응답 후 DQ5로 이동

| | | |
|---|---|---|
| AQ2B. 향후 결혼 의향 | ① 있다 [▶AQ2C 이동] | ② 없다 [▶DQ5 이동] |
| AQ2C.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 ① 있다 ② 없다 |

⇒ 응답 후 DQ5로 이동

▣ 아래 사항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 | |
|---|---|
| DQ5. 고교 재학시 거주지 | ※ 본인과 가족이 거주했던 지역이 각기 다르다면, 본인 거주지(기숙사 포함)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br>※ 이사로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br>광역시도: (광역시도 번호를 적어 주세요) (예) ⑮ 경북<br>시/군/구: (직접 적어 주세요) (예) 포항시<br>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 | |
|---|---|
| DQ6.<br>고교 재학시<br>가구소득 | ※ 고등학교 3학년 당시 가구소득 수준(세후 소득 기준)<br>① 연 3,000만원 미만 ② 연 3,000 ~ 5,000만원 미만<br>③ 연 5,000 ~ 7,000만원 미만 ④ 연 7,000만원 이상 |
| DQ7.<br>고교 재학시<br>부모님 학력 | ※ 고등학교 재학 당시 부모님 교육수준<br>(부모님 중 교육수준이 높은 분 기준)<br>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br>④ 대졸 ⑤ 대학원 졸 이상 ⑥ 부모님 안계셨음 |

## B. 교육 경력

### 1 고교 재학시 전공,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 참여경험

**문01. 고교 재학시절 "전공학과"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고교<br>전공학과 | 【보기카드-2】의 전공과목 번호 기록 [ ][ ]<br>【보기카드-2】에 없는 경우 직접 기록해 주세요. _____ |

**문02. 고교 재학시절 동안 현장실습, 교육 및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고교 재학 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명〉 | 교육 이수 경험 | |
|---|---|---|
| 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시하는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 ① 있음 | ② 없음 |
| 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 | ① 있음 | ② 없음 |
| 다. 중소기업 등 기업 탐방 프로그램 | ① 있음 | ② 없음 |
| 라.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 ① 있음 | ② 없음 |

### 2 대학교육 현황

**문03. 귀하는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셨습니까?**

① 대학에 진학하였음 [▶ **문4A, 문4B, 문4C, 문4D, 문4E, 문4F 이동**]
→ **응답 후 [문6 이동]**

②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음 [▶ **문5A, 문5B, 문5C 이동**]

**문4A. 대학 입학연도** [ ][ ][ ][ ] 년

**문4B. 입학한 대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일반대학 ③ 학점은행제 대학
④ 폴리텍대학 ⑤ 외국 대학 ⑥ 기타(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문4C. 대학에서 어느 계열로 입학하셨습니까?

※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분류 자료집」을 참조하여 재분류

① 인문계열(언어, 문학, 문헌, 역사, 철학, 심리, 문화, 종교 등)
② 사회계열(법, 정치·외교, 사회·도시, 행정, 언론·방송, 관광, 복지 등)
③ 경상계열(경영·경제·금융·회계·세무·통상·광고 등)
④ 교육계열
⑤ 자연계열(농수산, 산림·원예, 물리·지구·생물·화학·환경 수학·통계, 식품, 의류·의상 등)
⑥ 의약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보건·재활·의료공학 등)
⑦ 공학·기술계열
⑧ 예·체능 및 디자인계열
⑨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4D. 귀하는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까?

| | | | |
|---|---|---|---|
| ① 현재 재학 중 | ② 현재 휴학 중 | ③ 중퇴 | [▶문4F 이동] |
| ④ 졸업 | | | [▶문4E 이동] |

문4E. 대학 졸업연도 [ ][ ][ ][ ] 년

문4F. 귀하가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② 특정 자격(면허 등)을 얻거나, 이론·기술을 더 익히기 위해
③ 직장 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④ 시간을 갖고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⑤ 부모님의 기대에 따르기 위해서
⑥ 남들이 다 가니까
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5A.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면, 진학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대학에 진학할 의향 있다 [▶ 문5B 및 문5C 응답 후 문6 이동]
② 의향 없다 [▶ 문5C 이동 → 응답 후 문6 이동]

문5B.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② 특정 자격(면허 등)을 얻거나, 이론·기술을 더 익히기 위해
③ 직장 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④ 시간을 갖고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⑤ 부모님의 기대에 따르기 위해서
⑥ 남들이 다 가니까
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5C. (문5A "의향 있음")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문5C. (문5A "의향 없음")

만약 대학 진학을 고민하게 된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학업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할 자신감 부족
② 대학 등록금 마련 방안
③ 대학 다니는 동안 본인 생활비 마련 방안
④ 대학 다니는 동안 부양가족의 생활비 마련 방안
⑤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일자리 마련의 불확실성
⑥ 학업과 다른 활동(알바 등)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
⑦ 가까운 지역에 적당한 대학이 없다는 점
⑧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⑨ 특별히 고민되는 어려움 없다
⑩ 이미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얻어서 추가적인 교육은 당장에 필요치 않음

## C. 경제활동상태

### 1 경제활동 상태

문06. 귀하는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
|---|---|
| ① 현재 '취업 중' 혹은 '경제활동 중'(창업, 프리랜서 활동 포함) | [▶ 문7A 이동] |
| ②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 문13 이동] |

### 2 경제활동 참가자(취업자)

▣ 아래 질문은 귀하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7A.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근로자)으로 일하고 있다

문7B.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문7D 이동]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② 내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영업/프리랜서)을 하고 있다

문7C. 현재 직원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 문7D 이동]
①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② 고용한 직원 없다

③ 기타(무급가족종사자 등)

[▶ 문7D 이동]

| | |
|---|---|
| 문7D.<br>현 직장 업종 | 【보기카드 - 3】 참조 |
| 문7E.<br>현 일자리 직종 | 【보기카드 - 4】 참조 |
| 문7F.<br>현 직장 입사년도 | □□□□ 년 □□ 월<br>※ 창업의 경우, 창업년도를 적어 주세요. |
| 문7G.<br>현 직장 위치 | 광역시도: (광역시도 번호를 적어 주세요) (예) ③ 대구<br>시/군/구: (직접 적어 주세요) (예) 중구<br>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br>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 문7H.<br>주당 근로시간 | 주당 평균 □□ 시간 |
| 문7I.<br>월평균<br>근로소득 | 월평균 □□□□ 만원 (※ 세후 소득 기준)<br>※ 2023년 상반기(1~5월)를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br>※ 자영업의 경우,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

문7J. 현 직장 내 총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1 ~ 4명 ② 5 ~ 9명 ③ 10 ~ 29명 ④ 30 ~ 99명
⑤ 100 ~ 299명 ⑥ 300 ~ 499명 ⑦ 500명 이상

문08. 현 직장을 구할 당시,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광역시도 | 시/군/구 |
|---|---|
| (광역시도 번호를 적어 주세요) (예) ⑮ 경북 | (직접 적어 주세요) (예) 안동시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 |
|---|---|
| ☞ 경상북도 거주자 | [▶ 문9-1 이동] |
| ☞ 경상북도 이외 지역 거주자<br>※ '대구'는 경북 이외 지역 거주자입니다. | [▶ 문9-2 이동] |

| 문9-1. 현 직장을 구할 당시, 구직을 희망했던 1순위 지역은 다음 중 어디였습니까? | 문9-2. 현 직장을 구할 당시, 구직을 희망했던 1순위 지역은 다음 중 어디였습니까? |
|---|---|
| ① 당시 거주하던 지역(시·군·구)<br>② 당시 거주하는 지역(시·군·구)과 경북도내 인근 지역<br>③ 경북도내 지역이면 모두 가능<br>④ 경북도내 지역과 대구<br>⑤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음 | ① 당시 거주하던 지역(시·군·구)<br>② 당시 거주하던 지역(시·군·구)과 같은 광역시·도내 인근 지역<br>③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음 |

문10. 다음은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현 일자리를 구할 때,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직 중 어려웠던 점 |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 대체로 심각하지 않았다 | 보통 | 대체로 심각한 편 | 매우 심각했다 |
|---|---|---|---|---|---|
| 가) 임금, 근로시간, 정규직 일자리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교육·훈련 제공 등)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다른 활동(육아, 교육·훈련 이수 등)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라) 전공계열과 일치하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직하기에는 나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숙련수준 등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1. 현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① 고등학교/교육청 취업지원 서비스 (선생님 도움도 포함)
② 대학교의 취업지원 서비스
③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고용서비스나 직업알선 서비스 (고용센터, 워크넷 등)
④ 사설 직업 알선 기관이나 학원
⑤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
⑥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구직 사이트
⑦ 인턴십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기업에 취업
⑧ 기타

문12. 현 직장에 대해 아래의 각 항목별로 평가해 주십시오.
※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께서도 본인의 전반적인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직장 평가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가) 주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나) 내 전공계열과 일치도가 높은 직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현장에서 교육 ·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은 직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라) 회사가 비전이 있어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 계속 근무하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바) 작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사) 근로환경(근무장소, 휴게실, 화장실 등)이 쾌적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가 있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 직장동료와 협력이 원활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차) 부하직원을 존중해주는 상사 및 상사와 협력관계가 원활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카) 성비가 균등하고,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워라벨)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파)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응답 후 [▶문20 이동]

문13. 귀하는 지난 한달동안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① 구직활동을 하였다 [▶ 문14A, 문14B, 문15 이동]
② 하지 않았다 [▶ 문16 이동]

## 3 구직활동 참가자

문14A. ※ DQ3에서 현재 경북 도내 거주자

귀하가 구직을 희망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1순위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군·구)
②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군·구)과 경북도내 인근 지역
③ 경북 도내 지역이면 모두 가능
④ 경북 도내 지역과 대구
⑤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지 않음

문14B. ※ DQ3에서 현재 경북도 이외 거주자

귀하가 구직을 희망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1순위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군·구)
② 현재 거주하던 지역(사·군)과 같은 광역사·도내 인근 지역
③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음

문15.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 애로사항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구직 중 어려웠던 점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대체로 심각하지 않은 편 | 보통 | 대체로 심각한 편 | 매우 심각하다 |
|---|---|---|---|---|---|
| 가) 임금, 근로시간, 정규직 일자리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교육훈련 제공 등)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다른 활동(육아, 교육훈련 이수 등)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라) 전공계열과 일치하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직하기에는 나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숙련수준 등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응답 후 [▶문20 이동]

## 4 경제활동 비참가자

문16. 귀하가 지난 한달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① '재학 중'이어서 / '복학 예정'이어서
② 진학이나 각종 시험준비 중
③ 사업 준비 중
④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 대기 상태
⑤ 군 입대 예정이어서
⑥ 결혼 · 육아나 가사로 인하여
⑦ 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 의욕을 상실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기타

문17. 귀하는 향후 구직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문18 이동]　　② 없다 [▶문20 이동]

문18A. ※ DQ3에서 현재 경북 도내 거주자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구직을 희망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1순위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군·구)
②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군·구)과 경북도내 인근 지역
③ 경북 도내 지역이면 모두 가능
④ 경북 도내 지역과 대구
⑤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지 않음

문18B. ※ DQ3에서 현재 경북도 이외 거주자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구직을 희망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1순위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군·구)
② 현재 거주하던 지역(시·군)과 같은 광역시·도내 인근 지역
③ 특별히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음

문19.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애로사항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구직 활동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 | 별로 심각하지 않을 것 | 보통 | 약간 심각할 것 | 매우 심각할 것 |
|---|---|---|---|---|---|
| 가) 임금, 근로시간, 정규직 일자리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교육·훈련 제공 등)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다른 활동(육아, 교육·훈련 이수 등)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라) 전공계열과 일치되는 일자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직하기에는 나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숙련수준 등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이전 경제활동(일, 취업 등) 경험

문20. (문6의 ① 현재 취업자) 현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 경험이 있습니까?
(문6의 ② 실업자/비경제활동자) 이전에 '취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다른 직장 경험있다 [▶ 문21A 이동] ② 없다 [▶ 문24 이동]

문21A.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①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근로자)으로 일했다

문21B. 당시 고용형태는 어떠했습니까? [▶문21D 이동]
①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②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② 내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영업/프리랜서)을 했었다

문21C. 당시 직원을 고용하셨습니까? [▶문21D 이동]
① 직원을 고용했었다
② 고용한 직원 없었다

③ 기타(무급가족종사자 등)

[▶문21D 이동]

| | |
|---|---|
| 문21D. 직전/이전 직장 업종 | 【보기카드 - 3】 참조 |
| 문21E. 직전/이전 일자리 직종 | 【보기카드 - 4】 참조 |
| 문21F. 직전/이전 일자리 근무기간 |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 문21G. 직전/이전 직장의 총 직원수 | ① 1 ~ 4명 ② 5 ~ 9명 ③ 10 ~ 29명 ④ 30 ~ 99명 ⑤ 100 ~ 299명 ⑥ 300 ~ 499명 ⑦ 500명 이상 |

**문22. 직전/이전 직장/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① 고등학교/교육청 취업지원 서비스 (선생님 도움도 포함)
② 대학교의 취업지원 서비스
③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고용서비스나 직업알선 서비스 (고용센터, 워크넷 등)
④ 사설 직업 알선 기관이나 학원
⑤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
⑥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구직 사이트
⑦ 인턴십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기업에 취업
⑧ 기타

**문23. 직전/이전 직장/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제도, 고용형태 등) 불만족
② 열악한 근로환경(작업장 안전성 문제 등)
③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이 어려워서
④ 계속 다녀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님
⑤ 직장내 인간관계(동료/상사), 괴롭힘, 상사의 권위적인 태도 등 문제
⑥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의 부재
⑦ 내가 사는 곳(살고 싶은 곳)과 너무 멀었음
⑧ 진학/자격증 취득 등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
⑨ 개인적 심신장애
⑩ 군 입대를 위해서
⑪ 가족적 이유(육아, 가사, 가족 돌봄 등 포함)
⑫ 직장의 휴업 · 폐업, 정리해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회사의 사업부진
⑬ 기타

## 6 희망 일자리의 특성

**문24. 귀하가 희망하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주 40시간보다 적게　　② 주 40시간 정도　　③ 주 40시간보다 많게

**문25. 취업을 고려할 때, 임금 수준이 최소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평균 최소 [ ][ ][ ][ ] 만원 이상

문26. 임금근로자로 취업한다면, 다음의 요인들이 장기근속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기근속을 위한 직장 평가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대체로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가) 주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나) 내 전공계열과 일치도가 높은 직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현장에서 교육 ·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은 직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라) 회사가 비전이 있어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 계속 근무하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바) 작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사) 근로환경(근무장소, 휴게실, 화장실 등)이 쾌적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가 있는 직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 직장동료와 협력이 원활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차) 부하직원을 존중해주는 상사 및 상사와 협력관계가 원활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카) 성비가 균등하고,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워라벨)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파)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D. 지역 이동

문27. 고교 졸업 이후, 귀하의 거주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용을 잘 읽고 응답해 주세요.

| | |
|---|---|
| ① 이동 없었음 (※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동한 경우도 포함) | [▶문28A 이동] |
| ② 경북 도내 '타 시·군·구'로 이동<br>(※ 고교 시절 이후 도내 타 시·군·구로 이동)<br>③ 경북에서 '대구'로 이동<br>④ 경북에서 '대구 외 다른 광역시도'로 이동<br>⑤ '대구'에서 '경북도'로 이동<br>※ 고교시절 타 광역시도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경북 도내 시·군·구에 거주<br>⑥ '대구 외 다른 광역시도'에서 '경북도'로 이동<br>※ 고교시절 '대구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경북 도내 시·군·구에 거주 | [▶문29A 이동] |

문28A. 고교 졸업 이후에도 지역 이동없이 계속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① 일자리 때문에 [▶문28B 이동]
② 가족 때문에 / 결혼 때문에 [▶문30A 및 문30B 이동]
③ 대학교육/학원수강 등 학업 때문에 [▶문30A 및 문30B 이동]
④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때문에 [▶문28C 이동]
⑤ 부모님 일이나 가업을 잇기 위해 [▶문30A 및 문30B 이동]
⑥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30A 및 문30B 이동]

문28B. 고교 졸업 이후에도 '지역 이동없이' 남아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결정하셨을 때, 일자리와 관련해 우선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

→ 응답 후 문30A 혹은 문30B 이동

① '일자리' 자체가 충분히 있는가 여부
②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의 '조건'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③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워라벨 등)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④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들'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⑤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문28C. 고교 졸업 이후에도 '지역 이동없이' 남고자 결정하셨을 때,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해 우선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 응답 후 문30A 혹은 문30B 이동

① 저렴한 주거비 및 생활비
② 쾌적한 주거 환경
③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또래 집단의 존재
④ 문화, 유흥 및 여가 환경
⑤ 자녀양육 여건
⑥ 일터/학교/학원과의 근접성
⑦ 지역의 (청년) 정착지원 정책

문29A. 고교 졸업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① 일자리 때문에 [▶문29B 이동]
② 가족 때문에 / 결혼 때문에 [▶문30A 및 문30B 이동]
③ 대학교육/학원수강 등 학업 때문에 [▶문30A 및 문30B 이동]
④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때문에 [▶문29C 이동]
⑤ 부모님 일이나 가업을 잇기 위해 [▶문30A 및 문30B 이동]
⑥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문30A 및 문30B 이동]

문29B. 고교 졸업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직활동을 하고자 결정하셨을 때, 일자리와 관련해 우선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

→ 응답 후 문30A 혹은 문30B 이동

① '일자리' 자체가 충분히 있는가 여부
②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의 '조건'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③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워라벨 등)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④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동료들'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⑤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가 여부

문29C. 고교 졸업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결정하셨을 때, 거주환경(생활환경)과 관련해 우선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 응답 후 문30A 혹은 문30B 이동

① 저렴한 주거비 및 생활비
② 쾌적한 주거 환경
③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또래 집단의 존재
④ 문화, 유흥 및 여가 환경
⑤ 자녀양육 여건
⑥ 일터/학교/학원과의 근접성
⑦ 지역의 (청년) 정착지원 정책

## E. 정책 수요

### 1 청년들의 경북 도내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문30A. ※ DQ3에서 현재 경북 도내 거주자
"청년들이 경북에 계속 거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개선이 필요한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청년들의 경북 도내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 전혀 개선할 필요없음 | 별로 개선할 필요없음 | 보통 | 약간 개선해야 함 | 적극 개선해야 함 |
|---|---|---|---|---|---|
| 가) 일자리의 양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나)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개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일자리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등) 개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라) 또래 집단간 친목,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마련 (예 : 청년센터 활성화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예 : 청년층 임대 아파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바)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사)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아) 직업계고 졸업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응답 후 [▶문31과 문32 이동]

문30B. ※ DQ3에서 현재 경북도 이외 거주자
경북에 있을 당시를 생각해볼 때, 귀하 또는 또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경북에 거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개선이 필요한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청년들의 경북 도내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 전혀 개선할 필요없음 | 별로 개선할 필요없음 | 보통 | 약간 개선해야 함 | 적극 개선해야 함 |
|---|---|---|---|---|---|
| 가) 일자리의 양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나)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개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일자리의 다른 조건(기업문화, 일터환경 등) 개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라) 또래 집단간 친목,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마련 (예 : 청년센터 활성화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 쾌적한 거주환경 마련(예 : 청년층 임대 아파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바)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사)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아) 직업계고 졸업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응답 후 [▶문31과 문32 이동]

## 2 청년들의 경북 도내 정착을 위한 정책 수요

문31.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음의 정책·사업들이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2. 그리고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된다면, 귀하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부 추진 정책·사업 | 문31. 정책·사업 필요성 | | | | | 문32. 참여의향 | |
|---|---|---|---|---|---|---|---|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별로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약간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있다 | 없다 |
| 가) 취업 약정 계약학과 공급 확대<br>※ 계약학과 : 전문대학, 교육비 없음, 선발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 나)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 발굴 및 취업 알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 다)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예 : 일터환경, 화장실, 휴게공간의 개선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라) 청년고용 지역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 워라밸 장려를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사장님, 인사팀 교육 및 지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마)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활성화<br>※ 최대 4년간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정 시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여 역량을 축적하는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 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실습하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생활비나 교육비 보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 사)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마련 및 공급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 아)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교류·모임 활성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 자) 직업계고 졸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 차) 개인 및 가족적인 이유(예 : 가족돌봄, 미혼 부모, 심신장애 등)로 취업 등 자기개발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 (복지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 연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층의 지역이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LI 한국노동연구원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
|---|---|
| ▪ 발행연월일 | 2023년 12월 26일 인쇄<br>2023년 12월 29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br>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260-0731-8 (비매품)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93330
9 791126 007318
ISBN 979-11-260-0731-8